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9-55-01
연구보고 2019-26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Ⅰ)

: 육아문화 분석과 과제

권미경·문무경·김영민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9-55-01
연구보고 2019-26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Ⅰ)

: 육아문화 분석과 과제

연구책임자 **권 미 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문 무 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 영 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협력연구기관 **서 울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S B S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9-26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Ⅰ): 육아문화 분석과 과제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세일포커스 02) 2275-6894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90485-26-5 9359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Ⅰ) : 육아문화 분석과 과제”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9-55-0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Ⅰ) : 육아문화 분석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 기관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 연구위원(총괄책임자)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김영민 연구원
협력연구 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강이 교수	이재림 교수 김은경 연구원
	SBS	성영준 국장	장석빈 PD 김태현 차장

머리말

본 과제의 출발은 한국의 육아와 관련한 문화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어 저출산 기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는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비롯되었다.

'아이를 기르는 일', '육아(育兒)'를 중심으로 직장과 가정, 지역사회 내에 형성된 우리 사회의 육아문화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진단 분석하여 도출된 부정적 요소를 줄여감으로써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문화 조성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SBS와 협동기관과의 협력으로 추진하는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를 3개년의 협동연구로 기획하였다.

1차년도에는 SBS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 현재의 육아문화를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의 운영 등의 방법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육아문화를 진단 분석하고 육아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육아 관련 직장문화 분석을 토대로 일터를 중심으로 아동과 부모가 존중받는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전환을 모색할 것이다. 3차년 연구는 초점을 '육아기 가정'에 두고, 남성과 여성의 부-모간 역할 분담 및 인식,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이고 행복한 육아 문화의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에 빅데이터 분석으로 함께 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 결과를 담아 프로그램에 반영한 SBS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또한 연구진과 전문가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로 참여하고 설문과 면담에 응해주신 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린다.

모두의 협력을 토대로 육아하는 가족을 존중하고 환대하는 육아문화가 우리 사회 안에 퍼져가길 기대한다.

2019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목차

요약 1

Ⅰ.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2. 연구내용 23
3. 연구방법 24
4. 용어의 정의 37

Ⅱ. 연구 배경 41
1. 선행 연구 43
2. 국외 사례 48

Ⅲ. 육아문화 진단(Ⅰ) 소셜 빅데이터 분석 65
1. 소셜 빅데이터 분석의 목적 67
2. 주제어 사전 구축 및 자료수집 68
3. 소셜 빅데이터 분석결과 76
4. 소결 118

Ⅳ. 육아문화 진단(Ⅱ)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 워크숍 125
1. 1차 참여워크숍을 통한 육아문화 진단 127
2. 2차 참여워크숍을 통한 육아문화 진단 137
3. 소결 145

Ⅴ. 육아문화 진단(Ⅲ) 설문조사 149
1. 육아 관련 문화에 대한 인식 151
2. 가정 내 육아문화에 대한 인식 193
3. 직장 내 육아환경 및 문화에 대한 인식 202

4.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요건 ····· 220
5. 소결 ····· 236

Ⅵ.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241

1. 육아문화의 진단과 분석 결과 ····· 243
2.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패러다임(paradigm) 전환 ····· 249
3.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에 대한 정책적 접근 ····· 250
4.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제언 ····· 252
5. 향후 추진계획 ····· 259

참고문헌 261

Abstract 267

부록 271

1. 육아문화 크리에이터 모집 공고 포스터 ····· 271
2. 육아 관련 문서 내 소분류별 주제어 출현빈도
(1,000회 이상 출현 주제어) ····· 272
3. 긍정적 육아문화 연구 설문 ····· 280

표 목차

〈표 Ⅰ-3-1〉 설문조사 개요 ····· 28
〈표 Ⅰ-3-2〉 조사표본의 설계 1 ····· 29
〈표 Ⅰ-3-3〉 조사표본의 설계 2 ····· 29
〈표 Ⅰ-3-4〉 조사표본의 설계 3 ····· 30
〈표 Ⅰ-3-5〉 응답자 특성 ····· 30
〈표 Ⅰ-3-6〉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 특성 ····· 33
〈표 Ⅰ-3-7〉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 34
〈표 Ⅰ-3-8〉 국외 출장 개요 ····· 36
〈표 Ⅲ-2-1〉 육아 및 육아대상 주제어 ····· 70
〈표 Ⅲ-2-2〉 육아 관련 주제어 사전 ····· 71
〈표 Ⅲ-2-3〉 감성어 사전 ····· 72
〈표 Ⅲ-2-4〉 자료 수집 사이트 및 문서 수 ····· 74
〈표 Ⅲ-3-1〉 육아 관련 문서 내 주제어 출현빈도 순위(상위 50개) ····· 76
〈표 Ⅲ-3-2〉 육아 관련 핵심 주제어의 연결중심성과 위세중심성 ····· 78
〈표 Ⅲ-3-3〉 육아관련 문서 내 소분류별 주제어 출현빈도 ····· 81
〈표 Ⅲ-3-4〉 채널별 육아 관련 문서 내 상위 50개 주제어 출현빈도 ····· 89
〈표 Ⅲ-3-5〉 육아 관련 감성 단어 빈도 순위(상위 50개) ····· 91
〈표 Ⅲ-3-6〉 연도별 감성분석 문서 수 ····· 93
〈표 Ⅲ-3-7〉 긍정문서 및 부정문서 내 상위 50개 주제어 출현빈도 ····· 101
〈표 Ⅲ-3-8〉 뉴스의 긍정문서 및 부정문서 내 상위 50개 주제어 출현빈도 ··· 104
〈표 Ⅲ-3-9〉 카페의 긍정문서 및 부정문서 내 상위 50개 주제어 출현빈도 ··· 107
〈표 Ⅲ-3-10〉 블로그의 긍정문서 및 부정문서 내 상위 50개 주제어 출현빈도 ·· 110
〈표 Ⅲ-3-11〉 게시판의 긍정문서 및 부정문서 내 상위 50개 주제어 출현빈도 ·· 112
〈표 Ⅲ-3-12〉 트위터의 긍정문서 및 부정문서 내 상위 50개 주제어 출현빈도 ·· 115
〈표 Ⅳ-1-1〉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 1차 워크숍 진행순서 ····· 128
〈표 Ⅳ-1-2〉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가 제시하는 이상적 육아문화 ····· 135
〈표 Ⅳ-2-1〉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 2차 워크숍 진행순서 ····· 137
〈표 Ⅳ-2-2〉 육아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개선방안 ·· 142
〈표 Ⅳ-2-3〉 육아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 제안 ····· 143

〈표 Ⅴ-1-1〉 육아 문화 중 아이 기르는 가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 … 152
〈표 Ⅴ-1-2〉 우리 사회의 긍정적 육아문화 점수(100점 만점) …… 153
〈표 Ⅴ-1-3〉 우리 사회의 육아 관련 요소별 평가 …… 156
〈표 Ⅴ-1-4〉 현재 우리사회 양육 환경에 대한 평가(4점 척도) …… 158
〈표 Ⅴ-1-5〉 우리 사회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인 이유(1순위/ 1+2+3순위) … 161
〈표 Ⅴ-1-6〉 우리 사회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인 이유 (1순위/ 1+2+3순위) …… 163
〈표 Ⅴ-1-7〉 육아 관련 문화 양상- 아버지 육아참여 …… 166
〈표 Ⅴ-1-8〉 육아 관련 문화 양상- 조부모의 도움 …… 167
〈표 Ⅴ-1-9〉 육아 관련 문화 양상- 산후조리원 이용 …… 169
〈표 Ⅴ-1-10〉 육아 관련 문화 양상- 육아정보 신뢰성 …… 171
〈표 Ⅴ-1-11〉 육아 관련 문화 양상- 온라인 정보공유 …… 172
〈표 Ⅴ-1-12〉 육아 관련 문화 양상- 육아관련 소비 …… 174
〈표 Ⅴ-1-13〉 육아 관련 문화 양상- 남성 육아휴직 …… 176
〈표 Ⅴ-1-14〉 육아 관련 문화 양상- 영유아 사교육 …… 177
〈표 Ⅴ-1-15〉 육아 관련 문화 양상- 주 52시간 도입의 영향 …… 179
〈표 Ⅴ-1-16〉 육아 관련 문화 양상- 육아지원정책 …… 180
〈표 Ⅴ-1-17〉 육아 관련 문화 양상에의 평가 …… 182
〈표 Ⅴ-1-18〉 아동과 육아에 대한 우리사회의 일부 의견에 대한 평가(4점 척도) … 185
〈표 Ⅴ-1-19〉 평소 가장 자주 사용하는 SNS …… 187
〈표 Ⅴ-1-20〉 육아 관련하여 가장 자주 사용하는 SNS …… 189
〈표 Ⅴ-1-21〉 평소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검색채널 …… 190
〈표 Ⅴ-1-22〉 평소 가장 자주 시청하는 영상미디어 …… 191
〈표 Ⅴ-2-1〉 부부의 평등한 육아참여 평가(100점 만점) …… 193
〈표 Ⅴ-2-2〉 부부의 육아참여 정도 …… 195
〈표 Ⅴ-2-3〉 이상적인 부부의 육아참여 정도 …… 196
〈표 Ⅴ-2-4〉 육아에 대한 긍정적 시각에 기혼-유자녀 부모의 동의 정도(4점 척도) … 197
〈표 Ⅴ-2-5〉 육아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기혼-유자녀 부모의 동의 정도(4점 척도) … 199
〈표 Ⅴ-2-6〉 가정 내 육아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노력해야 할 부분 …… 201
〈표 Ⅴ-3-1〉 본인/배우자 직장 육아환경 및 문화에 대한 전반적 평가(100점 만점) … 203
〈표 Ⅴ-3-2〉 직장 내 육아환경 및 문화 평가 (100점 만점) …… 205
〈표 Ⅴ-3-3〉 직장 동료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식 …… 207

〈표 Ⅴ-3-4〉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인지정도 및 기혼-유자녀 가정의 활용여부_ 출산 전후 휴가제도 ····· 209
〈표 Ⅴ-3-5〉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인지정도 및 기혼-유자녀 가정의 활용여부_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 210
〈표 Ⅴ-3-6〉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인지정도 및 기혼-유자녀 가정의 활용여부_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211
〈표 Ⅴ-3-7〉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인지정도 및 기혼-유자녀 가정의 활용여부_ 육아휴직제도 ····· 213
〈표 Ⅴ-3-8〉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인지정도 및 기혼-유자녀 가정의 활용여부_ 시간제 근로제도 ····· 214
〈표 Ⅴ-3-9〉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인지정도 및 기혼-유자녀 가정의 활용여부_ 시차출근제 ····· 215
〈표 Ⅴ-3-10〉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인지정도 및 기혼-유자녀 가정의 활용여부_ 탄력적 근로시간제 ····· 217
〈표 Ⅴ-3-11〉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인지정도 및 기혼-유자녀 가정의 활용여부_ 재택근무제 ····· 218
〈표 Ⅴ-3-12〉 긍정적 직장육아문화로의 변화를 위해 중요하게 노력해야 할 부분 ··· 219
〈표 Ⅴ-4-1〉 육아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 요소에 대한 동의 정도(5점 척도) ··· 223
〈표 Ⅴ-4-2〉 육아를 힘나게 하는 긍정적 요인에 대한 동의 정도(5점 척도) ··· 227
〈표 Ⅴ-4-3〉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1순위/ 1+2순위) ····· 230
〈표 Ⅴ-4-4〉 사회적 합의, 정책적 노력을 통한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변화 가능성 ···· 232
〈표 Ⅴ-4-5〉 긍정적 육아문화로 변화하기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적 노력 (1순위/ 1+2순위) ····· 234

그림 목차

[그림 Ⅰ-1-1]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방안연구 3개년 추진 계획 ····· 23
[그림 Ⅰ-3-1]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방안연구 3개년 협동 추진 계획 ····· 25
[그림 Ⅰ-3-2]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방안연구 1차년도 협동 추진 체계 ····· 26
[그림 Ⅰ-3-3] 설문조사 진행 단계 ····· 29
[그림 Ⅰ-3-4]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정 ····· 32
[그림 Ⅱ-2-1] 덴마크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 그림 ····· 50
[그림 Ⅱ-2-2] 덴마크 육아휴직 독려 캠페인 그림 ····· 50
[그림 Ⅱ-2-3] 덴마크 아빠 놀이방(Fars Legestue) 모습 ····· 52
[그림 Ⅱ-2-4] 덴마크 어린이 박물관(위), 아동문화센터(아래) ····· 53
[그림 Ⅱ-2-5] 노르웨이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 기간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일수 ··· 56
[그림 Ⅱ-2-6] 노르웨이 여성의 사회 참여가 지니는 경제적 가치 ····· 57
[그림 Ⅱ-2-7] 노르웨이 연도별 육아휴직 사용가능 주 수 ····· 57
[그림 Ⅱ-2-8] 노르웨이 개방유치원 ····· 59
[그림 Ⅱ-2-9] 노르웨이 양육 친화적 지역 환경 ····· 61
[그림 Ⅲ-3-1] 육아 관련 핵심 단어 워드 클라우드 ····· 77
[그림 Ⅲ-3-2] 육아 관련 핵심 주제어의 네트워크 시각화 ····· 80
[그림 Ⅲ-3-3] 생태체계모형으로 본 주요 소분류 및 주제어 ····· 87
[그림 Ⅲ-3-4] 육아 관련 긍정어, 부정어(각 상위 50개)의 출현빈도 ····· 93
[그림 Ⅲ-3-5] 연도별 감성분석(전체) ····· 94
[그림 Ⅲ-3-6] 뉴스 연도별 감성분석 ····· 94
[그림 Ⅲ-3-7] 카페 연도별 감성분석 ····· 95
[그림 Ⅲ-3-8] 블로그 연도별 감성분석 ····· 95
[그림 Ⅲ-3-9] 게시판 연도별 감성분석 ····· 96
[그림 Ⅲ-3-10] 트위터 연도별 감성분석 ····· 96
[그림 Ⅲ-3-11] 채널별 원글 긍정/중립/부정문서 비율 ····· 98
[그림 Ⅲ-3-12] 채널별 댓글 긍정/중립/부정문서 비율 ····· 98
[그림 Ⅲ-3-13] 트위터 언급방식에 따른 긍정/중립/부정문서 비율 ····· 99
[그림 Ⅲ-3-14] 생태체계모형으로 본 긍정문서 내 핵심 주제어 ····· 103
[그림 Ⅲ-3-15] 생태체계모형으로 본 부정문서 내 핵심 주제어 ····· 103

[그림 Ⅲ-3-16] 뉴스 채널의 긍정문서 상위 출현 단어 워드 클라우드 ····· 106
[그림 Ⅲ-3-17] 뉴스 채널의 부정문서 상위 출현 단어 워드 클라우드 ····· 106
[그림 Ⅲ-3-18] 카페 채널의 긍정문서 상위 출현 단어 워드 클라우드 ····· 109
[그림 Ⅲ-3-19] 카페 채널의 부정문서 상위 출현 단어 워드 클라우드 ····· 109
[그림 Ⅲ-3-20] 블로그 채널의 긍정문서 상위 출현 단어 워드 클라우드 ····· 111
[그림 Ⅲ-3-21] 블로그 채널의 부정문서 상위 출현 단어 워드 클라우드 ····· 112
[그림 Ⅲ-3-22] 게시판 채널의 긍정문서 상위 출현 단어 워드 클라우드 ····· 114
[그림 Ⅲ-3-23] 게시판 채널의 부정문서 상위 출현 단어 워드 클라우드 ····· 114
[그림 Ⅲ-3-24] 트위터 채널의 긍정문서 상위 출현 단어 워드 클라우드 ····· 117
[그림 Ⅲ-3-25] 트위터 채널의 부정문서 상위 출현 단어 워드 클라우드 ····· 117
[그림 Ⅳ-1-1]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 1차 워크숍 도입 단계 ····· 129
[그림 Ⅳ-1-2]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 1차 워크숍 육아문화 진단 단계 ··· 130
[그림 Ⅳ-1-3] 육아존중문화 촉진요인 ····· 133
[그림 Ⅳ-1-4] 육아존중문화 저항요인 ····· 133
[그림 Ⅳ-1-5] 육아존중문화 촉진요인과 저항요인 역장분석 ····· 134
[그림 Ⅳ-1-6] 이상적인 육아 문화 실현 사회 표현 ····· 136
[그림 Ⅳ-2-1]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 2차 워크숍 도입 단계 ····· 138
[그림 Ⅳ-2-2] ‘내가 만약 국무총리라면?’ 비전 슬로건 ····· 140
[그림 Ⅳ-2-3] 육아존중문화를 위한 캠페인 문구 ····· 141
[그림 Ⅳ-2-4] 육아존중문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적 개선방안 ····· 143
[그림 Ⅳ-2-5]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 워크숍 결과물 ····· 144
[그림 Ⅴ-1-1] 우리 사회의 긍정적 육아문화 점수의 집단별 차이 ····· 154
[그림 Ⅴ-1-2] 우리 사회의 육아 관련 요소별 평가 ····· 155
[그림 Ⅴ-1-3] 육아 관련 문화 양상에의 긍정성 평가(긍정 기준) ····· 182
[그림 Ⅵ-1-1]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 248
[그림 Ⅵ-4-1] SBS 희망TV 방영 ····· 257
[그림 Ⅵ-4-2] 육아 응원 캠페인 홍보물(에코가방, 티코스터(컵받침)) ····· 258

요약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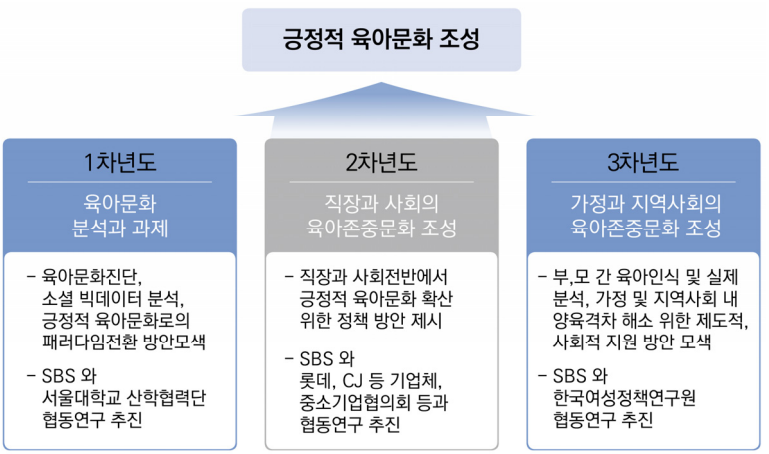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저출산 극복, 아동의 권리 존중, 육아하는 부모의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적 접근과 더불어 '가치'와 '가치의 실현'을 확산,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이는 육아정책에 가치에 관련된 문화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병행되어야하는 이유임.

□ 본 연구는 다음 세대 구성원을 육성하는 '아이를 기르는 일', '육아(育兒)'를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사회의 육아문화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진단 분석하여 도출된 부정적 요소를 줄여감으로써 육아존중문화로의 변화와 긍정적 육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는 3개년 협동연구로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해야 할 부정적 요소들을 구체화하고, 긍정적 변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기초연구에서 비롯하여 가정, 직장,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그 범위를 넓혀 순차적인 실천적 방안들을 마련하고자함.

[그림 1]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방안연구 3개년 추진 계획



□ 육아문화를 진단하고 개선을 지향하는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육아문화에 대한 세 가지 가정(假定)에서 출발함.

- 첫째, 우리사회가 체감하는 육아문화는 긍정적 측면 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 둘째, 우리의 일터에서 육아하는 가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제도는 있으나 실제 사용은 쉽지 않다.
- 셋째,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 마을 안에서 '아이를 기르는 일', '육아(育兒)'에 대해 양성 평등하지 못한 부분, 양육 격차가 존재한다.

나. 연구내용

□ 육아문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며, 육아문화의 개념을 정리함.

□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육아문화가 안착된 국외 사례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육아 관련 용어를 중심으로 소셜 미디어 내 육아문화를 진단하고 분석함.

□ 참여형 숙의 토론과 양적 설문조사를 통해 육아문화를 진단하고 분석함.

□ 아동과 육아, 육아하는 가정을 존중하는 문화, 긍정적 육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제언함.

□ 긍정적 육아문화 확산 도모를 위한 육아 관련 기획프로그램에 연구결과를 반영함.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 '육아', '양육', '육아문화', '부모됨', 'parenting', '문화정책' 의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국내·외 사례를 수합함.

□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으로 '육아'와 관련한 대중들의 인식과 우리사회의 육아현상을 조사함.

□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Creators) 운영하여 참여형 숙의토론을 연 2회 개최하여 육아문화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함.

□ 전국 20-40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육아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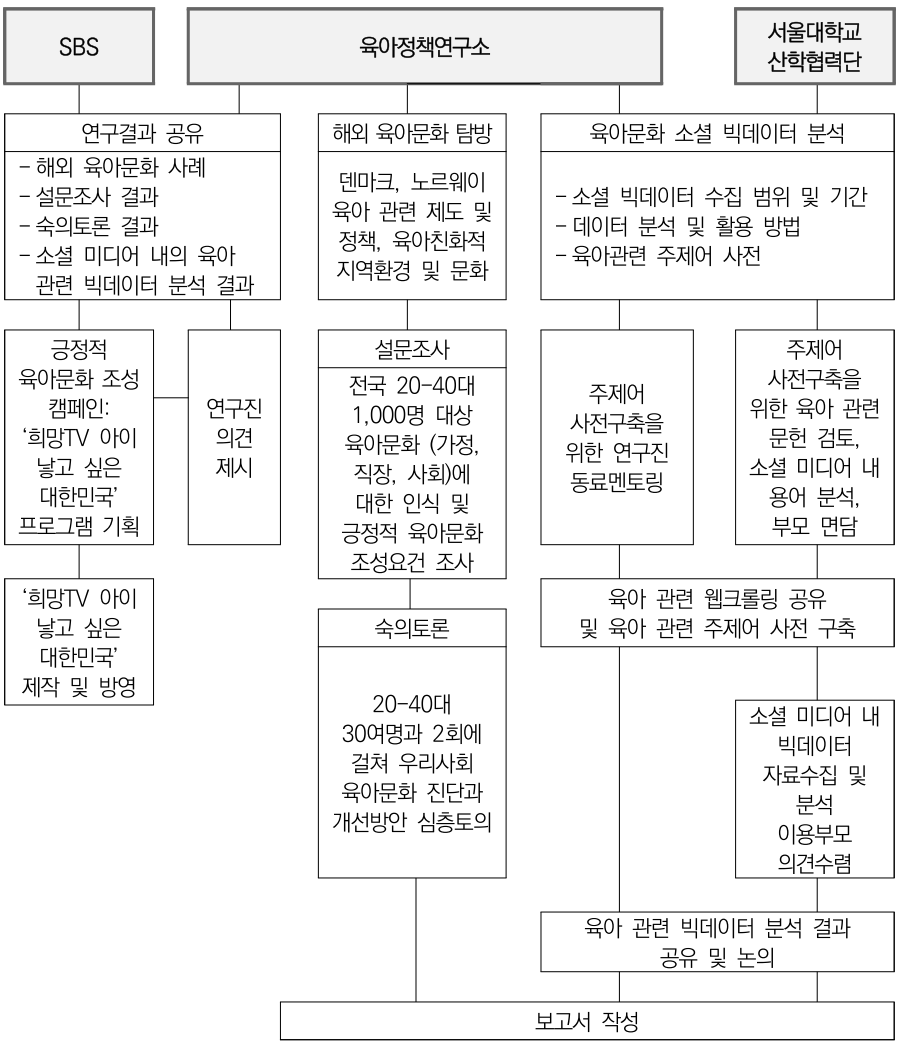
□ 국외 출장으로 노르웨이, 덴마크의 관련 부처 면담, 부모 면담, 지역사회 탐방을 통해 육아 관련 지원제도 및 정책, 육아환경과 육아문화 양상 등을 파악함.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함.

□ ‘SBS 희망TV-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11월 22일) 에 연구내용을 방영함.

□ 1차년도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총괄책임을 맡아 육아 관련 인식 조사, 크리에이터즈 운영 등을 연구를 수행하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셜 빅데이터 분석, SBS는 기획 프로그램에 연구결과 반영 등 협업을 추진함.

[그림 2]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방안연구 1차년도 협동 추진 체계



라. 용어의 정의

□ ‘육아문화’는 아동을 기르는 행위와 과정에 대한 총체로 관습(기술), 생각이나 언어, 가치, 규범이나 제도, 물리적 환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육아존중문화’란 육아하는 행위와 육아의 대상인 아동과 그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적 가치가 공유되는 문화를 의미함.

□ ‘긍정적 육아문화’란 우리사회 육아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부정적 요소들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육아문화의 지향점을 의미함.

□ 본 연구에서는 육아의 대상인 아동의 범위를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로 국한함.

2. 연구배경

가. 선행 연구

□ 부모됨, 자녀 양육관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 모두가 양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점에서 성평등한 육아문화 형성을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함.

□ 육아문화, 양육문화에 대해서는 세대 간 자녀양육문화의 변화를 조사한 연구,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문화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와의 관계를 탐구한 연구, 행복한 육아문화 구축방안을 모색한 정책연구 등이 진행됨.

□ 문화 형성에서의 미디어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육아방송프로그램이 시대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모하는 성역할을 반영하고 있으며 자칫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함.

□ 문화 개선을 정책적으로 접근한 연구에서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정책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 문제점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개선방법을 제시함.

나. 국외 사례

□ 덴마크

- 육아휴직제도는 부모에게 총 52주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며 어머니에게는 18주, 아버지에게는 2주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며 나머지 32주는 부모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어머니들은 평균적으로 300일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며 아버

지들은 40일 미만으로 사용함.

- 육아는 여자의 일이라는 전통적 남녀역할 인식이 아직도 존재하는 덴마크에서는 육아휴직 사용 독려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 중이며 사회적 파트너와 협업하여 이를 개선하고자함.
- 육아친화적 환경과 문화
  - 지자체에서 부모들이 서로 소통하며 아이들과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아동문화센터나 놀이터를 제공함. 육아하는 아빠를 위한 아빠들의 놀이터도 있음.

□ 노르웨이

- 육아휴직제도는 부모에게 총 49주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며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15주의 출산 후 휴가를 보장받음. 30대 아버지들의 약 95%가 할당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함. 아버지에게 할당된 휴가기간이 실제 사용하는 휴가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육아친화적 환경과 문화
  - 육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바르셀 모임이나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개방유치원과 같이 부모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 직장 내 육아에 대한 휴직, 휴가가 유연한 편으로 12세 미만의 자녀를 한 명을 둔 근로자의 경우 일 년에 10일까지 아이를 위한 휴가를 낼 수 있음.
  - 대중교통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육아하는 가정을 배려하는 환경(유모차 배려석 등)을 찾아볼 수 있음.

□ 시사점

- 육아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변화와 문화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하며 이러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되어야함.
- 성평등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우선되어야하며, 육아 친화적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제, 유연한 근무제, 특별휴가제 등의 제도 도입과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의 안착이 요구됨.
- 지역사회 내에 육아를 배려할 수 있는 환경과 부모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함.

3. 육아문화 진단(Ⅰ) 소셜 빅데이터 분석

가. 소셜 빅데이터 분석의 목적

□ 2016년~2018년 3년 동안 뉴스, 카페, 블로그, 게시판, 트위터에 등장한 육아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육아'와 관련한 주제어의 출현빈도, 양상 등을 살피고 그 안에 담긴 긍정적, 부정적 요소를 구체화함.

나. 주제어 사전 구축 및 자료수집

□ '육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고 주제어사전을 개발한 후, 주제어사전 내 주제어를 수집하여 분류하는 Top-down 방식을 사용함.

- 주제어 사전은 1) 육아 및 육아대상 주제어, 2) 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한 육아 관련 주제어 사전, 3) 감성어 사전으로 나뉨.

□ 육아 관련 빅데이터는 70개의 육아 관련어를 사용하여 국내 뉴스, 카페, 트위터, 블로그, 게시판 등 286개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수집했으며 총 2,898,776건의 문서를 취합함.

□ '육아' 관련 소셜 빅데이터에 대해 빈도 분석 및 중심성 분석, 그리고 감성분석을 실시함. 빈도 분석은 전체 주제어, 소분류별 주제어, 채널별 주제어의 순서에 따라 상위 출현빈도를 살펴봄.

다. 소셜 빅데이터 분석결과

□ 육아 관련 주제어 출현빈도

- '육아' 관련 소셜 미디어 문서 내 등장한 상위 50개의 핵심단어 중 '육아'를 제외하면 '아이', '여자', '엄마', '아기', '남자', '남편' 등의 주제어가 높은 빈도로 확인되며, 그 외에 '양육비', '육아휴직', '출산', '결혼', '독박육아' 등의 주제어 또한 높은 빈도로 나타남.
- 연결중심성은 '육아', '아이', '여자', '엄마', '출산'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이와 같은 주제어들이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주제어들과 높은 연결 관계를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 위세중심성은 '육아', '아이', '여자', '출산', '엄마'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이와 같은 주제어들이 네트워크 내에서 중심성이 높은 주요 주제어와의 연결 관계

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총 56개의 소분류 중 '영유아'에 해당하는 주제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였으며 '부모', '젠더 관련 이슈', '임신출산' 등의 순을 따름.
- 각 채널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뉴스 채널은 다른 채널에 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주요 사회적 현상인 '저출산'이 상위 주제어로 등장하였으며 '육아휴직', '정부', '정책', '제도'와 같은 주제어가 높은 출현빈도를 보임.
  - 육아의 일상을 공유하는 블로그와 카페는 '엄마'가 가장 많이 등장함. 까페는 '남편', '어린이집', '부모', '여자'가, 블로그는 '부모', '아빠', '가족', '남편'이 다음으로 많이 출현함. 다른 채널에 비해 육아의 대상과 주체인 아이와 부모를 의미하는 단어가 높은 출현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 주로 묻는 게시판에서는 '남편'이 가장 많이 나왔고, 다른 채널에 비해, '이혼', '양육비', '변호사' 등과 같은 단어가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적임.
  - 트위터는 '여자'가 가장 많이 등장하였고, '남자', '양육비', '출산', '결혼' 등이 등장했으며 다른 채널에 비해 '독박육아', '경력단절'과 같은 단어가 높은 출현빈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적임.

□ 감성분석

- 감성단어 출현빈도를 살펴보면, 긍정어의 경우 상위 10개 단어의 총 언급 횟수는 796,677회며, 부정어의 경우 총 언급 횟수는 1,279,359회임.
- 2016년-2018년 긍정문서의 개수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부정문서의 개수는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약 7만 6천 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까페와 블로그의 경우 긍정문서가 부정문서보다 많은 반면, 게시판과 트위터에서는 부정문서가 긍정문서보다 많음.

□ 채널별 원글/댓글 감성분석

- 긍정문서 비율이 높은 카페와 블로그의 경우, 댓글도 긍정적 비율이 더 높음.
- 긍정문서 비율이 높은 뉴스의 경우,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로 인해 부정적인 댓글의 비율이 다소 높음.
- 게시판의 경우, 비슷한 비율로 긍정댓글과 부정댓글이 확인됨.

- 트위터의 경우, 부정적인 댓글을 공유하는 비율이 더 높음.

□ 긍정문서 및 부정문서 내 주제어 출현빈도

- 긍정문서와 부정문서에서 공통적으로 '육아', '아이', '여자', '엄마' 주제어가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함. 한편, '남편'과 '남자'의 경우 긍정문서에서보다 부정문서에서 빈도가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남.
- 육아비용과 관련된 용어인 '양육비'는 긍정문서에 비해 부정문서에서 빈도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혼자'와 '독박육아' 주제어는 모두 부정문서에서 상대적으로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책임'이라는 주제어 역시 긍정문서에서보다 부정문서에서 2배 이상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남. 육아의 책임이 불균형적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라. 소결

□ 한국사회의 육아문화에서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음.

- 2017년을 기점으로 부정어 빈도가 긍정어 빈도보다 높아져 2017, 2018년에는 부정문서가 더 많음. 특히 양육비와 혼자 육아를 전담하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많았음.

□ 육아하는 가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일·양립 지원정책의 사용이 어려움.

- 우리나라, 나라, 사회, 정책, 정부 등 국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제도나 정책은 부정문서에 더 자주 등장함.

□ 육아 참여에 있어 젠더 불평등이 존재하나 육아에 있어서 아버지의 참여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음.

- 전체 분석대상 문서에서 '엄마'는 '육아', '아이', '여자'에 이어 네 번째로 자주 언급되었지만, '아빠'는 12위로 10위 안에 포함되지 않음. 이는 육아가 여성,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함.
- '남편'과 '남자'는 부정문서에서 5위와 6위였으나 긍정문서에서는 11위와 13위로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음. 반면, 육아하는 '아빠'가 긍정문서에서는 8위로 나타나서, 부정문서에서 14위로 언급된 것에 비해, 아버지의 육아참여 등 평등한 성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향도 있음을 확인함.

4. 육아문화 진단(II)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 워크숍

□ 육아정책연구소의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된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creators) 30여명과 연구진이 모여 5월 25일에 '우리 사회 육아문화 진단과 바람직한 육아 환경'을 주제로 1차 숙의토론 워크숍을, 9월 28일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개선 방안 탐색'을 주제로 2차 숙의토론 워크숍을 진행함.

가. 1차 참여워크숍을 통한 육아문화 진단

□ 육아문화 진단

- 우리나라 육아문화에 대해서는 50점에서 70점 사이의 분포를 보이며 나의 육아환경은 40점과 80점에 집중된 분포를 보임.
- 결혼과 출산에 대해 미혼그룹은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파악됨.
- 육아 고민에 대해 의견을 나눈 기혼그룹에서는 다자녀에 대한 고민, 양육스트레스, 육아부담, 육아에 대한 인정 결여에 대한 고민, 양육 환경에 대한 고민, 교육에 대한 고민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육아존중문화 역장분석

- 육아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요인으로는 아이가 주는 기쁨, 아이의 존재 자체, 가족(남편)의 정서적 지지와 지원, 어린이집 보낼 때,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 일·가정 양립제도, 출산, 육아 관련 지역사회서비스 등으로 나타남.
- 육아를 존중하기 어렵게 하는 저항요인으로는 육아를 어렵게 하는 회사 문화, 국가지원 양육 프로그램의 부족, 국가지원보조금 부족, 육아존중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 주거관련 대출에 대한 지나친 규제 등이 지적됨.

□ 크리에이터들은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배려, 존중이 안착된 사회, 육아휴직,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이 안착된 양육,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된 상황, 가정 내에서의 지원, 남편의 참여, 가족이 함께하는 육아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차 워크숍에 나온 많은 부분을 설문조사 문항으로 반영하였고 이 결과를 도출하고 2차 워크숍 시 제시하고 대안을 찾는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침.

나. 2차 참여워크숍을 통한 육아문화 진단

□ 육아문화 방향성 논의

- 육아문화에 대한 비전 메시지를 투표한 결과, '아이(I+Child:나와 아이)가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하다(21표)'가 선정됨.
- 육아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문구에는 아이를 존중하자는 메시지, 임산부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응원하는 메시지, 아이를 배려하는 직접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메시지 등이 논의됨.

□ 육아문화 개선방안

- 생활 속에서 육아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육아 관련된 정책과 제도, 시설, 지원프로그램 등에 개인이 관심을 가지며 지역사회나 관련 기관에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정책과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유아 돌봄 시설 법적 의무화 지원, 예비부모교육의 대학 필수교양과목으로 지정,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의 확대, 육아와 함께하는 문화 만들기, Kids Zone 확대 및 의무화, TV 대중매체 공익광고, 대중교통 유아동반석, 유모차 이용시간 편성 등의 의견이 있었음.

다. 소결

□ 육아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시각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나 육아가 남녀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 가정에서의 동등한 육아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돌봄 가치 인정이 필요하며, 일·가정 양립 제도를 쓸 수 있는 직장 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 육아문화는 육아의 대상인 아동과 아이를 기르는 부모, 가족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야하며, 육아존중사회로의 변화 모색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인식 전환과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요구됨.

□ 육아 관련 소통의 장이 필요하며 육아당사자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요구됨.

5. 육아문화 진단(Ⅲ) 설문조사

가. 육아 관련 문화에 대한 인식

□ 육아와 관련된 문화 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응답자 중 50.1%가 '정책과 제도'라고 답했고 40.4%가 '사회적 규범, 관습, 가치관'이라고 응답함.

□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긍정성 점수는 평균 53.6점으로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남성인 경우, 기혼집단인 경우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함.

□ 육아 관련 요소별 평가를 보면 육아정보에의 접근성이 높고 육아가정을 위한 의료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 직장 내 육아문화나 육아비용, 양성 평등한 육아문화 항목에 대해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육아 관련 문화 양상 중 아버지의 육아참여를 살펴보면, 영유아 가구와 응답자의 연령층이 낮을수록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도 비슷한 경향을 보임.

□ 온라인 SNS 소통 통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카카오톡이 1위, 20대와 30대, 여성, 미혼집단에서 인스타그램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음. 육아와 관련 많이 사용하는 SNS로는 인터넷카페, 블로그, 카카오톡의 순서로 조사되었고, 자주 사용하는 검색채널은 열 명 중 여덟 명이 네이버라고 답함. 자주 시청하는 영상미디어는 40대에서는 공중파, 30대에서는 케이블 방송, 20대에서는 유투브(YouTube)를 들어 뚜렷한 차이를 보임.

나. 가정 내 육아문화에 대한 인식

□ 가정에서 부부의 평등한 육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게 한 결과, 응답자 전체 평균점수는 65.2점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상적인 부부의 육아참여 정도는 어머니 대 아버지 비율이 56.3:43.7로 조사됐으나 부부의 실제 육아참여 정도는 68.4:31.6 으로 나타남.

□ 육아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시각에 동의 정도를 물은 결과, 아이 자체가 주는 기쁨과 양육이 가치 있다는 인식에 가장 높은 동의를 보였으며 육아에 대한 육체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부담감에 가장 높은 동의를 보였음.

□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가정 내 육아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의 사용의 보편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다. 직장 내 육아환경 및 문화에 대한 인식

□ 직장 육아환경 및 문화에 대한 평가는 평균 54.6점으로 가정 내 육아문화 점수보다 낮음.

- '육아기 직원에 대한 직장동료의 인식'과 '육아하는 직원에 대한 상사의 배려'만이 50점을 웃돌았으며 나머지 7개 항목은 모두 50점 미만으로 평가됨.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장동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

□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중 출산전후 휴가제도와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비교적 높은 인지도와 이용률을 보였고 나머지 제도는 실제 이용비율이 낮았음.

□ 직장 내 육아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사용 의무화와 회사 경영진의 인식 개선 필요성의 목소리가 가장 높았음.

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요건

□ 육아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 요소로는 '아이를 키우는 구성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직장 문화'에 대한 동의가 4.2점으로 가장 높으며 육아를 힘나게 하는 긍정적 요소로는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육아를 힘나게 한다'에 대한 동의가 4.2점으로 가장 높음.

□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와 같은 육아 관련 제도 안착이 가장 필요하다고 나타남.

□ 응답자의 90%가 사회적 합의, 정책적 노력으로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중앙 정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정책 추진, 직장 내 육아 친화적 문화 조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

마. 소결

□ 육아문화가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음을 확인함.

□ 우리사회 육아문화 관련 현상들에 대한 평가에서 각종 육아정보에의 접근성이 높음이 가장 긍정적 점수를 받은 반면, 가정 내 양성 평등한 육아문화, 육아휴직 사용, 육아기 직원에 대한 배려 등의 직장 내 육아문화에 대해서는 그 점수가 낮음. 이는 3개년으로 추진하는 본 연구에서 2차년도에 직장의 육아문화 개선, 3차년도에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육아문화 개선을 계획하였는데 그 방향이 적절함을 지지함.

□ 육아에 직접 참여하는 30대, 여성집단, 기혼집단에서 우리사회 육아문화에 대한 점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으로 미루어볼 때, 현재의 육아과정이 어려움을 읽을 수 있음.

□ 아버지의 양육참여, 남성의 육아휴직 등 아버지의 육아 관련한 부분이 긍정적 변화임에 대한 비교적 높은 동의를 보여 추후 그러한 방향으로의 육아문화 변화를 기대하게 함.

□ 육아 관련 요소별 평가, 육아를 힘들게 하는 요인, 가정 내 육아문화 개선방안,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요건 등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안착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부정적 요소를 줄이고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 육아휴직제 같은 일·가정 양립제도의 안착이라는 의견에 가장 많이 동의함. 또한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는 중앙정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과 직장 내에서 육아친화적인 문화 조성에 대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함.

6.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가. 육아문화의 진단과 분석 결과

□ 소셜 미디어 내 빅데이터 분석, 숙의토론과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서론에서 세웠던 세 가지 가정(체감 육아문화의 부정성, 직장과 사회에서의 육아하는 가정에 대한 배려부족,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성평등한 육아문화 조성 미흡)이 모두 확인됨을 알 수 있음.

□ 육아문화 내의 부정적 요소는 육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직장문화, 신뢰로운 교육·보육기관의 부족, 육아에 대한 가치 저평가, 과도한 육아비용으로 나타났

으며 긍정적 요소는 가족의 정서적 지지, 아이가 주는 기쁨, 가족의 양육지원, 신뢰로운 교육·보육기관, 안전한 사회, 교육·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 지원으로 나타남.

나.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패러다임(paradigm) 전환

□ 육아문화의 구성자들은 육아문화에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 '정책과 제도'를 선택함. 이는 문화의 변화가 쉽지 않지만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으로 육아문화의 개선이 가능할 수 있음을 기대하게 함.

□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부정적 요소를 줄이고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가장 필요한 내용은 육아휴직제 같은 일·가정 양립제도의 안착으로 수렴하였고, 그 정책적 노력으로는 중앙정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과 직장 내에서 육아친화적인 문화 조성에 대한 노력이 중요하게 인식됨.

□ 가정 내 육아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사용의 보편화'를 가장 높게 지적하였고 '가정 내 평등한 육아참여 실현', '남녀 부모역할 기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강조함.

□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으로 가능한 부분이며 이 그 주요 접점은 직장에서의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과 분위기의 조성이며, 또 다른 하나는 성평등에 기초한 가정에서의 육아 환경 구축임.

□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1차년도는 육아문화 진단, 2차년도는 직장에서의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3차년도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성평등한 육아문화 조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려함.

다.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에 대한 정책적 접근

□ 일본의 '아이와 육아를 응원하는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과 출산율에 영향 미치는 각국 정부의 주요한 정책수단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아동과 육아에 대한 긍정성'을 바탕으로 하며 육아의 대상인 아동은 물론, 아이를 기르는 부모와 가족의 행복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함.

라.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제언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육중장기 계획 시 육아문화 개선 명시하는 등 중앙정부의 중장기적 계획에 준한 꾸준한 추진이 요구됨.

□ 긍정적 육아문화 형성의 필요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함.

- 기업 등 사회적 파트너와의 협업추진
- 육아친화적 지자체 선정 및 홍보
- 대중교통에 육아하는 가정을 배려한 시설 설치와 스티커 부착

□ 지역사회 내 아이와 육아하는 가정을 배려한 시설 설계와 이용 기회를 확대함.

- 지자체 중심으로 육아하는 가정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내 육아하는 가정을 위한 할인 요금 적용
- 노키즈존(No kids zone) 줄이기 캠페인

□ 육아하는 가정을 위한 네트워크의 형성을 지원함.

- 육아정(育兒亭) 설치,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 운영

□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을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 제작 참여를 통해 도모함.

□ 공중파 이외에 케이블 방송, 유튜브, SNS, 검색 채널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육아존중문화 가치의 확산을 도모함.

□ 육아를 응원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관 기관, 영유아 부모, 일반 시민 등에 배포함.

I

서 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내용

03 연구방법

04 용어의 정의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2018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97명이라는 초유의 기록이 발표되었다.[1] 이는 이미 예측되어오던 결과로 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의 원인이 경제, 고용, 만혼 기조 등 사회의 구조적 측면부터 사회문화적 변화까지 포괄적으로 진단되었고 그 개선 노력 또한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육아로 인한 비용과 경제적 부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적 환경도 문제이지만, 만혼화 추세,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저하, 육아는 힘들다는 인식의 확산, 출산·육아기에 있는 가정이나 직장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 태도, 젠더의식의 확산, 욜로(YOLO)가치[2]의 확산 등 비물질적인 요소들은 우리 사회에서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분명하다. 이러한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정적 사고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결혼으로 형성된 가족 관계 등에 대한 부담감, 경제적 부양 의무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 등으로 인해 형성된 결과(최효미, 유해미, 김지현, 김태우, 2016)로, 결혼, 가족, 육아가 삶에 가져오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보다는 경제적 불안, 부모 역할에 대한 책임 부담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식이 더 크게 자리잡아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김동훈, 이재희, 이혜민, 2017).

우리나라 출산 및 육아지원 정책을 포함한 각종 저출산 정책은 비용 지원(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일-가정 양립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제공(보육서비스), 직장에서의 일-가정 양립 지원(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의 제도를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육아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 인식은 기존 정부 중심의 제도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

1) 뉴시스(2019.1.24.) "세계 유일 '출산율 0명' 국가되나… 지난해 0.97명 잠정"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24_0000539616&cID=10899&pID=10800(2019.3.8 인출)

2) 욜로(You Only Live Once)는 한 번뿐인 인생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라이프 스타일을 뜻한다 (시사저널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456 2019.3.8. 인출)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육아정책에 가치에 관련된 문화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병행되어야하는 이유이다.

저출산 극복, 아동의 권리 존중, 육아하는 부모의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적 접근과 더불어 '가치'와 '가치의 실현'을 확산,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육아'와 관련된 문화적 측면인 '육아문화'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기에 앞서 문화 그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Peterson(1979)은 문화란 지식, 신념, 예술, 도덕, 법, 관습과 습관 등을 포함하는 총체라고 한 Tylor(1924)의 정의를 토대로 문화는 규범, 가치, 신념, 상징을 포함한다고 구체화하였다(Peterson, 1979; 137). Fiske(2002)는 문화란 사회적으로 전이되거나 구성되는 덩어리로, 이는 관습, 생각, 도식, 상징, 가치, 규범, 제도, 목표, 입법규칙, 인공물, 수정된 물리적 환경과 같은 것들로 구성된다고 하였고(Fiske, 2002; 85), 이용규, 정경일, 이종수(2000; 8)는 문화를 인류에 의해 개발되어 여러 세대를 이어온 전통적 행위의 총체, 가치, 규범, 의미, 상징 또는 기본전제들의 체계라고 설명하였다.

'육아'는 아이 기르는 행위와 과정으로 정의한다면, '육아문화'는 아이 기르는 행위와 과정에 대한 총체로 관습(기술), 생각이나 언어, 가치, 규범이나 제도, 물리적 환경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육아문화'라는 용어도 아직 생소하며, 육아문화의 구성요소(기술, 상징, 언어, 가치, 규범이나 정책 등)를 고려하는 분석적 접근의 연구도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육아문화가 부정적인 인식되는 측면들이 확산되어 저출산의 기조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가 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사회 전반의 육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육아를 행복하게 느끼는 문화를 조성하여 정착시키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하고자 한다.

행복한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양육되어지는 주체인 자녀의 '아동권'과 더불어 양육하는 주체인 부모의 '육아권'을 존중하는 사회가치를 실현할 노력이 필요하다. 즉, 양육이 부모만 오롯이 감당해야 할 '의무'가 아닌, 국가가 지켜줘야 할 '권리'라는 '육아권'에 대한 의미를 찾고, 자녀와 부모가 행복한 '육아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한다.

선행연구들(김동훈 외, 2017; 최은영, 최효미, 이혜민, 2018; 문무경, 조숙인, 김정민, 2016)을 통해 강조된 육아에 대한 대표적인 부정적 측면은 가정과 일터에서의 양성 평등한 육아문화의 부족이다. 사회적 인식 변화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육아에 대해 느끼는 책임을 동등하게 함으로써 육아의 무게감을 줄이고 긍정적 육아 인식을 높이는 쪽으로 문화적 변화의 방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부정적 육아문화는 제도적 노력인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법적으로는 실천 사항이 규정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다.

육아문화는 단기간에 변화될 수 없는 과제이며 중장기적 차원에서 육아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등한 부-모 역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현실화하여 부모 책임의 행복한 육아 문화가 순조롭게 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순차적이고 단계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한다.

육아존중문화(育兒尊重文化)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를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 “문화정책이란 문화를 대상영역으로 하는 공공정책이다.”라고 정의하였다(장교식, 2010). 그렇다면 육아정책은 ‘육아’라는 행위를 대상영역으로 하는 공공정책이며, 육아존중문화에서 존중의 의미는 ‘육아’하는 행위에 대한 가치의 인정과 육아하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배려, 배려를 넘어서는 존중이라는 방향성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의 ‘육아’하는 행위를 중심을 형성된 ‘육아문화’를 ‘육아’하는 행위와 그를 수행하는 가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자 함을 지향점으로, 이 과정에 정책과 문화 조성 매체로서의 미디어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재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해야 할 부정적 요소들을 구체화하고, 긍정적 변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기초연구에서 비롯하여 가정, 직장,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그 범위를 넓혀 순차적인 실천적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다음 세대 구성원을 육성하는 ‘아이를 기르는 일’, ‘육아(育兒)’를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사회의 육아문화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진단 분석하여 도출된 부정적 요소를 줄여감으로써 육아존중문화로의 변화와 긍정적 육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육아문화에 대한 세 가지 가정(假定)에서 출발하였다.

첫째, 우리사회가 체감하는 육아문화는 긍정적 측면 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둘째, 우리의 일터에서 육아하는 가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제도는 있으나 실제 사용은 쉽지 않다.

셋째,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 마을 안에서 '아이를 기르는 일', '육아(育兒)'에 대해 양성 평등하지 못한 부분, 양육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세 가지 가정에 대해 연구과정에서 과연 그러한지 확인하고, 긍정적 요소를 발굴하여 확산하고 부정적 부분을 줄여감으로써, 육아하는 가정을 존중하는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한다. 이는 쉽게 변화하기 어려운 가치, 인식,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꾸준한 정책적 접근으로의 개선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상의 세 가지 가정을 토대로 1차년도에는 육아문화의 진단하고 분석하고 해결해야하는 과제를 도출하고, 2차년도에는 직장과 사회에서의 개선방안을, 3차년도에는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 초점을 두고자한다.

본 연구는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 육아 인식을 정착하기 위해, 문화 조성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SBS와 각 년도별 협동기관과의 협력으로 추진되는 3개년의 연구로 기획하였다.

연구는 1차년도(2019)는 '육아문화 분석과 과제', 2차년도(2020)는 '직장과 사회에서의 육아존중문화 조성', 3차년도(2021)는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육아존중문화 조성' 이라는 부제를 선정하였다. 각 연도별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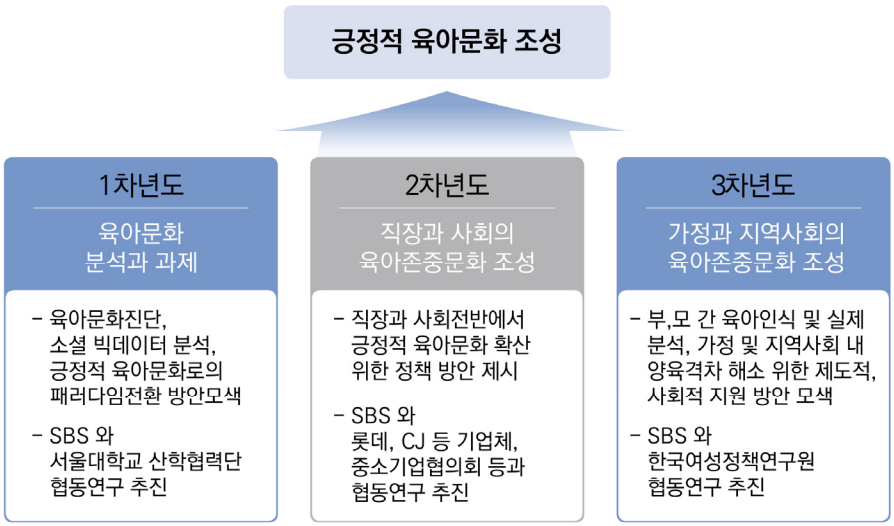
1차년도는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지닌 '육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우리사회 '육아문화'가 지니는 부정적, 긍정적 요소를 구체화한다. 또한 사회 전반과 문화 형성에 영향 미치는 미디어, 소셜 미디어에 나타나고 있는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핵심을 분석하여 그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육아문화 조성 방안을 고찰한다. 특히 문화라는 측정하기 어려운 범주의 진단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숙의토론, 설문조사, 국외사례 고찰 등의 다면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2차년도는 직장, 사회전반에서 부모의 육아권과 아동권을 존중하는 긍정적 육아

문화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중 불평등적 요소를 식별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3차년도는 육아문화의 초점을 '육아기 가정'에 두고, 남성과 여성의 부-모간 역할 분담 및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이고 행복한 육아의 인식과 부-모 공평공동 책임의 육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Ⅰ-1-1]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방안연구 3개년 추진 계획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행복한 '육아' 인식과 부-모 공평공동 책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육아 문화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하여 긍정적 '육아' 인식을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총 3개년 협동연구이다.

이를 위해 진단과 분석 연구와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병행하고자 한다. 육아문화 분석과 과제라는 부제로 추진하는 1차년도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육아문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육아문화라는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자 하였다.

둘째, 우리사회의 육아 관련 용어를 중심으로 육아문화를 진단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 관련 용어를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명료화하고,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 양상과 사용 빈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그 안에 담긴 긍정적, 부정적 요소를 구체화하였다.

셋째, 육아 담당자, 육아정책의 수요자들의 '육아', '아이 기르는 일'에 대한 인식을 통해 육아문화를 진단하고 분석하였다. 참여형 숙의 토론과 양적 설문조사의 방식을 병행하였다.

넷째,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육아문화가 안착된 국외 사례를 고찰하여, 개선 방향성과 방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아동과 육아, 육아하는 가정을 존중하는 문화, 긍정적 육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제언하고자 하였다.

여섯째, 협동 기관인 SBS의 육아 관련 기획프로그램에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긍정적 육아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가. 협동연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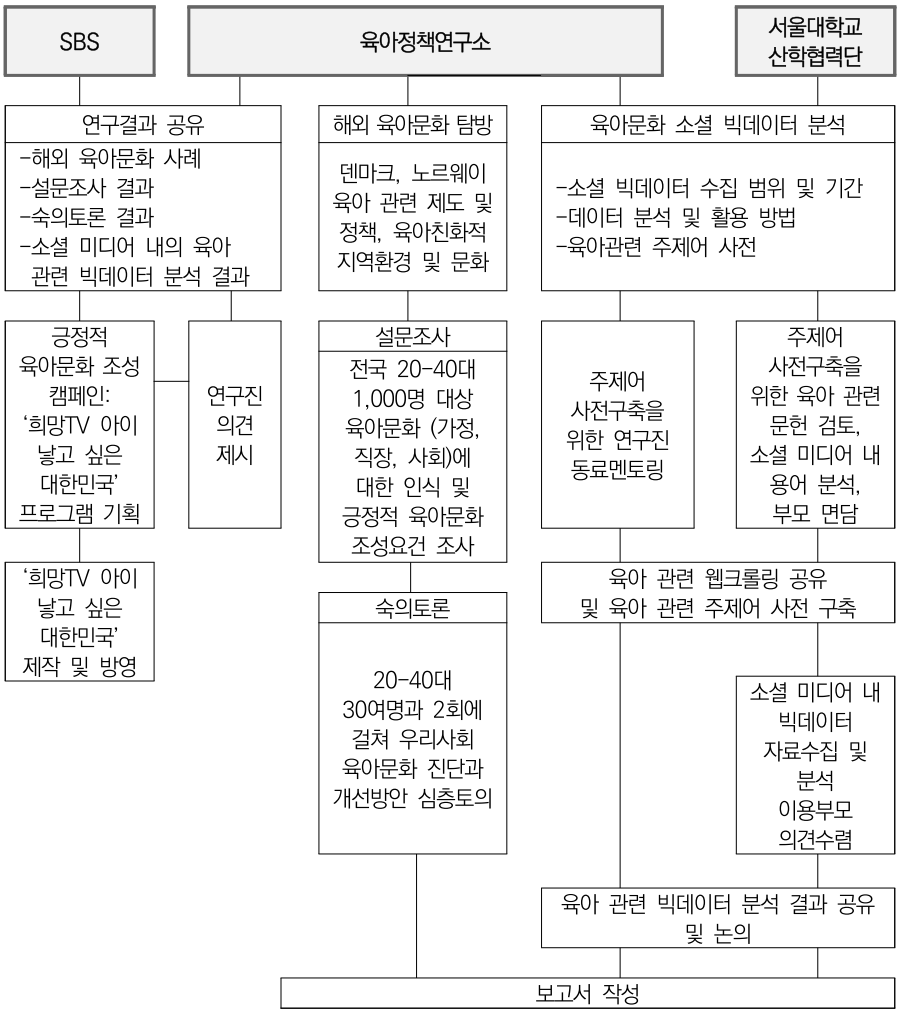
본 연구는 3개년 연속 과제로 육아정책연구소와 SBS 방송국을 중심으로 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업체(롯데, CJ), 여성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협력과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그림 Ⅰ-3-1]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방안연구 3개년 협동 추진 계획

1차년도 연구	2차년도 연구	3차년도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동연구, SBS와 연구협력으로 수행 1)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에 대한 인식 조사 및 부정적 요인 분석 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셜 미디어에 나타난 육아문화 진단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3) SBS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긍정적 육아 문화 조성 프로그램 기획, 진행	육아정책연구소, 기업체(롯데, CJ 등), SBS와 연구협력으로 수행 1)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연구 추진, 육아존중문화의 직장, 사회 내 정착을 위한 방안 제시 및 제도 개선 방안 제언 2) 기업체(롯데, CJ 등)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방해 요소 도출, 개선 사업 시범 추진 3) SBS 육아정책연구소가 제공하는 콘텐트에 기반하여 긍정적 육아 문화 조성 프로그램 기획, 진행(계속)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협동연구, SBS와 연구협력으로 수행 1) 육아정책연구소 부-모 공평공동 책임의 가정, 지역사회 육아문화 정착 방안 연구.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 사업 계획 추진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정 내 양성 평등 방해요소 조사, 분석 3) SBS 육아정책연구소가 제공하는 콘텐트에 기반하여 긍정적 육아 문화 조성 프로그램 기획, 진행(계속)

1차년도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전반적인 총괄책임을 맡아 육아 관련 인식 조사를 수행하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사회의 육아 현상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구체화한다. SBS는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 육아 인식을 선도하는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본 연구는 다양한 결과물을 공유하여 이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그림 Ⅰ-3-2 참조).

[그림 Ⅰ-3-2]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방안연구 1차년도 협동 추진 체계



2차년도 연구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문화 및 사회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어 심화하는 것으로 육아정책연구소가 전반적인 총괄책임을 맡아 육아존중문화의 직장, 사회 내 정착을 위한 방안 제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기업체(롯데, CJ 등)는 현재 추진 중인 일·가정 양립 지원에의 만족 정도를 확인하고,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방해요소 도출, 개선 사업 추진한다. 또한 일터에서의 양육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외 기업의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다. SBS는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직장 내 긍정적 육아 문화 구축을 도모

하고, 연구는 이를 지원한다.

3차년도 연구는 1차년도를 기반으로 하여 가정과 지역사회, 마을에서의 육아문화 형성에 초점을 두어 심화하는 것이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전반적인 총괄책임을 맡아 부-모 공평공동 책임의 가정, 지역사회 육아문화 정착 방안 연구,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 사업 계획 추진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가정 내 양성 평등 방해요소를 조사, 분석한다. SBS는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 내 긍정적 육아 문화 구축을 도모하고, 연구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나. 1차년도 연구 추진 방법

1) 문헌연구

문헌연구, 온라인 검색 등의 방법으로 다음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연구 설계 및 연구 결과 타당성 제고 등을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육아’ 또는 ‘양육’, ‘육아문화’, ‘부모됨’, ‘parenting’, ‘문화정책’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둘째,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국내·외 사례를 온라인 검색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2) 조사연구

전국 20대, 30대, 40대 남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목적은 현재 육아문화 진단과 육아에 대한 인식과 그 배경이 되는 영향 요인, 육아존중문화의 조성요건 파악,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변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가) 설문조사 개요

설문 문항은 육아문화와 아버지 및 어머니의 육아 관련 기존 연구 분석과 1차 숙의토론에서 나왔던 육아문화 진단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하여 구성되었으며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설문 내용의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설문지는 1) 육아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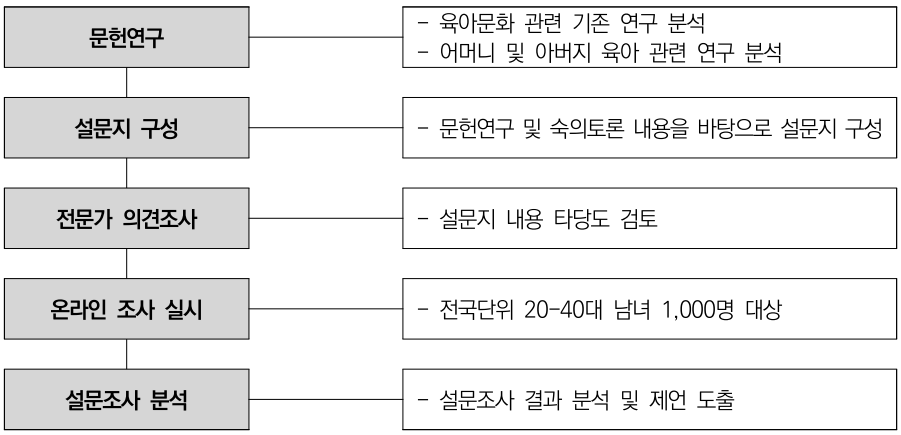
문화 현상에 대한 인식, 2) 가정 내 육아문화에 대한 인식, 3) 직장 내 육아환경 및 문화에 대한 인식, 4)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요건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특성과 관계없이 모두가 응답할 수 있는 공통문항과 자녀가 있는 기혼자, 본인 혹은 배우자가 회사 및 조직 내의 근로소득자인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표 Ⅰ-3-1〉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 20대, 30, 40대 남녀 성인 1,000명
조사 시기		2019년 8월
표본 선정 기준		성별(남, 여), 연령(20대, 30대, 40대), 자녀 유무(자녀없음, 자녀있음)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조사 방법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
조사 내용	일반적 특성	- 성별(남, 여) - 연령(20대, 30대, 40대) - 거주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 결혼 여부(미혼, 기혼) - 자녀 여부(자녀 없음, 자녀있음) - 자녀 연령(영아,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이상) - 맞벌이 여부(맞벌이, 외벌이) - 월 평균 가구 소득
	자녀와 육아에 대한 인식	- 자녀 기대 - 자녀양육 시 가장 행복을 느끼는 부분 - 양육 효능감/ 양육 부담
	육아문화 진단	- 현재 육아문화 진단 - 가정 내 육아환경 진단 아버지 육아참여 정도(점수), 지원 활용 정도 사적 지원 활용, 공적 서비스 활용 - 직장 내 육아환경 진단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인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사용을 저해하는 요인, 현재의 육아휴직 제도 활용 의사, 육아휴직 미사용 이유, 직장 내 육아환경 개선요인 - 지역사회 내 육아환경 진단 지역 내 육아지원 제도 인지, 지역 내 육아지원 제도 활용, 지역 내 육아지원 제도 사용을 저해하는 요인, 지역 내 육아환경 개선요인
	육아지원정책 분야별 인지 및 활용	육아지원 정책 인지 - 육아지원 정책 활용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육아문화 부정적 요소 육아문화 긍정적 요소 긍정적 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필요한 부분

2019년 8월 중 전국 20-4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Ⅰ-3-3] 설문조사 진행 단계



나) 설문조사 표본 설계

2019년 7월 주민등록인구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표 Ⅰ-3-2〉와 같이 지역, 성, 연령을 비례 배분하였다.

〈표 Ⅰ-3-2〉 조사표본의 설계 1

권역	20-29세		30-39세		40-49세		총계
	남	여	남	여	남	여	
대도시	71	68	72	70	79	79	439
중소도시	64	57	66	63	78	78	406
읍면지역	25	19	26	23	34	28	155
계	160	144	164	156	191	185	1,000

연령별 자녀 여부 및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모집단 자료가 부재하였고,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3]의 기혼여성 자녀 여부 비율이었다.

〈표 Ⅰ-3-3〉 조사표본의 설계 2

구분	2015년census-여자 총계	기혼여성(만15세 중 자녀 있는 경우)	비율
20~29세	3,179,732	258,320	8%
30~39세	3,729,210	2,233,421	60%
40~49세	4,291,529	3,648,584	85%

3) 통계청에서 KOSIS-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부분- 총조사인구-표본(20%)-여성,아동(20%표본) 사용함.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tatId=1962001&themaId=A#SelectStatsBoxDiv (2019.7.10. 인출)

연령별 자녀 여부 비율을 고려하여 최소 할당 표본수를 배분하였고, 맞벌이 비율은 30~49세에 적용하여 여성 본인이 일하고 있는 경우 40% 이상 표본이 확보되도록 배분하였다.

〈표 Ⅰ-3-4〉 조사표본의 설계 3

구분	표본수	자녀 있음 비율	자녀 있음 최소 표본수
20~29세	304	5%	15
30~39세	320	50%	160
40~49세	376	70%	263

다) 응답자 특성

설문조사 응답자는 전국의 만 20~49세 성인남녀 1,000명으로 〈표 Ⅰ-3-5〉와 같다. 조사자 중 여성이 48.5%, 남성이 51.5%이며 20대가 30.4%, 30대가 32%, 40대가 37.6% 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거주자가 43.9%, 중소도시 거주자가 40.6%, 읍면지역 거주자가 15.5%로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응답자 중 기혼자는 63.4%, 미혼자는 36.6% 의 비율을 보였다. 배우자가 있다고 대답한 634명 중 92.3%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65.8%는 맞벌이 가정이라고 응답했다. 자녀가 있는 기혼자 585명 중 영아를 양육하는 응답자가 141명, 유아를 양육하는 응답자가 119명으로 영유아를 양육하는 응답자가 44.4%(260명)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응답자는 28.7%(168명), 중학생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응답자는 26.8%(157명)을 차지했다.

본 조사에서 가구소득의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8.6%로 가장 많았으며 500만원에서 7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2.9%, 3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1.9%, 7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6.6%로 그 뒤를 이었다.

〈표 Ⅰ-3-5〉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	(수)
전체	100.0	(1,000)
연령대 20대	30.4	(304)

구분	비율	(수)
30대	32.0	(320)
40대	37.6	(376)
성별		
여성	48.5	(485)
남성	51.5	(515)
지역규모		
대도시	43.9	(439)
중소도시	40.6	(406)
읍면지역	15.5	(155)
결혼 여부		
기혼	63.4	(634)
미혼	36.6	(366)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65.8	(417)
맞벌이 아님	34.2	(217)
자녀 유무		
자녀 있음	92.3	(585)
자녀 없음	7.7	(49)
자녀연령		
영아	24.1	(141)
유아	20.3	(119)
초등학생	28.7	(168)
중학생 이상	26.8	(157)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1.9	(219)
300~499만원	38.6	(386)
500~699만원	22.9	(229)
700만원 이상	16.6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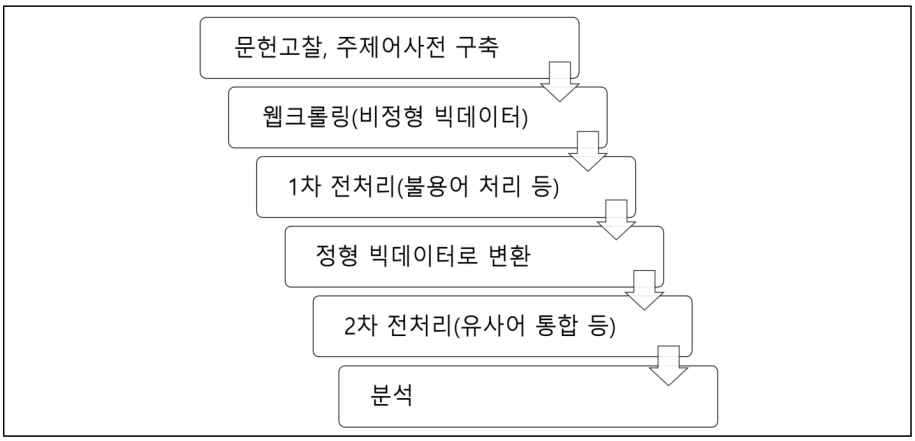
3)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조사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육아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와 관련된 주제어 사전을 구축한 뒤 소셜 미디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육아'와 관련한 대중들의 인식과 우리사회의 육아현상이 어떠한지를 육아 관련 주제어의 출현빈도와 중심성 분석, 육아 관련 문서의 감성어 출현빈도 등을 통해 알아보았다.

육아 관련어가 포함된 일반 문서들은 SK텔레콤의 스마트인사이트에 의뢰하여 웹상에서 크롤링(web crawling)하였다. '육아' 관련 소셜 빅데이터에 대한 빈도분석, 감성분석, 동시출현 매트리스 구성에는 R version 3.6.0을, 중심성 분석에는 UCINET을 사용하였다.

이 부분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동연구로 추진하였다.

[그림 Ⅰ-3-4]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정



주: 본 연구의 '육아' 관련 용어 분석의 과정을 그림으로 구성함.

4)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Creators) 운영

가)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 의미 및 역할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Creators)는 그 단어의 의미 그대로 우리사회의 육아문화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육아문화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모니터링하고, 참여하여 진단하고, 개선방향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하였다. 1차년도에 구성된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는 연구를 추진하는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참여형 숙의토론에 연 2회 참여하며,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자신의 일터와 가정, 지역사회 안에서 긍정적 육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연구와 관련된 SBS 프로그램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자 한다.

나)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Creators)의 구성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를 공모[4]하였다. 모집공고문에는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가 육아를 존

4)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 공모포스터를 부록 1로 제시함.

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환경, 정책과 제도, 사회적 합의 시민의식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긍정적인 육아문화와 육아환경을 창조하는 크리에이터임을 제시하였다.

공모를 통해 20대~40대 남녀 총 35명으로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를 선발 구성하였다. 남성 9명, 여성 26명이며, 연령대는 20대가 13명, 30대, 21명, 40대 1명이다. 결혼한 경우가 27명으로 주류를 이루며 8명의 미혼자도 포함되었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25명이다. 맞벌이인 경우가 16명, 외벌이는 11명이었다.

〈표 Ⅰ-3-6〉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 특성

단위: %(명)

구분	계(수)	
전체	100.0	(35)
성별		
남	22.7	(9)
여	77.2	(26)
연령대		
20대	37.1	(13)
30대	60.0	(21)
40대	2.8	(1)
결혼여부		
미혼	22.8	(8)
기혼*	77.1	(27)
자녀유무		
자녀있음	71.4	(25)
자녀없음	28.6	(10)
맞벌이 여부		
맞벌이	45.7	(16)
맞벌이 아님	31.4	(11)
해당사항 없음(미혼)	22.8	(8)

주: 기혼 참여자 중 두 쌍은 부부임.

다)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 1차 참여 숙의 토론

선발된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들이 한자리에 모여 참여형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제 1차 숙의토론을 2019년 5월 25일 약 5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연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연구진이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 숙의 토론 진행자가 담당하였다. 제 1차 숙의토론의 목적은 20~40대 육아문화 양상 파악과 육아존중사회로의 변화점을 모색하기 위함이었고, 그 주요 내용은 육아문화 진단, 육아존중사회에의 촉진

요인과 저해요인, 향후 기대 등을 논의하였다. 1차 숙의 토론을 통해 제시된 내용들은 설문조사 문항으로 반영하였다.

라)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 2차 참여 숙의 토론

제 2차 참여형 숙의토론은 2019년 9월 28일에 약 5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2차 숙의토론의 목적은 연구 진행과정에 도출된 설문조사 결과, 소셜 미디어 분석 결과, 국외 사례 등을 제시하고 1차 토론 때 진단한 우리나라의 육아문화에 근거하여 육아존중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을 찾는 과정이다.

5)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방향 설정, 육아문화와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육아문화 크리에이터 숙의토론 구성과 진행, 미디어를 통한 육아문화 확산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연구 결과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였다. 또한 연구과정에 협동연구진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생적 협력을 추진하였다.

〈표 Ⅰ-3-7〉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구분	일시	주요내용	참석자
자문회의	3. 6	연구방향 검토 미디어 분석 내용, 방법 관련 연구 동향	언론학 교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아동가족학 교수 2인
자문회의	3.29	소셜 빅데이터 수집 범위와 기간,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법 논의	아동가족학 교수 2인
협동연구진 회의	4.10	육아문화 주제어 선정 및 분류방법 논의	아동가족학 교수 2인, 연구원 2인
협동연구진 회의	4.11	SBS ‘희망TV-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 방송 제작 방향성 논의	SBS 국장, 제작 관계자 3인
협동연구진 회의	4.24	육아문화 주제어 사전 구축 과정(웹크롤링) 공유	아동가족학 교수 2인, 연구원 2인
자문회의	5. 7	육아문화 크리에이터 1차 숙의토론 방향성 논의	숙의토론 전문가
협동연구진 회의	5.13	국외 출장 일정 논의	SBS 제작 관계자
자문회의	5.23	육아문화 크리에이터 숙의토론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 논의	숙의토론 전문가 2인
협동연구진 회의	6.18	SBS ‘희망TV-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 방송 내용 및 구성 논의	SBS 국장, 제작 관계자 1인

구분	일시	주요내용	참석자
협동연구진 회의	8.29	설문조사 결과, 숙의토론 결과,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유 및 방송 콘텐츠 논의	SBS 국장, 제작 관계자 1인
협동연구진 회의	9. 6	육아문화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유 및 논의	아동가족학 교수 2인, 연구원 2인
자문회의	9.24	육아문화 크리에이터 2차 숙의토론 방향성 논의	숙의토론 전문가

6) ‘SBS 희망TV-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 프로젝트 구성

아동과 육아존중문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의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행복한 육아로의 의식 변화를 위해 SBS와 협동으로 방송 미디어 프로그램 기획,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는 공중파 방송인 SBS와 2019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SBS는 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SBS 희망TV-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연 2회의 특집 방송을 방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SBS와 협력하여 육아문화 개선을 위한 내용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이러한 미디어 활용을 통해 육아의 행복에 대한 인식을 전 국민에게 확산하고 긍정적인 육아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1차년도 연구과정에서 도출하여 공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참여형 숙의 토론 과정과 결과물

둘째, 20대~40대 남녀 성인 1,000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셋째,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결과 등 키워드로 본 육아 인식 및 변화

넷째, 육아존중 문화가 활성화된 유럽 국가 방문 취재내용(덴마크, 노르웨이)

1차년도 연구결과는 11월 22일 방영된 ‘SBS 희망TV-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 155회 3부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7) 국외 출장

긍정적 육아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 및 육아지원제도 및 그 영향에 대한 사례조사로 노르웨이와 덴마크 육아지원 관련 부처 방문 및 면담을 육아문화 양상, 지원제도 등을 파악하고, 육아존중사회로의 변화점 모색을 위한 시사점 도출하고자하였다. 부-모 공평공동 육아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어 있는 노르웨이와 덴마크

의 유관 기관을 방문하여, 육아지원 정책 등에 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성평등 지수가 매우 높은 나라로, 육아에 있어 아버지 참여율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평등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육아정책 뿐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시장 정책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부모 간 평등한 육아를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 및 사회 전반의 육아에 대한 인식 차이를 가져오는 사회 문화적 제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해외 출장을 통해 관련 자료 수집하고자 하였다. 또한 출장 중 면담과 방문기관에 대한 수집 자료를 SBS와 공유하여 연구내용을 11월에 방영된 'SBS 희망TV'에 반영하였다. 2019년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 결과는 2장 2절 국외 사례 부분에 정리하였다.

〈표 Ⅰ-3-8〉 국외 출장 개요

출장일자	방문지역	방문 장소 및 대상
5월 27일(월)	덴마크 코펜하겐	- Legestue(육아지원센터)방문 Vesterbro Bibliotek og Kulturhus - 덴마크 고용노동부, 유아교육 정책 담당자 면담 Ministry of Children & Social Affairs/ Ministry of Employment - 코펜하겐 시 Fars Legestue(아빠들의 놀이터) 방문
5월 28일(화)	덴마크 코펜하겐	- 덴마크 ECEC 기관 방문 Børneinstitutionen Galaksen - 어린이박물관 방문(Bornemuseet) - Children Culture House 방문 The Ama'r Children's Culture House in Copenhagen
5월 29일(수)	노르웨이 오슬로	- 오슬로 개방 유치원 방문(Grønland Apen barnehage) - 공립 ECEC 기관 방문(Breigata Barnehage) - 사립 ECEC 기관 방문 (Espira Torshovdalen Barnehage)
5월 30일(목)	노르웨이 오슬로	- 노르웨이 국가 공휴일로 현지 부모 면담 - 양육지원환경 탐방
5월 31일(금)	노르웨이 오슬로	- 노르웨이 성평등부, 교육부 정책 담당자 면담 Ministry of Culture/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 노르웨이 노동복지청 육아휴직 정책 담당자 면담 Norwegian Labour and Welfare Administration, NAV

바. 정책토론회 개최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에 연구결과 및 정책적 제안, SBS 결과물 등을 중심으로 공개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사회 육아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1월 중 개최하였다.

4. 용어의 정의

가. 육아문화(育兒文化)

‘육아(育兒)’는 아동을 기르는 행위와 과정으로 ‘양육(養育)’과 유사한 개념이다. ‘문화’란 사회적으로 전이되거나 구성되는 덩어리로, 이는 관습, 생각, 도식, 상징, 가치, 규범, 제도, 목표, 입법규칙, 인공물, 수정된 물리적 환경과 같은 것들로 구성된다(Fiske, 2002; 85).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육아문화’는 아동을 기르는 행위와 과정에 대한 총체로 관습(기술), 생각이나 언어, 가치, 규범이나 제도, 물리적 환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육아(育兒)’는 육아를 경험하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가정, 제도, 사회문화적 가치관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육아문화를 생태체계이론(Bronfenbrenner, 1981)에 준하여 미시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범주화 가능하다. 미시체계는 아동과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환경으로,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가정 내 환경과 가정 외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이 포함된다. 외체계는 아동이 직접 참여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부모의 직장, 미디어, 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거시체계는 아동과 그 가족이 속한 사회가 가지는 가치관이나 규범이 이에 포함된다.

나. 육아존중문화(育兒尊重文化)

‘육아존중문화(育兒尊重文化)’는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 개념 안에는 육아의 대상과 육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육아의 대상인 ‘아동’은 마땅히 존중받아야하는 존재이다. 또한 본 연구가 다음 세대를 기르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육아’와 ‘육아하는 가정’이 배려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개발되었고, 그 배경이 되는 가치는 ‘육아’와 ‘육아하는 가정’을 배려를 넘어 존중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육아존중문화’는 육아하는 행위와 육아의 대상인 아동과 그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적 가치가 공유되는 문화를 의미한다.

다. 긍정적 육아문화(肯定的 育兒文化)

문화 안에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공존한다. '긍정적 육아문화'는 '부정적 육아문화'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긍정적 육아문화'는 본 연구를 통해 구체화될 우리사회 육아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부정적 요소들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육아문화의 지향점을 의미한다. 이를 조성하기위해서는 우리사회와 문화 안의 긍정적 요소들을 확인하고 이를 확산하고, 부정적 요소를 구체화하여 줄여나가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해가야 한다.

라. 육아(育兒)의 대상

육아(育兒), '아동을 기르는 일'의 대상이 되는 '아동'을 몇 세까지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다.

아동에 대한 기준은 법에서도 차이를 보여 아동복지법[5]에는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민법[6]에는 미성년으로 18세 이하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아동은 성인이 되기 전의 연령을 통칭함을 알 수 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육아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다. 인간 발달의 관점에서는 성인 이전의 아동을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와 청소년기로 구분한다.

그러나 언제까지를 자녀를 기르는 육아 시기, 양육 시기로 이해하는지에 대한 보편화된 인식은 초등학교 취학 전 또는 초등학생까지 등으로 보인다. 또한 정책연구인 본 연구에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제언이나 대응방안이 오히려 구체적이지 못할 수 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초등취학 전까지의 연령에 대한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함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육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범위를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로 국한한다.

---

5) 아동복지법 제3조 1항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2019년 7월 10일 인출함)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

6)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2019년 7월 10일 인출함) http://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

Ⅱ

연구 배경

01 선행 연구

02 국외 사례

Ⅱ. 연구 배경

본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이 되는 선행연구와 국외 사례를 정리하였다. 선행연구는 문화 구성자들의 인식과 육아문화 관련 현황과 미디어 영향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본 연구 과정에서 국외출장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면담결과 등을 통해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육아지원관련 제도와 육아문화의 양상을 제시하고 우리의 육아문화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1. 선행 연구

본 연구는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1차년도로 연구로 육아문화를 구체화 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 선행연구로 문화 구성자들의 인식에 대해 살핀 부모됨, 자녀양육관 관련 연구, 육아문화 또는 양육문화에 대한 연구, 문화 형성에서의 미디어의 영향 관련 연구, 문화 개선 노력으로의 정책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부모됨, 자녀양육관 관련연구

부모됨과 자녀양육관 관련 정책연구가 2016년을 기점으로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먼저 문무경 등(2016)은 성별, 세대별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 양육관의 특징을 파악하여, 육아지원 정책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고, 2008년에 수행된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김은설, 최혜선, 2008) 틀을 적용하여 그 변화를 살폈다. 연구는 젊은 세대일수록 부모 모두가 자녀양육에 참여해야한다는 인식은 높으나, 자녀를 위해 부모가 희생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전통적 인식이 강함과 자녀 양육에의 대해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남성은 주로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 지원을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여성은 자녀 양육의 주체로 양육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본 연구가 지향하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성 평등한 육아문화 형성을 위해 인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그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한 연구(이윤진, 김아름, 임준범, 2016)는 아버지 양육역량 self-체크리스트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역량 실태조사 결과 4개 영역 중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고, 유년시절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았던 경우에 양육역량이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세대에서 세대로 육아의 경험이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며, 그러기에 양육을 둘러싼 사회문화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조성되어야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결혼하지 않는 청년층의 비혼 문제에 주목하여 출산 양육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한 최효미 외(2016)의 연구는 청년 미혼자 1,073명의 설문조사와 40대 미혼남녀 16명의 심층면담 자료를 토대로 청년 미혼 남녀의 만혼 및 비혼 현황과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저출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조건으로 '경제적 안정', '일·가정 양립 기업 문화', '배우자와 가사나 육아 분담'이 높은 응답을 보임과 남성보다는 여성이, 20대보다는 30대가 기혼 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큼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육아, 육아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본 연구가 주목한 2차년도의 직장, 일터, 3차년도의 가정에서 변화 노력이 적절한 방향임을 시사한다.

나. 육아문화, 양육문화 관련연구

육아를 문화의 측면에서 육아문화, 양육문화를 주제로 한 최근 학술연구는 많지 않다. 조모세대와 모세대간 자녀양육문화 변화에 관해 질적인 방법으로 추진된 연구(이하정, 2005)에서는 자녀 양육문화를 "수대에 걸쳐 축적되어 온 삶의 양식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문화 장치"로 정의(노영주, 1998) 하던 것이 산업화 이후 단절되고, 다양한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육아를 개인 학습, 유행으로 변질시켰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연구는 심층면담의 분석을 통해 조모세대에서 모세대로 오면서 '자연스러운' 양육문화가 '인위적인' 양육문화로 변화하였고, 자녀를 양육하는 신념, 환경, 방법에서의 변화를 구체화하여 이를 육아문화의 변화로 해석하였다. 일가정 양립, 젠더의 관점에서 기업과 직장의 육아문화를 고찰한 연구로 서동희

(2008)는 성별에 따른 분업의 문화가 가정에서만 아니라 직장과 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하며, 직장 내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 활성화를 포함하는 가족중심의 가족친화적 문화로 변화와 사회적 책임성을 모색해야 함을, 긍정적 육아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문화가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숙현과 권영인(2009)도 237명의 아버지 대상 조사연구를 토대로 기업의 가족 친화적 문화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미치는 직접·간접적 효과를 분석하여, 기업의 조직 분위기가 가족친화적일수록,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일-가족 갈등이 줄고, 일-가족 갈등이 적을수록 자녀 양육에 더 참여한다고 보고하였다.

2016년 이후 육아문화에 대한 몇 편의 정책연구가 시도되었다. 권미경 등(권미경, 이정원, 최효미, 김혜진, 2016)은 과소비적이고 과시적 육아소비문화를 '작은 육아문화' 로의 변화를 도모하며 정책연구와 더불어 합리적 소비 '작은 육아'를 위한 정책안내 책자를 구성하였다. 연구는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 자녀를 양육 중인 육아문화 구성자들의 육아인식과 육아현황 고찰하고, 육아 현황을 파악하고, 육아문화 형성과정에 영향 미치는 육아정보현황을 파악하고, 영유아와 초등저학년 시기 육아비용의 지출 및 부담수준을 확인하여 대안적 육아문화 방향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다면적인 육아지원 정책은 마련되고 있지만 실제 정책수요자에게 체감이 떨어져 실효성의 제고가 필요하여, 육아정책과 수요자와 간 소통을 통해 행복한 육아문화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안내와 홍보 방안을 부모대상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실천하는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방안 연구(권미경, 최은영, 김나영, 김혜진, 임준범, 2016)가 협동연구(EBS,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로 추진되었다. 연구는 전국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1,203명 설문조사, 72명 영유아와 초등부모 심층면담, 육아지원정책 홍보 동영상 개발, 육아지원정책 안내서 구성, 전국 순회 육아콘서트 개최, 육아정책 내용 파악, 정책수요자 인식 및 만족도 정도, 육아지원 요구를 수렴하여 자신만만하고 행복한 육아문화 구축 위한 육아지원 정책 홍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론조사를 통해 육아관련 문화 트렌드를 구체화하고자 한 연구로는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김동훈 외, 2017; 최은영 외, 2018)를 들 수 있다. 김동훈 외(2017)의 연구에서는 육아문화의 개선과제로 청년

층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긍정적 가치를 전달하고 확산할 필요성, 부모교육 의무화, 자녀양육 및 가사의 공평한 분담 의식 확산 필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정 등을 제언하였고, 최은영 외(2018)의 연구에서는 행복 육아를 위한 사회환경 조성 및 문화 확산 추진과제로 다면 평가를 통한 육아정책의 재설계, 안전한 사회 환경구축,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렇듯 선행연구에서 강조한 과제들은 긍정적 가치 형성에 중점이 두어지며, 본 연구가 찾아갈 육아문화 개선 과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 문화 형성에서의 미디어의 영향 관련 연구

본 연구는 SBS와의 협력으로 긍정적 육아문화의 확산을 도모하므로 문화 형성에서의 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텔레비전 시청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로 발전한 문화계발이론(Cultivation Theory)에 근거한다(오명옥, 나은경, 2018).

육아 프로그램의 시청이 시청자의 결혼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고자 육아 리얼리티 텔레비전이 시청경험이 결혼 및 출산의지, 양성평등인식, 가정생활 만족도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연구(오명옥, 나은경, 2018)가 이루어졌다. 또한 한희정(2014)은 육아 리얼리티 TV프로그램이 시청자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부성 경험을 어떻게 투영해 프로그램을 수용하는지 고찰하여,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은 행복한 결혼과 따뜻한 가정에 대한 불안감과 결핍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미디어와 젠더 이데올로기에 초점을 둔 연구로는 김미선과 이가영(2016)은 요리 예능 프로그램을 서사 분석하여 젠더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는 TV가 문화적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며,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젠더 권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젠더 이데올로기의 가능성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김미라(2014)도 성역할과 정체성이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전제하에 그동안 가부장제가 지지하는 지배적인 남성성, 남성다움을 표현해 왔던 TV가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문화계발이론의 '공명효과'(resonance effect)에 대한 우형진(2006)의 연구이다. 연구(우형진, 2006)는 수용자들이 TV 위험보도에 노출되었

을 때, 이전의 경험을 통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위험보다는 잘 모르거나 경험하지 못한 위험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사전 경험에 따라 텔레비전 공명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를 본 연구로 비추어 보면 육아에 관한 부정적 메시지가 담긴 프로그램은 육아에 대해 잘 모르는 예비부모들로 하여금 육아에 대한 과대한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SBS와 같은 방송 매체를 통한 육아존중문화조성 노력이 예비부모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을 기대할 수도 있다.

라. 문화 개선 노력으로의 정책 연구

문화 개선을 정책으로 어떻게 접근가능한 지에 대해 성평등 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류정아 외(2018)의 연구는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적 접근 방법 도출을 위해 그동안 추진되었던 성평등 문화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정책방향과 관련 추진 사업 등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긍정적 육아존중 문화를 정책적 노력으로 접근하기 위한 본 연구도 현 육아문화의 현황을 진단하여 성과와 한계, 해결과제를 도출하는 기초연구에서 비롯되어야함을 시사한다.

마. 시사점

첫째, 육아문화를 직접적인 주제로 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육아의 주체인 부모, 부모 됨, 자녀관 등에 대한 연구들은 세대별 비교를 통해 부부의 양육 참여, 자녀 기대 등을 비롯하여 육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이는 우리사회의 육아 문화의 변화를 보여주는 일면이기도 한다.

둘째, 육아문화는 쉽게 변화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연구들은 우리사회의 육아문화를 진단하고 그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긍정적 가치를 전달, 부모교육 강화, 자녀양육 및 가사의 공평한 분담 의식 공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정, 안전한 사회 환경구축, 성평등 의식 확산 등으로 수렴된다.

셋째, 문화 형성에서의 미디어의 영향 관련 연구들은 미디어가 상당 부분 시청자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미디어의 내용도 사회의 변화를 담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SBS와의 협력으로 TV 프로그램의 구성과 병행하여 긍정적 육아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하는 본 연구의 방향이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2. 국외 사례

부모의 육아를 지원하는 환경과 체계가 잘 마련된 덴마크와 노르웨이 사례를 통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과 성평등 육아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한다.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사회문화적 배경, 육아 관련 정책과 제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국외출장(5월 26일~6월 2일)을 통해 ECEC 정책 담당부서, 성평등 정책의 주무부처, 육아휴직 주무부처 등을 방문하여 담당자와 면담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내용은 문헌자료, 정책담당자 및 부모와의 면담 내용, 부처 제공 자료를 토대로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사회문화적 배경, 육아친화적 정책, 양육환경과 문화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가. 덴마크

1) 사회문화적 배경

가정과 일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로 덴마크의 근무시간은 주당 37시간으로 유럽에서 가장 짧다. 또한 높은 세율로 인해 추가적으로 일을 해서 번 돈은 세금으로 더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일을 하지 않는다. 더불어 이는 '휘게'(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또는 혼자서 보내는 소박하고 여유로운 시간)를 중시하는 덴마크 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덴마크에서 말하는 성공은 돈이나 직업적 성취가 아니라 가정과 일의 균형을 이룬 삶을 뜻한다고 한다.

덴마크는 여성 고용률이 72.4%, 남성 고용률 76.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이런 높은 고용률 유지를 위해 GDP 대비 2%를 보육과 유아교육에 투자한

다(양미선, 2017). 덴마크 보육정책은 특히 여성의 노동권을 중시해 영아보육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에 대한 투자는 여성의 고용 증대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박언하, 2017).

양성평등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의식이 높은 나라이기도 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법제화되어있고 과거에는 여성 정치참여를 위해 할당제를 시행하였으며(양미선, 2017), 현재는 할당제 없이도 의회의 40%가 여성이다. 또한 경제계에서도 여성의 사회진출을 두드러지는데, 법적인 의무 없이 단지 문화적인 선택에 따라 2012년 이사회에서는 여성이 42% 차지하기도 했다. 여성의 사회진출에 차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덴마크의 평등대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고용주는 차별이 없었음을 증명해야한다.

2) 육아 관련 제도 및 정책

가) 육아휴직 제도[7)]

덴마크 고용노동부(Ministry of Employment)와의 면담에 따르면 덴마크는 육아휴직을 약 100년 전부터 추진해왔고 현재 부모에게 총 52주의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한다. 어머니에게는 출산 전 4주, 출산 후 14주의 육아휴직이 보장되며 아버지의 경우 출산 14주내에 2주의 휴직이 보장된다. 나머지 32주는 부모가 나누어 사용이 가능하다. 덴마크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부모에게 주당 660USD (한화 약 79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의 10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660USD를 초과할 경우 회사에서 이를 부담하기도 하는데, 회사는 그 대가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다. 시간제로 일하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반일 근무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6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유연한 육아휴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덴마크 육아휴직 관련 담당부서인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다. 육아가 존중받는 문화가 구현된 사회에서의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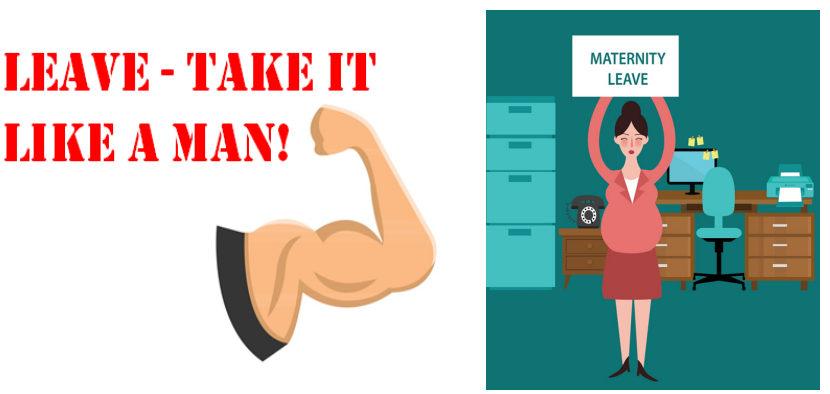
7) 본 내용은 국외 출장을 통해 덴마크 고용노동부(Ministry of Employment)의 육아휴직 담당자와 면담을 토대로 작성함.

[그림 Ⅱ-2-1] 덴마크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 그림

출처: 덴마크 고용노동부(Ministry of Employment) 제공 자료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어머니들은 평균적으로 300일 미만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아버지들은 40일 미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이러한 차이는 아버지에게 주어진 육아휴직이 어머니에 비해 10주 이상 짧은데 기인하지만 육아는 여자의 일이라는 전통적인 남녀 역할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존재함을 확인시켜준다. 덴마크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휴직기간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육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문화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현재 덴마크에서는 'Leave-Take it like a man!' 이라는 캠페인으로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육아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더불어 직장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업 등의 사회적 파트너와 협업을 추진 중이다.

[그림 Ⅱ-2-2] 덴마크 육아휴직 독려 캠페인 그림



출처: 덴마크 고용노동부(Ministry of Employment) 제공 자료

나) 아동양육 지원금 제도

생후 26주~18세 미만의 의무교육 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각 지자체는 자녀의 연령과 수, 가계소득, 가족 형태에 따라 부모에게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해택 보조금의 경우, 0~2세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DKK1,417(한화 약 25만원), 3~6세는 월 DKK1,121(한화 약 20만원), 7~17세는 월 DKK882(한화 약 16만원)을 지급한다(양미선, 2017).

다) 보육 서비스 관련 정책[8)]

아동사회부(Ministry of Children & Social Affairs) 담당자와의 면담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생후 26주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담당한다. 26주가 된 시점에 바로 보육시설 이용을 원한다면 지방의회가 4주 이내에 해당 지역 내 공립 보육시설에 자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 내 입소가 불가한 경우 민간 보육시설 이나 관할 지역 외의 시설 이용비용을 지불하거나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

아동사회부 보육정책(Act on Day-Care)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육기관의 재정 중 75%는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며 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25%(약 300-500USD)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기관의 원비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한제를 국공립·사립 기관에 모두 적용하는 노르웨이와 다르게 덴마크는 국공립 기관에만 적용한다. 또한 아이가 있는 가정에게 기관 선택의 자유와 유연성을 주기 위해 보육기관의 일부는 저녁이나 주말에도 운영하도록 하며, 부모가 특성 기관을 선택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형제들을 시간제로 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하여 아이들이 보육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육아 친화적 양육 환경과 육아 문화[9)]

덴마크의 경우 52주의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부모들이 생

8) 본 부분은 국외 출장을 통해 덴마크 아동사회부(Ministry of Children & Social Affairs)의 유아교육 담당자와 면담을 토대로 구성함.
9) 연구진의 덴마크의 양육환경 탐방을 토대로 구성함

후 1년까지는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고 있었다. 덴마크 코펜하겐시의 경우 휴직을 하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이할 수 있는 놀이방(Legestue) 공간을 제공한다. 놀이방에는 소근육과 대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놀잇감들이 비치되어있으며 설치 형태에 따라 운영시간, 운영날짜, 참여 가능한 대상 등이 다양하다. 시설 이용료는 따로 없으며 간단한 다과 비용 정도만 필요시 지불하면 된다. 아빠들만 참여 가능한 아빠 놀이방에서는 30~40명의 아버지들이 모여 서로 아버지로서 가지는 고민이나 양육 정보를 공유하며 놀이방 파견 간호사에게 자녀 건강 관련 상담을 하기도 한다. 놀이방에 참여하는 상당수의 아버지들이 영유아를 키우는 육아휴직 중인 아버지이며 그들은 자기 아버지 세대보다는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분위기라고 말한다. 또한 아내들이 복직을 위해서 남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림 Ⅱ-2-3] 덴마크 아빠 놀이방(Fars Legestue) 모습

주: 연구자가 출장을 통해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임.

대부분의 부모가 1년의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보육 서비스는 종일제를 기본으로 한다. 1세 이후의 아이들의 약 90%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관에 다니는 것을 아동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린나이부터 기관생활을 하도록 권장한다. 직장 내 일·가정 양립 제도가 잘 구축되어있어 일을 하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예를 들어 엄마는 아이를 맡기고 9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일하고, 아빠는 7시에 출근해 4시쯤 퇴근해 아이를 데리러 와서

함께 육아를 담당한다. 또한 부모가 아이의 질병이나 교육으로 일찍 퇴근하거나 조퇴할 수 있고 아이가 아프면 추가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는 등 육아를 배려하는 기업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육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육기관과 문화시설도 방문하였다. 방문했던 덴마크의 유치원의 경우 영아와 유아와의 발달을 고려하여 교실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잠자는 시간이 많아 상대적으로 조용한 공간이 필요한 영유아들이 기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방을 기준으로 한편은 1~2세 교실을, 다른 한편에는 3~5세 교실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교실 배치는 가정에서 기관으로의 전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육아하는 가정에 대한 배려가 보이는 부분이다.

[그림 Ⅱ-2-4] 덴마크 어린이 박물관(위), 아동문화센터(아래)

주: 연구자가 출장을 통해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임.

정규 유치원 기관 외에 아이들을 위한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도 많았다. 코펜하겐에서 방문했던 어린이 박물관의 경우, 사설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역할놀이, 페인팅, 과자 굽기 등의 예술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며 영유아 뿐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비싼 방과후 프로그램 대신 저렴하게 부모 및 친구들과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특히 여름방학 주간에는 캠프나 특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이라고 한다. 코펜하겐 아동문화센터는 영유아부터 16세의 아이들과 부모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영유아들에게는 운동, 음악, 감각놀이, 극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다른 친구나 부모들과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찾아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아이들과 키즈까페나 문화센터에 가는 우리나라의 모습과 크게 달라보이진 않았으나 일하는 부모가 육아휴직이나 유연한 근무제를 활용하여 이런 곳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문화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나. 노르웨이

1) 사회문화적 배경[10)]

매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성 격차지수에서 1,2위를 다투는 노르웨이는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잘 갖추어진 나라이다. 여성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직장에서 양성평등이 실행되는지 감시하는 평등과 차별 옴부즈맨 제도, 국회 여성대표 할당제, 회사임원 여성할당제 등을 도입하여 시행해 온 결과 현재 여성들의 77%가 일을 하고 있으며 남성의 87%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특히나 남녀 임금 격차의 해소는 가정의 수입 손실로 육아휴직을 하지 못했던 아버지들에게 휴직의 기회를 더 넓혀주어 성평등 육아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르웨이는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평등 및 차별 관련된 법을 제정하는 것 외에도 모든 정책분야와 부처에서 성평등에 기여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성 균형적인 교육과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선호하는 직

10) 노르웨이의 문화부(Ministry of Culture)와 노르웨이 노동복지청(Norwegian Labour and Welfare Administration, NAV)의 담당자 면담을 토대로 구성함.

종인 비즈니스나 엔지니어링에 여성들을, 반대로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종인 교사나 간호사 직종에 남성들을 늘리려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여성 직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유치원에서도 남자교원 및 직원을 20%까지 늘리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아이들이 남성교사와 여성교사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데서 기인한다.

노르웨이는 복지국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1990년대 석유산유국으로 급부상하면서 복지에 막대한 투자가 가능해졌고 그 덕분에 현재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복지제도와 정책이 안착될 수 있었다. 노르웨이의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노르웨이 노동복지청(Norwegian Labour and Welfare Administration, NAV)에서 담당하고 있고 국가 예산의 약 삼분의 일을 집행하여 고령연금, 실업수당, 육아휴직제, 자녀수당 및 영유아 수당과 같은 다양한 복지 제도를 관장한다.

2) 육아 관련 제도 및 정책

가) 육아휴직 제도[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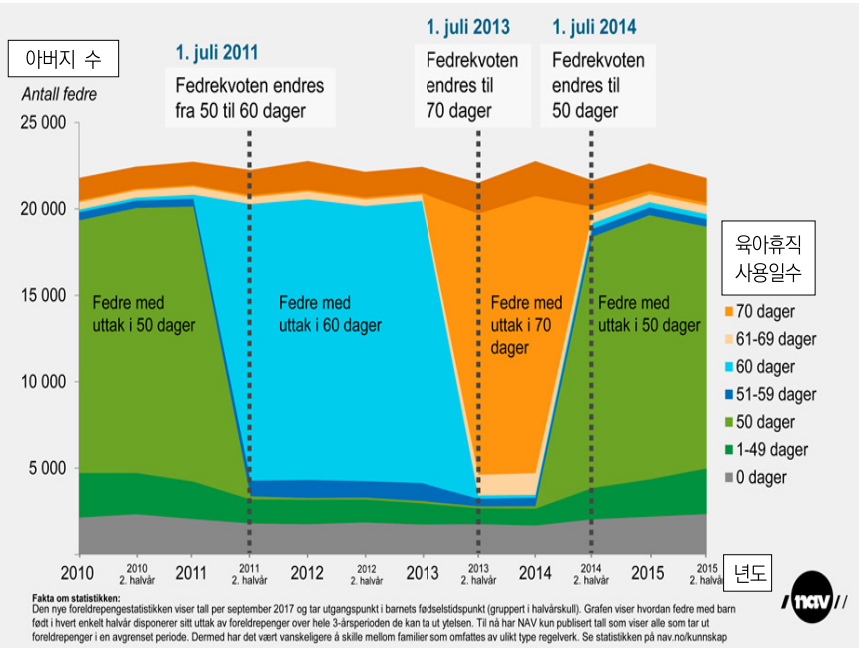
노르웨이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출산, 입양을 하는 부모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현재 총 49주의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한다. 어머니의 경우 출산 전 3주, 출산 후 15주를 보장받으며,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와 같은 기간인 출산 후 15주의 휴직을 보장받고 나머지 16주의 휴직 기간은 부모가 자유롭게 나눠 쓸 수 있다. 현재 30대 아버지들의 약 95%가 할당된 15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20% 정도의 아버지들은 할당된 15주보다 더 많은 휴가를 사용한다. 휴직기간동안의 임금은 국가에서 부담하며 49주 휴직 시 통상임금의 100% 보장, 59주 휴직 시 통상임금의 80%를 보장한다.

2014년 14주에서 10주로 줄어들었던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 기간은 2018년부터 다시 늘어나 2018년 6월생 아이를 양육하는 아빠부터는 15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 할당 기간의 확대는 실제 육아휴직 사용일수 증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확인되는데 [그림 Ⅱ-2-5]에 따르면 14주의 휴가가 주어졌을 때는 평균 70일 정도 사용하던 아버지들이 10주로 줄어들었을

11) 노르웨이 노동복지청(NAV)의 담당자 면담을 토대로 구성함.

때는 평균 50일 정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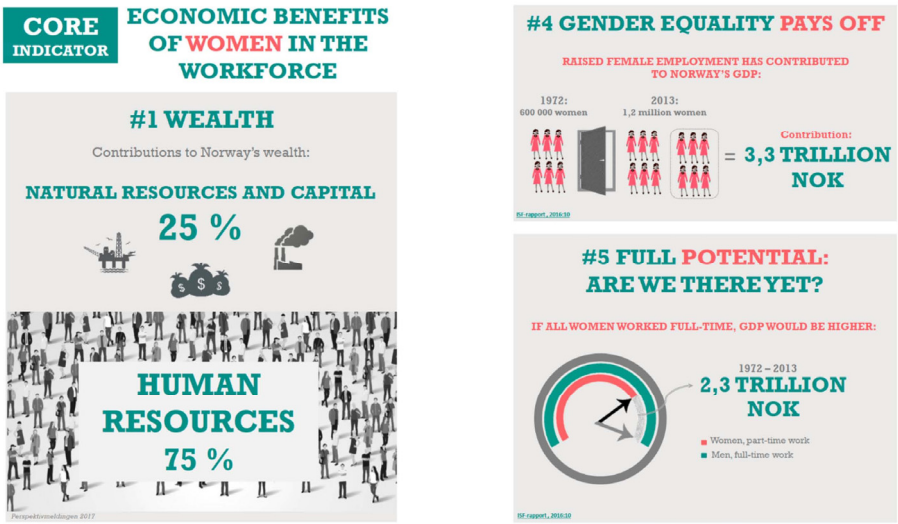
[그림 Ⅱ-2-5] 노르웨이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 기간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일수



자료: 노르웨이 노동복지청(NAV) 자료로 국외 출장을 통해 수집함.

그러나 아버지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어머니가 일을 하지 않으면 휴직을 박탈당한다. 이러한 조건부 아버지 육아휴직 제도가 남녀 차별적이라는 점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육아휴직에 대한 아버지들의 권리가 노르웨이 사회에서 어머니만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육아에서의 성평등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성에 따른 평등의 개념을 넘어서서 모든 인간의 평등을 강조함이며, 특히 노르웨이 노동복지청(NAV)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그림 Ⅱ-2-6 참조) 여성의 노동력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강조한다. 2013년의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1972년도에 비해 두 배로 증가했으며 그 경제적 가치를 모두 합하면 약 3.3조 NOR(한화 약 460조원)라고 한다.

[그림 Ⅱ-2-6] 노르웨이 여성의 사회 참여가 지니는 경제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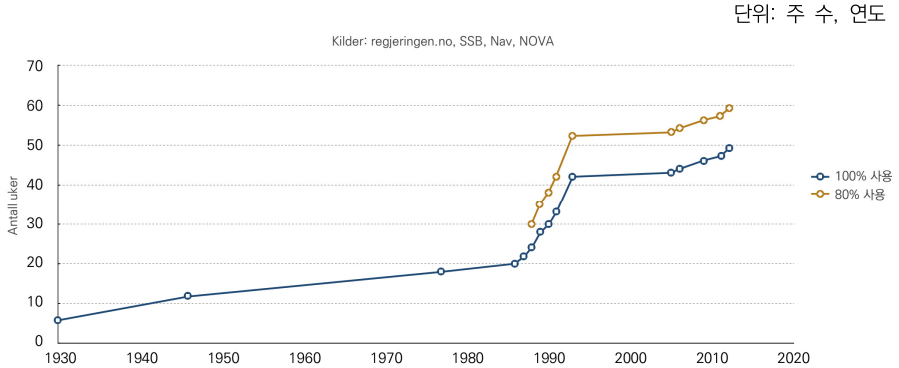


출처: 노르웨이 노동복지청(NAV) 자료로 국외 출장을 통해 수집한 자료임.

다음의 [그림 Ⅱ-2-7]은 년도별 육아휴직 사용가능 주 수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100% 유급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이 20주에서 40주로 크게 변화를 보이는데, 이 시기는 유전의 발굴로 오일 머니(oil money)가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는 복지정책에 재정이 미치는 영향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림 Ⅱ-2-7] 노르웨이 연도별 육아휴직 사용가능 주 수

단위: 주 수, 연도



출처: 노르웨이 노동복지청(NAV) 자료로 국외 출장을 통해 수집한 자료임.

나) 아동양육 지원금 제도

부모가 직장생활을 하지 않아 육아휴직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에 대한 일시금 형태의 보조금(Lump Sum Grant)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83,140 NOK(한화 약 1100만원) 정도로 작년(약 900만원)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출산 이후 양육에 대한 보조금은 크게 생후 1개월부터 18세까지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주는 자녀수당(Child Benefit)과 영유아기의 아이를 기르는 부모에게 주는 영유아수당(Cash for Care)이 있다. 영유아수당의 경우 육아휴가가 끝난 후 부모가 1세(13-24개월)의 자녀를 직접 양육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며 자녀의 개월 수와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데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자녀는 영유아수당의 100%를, 시간제로 다니는 아이의 경우 20~80%의 수당을 수령한다. 2019년 기준, 부모양육 시 매달 최대 7500 NOK(한화 약 100만원)가 지급된다.

다) 보육 서비스 관련 정책[12)]

노르웨이도 덴마크와 비슷하게 1년의 육아휴직을 마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며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법적 권리가 1세 아이들부터 적용된다. 노르웨이 유치원은 0-5세 아동을 위한 통합적 교육기관으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모든 아동들이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04년 부모부담 상한제를 도입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부모의 부담비용을 가족 소득의 6%로 정하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어 현재 부모들은 14% 정도의 교육비만 부담하게 된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보육 비용할인제를 적용하며 저소득층 가정 경우 2-5세까지의 아동은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유치원을 무료로 다닐 수 있다. 1-5세의 아동 중 92%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세부 연령별로는 1-2세 아동의 83%이, 3-5세 아동의 97%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12) 노르웨이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의 담당자 면담을 토대로 구성함.

3) 육아 친화적 양육환경과 육아 문화[13)]

노르웨이도 49주의 유급 육아휴직이 가족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들이 생후 1년까지는 아이들을 직접 양육한다. 아이가 생후 3개월쯤에는 지역 보건소에서 출산한 엄마들 모임인 바르셀 그룹을 만들어 새롭게 부모가 된 사람들끼리 같이 육아를 하며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 아이가 생후 3~4개월일 때 만들어지는 이 모임은 보통 엄마들 위주로 참여한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엄마들의 모임은 한국의 산후조리원 동기 모임과 비슷하다.

바르셀 그룹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다른 부모들과 육아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지역 개방유치원이 대표적인 장소이다. 아이들과 함께 놀이하고 다른 부모들과 만나 양육과 관련된 정보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개방 유치원은 양육지원을 목표로 하는 공동육아나눔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비슷한 곳으로 정규 등록이 필요하지 않고 지역사회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간이다.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진 않으나 자체적으로 음악, 요가 등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간호사 등 전문가들에게 양육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부모나 육아휴직중인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버지의 대다수가 주어진 15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서 육아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의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림 Ⅱ-2-8] 노르웨이 개방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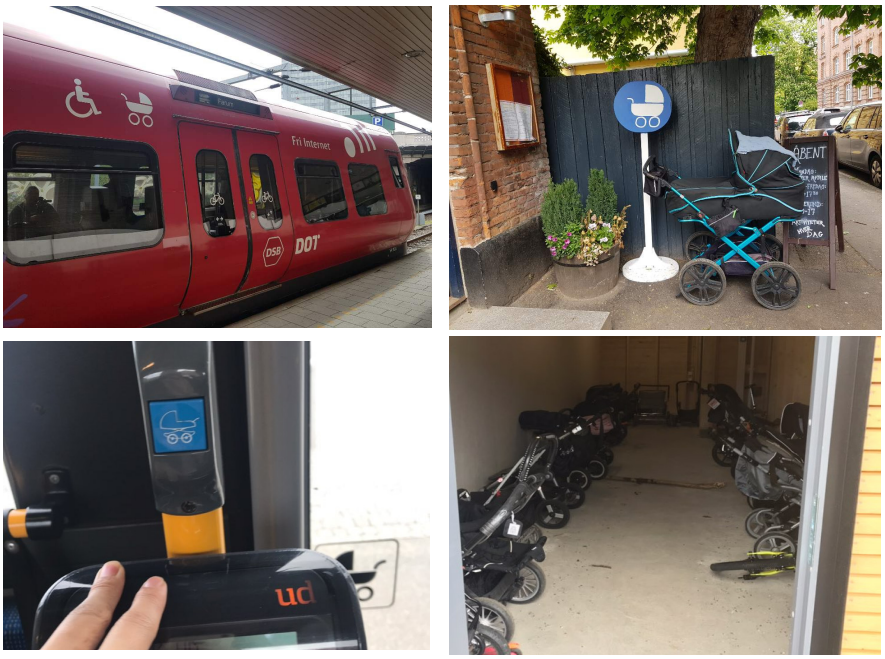
주: 연구자가 출장을 통해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임.

13) 연구진의 노르웨이 양육환경 탐방을 토대로 구성함.

아이들이 한 살이 되면 부모들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유치원 등록이 아동이 누려야하는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0세의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고 1세 이후부터는 아이를 하루 8시간 이상 공립 또는 사립 보육기관에 보낸다. 연구진이 방문했던 사립 유치원의 경우 기관을 처음 다니는 1세의 경우 최소 3일 정도 부모가 함께 등원하여 적응을 돕도록 한다. 또한 같은 날 새 학기가 시작되는 한국 유치원과 달리 노르웨이는 1세 아이들의 첫 등원 날짜를 다르게 하여 아이들과 부모가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유치원 방학 기간(최소 3주 최대 5주) 동안에는 보통 부모들도 휴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나 휴가를 낼 수 없는 가정은 문을 여는 지역 내 공립유치원에 보낼 수 있다. 그러나 방학에 운영하는 공립유치원 수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집에서 가깝지 않을 시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도 있다.

직장 내의 육아휴직 사용과 유연 근무제가 잘 안착되어있어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일·가정 양립이 잘 이루어진다. 또한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일년에 10일까지, 자녀가 두 명인 경우 15일까지 아이를 위해 휴가를 낼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시간제 정규직 제도도 활성화되어있다. 이로 인해 어린 아이를 키우며 근무 시간의 비율을 줄일 수 있다. 노르웨이에서 면담한 어머니에 따르면 이러한 직장 내 양육 친화적 문화와 제도가 아이 기르기 좋은 사회임을 체감하게 해주는 큰 요인 중 하나라고 한다. 직장 내 양육 친화적 요소 외에 지역 사회 곳곳에서 친화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기차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에 유모차를 가지고 탈 수 있는 칸이 따로 표시되어있기도 하고 유모차 하차 시에는 따로 이를 알리는 버튼이 있어 버스기사가 유모차가 하차하는 것을 알고 배려할 수 있다. 아이들이 노는 공간 어디에나 유모차를 보관하거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서 사회가 양육하는 부모를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Ⅱ-2-9] 노르웨이 양육 친화적 지역 환경



주: 연구자가 출장을 통해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임.

다. 시사점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북유럽 국가로서 비슷한 육아 관련 정책과 양육환경, 육아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잘 갖추어져있다는 점이다. 두 국가 모두 약 50주의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하며 부모에게 각자 소진해야하는 육아휴직을 할당함으로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육아휴직 참여를 독려한다. 육아휴직제 외에도 유연한 근무제 사용과 아이들을 위한 휴가가 법제화되어있어 직장을 다니면서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 지역 내 양육지원기관(아빠들의 놀이터, 개방유치원 등)의 유무도 중요하지만 기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육아휴직제와 유연한 근무제의 안착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덴마크는 노르웨이보다 보수적인 면이 있어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이 육아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40일 미만의

육아휴직을 하는 덴마크 아버지에 비해 노르웨이 아버지들은 대부분 육아휴직을 15주 이상 사용한다. 덴마크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가 노르웨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아버지의 육아휴직 할당량이 노르웨이에 비해 10주 이상 짧은 것에도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노르웨이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와 같은 기간의 육아휴직을 할당한다. 아버지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같은 정책 변화가 실제 아버지의 육아휴직 기간을 증가시켰고 아버지 육아 참여에 큰 영향을 주었다. 더불어 아버지의 조건부 육아휴직 폐지하기 위해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육아에서의 성평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종일반으로 운영되어 일하는 부모들이 근무시간동안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다. 부모의 노동권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종일반이 운영되긴 하나 그와 별개로 기관에 다니는 것을 아동의 권리라고 인식하며 어린 나이부터 사회성을 기르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생각한다. 이는 직장 때문에 어린 나이에 자녀를 기관에 보내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는 한국의 부모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육아문화나 육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차이가 일하는 부모의 육아를 존중하는 문화 형성에도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육아 관련 정책과 양육환경, 육아문화 특징들이 우리나라의 육아문화 조성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변화와 문화적 변화는 함께 이루어져야하며 이러한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정책의 변화는 육아를 존중하는 문화의 변화 없이 만들어지기 어렵고 이를 위해서는 육아와 육아를 하는 가정에 대한 개인의 인식 개선, 일터와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더불어 대대적인 정책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문화의 전환뿐 아니라 정책을 뒷받침할 국가 재정도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성평등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성 균형적인 일터가 조성되고 남녀차별에 대한 규제가 잘 갖춰진 노르웨이의 경우 남녀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육아에서도 이런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남녀 임금 격차 해소도 성평등적인 육아문화 조성에 핵심적인 부분이다. 남녀 임금 격차가 34.6%로 OECD 국가 중 가장 큰 한국[14]의 경우 남성의 육아휴직이 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 격차가 5~7% 내외인 덴마크나 노르웨이에 비해서 육아휴직 참여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육아 친화적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제, 유연한 근무제, 아이를 위한 특별휴가제 등 제도의 도입과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안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탑다운 방식으로 기업들을 규제하여 부모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과 협업하여 직장 내에서 이러한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수 있다. 육아 친화적 일터가 구축된다면 덴마크와 노르웨이 사례와 같이 이미 지역 내에 있는 육아지원 기관들의 이용도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가진 육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변화가 필요함을 체감하였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이용, 유모차의 이동이 전혀 어렵지 않은 도로의 정비, 식당에 마련된 아이들을 위한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족에 대한 배려가 사회 안에, 일상 안에 자연스레 녹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키즈 존(No kids zone) 같은 곳은 없었고, 지역사회 공공 공간에서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족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제공되고, 육아 시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모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있음이다. 이러한 일상적인 배려는 온 사회 구성원들이 육아하는 가족을 응원하고 있음이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족에게 체감되고 있었다.

14) OECD 남녀 임금 차이 통계치를 기반으로 작성함.
https://data.oecd.org/earnwage/gender-wage-gap.htm (2019.7.20 인출)

III

육아문화 진단(Ⅰ) 소셜 빅데이터 분석

01 소셜 빅데이터 분석의 목적

02 주제어 사전 구축 및 자료수집

03 소셜 빅데이터 분석결과

04 소결

Ⅲ. 육아문화 진단(Ⅰ)
소셜 빅데이터 분석

본 장[15] 에서는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양상을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 공유되는 육아와 관련된 키워드에 나타난 긍정성과 부정성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육아 관련 주제어 사전을 구축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출현단어의 빈도, 감성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 서론에서 제시한 세 가지 가정에 대한 근거를 도출하였다.

1. 소셜 빅데이터 분석의 목적

범국가적 차원에서 각종 육아지원정책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를 기르는 행위와 과정의 총체인 육아 현상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육아'와 관련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육아라는 현상이 소셜 미디어 상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16년~2018년 3년 동안 뉴스, 카페, 블로그, 게시판, 트위터에 등장한 육아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육아'와 관련한 주제어의 출현빈도, 양상 등을 살피고 그 안에 담긴 긍정적, 부정적 요소를 구체화하였다.

소셜 빅데이터 분석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참여자의 생각과 의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현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송태민, 송주영, 진달래, 2014). 이를 통해 한국 사회 전반의 육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육아를 행복하게 느끼는 문화를 조성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15) 본 장은 협동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강이 교수 외)이 수탁하여 연구를 진행함.

2. 주제어 사전 구축 및 자료수집

가. 주제어 사전 구축

소셜 빅데이터의 수집 및 분류는 해당 주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여 분류체계를 개발한 후 분류체계 내의 주제어들이 포함된 문서들을 수집하고 분류하는 Top-down 방법, 그리고 해당 주제가 포함된 문서들을 웹크롤러로 수집한 후 유목화 또는 범주화하는 Bottom-up 방법이 있다. 이 연구의 소셜 빅데이터 분석은 '육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고 주제어사전을 개발한 후, 주제어사전 내 주제어를 수집하여 분류하는 Top-down 방식을 사용하였다. 주제어사전은 소셜 데이터와 같은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분석틀이며,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에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제어 사전은 1) 육아 및 육아대상 주제어, 2) 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한 육아 관련 주제어 사전, 3) 감성어 사전으로 나뉜다. 먼저, 이 연구의 주제어인 '육아'와 육아의 주요 주체가 되는 육아대상인 '영유아'와 관련된 용어를 다른 육아 관련 주제어들과 구분하여 육아 및 육아대상 주제어로 정리하였다. '육아'에 해당하는 용어는 돌보기, 키우기 등 육아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주제어들이 포함된다. 또한 '영유아'와 관련된 용어는 출생순위와 연령에 따라 주제어를 구분하였고, 아동발달 관련 용어를 일반 아동과 특수 아동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한 육아 관련 주제어 사전의 구축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주제와 관련된 용어들의 분류방식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육아 현상'은 육아를 경험하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가정, 제도, 사회문화적 가치관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생태체계이론(Bronfenbrenner, 1979)에 근거해 미시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분류기준을 설정하였다. 우선, 미시체계는 아동에게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환경으로,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가정의 환경과 가정 외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이 포함된다. 외체계는 아동이 직접 참여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부모의 직장, 미디어,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거시체계는 아동이 속한 사회가 가지는 가치관이나 규범이

이에 속한다.

다음으로 육아정책연구소 등 정부기관에서 발간된 육아 관련 연구보고서와 육아 관련 연구논문을 분석하여 주요 용어들을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박창현, 김나영, 이유진(2018)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육아 정책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추출하였으며, 최은영 외(2018)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육아, 육아환경, 출산, 저출산, 어린이집, 유치원과 관련된 주제어들을 추출하였다. 또한 이주림과 구자훈(2013)의 육아환경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미시체계의 가정 외 물리적 환경의 분류기준을 설정하였다. 나아가 블로그, 카페, 뉴스 등의 소셜 미디어 검색을 통해 연구보고서 및 관련 논문에서 누락된 용어들을 추출하고, 이를 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한 분석틀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육아 관련 주제어 사전을 구축하였다.

한국 사회 전반의 육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육아 관련 주제어와 함께 문서에서 언급된 감성어를 파악하는 감성분석이 필요하다. 감성분석은 긍정어 및 부정어를 포함한 감성어 사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SK텔레콤 스마트인사이트[16]가 보유한 감정 명사 단어 목록(긍정어 753개, 부정어 1,039개) 중 '고부가가치', '부패척결', '망명', '전쟁' 등 육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을 제외한 단어 목록들(긍정어 256개, 부정어 346개)로 감성어 사전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총 3,363개의 주제어 및 감성어 사전을 개발하였다. 주제어 사전에는 육아 및 육아대상 주제어 585개, 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한 육아 관련 주제어 2,176개가 포함되고, 감성어 사전에는 감성어 602개가 포함되었다.

1) 육아 및 육아대상 주제어

육아 및 육아대상 주제어는 〈표 Ⅲ-2-1〉과 같다. 우선, '육아'에는 육아, 자녀양육, 부모됨과 같이 영유아를 양육하고 부모가 되는 것과 관련된 주제어들이 포함된다. '육아대상'에는 영유아, 출생순위, 연령, 일반아동발달, 특수아동발달이 포함되며, 이 중 일반아동발달은 발달영역에 따라 신체운동, 언어인지, 사회정서, 애착으로 재분류하였다.

16) 스마트인사이트는 선택한 채널들에서 문서들을 수집하는 크롤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정형 빅데이터의 분류 및 정제 기술을 갖고 있다.

〈표 Ⅲ-2-1〉 육아 및 육아대상 주제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주요 주제어
육아			육아, 자녀양육, 부모됨, 조부모육아 등 42개
육아대상	영유아		아동, 아이, 아기, 아가, 애기 등 83개
	출생순위		장남, 장녀, 차남, 차녀, 첫째, 둘째, 셋째 등 91개
	연령		갓난아이, 젖먹이, 첫돌, 두돌, 0세, 1세 등 199개
	일반 아동발달	신체운동	대근육발달, 소근육발달, 시각발달, 청각발달, 신장, 체중 등 47개
		언어인지	인지발달, 지능발달, 뇌발달, 수용언어, 표현언어, 모방 등 23개
		사회정서	사회성발달, 정서발달, 자존감, 정서조절 등 50개
		애착	애착형성, 안정애착, 불안정애착 등 8개
	특수아동발달		장애, 발달문제, 발달지연, ADHD, 자폐스펙트럼, 틱장애 등 42개

2) 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한 육아 관련 주제어 사전

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한 분류방식으로 구축한 육아 관련 주제어 사전은 〈표 Ⅲ-2-2〉와 같다. 생태학적 접근에 기반하여 미시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를 최상위 분류체계인 대분류로 분류하였다. 대분류 '미시체계'는 가정 내의 육아환경과 관련된 주제어를 포함하는 '가정'과 가정 외의 육아환경과 관련된 주제어를 포함하는 '가정 외'로 나뉜다. 중분류 '가정'에는 '양육자', '육아행동', '육아용품', '육아정보', '육아에 따른 경험'이 소분류로 포함되며, 중분류 '가정 외'에는 '이웃·동네', '보육교육기관', '사교육기관', '육아지원서비스기관', '공원·녹지', '문화', '복합상업', '보건의료'가 포함된다.

아동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인 대분류 '외체계'는 '직장', '미디어', '정책'으로 나뉜다. 중분류 '직장'은 부모의 일 환경과 관련된 주제어가 포함되며, 중분류 '미디어'에는 '육아방송', '육아서적', '온라인채널 및 관련 트렌드'가 소분류로 포함된다. 또한 중분류 '정책'은 '보육교육정책'과 '일·가정양립지원정책'으로 나뉜다.

대분류 '거시체계'는 아동이 속한 사회가 가지는 육아 관련 규범이 포함되며, 구체적으로 '부모역할', '육아가치',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젠더 관련 이슈', '환경', '나라'가 중분류로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류체계에는 '시간', '경제', '임신출산', '나이'가 포함된다.

〈표 Ⅲ-2-2〉 육아 관련 주제어 사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주요 주제어
미시체계	가정	양육자	부모	부모, 부부, 엄빠, 엄마, 아빠, 부인, 남편, 워킹맘, 전업주부, 맞벌이 등 42개
			조부모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 48개
			베이비시터	시터, 이모님, 육아돌보미, 등하원도우미 등 27개
			친인척	이모, 이모부, 고모, 고모부, 삼촌 등 10개
		육아 행동	일상적 돌봄: 일반	씻기기, 재우기, 먹이기, 식사지도 등 56개
			일상적 돌봄: 영아	모유, 수유, 유축, 기저귀 갈기, 수면교육 등 49개
			일상적 돌봄:유아	간식, 옷입기, 아이식사, 애들식사 등 16개
			건강 위생	영유아예방접종, 영유아구강검진, 잔병치레, 감기, 장염, 수족구 등 83개
			놀이/여가	놀이, 촉감놀이, 레고놀이, 가족여행, 나들이 등 55개
			학습	학습, 공부, 교육, 독서, 글자, 수세기, 영어 86개
			생활지도	훈육, 칭찬, 격려, 타이르기, 꾸지람, 야단치기 등 27개
			역기능육아	학대, 아동성학대, 아동방임, 체벌, 통제 등 33개
			의례	삼칠일, 백일, 생일, 어린이날 등 81개
			가사노동	가사, 집안일, 청소, 빨래, 요리, 장보기 등 30개
		육아 용품	일반	육아템, 육아필수템, 직구템, 어린이샴푸, 체온계 등 153개
			영아	배넷저고리, 스와들업, 가재수건, 기저귀, 이유식숟가락, 모빌 등 138개
			유아	맥포머스, 레고, 세이펜, 킥보드, 미니카 등 38개
			미디어 기기	텔레비전,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휴대전화 등 40개
		육아정보		육아정보, 육아소통, 육아수다, 육아꿀팁, 육아노하우 등 37개
		육아에 따른 경험		양육스트레스, 산후우울증, 육아트라우마, 부부갈등 등 42개
	가정 외	이웃·동네		이웃, 동네, 공동육아, 부모커뮤니티, 품앗이 등 51개
		보육교육기관		보육시설, 어린이집, 국공립, 사립, 유치원, 영어유치원 등 138개
		사교육기관		학원,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학원, 축구교실 등 20개
		육아 지원 서비스 기관	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등 28개
			서비스	상담, 부모교육, 아버지학교, 아빠학교, 부모코칭 등 70개
		공원·녹지		공원, 놀이터, 운동장, 놀이공원, 동물원 등 20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주요 주제어
		문화		문화센터, 문센, 키즈카페,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등 36개
		복합상업		백화점, 마트, 쇼핑몰, 호텔, 아울렛 등 15개
		보건의료		소아과, 병원, 보건소, 소아응급실 등 31개
외체계	직장			회사, 휴직, 커리어, 회식, 근로시간 등 28개
	미디어	육아방송		SBS, KBS, MBC, 슈퍼맨이돌아왔다, 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 뽀로로, 핑크퐁 등 174개
		육아서적		육아서, 양육서, 임신출산육아대백과, 엄마의말하기연습, 달님안녕, 사과가쿵, 무지개물고기 56개
		온라인채널 및 관련 트렌드		맘카페, 맘스홀릭, 육아유투브, 육아블로그, 맘스다이어리, 파워블로그, 랜선이모 등 68개
	정책	보육교육정책		보육정책, 무상보육제도, 시간제보육, 맞춤형보육 40개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등 71개
거시체계	규범	부모역할		모성애, 부성애, 부모상, 좋은엄마, 불량엄마 등 55개
		육아가치		양육관, 양육신념, 극성엄마, 치마바람, 헬리콥터맘 등 67개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노키즈존, 아동혐오, 육아친화, 가족친화 등 15개
		젠더 관련 이슈		여자, 남자, 모성이데올로기, 성평등, 육아동참 등 61개
	나라			나라, 국가, 한국, 프랑스 등 15개
	환경			환경, 육아환경, 양육환경 등 5개
기타	시간			시간, 주말, 시기, 미래 등 4개
	경제			경제, 소득, 생활비, 월급, 머니 등 5개
	임신출산			결혼, 임신, 출산, 저출산 등 7개
	나이			나이, 연령, 고령화, 세대, 세대차이 등 5개

3) 감성어 사전

긍정어, 부정어로 구성된 감성어 사전은 다음 〈표 Ⅲ-2-3〉과 같다.

〈표 Ⅲ-2-3〉 감성어 사전

구분	주요 감성어
긍정어	좋다, 지원, 사랑, 도움, 관심, 행복, 예쁜, 뿌듯, 희열 등 256개
부정어	문제, 못하, 걱정, 힘들, 고민, 포기, 괴로워, 지친, 답답 등 346개

나. 자료수집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육아 관련어가 포함된 일반 문서들을 수집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육아 관련 문서를 최대한 다양하게 추출하기 위해 육아 관련어를 검색에 사용하였으며, 육아 관련어는 '육아', '양육', '아이돌봄', '아가돌봄', '애기돌봄', '자녀돌봄', '아이키우기', '아가키우기', '애기키우기', '자녀키우기', '아이돌보기', '아가돌보기', '애기돌보기', '자녀돌보기', '부모 육아', '부모 양육', '엄마 육아', '엄마 양육', '아빠 육아', '아빠 양육', '어머니 육아', '어머니 양육', '아버지 육아', '아버지 양육', '여성 육아', '여성 양육', '여자 육아', '여자 양육', '어린이 육아', '어린이 양육', '영아 육아', '영아 양육', '유아 육아', '유아 양육', '아이 육아', '아이 양육', '아기 육아', '아기 양육', '애기 육아', '애기 양육', '아가 육아', '아가 양육', '키즈 육아', '키즈 양육', '자녀 육아', '자녀 양육', '자식 육아', '자식 양육', '손주 육아', '손주 양육', '손자 육아', '손자 양육', '손녀 육아', '손녀 양육', '아들 육아', '아들 양육', '딸 육아', '딸 양육', '영유아 육아', '영유아 양육', '조부모 육아', '조부모 양육', '할머니 육아', '할머니 양육', '할아버지 육아', '할아버지 양육', '남성 육아', '남성 양육', '부부 육아', '부부 양육' 등 총 70개 단어이다.

육아 관련 빅데이터는 국내 뉴스, 카페, 트위터, 블로그, 게시판 등 인터넷 채널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수집 사이트 및 수집한 문서 수는 〈표 Ⅲ-2-4〉와 같다. 수집사이트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온라인 뉴스 사이트 258개, 네이버카페와 다음카페 등 온라인 카페 2개, 네이버블로그, 다음블로그 등을 포함한 블로그 4개, 네이버 지식인, 다음 TIP 등 온라인 게시판 15개, 트위터 1개 등 온라인 채널 총 286개이다.

70개의 육아 관련어를 사용하여 286개의 온라인 채널에서 수집한 총 문서 수는 2,898,776건이다. 수집사이트별 문서 수는 뉴스가 327,190건, 카페가 517,722건, 블로그는 206,597건, 게시판은 91,993건, 트위터는 1,755,274건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문서의 원글 및 댓글 여부 또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원글과 댓글에 해당하는 문서 수는 다음과 같다. 뉴스의 경우, 원글은 95,121건, 댓글은 232,069건이며, 카페 원글은 217,809건, 카페 댓글은 299,913건이다. 블로그의 경우, 원글은 72,528건, 댓글은 134,069건이다. 게시판의 원글은 34,099건, 댓글

은 57,894건이다. 이상의 뉴스, 카페, 블로그, 게시판은 원글보다 댓글의 수가 많은 편이다. 트위터는 채널 특성상 원글과 댓글의 형태가 아닌, 전파형, 정보링크형, 독백형, 댓글형, 대화형으로 구분되어 자료 수집이 되었고, 각 형태별 문서 수는 다음과 같다. 전파형은 1,364,220건, 정보링크형은 259,764건, 독백형은 94,950건, 댓글형은 35,371건, 대화형은 969건으로, 전파형이 다른 형태들보다 문서 수가 많다.

〈표 Ⅲ-2-4〉 자료 수집 사이트 및 문서 수

채널	수집사이트	사이트 수	문서 수	원글	댓글
뉴스	온라인 뉴스사이트 (경향신문, 국민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258	327,190	95,121	232,069
카페	네이버카페 다음카페	2	517,722	217,809	299,913
블로그	네이버블로그/티스토리 다음블로그/이글루스	4	206,597	72,528	134,069
게시판	온라인게시판(네이버 지식인, 다음 TIP 등)	15	91,993	34,099	57,894
트위터	트위터	1	1,755,274	-	(전파형) 1,364,220
				-	(정보링크) 259,764
				-	(독백형) 94,950
				-	(댓글형) 35,371
				-	(대화형) 969
합계		286	2,898,776	419,557	2,479,219

주: 트위터 언급방식 구분(전파형: 주변에 퍼트리는 글 (팔로잉 등)/ 정보링크형: url 정보가 있는 글/ 독백형: 혼자 자기 감정 등을 표현한 글/ 댓글형: 누군가가 나에게 쓴 글로, 특정 mention에 대한 답글/ 대화형: 특정사람과 쓴 글)

이상의 자료는 SK텔레콤의 스마트인사이트에 의뢰하여 웹상에서 크롤링하였다. 육아 관련어가 포함된 문서 수집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에 게시된 문서들로 한정하였으며, 문서 수집에서 광고 및 불용어(不用語)[17]들은 제외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비정형 상태의 빅데이터는 정형 빅데이터로 변환하고 코드화한 뒤, 식별자(채널 유형, 원글/댓글 유형, 일자, 시간, 요일, 지역 등)들을 연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형 빅데이터에 유사어 통합 등과 같은 추가 전처리

17) 불용어는 육아 및 육아 관련어와 단어의 형태가 유사하나, 이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단어들을 지칭한다. 가령, 동물이나 식물 돌보기, 게임에서 캐릭터 키우기 등이 있다.

작업을 진행하여 자료 분석을 하였다. 전체 연구 과정을 도식화 하면 1장의 연구방법에 소개했던 [그림 Ⅰ-3-4]와 같다.

다.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육아' 관련 소셜 빅데이터에 대해 빈도 분석 및 중심성 분석, 그리고 감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 분석은 전체 주제어, 소분류별 주제어, 채널별 주제어의 순서에 따라 상위 출현빈도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하였다.

전체 주제어 빈도 분석은 자료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하였으며, 소분류별 주제어 빈도 분석은 주제어 사전을 기반으로 육아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을 위해 실시하였다. 또 채널별 주제어 빈도분석은 채널별로 육아 현상에 대한 소셜데이터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한편, 전체 주제어 중 상위빈출단어 50개에 대해서는 동시출현 매트릭스(co-occurrence matrix)[18]를 구성한 뒤, 이 50개의 단어들 간의 전체적인 관계를 수치로 파악하기 위해 중심성(centrality)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심성 분석은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19]과 위세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20]을 지표로 파악하였다.

감성 분석에서는 감성어의 연도별 출현빈도 분석과 감성어 점수를 바탕으로 한 감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감성어 점수는 긍정어 각각에 1점, 부정어 각각에 -1점을 부여하고 각 문서에서 출현하는 긍정어 및 부정어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 각 문서의 감성어 점수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감성어 점수를 기준으로 긍정/중립/부정 문서를 구분하여, 연도별, 채널별, 채널별 원글/댓글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긍정문서, 부정문서 각각에서 주제어 상위 출현빈도를 살펴보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긍정문서 혹은 부정문서에서 주로 회자되는 주제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채널별로도 구분하여 살

18) 동시출현 매트릭스는 동일 문건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간의 빈도를 기준으로 피어슨 상관유사도를 정규화한 행렬이다(장령령, 홍현진, 2014).
19)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특정 노드(node, 여기서는 단어)가 다른 노드들과 얼마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20) 위세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특정 노드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여타 노드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펴보았다.

이상의 분석 중 빈도분석 및 감성분석, 그리고 동시출현 매트릭스 구성에는 R version 3.6.0을 사용하였으며, 중심성 분석에는 UCINET을 사용하였다.

3. 소셜 빅데이터 분석결과

가. 육아 관련 주제어 출현빈도

1) 육아 관련 주제어 빈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뉴스, 카페, 트위터, 블로그, 게시판 등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육아 관련 문서 내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어를 출현빈도 순으로 제시하면 〈표 Ⅲ-3-1〉과 같다.

육아와 육아 관련 주체인 '아동'과 '부모'를 일컫는 단어 외에 젠더 관련 주제어인 '여자'와 '남자'가 최상위 빈도로 등장한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출산', '결혼', '임신'과 같은 주제어가 육아 관련 문서 내에서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으며, 육아비용과 관련된 용어인 '양육비',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가 직장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인 '육아휴직'이 상위 빈도로 나타났다. 혼자서 육아를 도맡아 하는 것을 의미하는 '독박육아'가 21번째로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으며,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혼자' 단어도 27번째로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배우자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아이를 육아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의견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Ⅲ-3-1〉 육아 관련 문서 내 주제어 출현빈도 순위(상위 50개)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육아	1,286,887	26	아들	114,660
2	아이	1,014,516	27	혼자	114,387
3	여자	578,512	28	사진	92,400
4	엄마	409,344	29	이혼	90,104
5	아기	331,434	30	참여	88,026
6	남자	323,524	31	책임	87,399
7	남편	318,053	32	부부	87,150
8	출산	273,226	33	미혼모	85,530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9	결혼	270,524	34	사회	84,229
10	양육비	267,574	35	소득	80,317
11	육아휴직	250,949	36	둘째	76,018
12	아빠	241,094	37	건강	72,122
13	자녀	213,624	38	육아일기	70,778
14	부모	208,282	39	정책	70,253
15	가족	186,255	40	저출산	65,341
16	아내	177,429	41	맞벌이	61,015
17	임신	174,103	42	정부	60,114
18	집안일	166,976	43	정보	59,715
19	우리나라	152,812	44	이해	58,289
20	나라	135,840	45	나이	57,214
21	독박육아	133,839	46	카페	56,390
22	어린이집	127,377	47	아동	51,632
23	회사	125,915	48	부모님	48,546
24	학습	121,072	49	친구	47,424
25	시간	120,319	50	복직	44,648

‘육아’ 관련 소셜 미디어 문서 내 등장한 상위 50개의 핵심단어 중 ‘육아’를 제외하고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면 [그림 Ⅲ-3-1]과 같다. ‘아이’, ‘여자’, ‘엄마’, ‘아기’, ‘남자’, ‘남편’ 등의 주제어가 높은 빈도로 확인되며, 그 외에 ‘양육비’, ‘육아휴직’, ‘출산’, ‘결혼’, ‘독박육아’ 등의 주제어 또한 높은 빈도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Ⅲ-3-1] 육아 관련 핵심 단어 워드 클라우드

주: 본 연구의 주제인 ‘육아’를 제외함

2) 육아 관련 핵심 주제어의 중심성 및 네트워크 시각화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육아 관련 문서에 나타난 주제어 중 출현빈도 상위 50개 주제어를 추출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상위 빈도 50개 주제어의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위세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을 살펴보았으며 이는 〈표 Ⅲ-3-2〉와 같다.

연결중심성은 '육아', '아이', '여자', '엄마', '출산'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이와 같은 주제어들이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주제어들과 높은 연결 관계를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가족', '시간', '혼자', '사회', '이해'와 같은 주제어는 출현빈도 순위보다 연결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주제어로, 해당 주제어는 출현빈도에 비해 네트워크 내에서 가지는 상대적 중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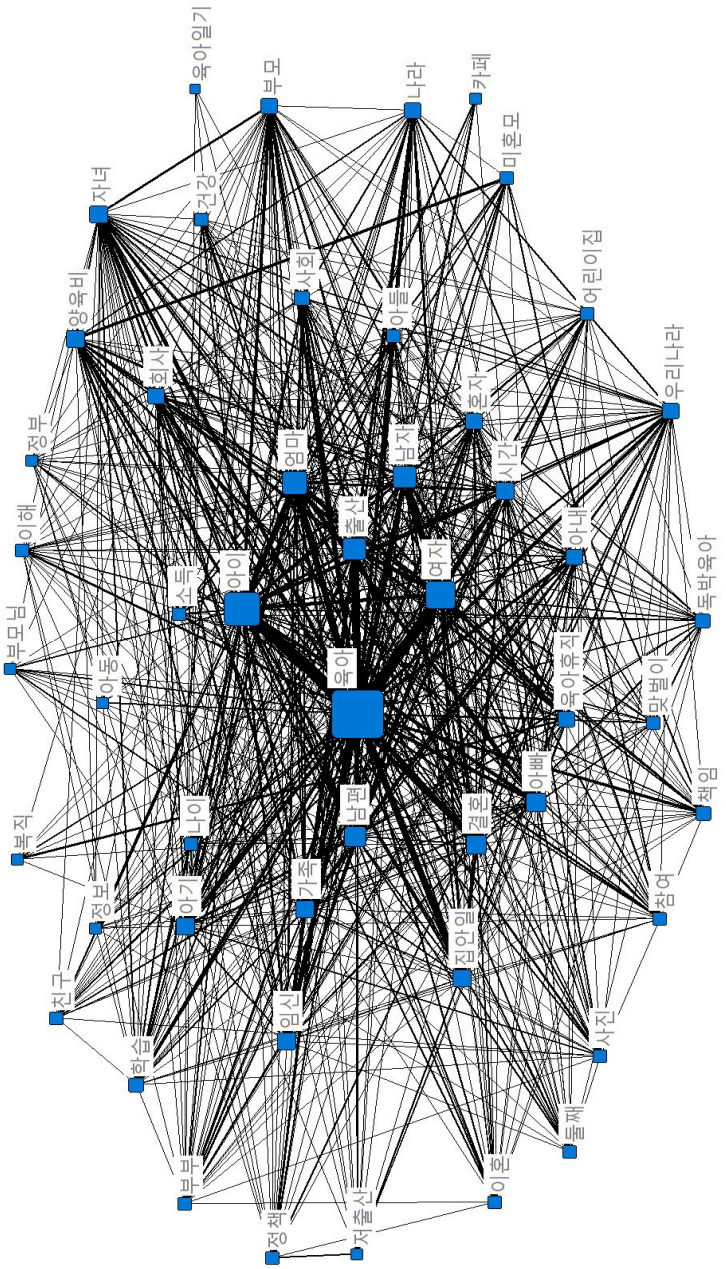
다음으로 위세중심성은 '육아', '아이', '여자', '출산', '엄마'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이와 같은 주제어들이 네트워크 내에서 중심성이 높은 주요 주제어와의 연결 관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출산', '집안일', '임신', '시간', '혼자', '사회', '나이'와 같은 주제어는 출현빈도 순위보다 위세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주제어로, 해당 주제어가 출현빈도에 비해 네트워크 내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소셜 미디어에 상의 육아 관련 문서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50개 단어에 대한 전체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Ⅲ-3-2]와 같다. 이때 각 노드(점)의 크기는 연결중심성 값을 나타낸 것으로,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연결중심성 값이 큰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드를 연결하는 선의 굵기는 연결된 두 노드간의 동시출현빈도를 보여준다. 즉, 연결선이 굵을수록 두 단어가 한 문건에 동시에 출현한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표 Ⅲ-3-2〉 육아 관련 핵심 주제어의 연결중심성과 위세중심성

순위	연결중심성	위세중심성
1	육아(0.224)	육아(0.8)
2	아이(0.137)	아이(0.311)
3	여자(0.108)	여자(0.255)
4	엄마(0.079)	출산(0.161)
5	출산(0.071)	엄마(0.151)

순위	연결중심성	위세중심성
6	남자(0.068)	남자(0.12)
7	남편(0.063)	결혼(0.119)
8	결혼(0.059)	집안일(0.114)
9	아빠(0.051)	남편(0.109)
10	가족(0.05)	임신(0.096)
11	자녀(0.049)	아빠(0.093)
12	시간(0.049)	아기(0.084)
13	임신(0.047)	자녀(0.08)
14	아기(0.045)	시간(0.077)
15	양육비(0.044)	가족(0.074)
16	집안일(0.043)	부모(0.066)
17	부모(0.04)	나라(0.063)
18	우리나라(0.039)	우리나라(0.620)
19	혼자(0.037)	아내(0.061)
20	육아휴직(0.036)	혼자(0.059)
21	나라(0.036)	회사(0.058)
22	아내(0.035)	학습(0.054)
23	회사(0.035)	양육비(0.052)
24	학습(0.031)	책임(0.05)
25	사회(0.028)	사회(0.048)
26	독박육아(0260.)	육아휴직(0.047)
27	책임(0.026)	독박육아(0.037)
28	참여(0.025)	아들(0.037)
29	아들(0.024)	사진(0.037)
30	부부(0.024)	참여(0.037)
31	소득(0.024)	부부(0.035)
32	사진(0.023)	나이(0.031)
33	어린이집(0.022)	이해(0.03)
34	나이(0.021)	어린이집(0.029)
35	이해(0.02)	둘째(0.026)
36	이혼(0.019)	건강(0.026)
37	정책(0.019)	친구(0.026)
38	맞벌이(0.019)	이혼(0.024)
39	미혼모(0.018)	정책(0.024)
40	둘째(0.018)	맞벌이(0.024)
41	건강(0.018)	카페(0.024)
42	친구(0.017)	소득(0.022)
43	정부(0.015)	정보(0.022)
44	정보(0.015)	부모님(0.021)
45	저출산(0.014)	정부(0.02)
46	부모님(0.014)	미혼모(0.019)
47	카페(0.011)	저출산(0.019)
48	복직(0.011)	아동(0.013)
49	아동(0.01)	복직(0.012)
50	육아일기(0.004)	육아일기(0.005)



[그림 Ⅲ-3-2] 육아 관련 핵심 주제어의 네트워크 시각화

3) 육아 관련 소분류별 주제어 빈도

육아 및 육아 대상 주제어와 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한 육아 관련 주제어 사전의 소분류 범주 내 주제어의 출현빈도는 〈표 Ⅲ-3-3〉과 같다.

이 연구의 주제인 육아 관련어를 제외하였을 때, 총 56개의 소분류 중 '영유아'에 해당하는 주제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였으며 '부모', '젠더 관련 이슈', '임신출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미시체계의 가정 내 분류에서는 양육자 관련 주제어가 포함되는 '부모', 양육스트레스나 산후우울증과 같이 육아를 하며 겪게 되는 '육아에 따른 경험', 구체적인 육아 행동에 관한 '일상적 돌봄: 일반', 육아와 관련된 집안일을 일컫는 주제어가 포함된 '가사노동'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미시체계의 가정 외 분류에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관련된 주제어들이 포함된 '보육교육기관'의 빈도가 높았다.

다음으로 외체계에서는 부모의 일 환경과 관련된 소분류인 '직장'에 해당하는 주제어와 소분류 '일·가정양립지원정책'에 해당하는 주제어가 많이 등장하였다. 거시체계에서는 '젠더 관련 이슈'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우리사회의 육아 문화에 있어 젠더 이슈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Ⅲ-3-3〉 육아관련 문서 내 소분류별 주제어 출현빈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주요 주제어	빈도
육아				육아, 자녀양육, 부모됨, 조부모육아 등 42개	1,355,767
육아 대상	영유아			아동, 아이, 아기, 아가, 애기 등 83개	2,066,151
	출생순위			장남, 장녀, 차남, 차녀, 첫째, 둘째, 셋째 등 91개	192,302
	연령			갓난아이, 젖먹이, 첫돌, 두돌, 0세, 1세 등 199개	32,116
	일반 아동 발달	신체운동		대근육발달, 소근육발달, 시각발달, 청각발달, 신장, 체중 등 47개	120,378
		언어인지		인지발달, 지능발달, 뇌발달, 수용언어, 표현언어, 모방 등 23개	43,600
		사회정서		사회성발달, 정서발달, 자존감, 정서조절 등 50개	67,285
		애착		애착형성, 안정애착, 불안정애착 등 8개	16,75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주요 주제어	빈도
	특수아동발달			장애, 발달문제, 발달지연, ADHD, 자폐스펙트럼, 틱장애 등 42개	21,879
미시 체계	가정	양육자	부모	부모, 부부, 엄빠, 엄마, 아빠, 부인, 남편, 워킹맘, 전업주부, 맞벌이 등 42개	1,888,214
			조부모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 48개	243,016
			베이비시터	시터, 이모님, 육아돌보미, 등하원도우미 등 27개	26,530
			친인척	이모, 이모부, 고모, 고모부, 삼촌 등 10개	12,206
		육아 행동	일상적 돌봄 : 일반	씻기기, 재우기, 먹이기, 식사지도 등 56개	327,502
			일상적 돌봄 : 영아	모유, 수유, 유축, 기저귀 갈기, 수면교육 등 49개	113,693
			일상적 돌봄 : 유아	간식, 옷입기, 아이식사, 애들식사 등 16개	46,849
			건강위생	영유아예방접종, 영유아구강검진, 잔병치레, 감기, 장염, 수족구 등 83개	159,619
			놀이 및 여가	놀이, 촉감놀이, 레고놀이, 가족여행, 나들이 등 55개	129,351
			학습	학습, 독서, 글자, 수세기, 영어 등 86개	181,097
			생활 지도 및 훈육	훈육, 칭찬, 격려, 타이르기, 꾸지람, 야단치기 등 27개	180,386
			역기능 육아	학대, 아동성학대, 아동방임, 체벌, 통제 등 33개	121,881
			의례	삼칠일, 백일, 생일, 어린이날 등 81개	102,039
			가사노동	집안일, 청소, 빨래, 요리, 장보기 등 30개	313,574
		육아 용품	일반	육아템, 육아필수템, 직구템, 어린이샴푸, 체온계 등 153개	240,284
			영아	배넷저고리, 스와들업, 가재수건, 기저귀, 이유식숟가락, 모빌 등 138개	125,168
			유아	맥포머스, 레고, 세이펜, 킥보드, 미니카 등 38개	14,021
			미디어기기	텔레비전,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휴대전화 등 40개	55,858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주요 주제어	빈도
		육아정보		육아정보, 육아소통, 육아수다, 육아꿀팁, 육아노하우 등 37개	188,608
		육아에 따른 경험		양육스트레스, 산후우울증, 육아트라우마, 부부갈등 등 42개	432,128
	가정 외	이웃, 동네		이웃, 동네, 공동육아, 부모커뮤니티, 품앗이 등 51개	120,347
		보육교육기관		보육시설, 어린이집, 국공립, 사립, 유치원, 영어유치원 등 138개	275,598
		사교육기관		학원,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학원, 축구교실 등 20개	11,374
		육아지원 서비스 기관	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등 28개	23,943
			서비스	상담, 부모교육, 아버지학교, 아빠학교, 부모코칭 등 70개	99,151
		공원, 녹지		공원, 녹지, 놀이터, 운동장, 놀이공원, 동물원 등 20개	19,017
		문화		문화센터, 문센, 키즈카페,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등 36개	73,050
		복합상업		백화점, 마트, 쇼핑몰, 호텔, 아울렛 등 15개	33,248
		보건의료		소아과, 병원, 어린이치과, 보건소, 소아응급실 등 31개	84,803
외 체계	직장			회사, 휴직, 커리어, 회식, 근로시간 등 28개	392,669
	미디어	육아방송		SBS, KBS, MBC, 슈퍼맨이돌아왔다, 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 뽀로로, 핑크퐁 등 174개	168,816
		육아서적		육아서, 양육서, 임신출산육아대백과, 엄마의말하기연습, 달님안녕, 사과가쿵, 무지개물고기 등 56개	21,163
		온라인채널 및 관련 트렌드		맘카페, 맘스홀릭, 육아유투브, 육아블로그, 맘스다이어리, 파워블로그, 랜선이모 등 68개	262,416
	정책	보육교육정책		보육정책, 무상보육제도, 시간제보육, 맞춤형보육 등 40개	202,141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등 71개	334,555
거시 체계	규범	부모역할		모성애, 부성애, 부모상, 좋은엄마, 불량엄마 등 55개	326,447
		육아가치		양육관, 양육신념, 극성엄마, 치마바람, 헬리콥터맘 등 67개	212,883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노키즈존, 아동혐오, 육아친화, 가족친화 등 15개	35,870
		젠더 관련 이슈		여자, 남자, 모성이데올로기, 성평등, 육아동참 등 61개	1,223,968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주요 주제어	빈도
	나라			나라, 국가, 한국, 프랑스 등 15개	558,955
	환경			환경, 육아환경, 양육환경 등 5개	41,848
기타	시간			시간, 주말, 시기, 미래 등 4개	218,277
	경제			경제, 소득, 생활비, 월급, 머니 등 5개	109,753
	임신출산			결혼, 임신, 출산, 저출산 등 7개	854,523
	나이			나이, 연령, 고령화, 세대, 세대차이 등 5개	76,744

각 소분류에 해당하는 주제어 중 출현빈도가 1,000회 이상인 단어를 살펴보면[21], 미세체계에 해당하는 가정 내 양육자 중 '부모' 범주에서는 '엄마', '남편', '아빠', '부모' 등의 단어가 많이 등장하였고 '미혼모', '맞벌이', '워킹맘', '한부모' 등 부모의 상황적 특성을 표현한 주제어도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조부모'에서는 '부모님', '시댁', '할머니'의 빈도가 높았으며, '베이비시터' 범주에서는 '베이비시터'와 '산후도우미' 주제어가 1,000회 이상 등장한 상위 단어로 확인되었다. 영아와 유아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돌봄 행동과 관련한 주제어가 포함되는 '일상적 돌봄: 일반' 범주에서는 성장과정을 기록하는 '사진'과 '육아일기' 주제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놀이 및 여가'에서는 '놀이'가 가장 많은 횟수로 등장하였으며 놀이 활동으로 '노래', '만들기'가 많이 등장하였다. 또한 '여행', '해외여행', '가족여행'이 높은 빈도로 출현하는 것을 통해 여행이 육아를 하는 가정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임을 알 수 있었다. '학습' 소분류의 경우, '학습'이 놀이 및 여가 소분류의 '놀이'보다도 4배 정도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으며, 특히 '영어'는 9천회 이상 출현하여 학습 중에서도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육아 관련 가사노동'으로는 '집안일', '가사', '가사노동' 외에 구체적으로 '요리', '정리', '청소', '빨래' 등의 주제어가 많이 등장하였다. 영아와 유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육아용품과 관련된 주제어를 포함하는 '육아용품: 일반'에서는 '비용', '육아용품', '제품'이 상위 단어로 등장하였고, 구체적인 용품으로 '장난감', '카시트', '모자', '침대', '물티슈' 등이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다. '육아용품: 미디어기기' 범주에서는 TV가 가장 높았으며, '스마트폰'과 '핸드폰'이 뒤를 이었다. '육아정보'에서는 '정보', '경험'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육아법', '조언', '노하우', '꿀팁' 등의 주제어

21) 부록 2. 육아 관련 문서 내 소분류별 주제어 출현빈도(1,000회 이상 출현 주제어) 참조

또한 많이 등장하여,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육아와 관련된 정보와 노하우 등을 얻고자 하는 육아문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육아에 따른 경험' 범주에서는 육아에 드는 비용을 일컫는 '양육비'의 출현빈도가 매우 높았으며, 그 외에 '산후우울증', '육아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정서경험과 '통증', '수면장애'와 같은 부정적인 신체경험, '부부싸움'과 같은 부정적 관계경험에 해당하는 주제어들이 상위 빈출 단어로 등장하였다.

미시체계 중 가정 외 범주의 소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웃·동네'에서는 '친구'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공동육아'가 그 뒤를 이었다. '보육교육기관'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어린이집의 종류 중에서도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등장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부모들의 의견 제시가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교육기관'에서는 '학원'이 1,000회 이상 출현한 단어로 나타났으며, '보육교육기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빈도가 낮았다. '육아지원서비스기관 중 기관'에 해당하는 주제어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육아정책연구소' 등이 상위 출현 주제어로 등장하였으며, '육아지원서비스기관의 서비스'로는 '상담', '치료', '부모교육'의 출현빈도가 높았다.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아빠학교'도 1,000회 이상 등장한 상위 단어로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외체계 중 부모의 일 환경과 관련된 주제어가 포함된 '직장'에서는 '경력'이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하여 육아와 병행해야 하거나 병행할 수 없는 부모의 경력에 대한 의견이 많이 표출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경력단절'과 경력단절 여성을 의미하는 '경단녀'라는 주제어가 상위 단어로 출현 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복직', '근로시간', '야근', '회식' 등의 단어가 많이 등장하였다. '육아방송'으로는 공중파 방송사가 상위 빈도를 차지하였고,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같은 육아방송프로그램 명칭과 이에 출연하는 출연자의 이름이 상위 단어로 나타났다. '온라인 채널 및 관련 트렌드' 범주에서는 '카페', '블로그', '트위터'와 같은 채널명칭이 상위 단어로 등장하였으며, 그 외에 '육아스타그램', '애스타그램'처럼 SNS를 통해 육아일상이나 자녀에 관한 사진이나 글을 포스팅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주제어도 많이 등장하였다.

육아관련정책 중 '보육교육정책'과 관련된 주제어로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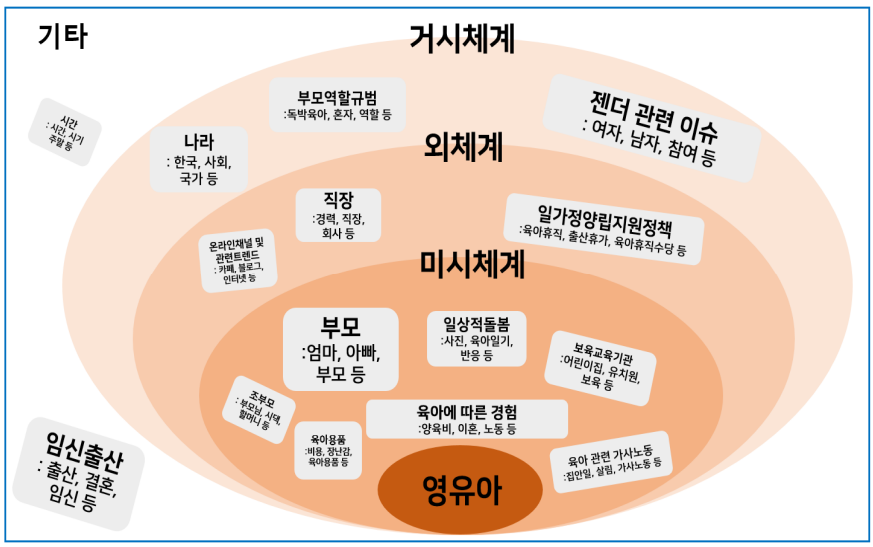
은 빈도로 등장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외에 '아이돌봄서비스', '맞춤반', '누리과정' 등의 주제어가 등장하였다. '일·가정양립지원정책'에서는 '육아휴직'이 압도적으로 빈도가 높았으며, 뒤를 이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수당'이 많이 등장하여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개인의 의견 표출이 높은 빈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남성육아휴직'이나 '아빠의 달'과 같이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상위 빈도에 등장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거시체계의 규범 중 '부모 역할'에서는 '독박육아'와 '혼자' 주제어가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이는 부모의 역할을 배우자 등 다른 이의 도움 없이 혼자 해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의견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눈치'의 빈도가 매우 높았다. 이는 육아 친화적이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부모가 육아를 하며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눈치를 보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노키즈존'의 출현빈도가 높은 것도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젠더 관련 이슈'에서는 '여자', '남자'의 빈도가 높았으며 그 외의 '참여', '책임', '분담'과 같이 육아를 부부가 어떻게 분담하여 참여하고 책임질 것인가와 관련한 주제어와 '페미니즘', '한남', '성평등'과 같은 주제어들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주제어가 가장 많았으며, '사회', '나라' 등의 주제어가 그 뒤를 이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국가명도 많이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소위 선진국의 육아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의 기타 범주에서 '경제'에서는 '소득'이 가장 많이 등장하였으며, '임신출산'에서는 '출산', '결혼', '임신' 순으로 출현빈도가 높았다.

출현빈도가 높은 주요 소분류 및 주제어를 생태체계모형으로 표현하면 [그림 Ⅲ-3-3]과 같다. 주요 소분류는 육아 관련 문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상위 15개 소분류이며, 각각의 소분류명 아래에는 소분류 내에서 높은 빈도로 등장한 주제어를 대표 주제어로 표기하였다. 그림에서 제시된 상위 15개 소분류명에는 미시체계 중 '부모', '조부모', '일상적 돌봄', '육아에 따른 경험', '보육교육기관', '육아 관련 가사노동', '육아용품'이, 외체계 중 '직장',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온라인 채널 및 관련트렌드'가, 거시체계 중 '젠더 관련 이슈', '부모역할규범', '나라'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중 '임신출산',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Ⅲ-3-3] 생태체계모형으로 본 주요 소분류 및 주제어[22)]



4) 채널별 육아 관련 주제어 빈도

소셜 미디어의 각 채널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어를 출현빈도 순으로 제시하면 〈표 Ⅲ-3-4〉와 같다. 이 연구의 주제인 육아 관련어, 그리고 육아 대상 주제어를 제외하고 상위 주제어를 살펴보면 먼저, 258개의 국내 온라인 뉴스 사이트의 경우, '여자'가 가장 많이 등장했고, 다음으로 '가족', '엄마', '결혼', '출산' 순으로 주제어 출현빈도가 높았다. 뉴스 채널에서는 다른 채널에 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주요 사회적 현상인 '저출산'이 상위 주제어로 등장하였으며 '육아휴직', '정부', '정책', '제도'와 같은 주제어가 높은 출현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에서는 '엄마'가 가장 많이 등장했고, '남편', '어린이집', '부모', '여자'가 다음으로 많이 등장했다. 블로그의 경우, '엄마'가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부모', '아빠', '가족', '남편'이 다음으로 많이 출현했다. 카페와 블로

22) 소분류명 및 주제어의 글자크기는 소분류별 주제어 출현빈도에 근거함. 글자크기가 큰 소분류는 해당 주제어의 출현빈도가 높은 소분류임을 의미하며(예; 부모, 젠더관련이슈 등), 상대적으로 글자크기가 작은 소분류는 해당 주제어의 출현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함(예; 시간, 조부모 등)

그는 다른 채널에 비해 육아의 대상과 주체인 아이와 부모를 의미하는 단어가 높은 출현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양육자가 육아의 일상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카페와 블로그를 주로 사용되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게시판(네이버지식인, 다음TIP 등)에서는 '남편'이 가장 많이 나왔고, '이혼', '양육비', '육아휴직', '변호사'가 그 뒤를 잇는 상위 주제어이다. 다른 채널에 비해, '이혼', '양육비', '변호사' 등과 같은 단어가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적인데, 이는 게시판이 보다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질문을 묻고 이에 대한 대답을 게시하는 글들로 구성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트위터에서는 '여자'가 가장 많이 등장하였고, '남자', '양육비', '출산', '결혼' 등이 그 뒤를 잇는 상위 주제어이며, 다른 채널에 비해 '독박육아', '경력단절'과 같은 단어가 높은 출현빈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국', '나라', '사회'와 같은 주제어가 높은 출현빈도로 나타난 것 또한 트위터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표 Ⅲ-3-4〉 채널별 육아 관련 문서 내 상위 50개 주제어 출현빈도

순위	뉴스		카페		블로그		게시판		트위터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아이	148,514	아이	283,162	아이	216,428	아이	39,727	육아	957,405
2	육아	104,465	아기	131,983	엄마	95,711	남편	25,255	여자	413,767
3	여자	78,332	육아	129,100	육아	85,101	육아	20,665	아이	351,918
4	가족	62,267	엄마	105,585	아기	66,495	이혼	20,471	남자	227,958
5	엄마	48,518	남편	101,856	부모	51,875	양육비	19,981	양육비	225,982
6	결혼	46,210	어린이집	60,270	아빠	42,183	육아휴직	19,857	출산	176,520
7	출산	44,359	부모	56,932	가족	35,730	변호사	17,410	결혼	167,596
8	자녀	43,822	여자	44,726	남편	34,877	아기	15,379	육아휴직	167,214
9	부모	40,480	가족	44,501	자녀	34,826	상담	13,803	엄마	155,951
10	우리나라	39,244	아빠	42,441	여자	33,044	정보	13,722	집안일	132,598
11	남자	39,141	시간	41,579	시간	27,316	여자	12,411	남편	121,513
12	아빠	38,639	자녀	40,664	아들	24,144	엄마	11,946	임신	118,741
13	사진	37,040	아들	38,262	학습	23,787	결혼	11,090	아빠	115,609
14	남편	34,922	둘째	37,921	출산	22,245	자녀	11,005	독박육아	102,999
15	육아휴직	34,911	혼자	33,780	사진	21,764	남자	9,918	아기	95,350
16	아내	33,573	학습	32,924	건강	21,448	혼자	8,777	아내	95,161
17	아기	31,264	결혼	30,532	어린이집	20,531	회사	8,672	자녀	86,178
18	정부	30,211	건강	30,392	남자	18,830	아빠	7,803	미혼모	78,513
19	어린이집	30,134	남자	29,441	혼자	16,854	아내	7,020	우리나라	75,185
20	부부	29,881	출산	28,340	우리나라	16,649	출산휴가	6,302	회사	67,931
21	나라	23,567	아내	26,763	결혼	16,193	소득	5,659	육아일기	61,777
22	아들	22,927	첫째	24,084	부부	14,715	가족	5,117	책임	60,758
23	학습	21,440	회사	22,953	임신	14,643	책임	4,486	부모	60,005
24	저출산	20,272	독박육아	22,179	이해	12,900	부모	4,300	경력	56,251
25	임신	20,231	육아휴직	21,213	놀이	11,697	아들	4,292	소득	52,508
26	정책	19,869	사진	19,887	둘째	11,093	출산	4,276	국가	49,663
27	시간	19,751	카페	18,866	아동	10,761	카페	4,251	혼자	45,799

순위	뉴스		카페		블로그		게시판		트위터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28	참여	19,692	임신	18,628	시기	10,693	어린이집	4,131	사회	43,431
29	사회	18,496	이해	18,626	성장	10,676	부모님	4,099	학습	43,037
30	회사	18,366	부부	17,275	선물	9,986	시간	4,014	참여	42,959
31	아동	17,085	게시글	17,020	치료	9,939	임신	3,912	정책	37,739
32	제도	16,948	주말	16,407	참여	9,862	나이	3,733	저출산	37,577
33	이혼	15,341	참여	15,860	상담	9,839	부부	3,534	이혼	32,923
34	슈퍼맨	14,637	나이	15,845	사회	9,700	우리나라	3,501	맞벌이	32,753
35	맞벌이	12,384	병원	15,279	장난감	9,629	네이버	3,471	시간	30,808
36	공무원	11,578	친구	14,354	이혼	9,437	시댁	3,221	복직	29,199
37	설명	11,276	부모님	14,176	발달	9,419	둘째	3,177	아들	28,455
38	혼자	11,157	상담	13,413	병원	9,226	이해	2,946	근로시간	27,057
39	건강	10,900	친정	13,315	역할	8,919	비용	2,735	경력단절	25,739
40	책임	10,685	시댁	12,960	육아휴직	8,887	시어머니	2,378	카페	24,081
41	환경	10,039	이혼	12,472	할머니	8,585	맞벌이	2,214	가족	22,917
42	웃음	10,000	사회	12,240	신생아	8,427	생활비	2,180	부부	22,787
43	영유아	9,981	정보	12,002	포스팅	8,347	휴직	1,804	분담	22,035
44	영화	9,595	놀이	11,994	부모님	7,997	주말	1,704	친구	21,252
45	역할	9,591	아동	11,500	나이	7,887	능력	1,691	학교	21,243
46	KBS	9,370	선물	11,472	이유식	7,881	첫째	1,679	임신중절	20,389
47	문화	9,288	할머니	10,638	환경	7,673	동생	1,640	직업	20,221
48	미국	9,182	경험	10,422	주말	7,618	사진	1,557	프랑스	19,445
49	둘째	9,046	역할	10,209	경험	7,566	설명	1,486	정부	19,416
50	아동수당	9,002	발달	10,019	정보	7,404	친구	1,463	피임	19,265

나. 감성분석

1) 감성 단어 출현빈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육아' 관련 문서 내에서 자주 등장하는 감성 단어를 출현빈도순으로 제시하면 〈표 Ⅲ-3-5〉와 같다. 이 연구에서 감성 단어는 '좋다', '사랑', '행복' 등 긍정적인 감성을 반영하는 긍정어, 그리고 '없다', '싫다', '힘들' 등 부정적인 감성을 반영하는 부정어로 구분하였다.

긍정어의 경우, '좋다', '도움', '지원', '필요', '사랑', '관심', '쉽다', '행복', '해결', '열심히' 등이 상위 10개 단어로 나타났으며, 상위 10개 단어의 총 언급 횟수는 796,677회이었다. 부정어의 경우, '없다', '문제', '못하', '힘들', '걱정', '어렵', '안되', '싫다', '고민', '포기' 등이 상위 10개 단어로 나타났으며, 총 언급 횟수는 1,279,359회이었다. 이와 같은 긍정어 및 부정어의 상위 10개 단어의 언급 횟수를 근거로 할 때, 국내 소셜 미디어 게시물들에서는 육아 현상에 관해 부정적 측면이 더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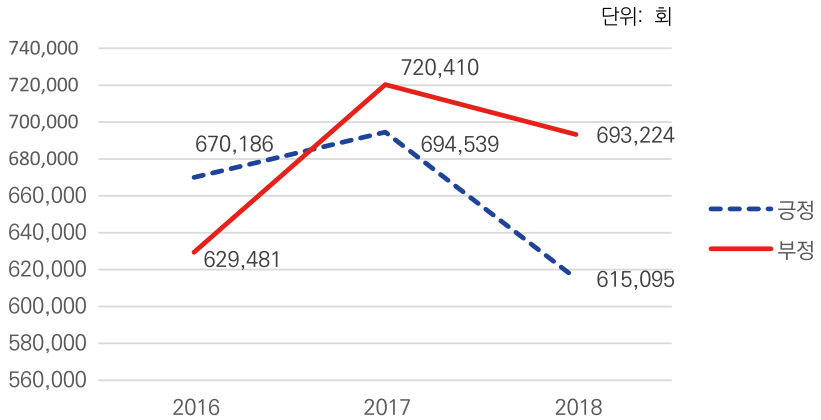
〈표 Ⅲ-3-5〉 육아 관련 감성 단어 빈도 순위(상위 50개)

순위	긍정어	빈도	부정어	빈도
1	좋다	205,292	없다	373,904
2	도움	107,077	문제	184,195
3	지원	86,749	못하	155,070
4	필요	72,968	힘들	126,009
5	사랑	72,254	걱정	87,098
6	관심	59,850	어렵	83,849
7	쉽다	52,966	안되	79,836
8	행복	47,497	싫다	67,636
9	해결	47,450	고민	62,252
10	열심히	44,574	포기	59,510
11	중요	34,924	잘못	48,019
12	잘함	32,384	스트레스	47,248
13	공감	31,604	부담	47,100
14	인정	29,230	안하	43,078
15	개선	28,741	고통	34,471
16	괜찮	28,522	고생	28,400
17	추천	27,554	강제	27,042
18	최고	26,974	눈물	26,551
19	기대	26,848	비정상	20,756

순위	긍정어	빈도	부정어	빈도
20	즐김	26,404	부족	20,180
21	정상	26,399	위험	20,105
22	많다	25,927	불안	19,738
23	새로운	25,643	불편	19,519
24	의미	25,090	짜증	18,904
25	해소	22,125	상처	18,428
26	재미	21,105	갈등	16,597
27	자유	20,672	별로	16,534
28	충분	19,965	희생	15,708
29	적극	19,803	비난	14,968
30	성공	19,787	무시	14,525
31	자랑	17,851	피곤	14,391
32	배려	17,025	분노	14,309
33	대단	16,598	난리	14,084
34	응원	16,488	거부	13,316
35	여유	16,378	지쳐	13,080
36	효과	16,013	무리	11,362
37	축하	15,275	후회	11,317
38	안전	14,825	지친	10,832
39	기쁨	14,639	싸우	10,063
40	희망	14,335	억압	9,987
41	위로	13,939	답답	9,736
42	화이팅	13,205	곤란	9,693
43	극복	12,631	충격	9,371
44	안심	12,513	속상	8,995
45	의지	12,150	안좋	8,793
46	지지	12,122	거지	8,095
47	필수	11,988	단절	7,483
48	만족	11,627	심해	7,077
49	힘내	10,571	당황	6,376
50	귀여움	1,570	불쌍	5,764

육아 관련 인식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육아 관련 문서에 등장한 감성 단어 중 긍정어와 부정어를 각각 연도별 상위 50개씩 선정하여 출현빈도의 합을 산출하여 [그림 Ⅲ-3-4]에 제시하였다. 이를 보면, 2016년에는 긍정어가 부정어보다 많았으나, 2017년부터 부정어가 긍정어보다 많아지고 그 차이가 2018년에는 더욱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Ⅲ-3-4] 육아 관련 긍정어, 부정어(각 상위 50개)의 출현빈도



2) 감성어 점수를 기반으로 한 감성분석

가) 연도별 감성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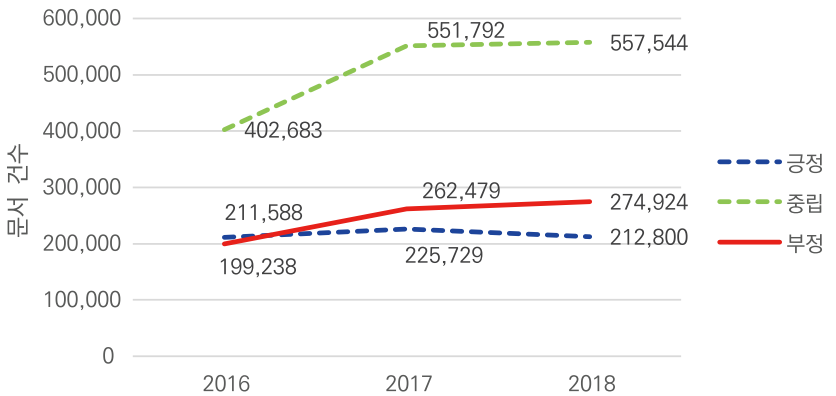
육아 관련 인식을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육아 관련 문서를 감성어 점수로 구분한 긍정/부정 문서의 연도별 출현 빈도를 살폈다. 이 때 감성어 점수가 양수이면 긍정문서, 음수이면 부정문서, 0점이면 중립 문서를 의미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긍정문서 수와 부정문서 수를 중심으로 결과를 기술하였다. 긍정문서, 부정문서의 문서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그림 Ⅲ-3-5), 긍정문서의 개수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부정문서의 개수는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약 7만 6천 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3-6〉 연도별 감성분석 문서 수

단위: 건

연도	긍정문서	중립문서	부정문서
2016년	211,588	402,683	199,238
2017년	225,729	551,792	262,479
2018년	212,800	557,544	274,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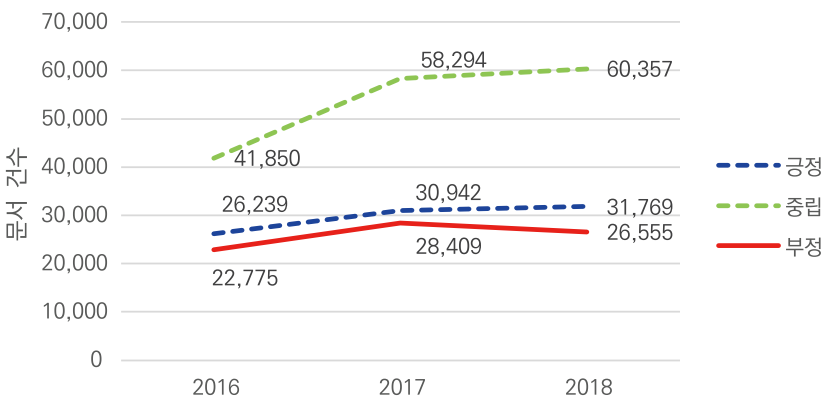
[그림 Ⅲ-3-5] 연도별 감성분석(전체)



나) 채널별 감성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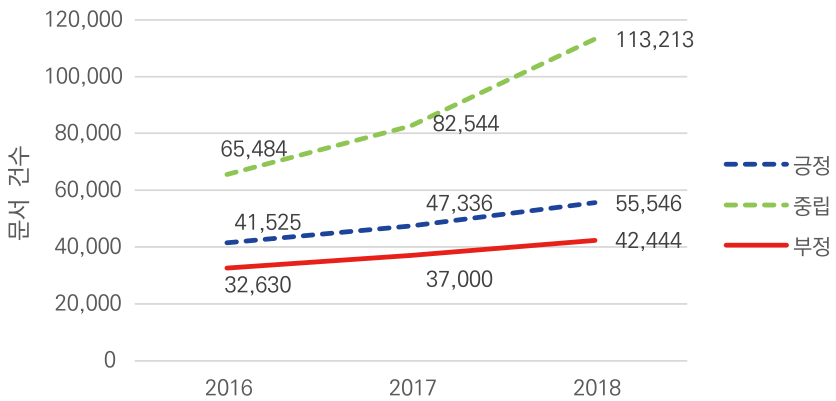
육아 관련 인식을 채널별로 살펴보기 위해 뉴스, 카페, 블로그, 게시판, 트위터 등 채널유형에 따라 긍정문서/부정문서 수를 연도별로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그림 Ⅲ-3-6]~[그림 Ⅲ-3-10]에 제시하였다. 먼저, 뉴스는 긍정문서가 부정문서보다 많으며, 긍정문서가 조금씩 늘고 있으며, 부정문서는 2017년에 문서 수가 조금 늘었다가 다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3-6] 뉴스 연도별 감성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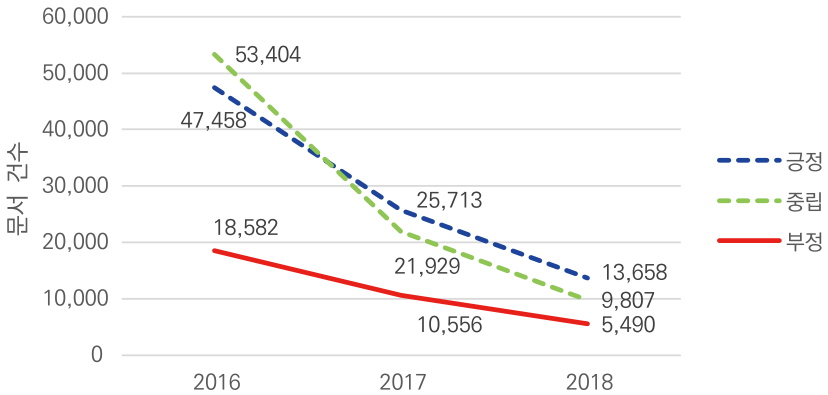
카페의 경우, 긍정문서가 부정문서보다 많으며, 긍정문서와 부정문서 모두 계속해서 문서 수가 조금씩 늘고 있다.

[그림 Ⅲ-3-7] 카페 연도별 감성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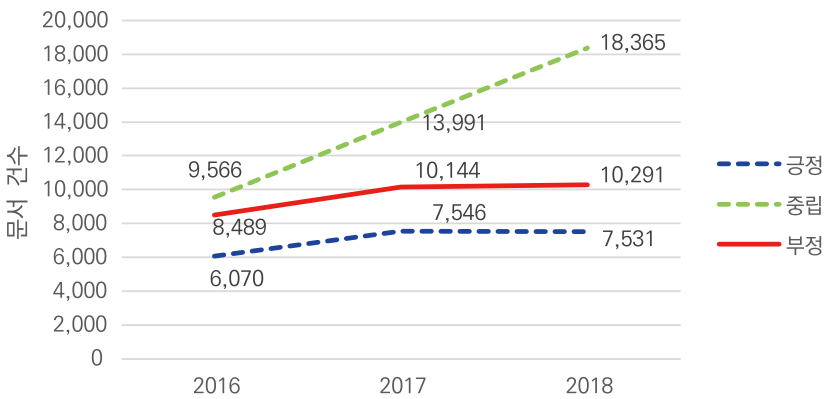
블로그의 경우, 긍정문서가 부정문서보다 현저하게 많으며, 문서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블로그의 긍정문서 감소 기울기가 부정문서 감소 기울기에 비해 더 가파르게 나타나 연도별로 긍정문서가 부정문서보다 더 빠르게 그 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3-8] 블로그 연도별 감성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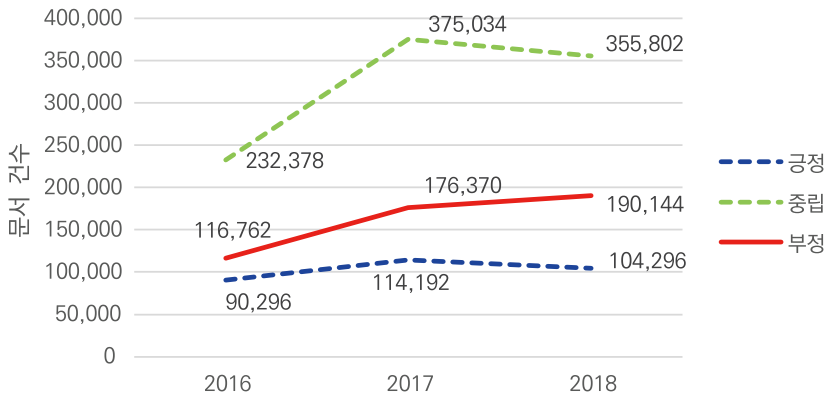
게시판의 경우, 부정문서가 긍정문서보다 많으며, 긍정문서 및 부정문서 모두 2017년 이후 문서 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림 Ⅲ-3-9] 게시판 연도별 감성분석



트위터의 경우, 부정문서가 긍정문서보다 더 많으며, 긍정문서 수의 연도별 변화는 크지 않은 데 비해 부정문서는 2018년 문서수가 2016년에 비해 약 8만 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3-10] 트위터 연도별 감성분석



다. 채널별 원글/댓글별 감성분석

채널별 양상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뉴스, 카페, 블로그, 게시판, 트위터[23] 등 채널별 원글과 댓글의 유형에 따른 긍정/부정문서 비율을 살펴보았으며, 뉴스, 카페, 블로그, 게시판의 긍정/부정문서 비율은 [그림 Ⅲ-3-11], [그림 Ⅲ-3-12]에, 트위터 언급방식에 따른 긍정/중립/부정문서 비율은 [그림 Ⅲ-3-13]에 제시하였다.

먼저, 뉴스 원글에서 긍정문서 비율은 57.2%인데 비해, 부정문서 비율은 25.9%이다. 또, 뉴스 댓글에서 긍정문서 비율은 14.9%이며, 부정문서 비율은 22.9%이다. 뉴스 원글에서 긍정문서의 비율이 부정문서에 비해 약 두 배 이상 높은 것은 육아와 관련된 뉴스 내용(예: 정책 관련 기사)에서 '지원', '해결' 등과 같은 긍정어가 다수 사용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기자들이 중립적으로 기사를 쓰기 위해 부정어 사용을 지양하는 경향에 기인했을 가능성 또한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뉴스 원글의 긍정/부정문서 비율 차이가 있는 것이라면, 뉴스 댓글에서 부정문서 비율이 긍정문서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뉴스에 댓글을 단 사람들이 뉴스 기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피력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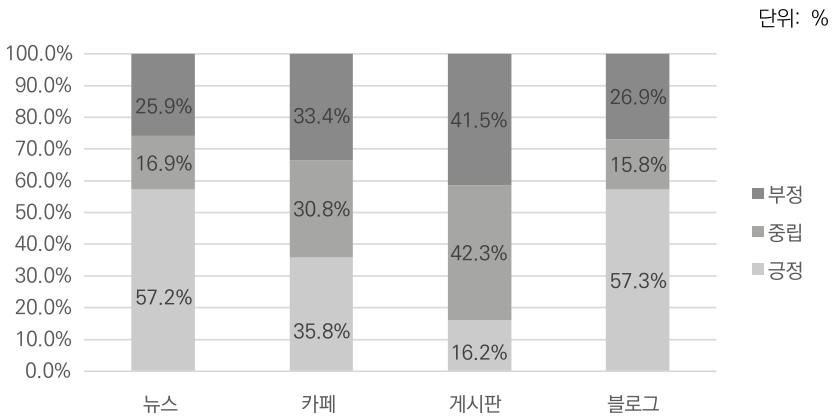
다음으로, 카페 원글에서 긍정문서 비율은 35.8%이며, 부정문서 비율은 33.4%이다. 또, 카페 댓글에서 긍정문서 비율은 22.1%이며, 부정문서 비율은 13.1%이다. 카페 원글의 긍정문서와 부정문서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인 데 비해, 카페 댓글은 긍정문서가 부정문서보다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카페 원글에서 긍정, 부정문서의 비율이 비슷한 것은 카페에서 양육자들이 육아하는 일상생활을 소개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며, 카페 댓글에서 긍정문서 비율이 부정문서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이와 같은 육아 일상 관련 원글에 대해 부정적인 감성어 사용보다는 위로 혹은 격려를 주로 하는 카페 특유의 공동체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게시판 원글에서 긍정문서 비율은 16.2%인데 비해, 부정문서는 41.5%이다. 게시판 댓글에서 긍정문서 비율은 27.0%이고, 부정문서는 25.5%이다. 게시판 원글에서 부정문서 비율이 긍정문서에 비해 약 2.6배 높은데, 이는 게시판에서 육아와 관련해서 '이혼', '양육비' 등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육아 경험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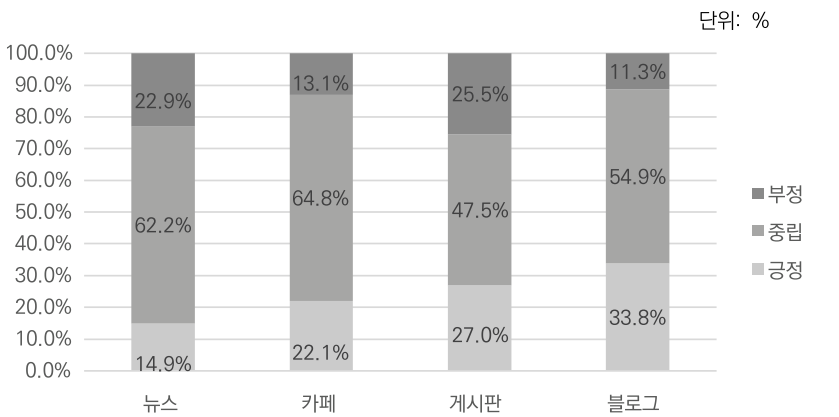
23) 트위터의 경우, 원글/댓글의 형태가 아닌, 대화형, 전파형, 독백형, 댓글형, 정보링크형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내용이 주로 오고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또, 게시판 댓글에서 긍정문서와 부정문서 비율이 비슷한 것은 이러한 원글에 대해 댓글을 쓴 사람 중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과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Ⅲ-3-11] 채널별 원글 긍정/중립/부정문서 비율



[그림 Ⅲ-3-12] 채널별 댓글 긍정/중립/부정문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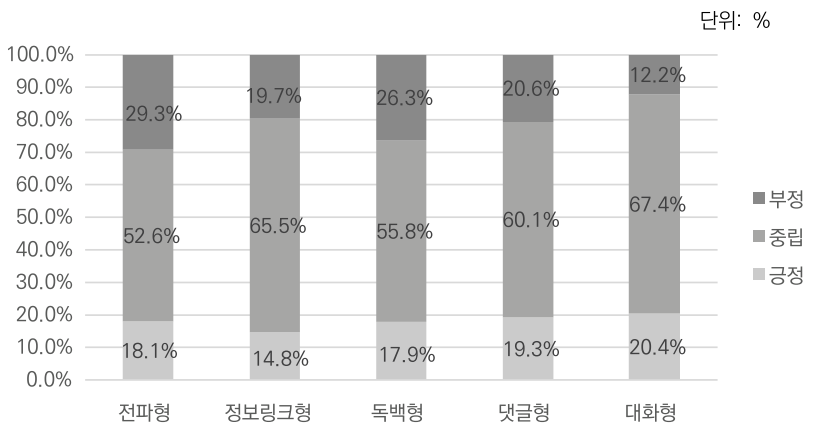


블로그 원글에서 긍정문서 비율은 57.3%인데 비해, 부정문서는 26.9%이다. 블로그 댓글에서 긍정문서 비율은 33.8%인데, 부정문서는 11.3%이다. 블로그 원글에서 긍정문서 비율이 부정문서의 약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난 것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양육자의 긍정적인 육아 상황을 다수의 사람이 보도록 기록으로 남겨놓는 경

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블로그 댓글에서 긍정문서 비율이 부정문서에 비해 약 세 배 정도 높게 나타난 것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양육자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블로그 원글에 대해 주로 공감하거나 칭찬하는 댓글을 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트위터 전파형에서 긍정문서 비율은 18.1%인데, 부정문서는 29.3%이고, 트위터 정보링크형에서 긍정문서 비율은 14.8%이고, 부정문서는 19.7%이다. 또, 트위터 독백형에서 긍정문서 비율은 17.9%인데, 부정문서는 26.3%이며, 트위터 댓글형에서 긍정문서 비율은 19.3%이고, 부정문서는 20.6%이다. 이처럼 트위터 전파형, 정보링크형, 독백형, 댓글형에서 부정문서 비율이 긍정문서보다 높은 것은 트위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을 더 많이 공유하는 경향에 그 이유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트위터 대화형은 긍정문서 비율이 20.4%이고, 부정문서는 12.2%인데, 이는 트위터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부정문서보다는 긍정문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3-13] 트위터 언급방식에 따른 긍정/중립/부정문서 비율



라. 긍정문서 및 부정문서 내 주제어 출현빈도

1) 전체 긍정문서 및 부정문서 내 주제어 출현빈도

육아 관련 문서에 등장한 감성 단어 중 긍정어 및 부정어 출현 횟수를 바탕으로 감성어 점수를 산출한 후, 이를 근거로 긍정문서와 부정문서를 구분하였다.[24] 이렇게 구분한 긍정문서와 부정문서 각각에서 상위빈출단어를 추출한 결과, 긍정문서와 부정문서에서 공통적으로 '육아', '아이', '여자', '엄마' 주제어가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하였다. 그 뒤를 이어 긍정문서에서는 '아기', '가족', '부모', '아빠', '자녀'와 같은 주제어가 부정문서에 비해 더 높은 빈도로 등장하여, 소셜 미디어에서 육아 관련 주체에 관해 긍정적인 생각과 의견이 더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육아 관련 주체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맥락이 더 우세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남자'의 경우 긍정문서에서보다 부정문서에서 빈도가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난 점이다. 이는 같은 대상이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입장에서 '남편'을 언급할 때와 아이의 입장에서 '아빠'를 언급할 때 관련된 감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외에 긍정문서와 부정문서에서 빈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주제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육아비용과 관련된 용어인 '양육비'는 긍정문서에 비해 부정문서에서 빈도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육아휴직'은 긍정문서에서 빈도 순위가 22위인 반면, 부정문서에서는 11위로 높게 나타나 육아휴직 제도의 실제 사용에 대해 한국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혼자'와 '독박육아' 주제어는 모두 부정문서에서 상대적으로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나 이와 같은 단어들이 부정적인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책임'이라는 주제어 역시 긍정문서에서보다 부정문서에서 2배 이상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혼자', '독박육아'와 같은 단어가 주로 부정적인 맥락으로 사용됨과 같은 맥락에서 육아의 책임이 불균형적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4) 긍정문서 감성어 점수의 범위는 1~108점(평균: 2.04)이며, 부정문서 감성어 점수의 범위는 -100~-1점(평균:-1.79점)이다.

〈표 Ⅲ-3-7〉 긍정문서 및 부정문서 내 상위 50개 주제어 출현빈도

순위	긍정문서		부정문서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아이	392,663	육아	414,903
2	육아	353,004	아이	387,429
3	여자	141,878	여자	211,612
4	엄마	140,459	엄마	145,011
5	아기	125,372	남편	138,494
6	가족	97,611	남자	120,065
7	부모	91,700	아기	118,228
8	아빠	87,684	결혼	113,048
9	자녀	86,988	출산	92,274
10	출산	83,880	양육비	73,228
11	남편	78,260	육아휴직	73,064
12	결혼	72,499	부모	70,387
13	남자	65,702	아내	66,970
14	아내	56,119	아빠	63,939
15	집안일	55,677	집안일	55,987
16	우리나라	55,544	우리나라	55,741
17	시간	54,039	가족	53,689
18	학습	52,854	임신	53,319
19	어린이집	49,525	혼자	51,531
20	건강	46,513	자녀	47,434
21	사진	46,390	어린이집	47,093
22	육아휴직	44,597	회사	45,279
23	저출산	43,064	아들	44,450
24	임신	41,709	이혼	42,116
25	아들	39,911	책임	40,145
26	참여	39,347	시간	38,618
27	양육비	35,562	독박육아	37,254
28	혼자	34,824	사회	35,999
29	회사	34,683	둘째	35,167
30	부부	34,402	경력	34,220
31	정책	33,905	부부	32,134
32	자녀양육	31,898	학습	30,992
33	비용	30,225	나라	27,923
34	근로시간	27,444	이해	25,879
35	사회	27,421	나이	23,258
36	정보	25,694	미혼모	21,839
37	정부	25,550	정책	20,834
38	둘째	24,407	사진	19,929
39	아동	23,307	참여	19,507
40	카페	22,253	병원	18,690
41	성장	21,156	아동	18,189
42	선물	20,595	정부	17,711
43	이해	20,313	맞벌이	17,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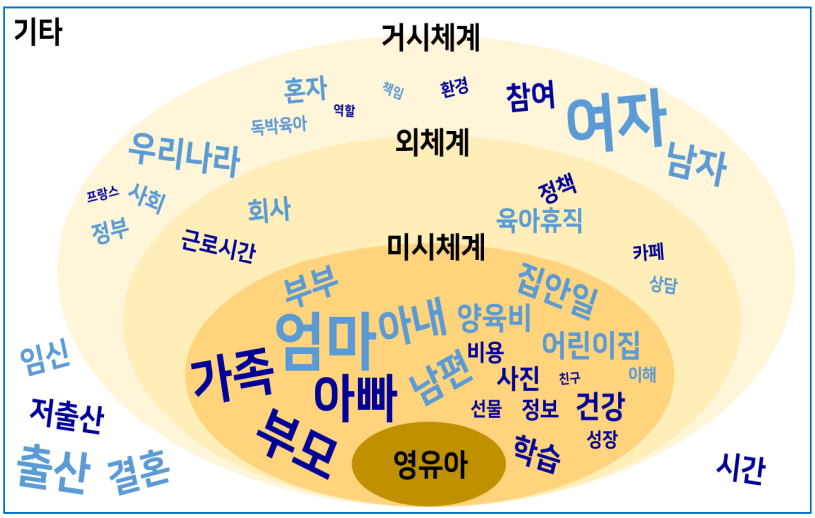
순위	긍정문서		부정문서	
	단어	빈도	단어	빈도
44	독박육아	20,268	임신중절	17,002
45	상담	20,261	첫째	16,932
46	환경	19,702	출산휴가	15,832
47	프랑스	19,080	시댁	15,759
48	책임	18,818	상담	15,715
49	친구	18,805	친정	15,323
50	역할	18,655	시기	14,998

긍정문서 및 부정문서의 상위빈출단어를 생태체계모형으로 표현하면 [그림 Ⅲ-3-14], [그림 Ⅲ-3-15]와 같으며, 글자의 크기가 클수록 높은 빈도로 등장한 핵심 주제어임을 의미한다.

긍정문서 내 상위 출현빈도 주제어를 생태체계모형으로 표현한 [그림 Ⅲ-3-14]를 보면, 미시체계에서 '가족', '부모', '아빠' 등의 주제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난 주요 긍정 핵심 주제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건강', '정보', '성장' 등이 긍정문서에서 핵심어로 등장한 미시체계 주제어이다. 외체계에서는 '근로시간', '정책'이 핵심 주제어였으며, '육아휴직'도 상위 출현빈도 주제어로 나타났으나 부정문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은 편이었다. 거시체계에서는 '참여', '환경' 주제어가 긍정문서의 핵심 주제어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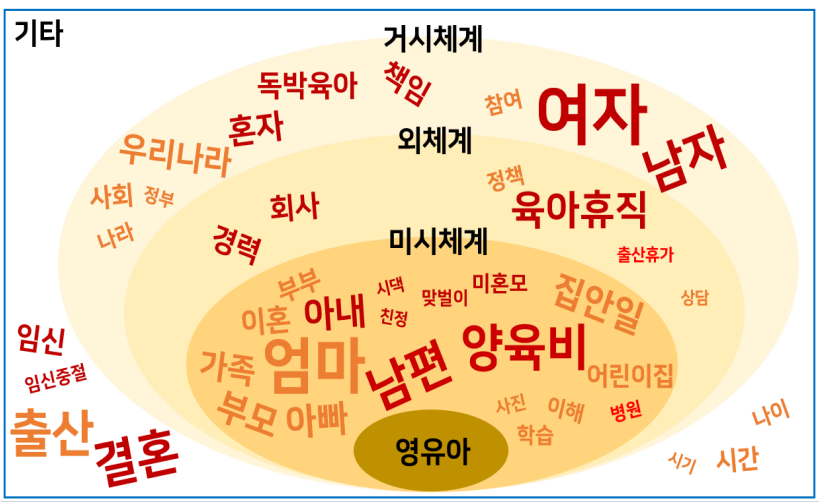
부정문서 내 핵심주제어를 생태체계모형으로 표현한 [그림 Ⅲ-3-15]를 보면, 미시체계에서 '남편', '아내', '양육비'가 높은 빈도로 등장한 핵심 주제어임을 알 수 있다. 외체계에서는 '육아휴직'이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주제어로 나타났으며, 긍정문서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경력', '출산휴가'가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거시체계에서는 긍정문서에서와 동일하게 '여자'와 '남자'가 가장 많이 등장한 주제어였으나, 긍정문서와 부정문서에서의 빈도를 비교해보면 부정문서에서의 출현빈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혼자', '독박육아', '책임'의 주제어가 부정문서에서 핵심으로 등장한 외체계 주제어이다.

[그림 Ⅲ-3-14] 생태체계모형으로 본 긍정문서 내 핵심 주제어



주: 가장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한 주제어는 긍정문서에서의 출현빈도가 부정문서에 비해 10,000회 이상 더 많거나, 부정문서에서는 상위 50개 주제어에 해당하지 않고 긍정문서에서만 상위 50개 주제어로 등장한 주제어임(이 연구의 주제인 '육아'는 그림에서 제외하였음)

[그림 Ⅲ-3-15] 생태체계모형으로 본 부정문서 내 핵심 주제어



주: 가장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한 주제어는 부정문서에서의 출현빈도가 긍정문서에 비해 10,000회 이상 더 많거나, 긍정문서에서는 상위 50개 주제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정문서에서만 상위 50개 주제어로 등장한 주제어임(이 연구의 주제인 '육아'는 그림에서 제외하였음)

2) 채널별 긍정문서 및 부정문서 내 주제어 출현빈도

가) 뉴스

뉴스 채널에 게시된 육아 관련 문서를 감성어 점수를 근거로 긍정문서와 부정문서로 구분하여 각각에서 상위빈출단어를 추출한 결과는 〈표 Ⅲ-3-8〉과 같다. 우선, 이 연구의 주제인 육아 관련어를 제외하면, '아이', '가족', '여자'의 주제어가 긍정문서와 부정문서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등장하였다. 특징적인 점은 뉴스 외 다른 채널에서는 '육아휴직' 주제어가 부정문서에서 더 많이 등장한 반면, 뉴스 채널에서는 긍정문서에서 출현한 빈도가 더 높은 점이다. 일반 대중들이 글을 게시하는 카페, 블로그, 트위터 등과 달리 뉴스는 사실 전달을 목적으로 기자가 작성한 글이 게시되는 채널이다. 이 뉴스채널에서는 육아휴직제도와 같은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관점으로 문서가 작성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정책' 주제어가 긍정문서에서 등장한 빈도가 높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뉴스 채널에서 긍정문서 및 부정문서별로 이 연구의 주제인 육아 관련어를 제외한 주제어들을 상위 출현 빈도순으로 시각화하면, [그림 Ⅲ-3-16], [그림 Ⅲ-3-17]과 같다.

〈표 Ⅲ-3-8〉 뉴스의 긍정문서 및 부정문서 내 상위 50개 주제어 출현빈도

순위	긍정문서		부정문서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아이	70,926	아이	55,184
2	육아	59,452	육아	30,312
3	가족	37,775	여자	29,301
4	여자	35,665	가족	17,146
5	출산	26,439	엄마	16,724
6	엄마	24,529	결혼	16,547
7	아빠	24,266	남편	16,103
8	사진	21,716	남자	15,132
9	결혼	20,459	우리나라	14,288
10	부모	20,454	아내	13,965
11	자녀	19,125	부모	13,563
12	육아휴직	17,458	나라	13,016
13	아기	16,657	출산	11,541
14	우리나라	16,340	육아휴직	11,424

순위	긍정문서		부정문서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5	남자	15,771	자녀	11,225
16	부부	15,429	정부	10,731
17	어린이집	14,946	어린이집	10,585
18	정부	14,928	부부	10,014
19	아내	14,928	사진	9,409
20	학습	13,329	아빠	9,116
21	남편	13,300	아들	8,989
22	저출산	12,537	아기	8,585
23	나라	12,344	사회	7,736
24	참여	12,171	이혼	7,175
25	정책	11,367	회사	7,063
26	시간	11,160	소득	5,882
27	제도	11,115	아동	5,822
28	임신	10,910	임신	5,750
29	슈퍼맨	10,543	저출산	5,718
30	아들	10,059	시간	5,657
31	아동	8,829	정책	5,605
32	사회	8,305	맞벌이	5,006
33	건강	6,925	학습	4,890
34	환경	6,610	학대	4,571
35	웃음	6,407	혼자	4,518
36	문화	6,395	병원	4,333
37	성장	6,381	책임	4,257
38	영유아	6,293	나이	4,093
39	역할	6,089	아동학대	4,027
40	설명	6,055	제도	3,970
41	KBS	5,763	비용	3,924
42	공무원	5,644	양육비	3,864
43	영화	5,541	설명	3,841
44	시장	5,065	이해	3,496
45	이혼	4,877	미국	3,426
46	SNS	4,876	아동수당	3,269
47	지역	4,875	둘째	2,905
48	둘째	4,865	치료	2,841
49	맞벌이	4,749	영화	2,753
50	SBS	4,679	공무원	2,696

[그림 Ⅲ-3-16] 뉴스 채널의 긍정문서 상위 출현 단어 워드 클라우드

주: 본 연구의 주제인 '육아'를 제외함

[그림 Ⅲ-3-17] 뉴스 채널의 부정문서 상위 출현 단어 워드 클라우드

주: 본 연구의 주제인 '육아'를 제외함

나) 카페

카페 채널에 게시된 육아 관련 문서를 감성어 점수를 근거로 긍정문서와 부정문서로 구분하여 각각에서 상위빈출단어를 추출한 결과는 〈표 Ⅲ-3-9〉와 같다. 카페

채널의 긍정문서에서 주로 출현한 주제어를 살펴보면 육아 및 육아 관련 주체에 관한 주제어뿐만 아니라 '사진', '놀이', '선물' 등 가정 내 육아 활동과 관련된 주제어나 '건강', '발달', '성장' 등 영유아의 성장과 관련한 주제어가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반면, 카페 채널의 부정문서에는 '남편' 주제어가 출현한 빈도 순위가 매우 높았으며, 그 외에 '혼자', '독박육아', '집안일' 등의 주제어가 많이 등장하였다. 또한 다른 채널과 비교해보았을 때, '시댁', '친정', '시어머니', '친정엄마'가 부정문서 상위 빈도로 출현한 것이 특징적이다. 카페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개인들이 모여 육아를 하며 경험하는 다양한 생각들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로 인해 카페에서는 육아를 하며 겪게 되는 고민이나 걱정들에 대해 카페 구성원들 간에 서로 조언을 구하고, 육아의 지치고 힘든 점들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소통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카페 채널에서는 개인이 육아를 하며 경험하는 어렵고 힘든 점들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카페 채널에서 긍정문서 및 부정문서별로 이 연구의 주제인 육아 관련어를 제외한 주제어들을 상위출현빈도순으로 시각화하면, [그림 Ⅲ-3-18], [그림 Ⅲ-3-19]와 같다.

〈표 Ⅲ-3-9〉 카페의 긍정문서 및 부정문서 내 상위 50개 주제어 출현빈도

순위	긍정문서		부정문서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아이	132,068	아이	114,937
2	육아	55,943	아기	59,556
3	아기	46,651	남편	57,330
4	엄마	45,595	육아	49,216
5	부모	30,624	엄마	45,200
6	남편	28,770	어린이집	25,556
7	가족	26,068	부모	20,239
8	건강	22,220	여자	19,262
9	어린이집	20,506	둘째	18,859
10	아빠	20,451	아들	17,905
11	여자	19,778	혼자	17,400
12	시간	19,248	아빠	15,332
13	학습	18,743	아내	14,565

순위	긍정문서		부정문서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4	자녀	15,057	시간	14,490
15	출산	13,724	결혼	13,894
16	아들	13,480	가족	13,862
17	남자	12,590	남자	13,033
18	결혼	12,573	첫째	12,096
19	둘째	11,707	집안일	11,785
20	사진	11,467	회사	11,581
21	혼자	10,924	육아휴직	9,874
22	아내	10,128	독박육아	9,849
23	카페	9,826	출산	9,698
24	참여	8,824	학습	9,345
25	나이	8,516	자녀	9,288
26	임신	8,334	시댁	8,488
27	이해	7,984	이해	8,390
28	놀이	7,923	병원	8,143
29	부부	7,858	친정	8,053
30	첫째	7,469	이혼	7,589
31	선물	7,469	주말	7,493
32	정보	7,152	임신	7,471
33	부모님	7,123	부부	7,432
34	역할	6,437	나이	7,080
35	발달	6,416	게시글	6,668
36	성장	6,369	시어머니	5,790
37	사회	6,326	건강	5,678
38	아동	5,939	친구	5,645
39	게시글	5,875	할머니	5,494
40	영유아	5,818	친정엄마	5,488
41	상담	5,795	복직	5,369
42	칭찬	5,717	상담	5,359
43	시기	5,670	동생	5,229
44	경험	5,610	부모님	5,215
45	독박육아	5,546	사회	5,044
46	친구	5,531	카페	5,025
47	육아휴직	5,437	사진	4,722
48	주말	5,234	퇴근	4,162
49	환경	4,957	출근	4,143
50	유아	4,842	아동	4,132

[그림 Ⅲ-3-18] 카페 채널의 긍정문서 상위 출현 단어 워드 클라우드

주: 본 연구의 주제인 '육아'를 제외함

[그림 Ⅲ-3-19] 카페 채널의 부정문서 상위 출현 단어 워드 클라우드

주: 본 연구의 주제인 '육아'를 제외함

다) 블로그

블로그 채널에 게시된 육아 관련 문서를 감성어 점수를 근거로 긍정문서와 부정문서로 구분하여 각각에서 상위빈출단어를 추출한 결과는 〈표 Ⅲ-3-10〉과 같다. 블로그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단어의 출현빈도가 부정단어의 출현빈도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카페에서 긍정문서 비율이 부

정문서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블로그의 긍정문서에서는 이 연구의 주제인 육아 관련어를 제외하면, ‘아이’, ‘엄마’, ‘아기’, ‘부모’ 등 육아 관련 주체에 관한 주제어뿐만 아니라, 카페와 유사하게 ‘사진’, ‘놀이’, ‘장난감’, ‘건강’, ‘성장’ 과 같은 주제어가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다. 블로그와 카페는 공통적으로 육아의 일상에 대해 개인들이 작성한 문건이 게시되는 채널이기 때문에, 긍정문서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난 주제어가 유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블로그 채널에서 긍정문서 및 부정문서별로 이 연구의 주제인 육아 관련어를 제외한 주제어들을 상위출현빈도순으로 시각화하면, [그림 Ⅲ-3-20], [그림 Ⅲ-3-21]과 같다.

〈표 Ⅲ-3-10〉 블로그의 긍정문서 및 부정문서 내 상위 50개 주제어 출현빈도

순위	긍정문서		부정문서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아이	112,864	아이	61,918
2	엄마	47,226	엄마	26,803
3	육아	43,136	육아	23,634
4	아기	35,050	부모	16,477
5	부모	26,434	아기	15,225
6	아빠	23,386	남편	13,388
7	가족	20,327	여자	11,962
8	여자	14,899	학습	9,800
9	시간	14,498	가족	9,549
10	남편	14,437	자녀	9,253
11	학습	14,210	아빠	8,755
12	건강	13,596	아들	7,291
13	자녀	13,287	아내	7,208
14	출산	12,696	남자	7,177
15	사진	12,062	시간	6,471
16	아들	10,822	결혼	6,412
17	어린이집	10,788	부부	5,825
18	남자	8,327	우리나라	5,458
19	혼자	8,043	이혼	5,254
20	임신	7,737	출산	5,244
21	놀이	7,675	혼자	5,223
22	결혼	7,355	어린이집	4,885
23	부부	6,623	이해	4,322
24	아내	6,490	사진	4,029
25	선물	6,447	사회	3,896
26	이해	6,352	치료	3,716
27	성장	6,325	임신	3,656
28	시기	5,795	아동	3,587

순위	긍정문서		부정문서	
	단어	빈도	단어	빈도
29	참여	5,677	병원	3,511
30	발달	5,659	건강	3,366
31	정보	5,518	나이	3,347
32	장난감	5,491	회사	3,323
33	아동	5,479	상담	3,053
34	둘째	5,328	둘째	2,952
35	역할	4,978	육아휴직	2,927
36	신생아	4,916	양육비	2,896
37	상담	4,809	시기	2,739
38	나이	4,686	할머니	2,705
39	할머니	4,519	부모님	2,647
40	포스팅	4,492	역할	2,369
41	환경	4,473	성장	2,354
42	사회	4,342	책임	2,313
43	영유아	4,129	영화	2,268
44	경험	4,120	경험	2,109
45	이유식	4,070	발달	2,001
46	치료	4,013	능력	2,000
47	주말	3,865	환경	1,905
48	병원	3,782	분유	1,876
49	부모님	3,609	반응	1,791
50	영화	3,591	첫째	1,766

[그림 Ⅲ-3-20] 블로그 채널의 긍정문서 상위 출현 단어 워드 클라우드

주: 본 연구의 주제인 '육아'를 제외함

[그림 Ⅲ-3-21] 블로그 채널의 부정문서 상위 출현 단어 워드 클라우드

주: 본 연구의 주제인 '육아'를 제외함

라) 게시판

게시판 채널에 게시된 육아 관련 문서를 감성어 점수를 근거로 긍정문서와 부정문서로 구분하여 각각에서 상위빈출단어를 추출한 결과는 〈표 Ⅲ-3-11〉과 같다. 게시판 채널에서는 '변호사', '상담', '정보' 등의 단어가 긍정문서의 상위 단어로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육아의 일상이 아닌 보다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질문을 묻고 이에 대한 대답을 게시하는 글로 구성된 게시판의 채널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정문서에서는 '남편'과 '이혼' 주제어가 높게 등장하였다. 게시판 채널에서 긍정문서 및 부정문서별로 이 연구의 주제인 육아 관련어를 제외한 주제어들을 상위출현빈도순으로 시각화하면, [그림 Ⅲ-3-22], [그림 Ⅲ-3-23]과 같다.

〈표 Ⅲ-3-11〉 게시판의 긍정문서 및 부정문서 내 상위 50개 주제어 출현빈도

순위	긍정문서		부정문서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변호사	9,555	아이	23,126
2	아이	8,900	남편	16,694
3	상담	6,068	이혼	11,514
4	정보	5,435	육아	10,097
5	양육비	5,017	아기	9,150
6	육아	4,906	양육비	8,895
7	이혼	3,900	육아휴직	7,708

순위	긍정문서		부정문서	
	단어	빈도	단어	빈도
8	여자	3,846	엄마	7,151
9	육아휴직	3,772	여자	6,906
10	남편	3,751	남자	6,589
11	아기	3,221	결혼	6,460
12	혼자	3,130	상담	4,634
13	자녀	2,909	아빠	4,546
14	남자	2,448	회사	4,485
15	엄마	2,440	아내	4,217
16	카페	2,228	혼자	3,997
17	결혼	2,222	변호사	3,851
18	아빠	1,647	정보	3,225
19	경력	1,642	자녀	3,093
20	회사	1,580	책임	2,828
21	가족	1,430	가족	2,649
22	소득	1,365	아들	2,559
23	나이	1,306	소득	2,507
24	아내	1,249	부모님	2,505
25	부모	1,210	출산휴가	2,435
26	시간	1,171	시댁	2,353
27	네이버	1,128	임신	2,305
28	부부	1,106	어린이집	2,118
29	출산	1,058	시간	2,078
30	출산휴가	1,025	부모	2,062
31	우리나라	896	출산	1,964
32	어린이집	894	집안일	1,931
33	아들	876	우리나라	1,861
34	육아휴직수당	820	친정	1,825
35	책임	797	이해	1,824
36	부모님	796	네이버	1,759
37	설명	766	둘째	1,707
38	임신	726	시어머니	1,664
39	둘째	635	병원	1,649
40	비용	627	부부	1,596
41	집안일	597	나이	1,590
42	이해	569	생활비	1,407
43	선물	549	복직	1,261
44	사진	513	맞벌이	1,211
45	의사	506	주말	1,093
46	분유	495	동생	1,088
47	맞벌이	450	능력	900
48	능력	434	첫째	891
49	병원	429	어머님	890
50	건강	426	친구	840

[그림 Ⅲ-3-22] 게시판 채널의 긍정문서 상위 출현 단어 워드 클라우드

주: 본 연구의 주제인 '육아'를 제외함

[그림 Ⅲ-3-23] 게시판 채널의 부정문서 상위 출현 단어 워드 클라우드

주: 본 연구의 주제인 '육아'를 제외함

마) 트위터

트위터 채널에 게시된 육아 관련 문서를 감성어 점수를 근거로 긍정문서와 부정문서로 구분하여 각각에서 상위빈출단어를 추출한 결과는 〈표 Ⅲ-3-12〉와 같다. 다른 채널과 비교해 보았을 때, 트위터의 긍정문서에서는 '아기', '아내', '엄마', '아빠' 등 육아의 주체를 일컫는 주제어가 상대적으로 빈도 순위가 낮게 나타난 반면, '집안일', '저출산', '양육비', '근로시간'과 같은 주제어가 긍정문서의 상위 출

현 단어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트위터의 매체적 특성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감성어 사전의 긍정어를 함께 고려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트위터는 정보나 의견을 140자 미만의 짧은 글로 제시하고, 이 글이 즉각적인 리트윗을 통해 빠르고 넓게 확산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처럼 정보의 파급효과가 강력하다는 매체 특성으로 인해, 트위터는 다른 소셜 미디어에 비해 즉시적인 정치 참여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조화순, 김정연, 2012). 따라서 트위터에 게시된 육아관련 문건은 일상적인 육아 경험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육아 관련 현상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거나 관련 정책이나 정보들을 널리 알리려는 목적으로 작성되는 경향을 보이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매체특성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감성어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긍정어에는 '사랑', '행복', '기쁨' 등 개인이 느끼는 긍정 정서를 나타내는 감성어뿐만 아니라, '도움', '필요', '지원', '개선'과 같이 긍정 의견을 나타내는 감성어도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트위터에서는 '집안일 도움', '저출산 지원', '근로시간 개선' 등과 같은 맥락에서 해당 주제어들이 많이 사용되었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주제어들이 긍정문서의 상위 출현단어로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트위터의 부정문서에서는 '여자'와 '남자'뿐만 아니라 '책임', '한남', '분담' 등 젠더 관련 이슈에 포함되는 주제어가 등장하였다. 특히 다른 채널들과 달리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속어로 사용되는 '한남'이라는 주제어가 상위 빈출 단어로 등장한 점이 특징적인데, 트위터의 육아 관련 문서에서 젠더 관련 갈등이 강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채널에 비해, '경력', '회사' 주제어가 부정문서에서 높은 순위로 나타난 점도 특징적이다. 트위터 채널에서 긍정문서 및 부정문서별로 이 연구의 주제인 육아 관련어를 제외한 주제어들을 상위 출현 빈도순으로 시각화하면, [그림 Ⅲ-3-24], [그림 Ⅲ-3-25]와 같다.

〈표 Ⅲ-3-12〉 트위터의 긍정문서 및 부정문서 내 상위 50개 주제어 출현빈도

순위	긍정문서		부정문서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육아	189,567	육아	301,644
2	집안일	88,533	여자	144,181
3	여자	68,751	아이	132,264

순위	긍정문서		부정문서	
	단어	빈도	단어	빈도
4	아이	67,905	남자	79,153
5	남자	36,783	결혼	69,735
6	출산	29,963	나라	65,602
7	결혼	29,890	출산	63,827
8	저출산	26,709	양육비	54,812
9	양육비	25,348	엄마	49,383
10	근로시간	24,397	육아휴직	41,909
11	아기	23,793	남편	34,979
12	아내	23,324	임신	34,137
13	우리나라	20,840	경력	31,084
14	엄마	20,669	회사	29,542
15	남편	18,002	책임	27,729
16	아빠	17,934	아내	27,015
17	가족	17,759	우리나라	26,401
18	정책	17,022	아빠	26,190
19	나라	15,899	아기	25,712
20	자녀양육	15,649	독박육아	22,621
21	프랑스	15,329	집안일	21,928
22	육아휴직	14,360	혼자	20,393
23	비용	14,211	미혼모	19,433
24	임신	14,002	사회	18,649
25	회사	13,925	부모	18,192
26	부모	12,978	임신중절	16,870
27	독박육아	12,755	가족	16,638
28	독일	12,248	소득	14,782
29	고용제도	12,203	자녀	14,575
30	미혼모	11,849	한남	14,436
31	분담	11,830	참여	11,900
32	경력	10,757	학습	10,678
33	책임	9,019	이혼	10,584
34	자녀	8,892	정책	10,266
35	혼자	8,677	경력단절	10,100
36	사회	8,157	시간	9,922
37	시간	7,962	분담	9,113
38	의사	7,341	무시	8,753
39	친구	7,278	둘째	8,744
40	참여	7,254	대화	8,649
41	육아생활	7,080	출산휴가	8,430
42	육아일기	6,158	이해	7,847
43	카페	5,785	아들	7,846
44	정부	5,557	부부	7,267
45	학교	5,542	나이	7,252
46	아들	4,724	반응	6,388

순위	긍정문서		부정문서	
	단어	빈도	단어	빈도
47	살림	4,541	가사노동	6,136
48	특수아	4,484	시기	6,082
49	경력단절	4,284	맞벌이	5,936
50	맞벌이	4,147	능력	5,780

[그림 Ⅲ-3-24] 트위터 채널의 긍정문서 상위 출현 단어 워드 클라우드

주: 본 연구의 주제인 '육아'를 제외함

[그림 Ⅲ-3-25] 트위터 채널의 부정문서 상위 출현 단어 워드 클라우드

주: 본 연구의 주제인 '육아'를 제외함

4. 소결

본 장에서는 오늘날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매체인 소셜 미디어에서 육아라는 주제가 이야기되는 양상을 빅데이터 분석기법으로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동안 뉴스, 카페, 블로그, 게시판, 트위터에 게시된 문서 총 2,898,776건(뉴스 327,190건, 카페 517,722건, 블로그 206,597건, 게시판 91,993건, 트위터 1,755,274건)이었다. 자료수집 이전에 생태체계이론을 토대로 구축한 주제어 사전, 육아 관련 부정어와 긍정어로 구성된 감성어 사전을 합해 총 3,363개의 단어를 구축하였고, 웹크롤링한 문서를 정형 상태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육아문화에 관한 세 가지 가정을 기본으로 본 절의 소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한국사회의 육아문화에서는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우세하다는 첫 번째 가정은 소셜 빅데이터에서도 확인되었다. 연구진이 선정한 감성어(긍정어, 부정어) 602개 중 분석대상 문서에서 10만 회 이상 언급된 단어는 '없다'(없는, 없어, 없어, 없었, 없음 포함), '좋다'(좋은, 좋아, 좋지, 좋고, 좋네, 좋음 포함), '문제', '못하'(못한, 못함, 못할, 못해 포함), '힘들'(힘드, 힘들, 힘듦, 힘듬 포함), '도움'(도와, 도울 포함)의 순이었다. 10만 회 이상 언급된 6개의 감성어 중 부정어가 4개로 긍정어보다 많았고, 부정적 측면의 내용은 부재, 문제, 불가능, 어려움이었다. 이외에 자주 등장한 부정어로는 '걱정', '어렵', '안되', '싫다', '고민', '포기' 등이 있었다.

특히 이러한 양상이 2016년에 비해 2017년과 2018년에 심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정어 상위 50개와 긍정어 상위 50개를 뽑아 연도별 출현빈도를 보면, 2016년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어의 빈도가 높았으나 2017년과 2018년에는 부정어의 빈도가 높았다. 감성어 점수를 활용해 긍정문서와 부정문서를 분류한 후 각각의 수를 보면, 2016년에는 긍정문서가 부정문서보다 많았던 반면 2017년과 2018년에는 부정문서가 더 많았다. 2018년에는 2017년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채널별로는, [트위터]와 [게시판]에서 부정문서가 긍정문서보다 많았던 반면 [뉴스], [카페], [블로그]에는 긍정문서가 더 많았다. 각 채널 안에서 원글과 댓글로 나누어 살펴보면, [뉴스] 기사는 긍정문서가 부정문서보다 많았지만, 기사에 대한 댓글은 부정문서가 더 많았다. [카페] 원글은 긍정문서와 부정문서의 비율이 비슷했

고, 댓글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많아서인지 긍정문서가 더 많았다. [블로그]는 아동의 모습이나 특별한 일상을 공유하는 성격 때문에 원글과 댓글 모두 긍정문서가 더 많았다. [트위터]는 전파형, 정보링크형, 독백형, 댓글형에서 부정문서가 긍정문서보다 많았다.

육아문화의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는 첫 번째 가정과 관련하여 어떤 측면이 부정적으로 언급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육아에 드는 경제적 비용과 육아를 한 명이 전담하는 상황(대체로 어머니)의 두 가지가 두드러졌다. 먼저 경제적 비용의 경우, 전체 분석대상 문서에서 '양육비'의 출현빈도가 10위였던 것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소득'도 35위를 차지하였다. 긍정문서, 부정문서 각각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양육비'는 부정문서에서 10위, 긍정문서에서 27위로 부정적 맥락에서 더 빈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의 경제적 비용과 관련하여 전체 분석대상 문서에서 '학습'이 24위를 차지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육아는 상대적으로 어린 아동을 돌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이 상당히 자주 언급되었고, 주제어 사전의 [학습] 소분류 중에는 '학습'에 이어 '영어'가 자주 언급되었다. 한국사회에서 학습이나 영어교육이 사교육 등 비용지출과 연결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학습이나 영어에 대한 관심 또한 육아 관련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어서 혼자 육아를 전담하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 언급도 육아 관련 소셜 미디어에서 핵심적이었다. 전체 분석대상 문서의 출현빈도 순으로 '독박육아'는 21위, '혼자'는 27위를 차지하였다. 긍정문서와 부정문서 각각에서 이 두 가지 단어의 출현빈도를 보면, '독박육아'와 '혼자' 모두 부정문서에서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여 부정적인 맥락에서 주로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독박육아'의 출현빈도를 채널별로 살펴보면 [트위터]에서 14위, [카페]에서 24위였던 반면 [뉴스], [블로그], [게시판]에서는 50위 안에 들지 않았다. 즉, 혼자 육아하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트위터와 카페를 중심으로 강하게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혼자'는 연결중심성과 위세중심성이 출현빈도 순위보다 높아서 상대적 중요성과 영향력이 높은 단어였다. 이외에 '집안일'의 출현빈도는 18위였으나, 위세중심성은 8위로 나타나 육아 관련 주제어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주제어 네크워크(그림 Ⅲ-3-2)에서도 '육아'와 '집안일'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육아를 가사노동과 연

결해서 언급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정은 일터에서 육아하는 가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은 있으나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소셜 미디어에서는 주로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이 논의되고 있었다. 전체 분석대상 문서에서 '육아휴직'은 11번째로 자주 등장한 단어로, 12위인 '아빠'보다도 자주 등장했다. 이외의 상위출현 단어 중에는 '우리나라'(19위), '나라'(20위), '사회'(34위), '정책'(39위), '정부'(42위) 등이 포함되었다.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단위인 국가나 정책 전반과 관련한 단어가 소셜 미디어에서 빈번하게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회사'(23위)와 '복직'(50위)도 전체 분석대상 문서의 출현빈도 상위 50위에 포함되어서, 경제활동이 육아와 함께 언급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긍정문서보다 부정문서에서 더 빈번하게 출현하였다. 부정문서에서는 '육아휴직'이 11번째로 자주 언급되었으나, 긍정문서에서는 22번째였다. 부정어의 내용이 주로 부재, 문제, 불가능, 어려움 등임을 감안하면, 부정문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수 언급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유사하게, '출산휴가'도 부정문서에서는 50위 안에 포함되었으나, 긍정문서에서는 50위 안에 없어서 부정적 맥락에서 더 자주 언급되었다. 경력단절 등과 연결된 '경력'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긍정문서에서는 상위 50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부정문서에서는 30위를 차지하여 대조적이었다.

연구진이 개발한 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한 육아 관련 주제어 사전에서 외체계로 분류한 6개의 소분류(직장, 육아방송, 육아서적, 온라인채널 및 관련 트렌드, 보육교육정책,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중에는 [직장] 범주의 단어의 출현빈도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일가정양립지원정책]으로 분류한 단어의 출현빈도가 두 번째였다. [일가정양립지원정책]으로 분류한 71개 단어 중 1,000회 이상 출현한 단어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수당', '고용제도', '남성육아휴직', '유연근무제도', '아빠의 달'의 총 7개로 많지 않은데, 이 중 3개가 육아휴직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서 출산휴가와 유연근무제도가 육아 관련 소셜 미디어에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으로 자주 언급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세 번째 가정은 육아에서 젠더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는데, 실제

로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젠더는 가장 두드러지는 주제였다. 전체 분석대상 문서에서 육아, 아동, 부모를 일컫는 단어 이외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단어는 '여자'(3위)와 '남자'(6위)였다. 연구진이 개발한 주제어 사전의 56개 소분류별 단어의 출현빈도 측면에서도 [육아], [영유아], [부모]를 제외하면 [젠더 관련 이슈]에 속하는 단어들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이처럼 젠더는 소셜 미디어에서 자주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평등 등 긍정적인 맥락보다는 부정적인 맥락에서 더 많이 언급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체 분석대상 문서에서 '엄마'는 '육아', '아이', '여자'에 이어 네 번째로 자주 언급되었지만, '아빠'는 12위로 10위 안에 포함되지 않아 육아에서 상대적으로 덜 언급되는 인물이었다. 또한 육아가 여성,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육아에 대한 부정적 측면과 연결되었다. 예를 들어 긍정문서와 부정문서 각각의 상위 출현단어를 분석한 결과, '남편'과 '남자'는 부정문서에서 5위와 6위였으나 긍정문서에서는 11위와 13위로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다. 반면, 육아하는 '아빠'가 긍정문서에서는 8위로 나타나서, 부정문서에서 14위로 언급된 것에 비해, 아버지의 육아참여 등 평등한 성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향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는 본 연구의 세 가지 가정이 맞물려 있으며, 젠더 불평등에 대한 세 번째 가정이 육아친화성이 부족한 현실을 이해하는 데 중추적임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결과, 등장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신조어인 '독박육아'의 출현빈도가 매우 높았다. 이 신조어는 육아를 혼자 담당하는 여성들이 현실을 부정적으로 일컬으면서 생겨난 말임을 감안하면, '독박육아'가 부각되고 있는 소셜 미디어에서의 경향은 육아에서의 젠더 불평등이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졌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정인 일-육아 양립의 어려움도 젠더 이슈와 연결된다. 육아휴직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현실을 반영하듯, 본 연구의 핵심 주제어 네트워크(그림 Ⅲ-3-2)에서도 '육아휴직'은 '여성', '엄마'와 두껍게 연결되어 있었다. 또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긍정문서에서보다 부정문서에서 출현빈도가 높아서, 부정적 경험과 관련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활용하기 어

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임과 동시에, 육아의 일차적인 책임을 여성에게 기대함으로써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들이 '독박육아' 등 부정적 경험을 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다만, 아버지 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도 '아빠', '남성 육아휴직' 등이 비교적 자주 등장했다는 결과는 고무적이다.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에 대한 기대와 부담이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일-육아 양립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성평등한 육아문화의 형성은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Ⅳ

육아문화 진단(Ⅱ)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 워크숍

01 1차 참여워크숍을 통한 육아문화 진단

02 2차 참여워크숍을 통한 육아문화 진단

03 소결

Ⅳ. 육아문화 진단(Ⅱ)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 워크숍

본 장에서는 육아 문화의 구성자인 20~40대 남녀가 모여 '육아문화'를 주제로 집중 토의하여 우리사회의 육아문화를 진단 과정을 제시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의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된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creators) 30여명[25]과 연구진이 모여 5월 25일에 '우리 사회 육아문화 진단과 바람직한 육아 환경'을 주제로 1차 숙의토론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9월 28일에는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개선 방안 탐색'을 주제로 2차 숙의토론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1차 숙의 토론의 결과를 반영하여 설문을 구성하였고, 2차 숙의 토론 시 결과를 공유하며 개선안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워크숍은 숙의토론 전문 진행자가 담당하였고, 협동연구진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SBS도 참여하였다. 또한 진행과정을 녹화하여 본 연구의 협동기관인 SBS 프로그램 구성 시 부분 반영[26]하였다.

1. 1차 참여워크숍을 통한 육아문화 진단

가. 1차 워크숍 목적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 1차 워크숍의 목적은 우리 사회 육아문화를 성찰하고, 육아존중 사회로의 변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우리 사회의 육아 환경은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육아를 담당한 부모들에게는 어렵고 부담스럽게 여겨진다고 파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육아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일반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의 1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25) 육아문화 크리에에터즈의 구성과 특성은 1장의 연구방법에 수록함.
26) 본 내용의 일부가 11월 22일 'SBS 희망TV'에 방영됨.

나. 진행 순서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 1차 숙의토론 워크숍 진행 순서는 〈표 Ⅳ-1-1〉과 같다. 크리에이터즈들이 모이기 쉬운 토요일에 진행하였고, 워크숍은 32명의 크리에이터즈들을 5개의 조로 나누고, 각 조마다 숙의 토론 진행을 위한 전문가가 동석하였다.

연구책임자가 연구의 목적, 크리에이터즈 구성 목적, 활동 내용 등을 안내하고, 향후 3년 동안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로 활동할 것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시작하였고, 육아문화 진단과 개선가능성에 대해 타진하였다.

〈표 Ⅳ-1-1〉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 1차 워크숍 진행순서

진행 단계	시간	내용
도입	10:30 ~ 10:45	- 연구개요 소개, 임명장 수여 - 워크숍 진행순서 및 목표산출물 소개 - Ground Rule 설정 및 Parking Board 이용안내
	10:45 ~ 11:10	- 오프닝 및 워밍업 대화 상호인사/워크숍참여동기/기대사항/앙케이트
육아문화 진단	11:10 ~ 11:40	- 육아문화 즉석 진단 우리나라 육아 문화(또는 나의 육아 환경)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도 - 조별 워밍업 대화 미혼그룹: "나에게 결혼과 출산이란?" 기혼그룹: 아이를 키우며 부부간에 가장 많이 얘기했던 고민 2가지는?"
	11:40 ~ 12:10	휴식
육아 문제와 개선가능성 타진	12:10 ~ 13:10	- 육아 현실의 문제와 개선 가능성 Force Field Analysis (역장분석, Driving Force & Resisting Force 분석) - 부모됨과 육아를 할 만하게 하는 촉진요인 & 부모됨과 육아를 어렵게 하는 저항요인 - DF, RF 그룹으로 나누어 요인 brainstorming 〉 투표하여 핵심 요인 선정
	13:20 ~ 14:10	- “Easy 육아 대한민국” 희망 그리기 우리가 바라는 육아 환경은 어떤 것? - 조별 토의 〉 2021년 5월 25일의 육아 일기, 인터넷 기사, 뉴스 보도, 상황극 등으로 조 별 작업하여 발표
마무리	14:10 ~ 14:30	- 2차 워크숍 기약하며 마무리 워크숍 과정과 결과 요약 및 회고, 향후 진행사항 소개 참석자 참여 소감 청취, Exit survey 안내 후 종료

다. 주요 논의 내용

1) 도입단계

처음 만난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 들은 자기소개 양식을 작성하여, 참석자 간 상호 인사를 하고 친밀감을 형성하였다.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로 지원하게 된 동기도 공유하였다. 공통주제로 자녀기대를 조사하였다. 기혼자에게는 ‘우리 아이는 아무래도 _____ 게 될 재목인 것 같다. 왜냐하면...’ 으로, 미혼자에게는 ‘어릴 적 나의 꿈은 _____ 었다.’로 질의하였다.

[그림 Ⅳ-1-1]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 1차 워크숍 도입 단계

2) 육아문화 진단 단계

가) 육아 환경 즉석 진단

우리나라 육아 문화'와 '나의 육아환경'에 대한 Quick Survey를 진행하였다. 다음의 질문에 대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우리나라 육아문화

'우리 사회가 육아하는 가정을 어느 정도 배려/지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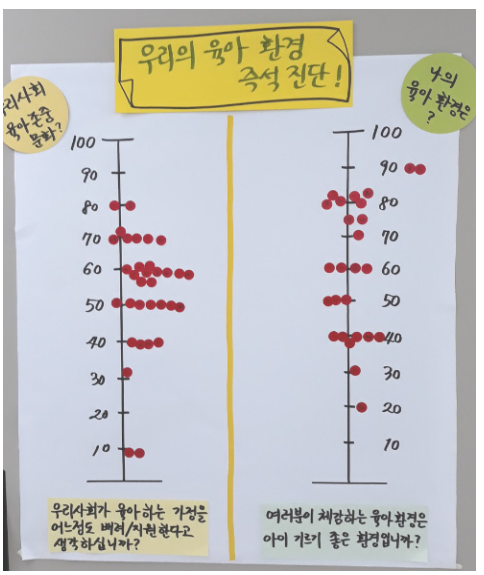
- 50점에서 70점 사이에 집중을 보임.

□ 나의 육아환경

'여러분이 체감하는 육아환경은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입니까?'

- 40점과 80점에 집중

[그림 Ⅳ-1-2]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 1차 워크숍 육아문화 진단 단계



흥미로운 부분은 2명의 자녀를 양육 중인 부부가 크리에이터즈로 신청한 경우 현재의 육아환경에 대해 아버지는 90점을, 어머니는 40점을 주어 대조를 보였다.

나) 육아문화 진단

우리사회에서 체감하는 육아문화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미혼/기혼 그룹으로 나눠 대화하고 차트에 기록하여 조별 발표를 진행하였다.

(1) 미혼의 경우

“나에게 결혼과 출산이란?”에 대해 그림카드를 활용하여 표현하도록 한 결과,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 부분보다 부정적 부분이 많았다. 이는 미혼들의 간접 경험이 부분적으로는 결혼과 출산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멀티테스킹과 같은 버거운 일 (부정적 의미)

비혼주의자들의 관점에서 결혼은 인생에서의 잘못된 선택 (부정적 의미)

결혼 이후 나의 학력, 경험 등이 무의미해질 것 (부정적 의미)

대출, 주택, 육아 등의 현실이 결혼의 걸림돌이 됨 (부정적 의미)

다양한 사람들 간의 협력 과정 (중립적 의미)

결혼은 힘들지만 소중한 가족을 만드는 일이기에 하고 싶은 일 (긍정적 의미)

(2) 기혼의 경우

“아이를 키우며 부부 간에 가장 많이 얘기했던 고민 2가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별 토의 내용은 다음의 몇 가지로 수렴되었다.

첫째, 자녀와 관련된 부분은 후속출산에 대한 고민과 외동자녀, 다자녀 돌봄에 대한 어려움이 제시되었다.

둘째, 셋째에 대한 고민/ 둘째 자녀의 출산시기에 대한 고민

외동아이로 자라는 것에 대한 우려(사회성, 인성, 외로움)

여러 명의 자녀가 있을 때 한 아이에게 집중하지 못해 아이에게 드는 미안함

둘째, 어머니의 어려움은 육아의 부담, 자아상실감, 양육스트레스, 인정에 대한 욕구 등으로 요약된다.

살림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역할 분담이 필요함/ 맞벌이의 육아부담

임신과 육아를 하며 자아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옴(누구의 엄마가 되고, 나는 사라짐)/어머니의 자아실현/ 퇴사 후 우울감

양육 스트레스 해소의 어려움

남편으로부터의 이해의 말

셋째, 양육 환경과 관련하여서는 양육지원 부족과 미안함, 의료 시설, 안전성, 놀이 공간 부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육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양가부모님께 맡기지만, 부모님께 육아의 짐을 드리는 것 같아 부담스러움
>
>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의료 환경
>
> 층간 소음 우려/ 사회적 위험 환경, 아이의 안전한 양육 환경에 대한 고민
>
> 미세먼지, 키즈카페 부족으로 인하여 놀이공간이 부족하여 이민을 고려

넷째, 교육과 관련 부분으로 바람직한 교육방향, 기관 선택 등으로 요약되었다.

>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교육에 대한 갈등/ 아이의 인격 형성/ 품앗이 육아 중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
>
> 6살 이후 유치원(기관) 종류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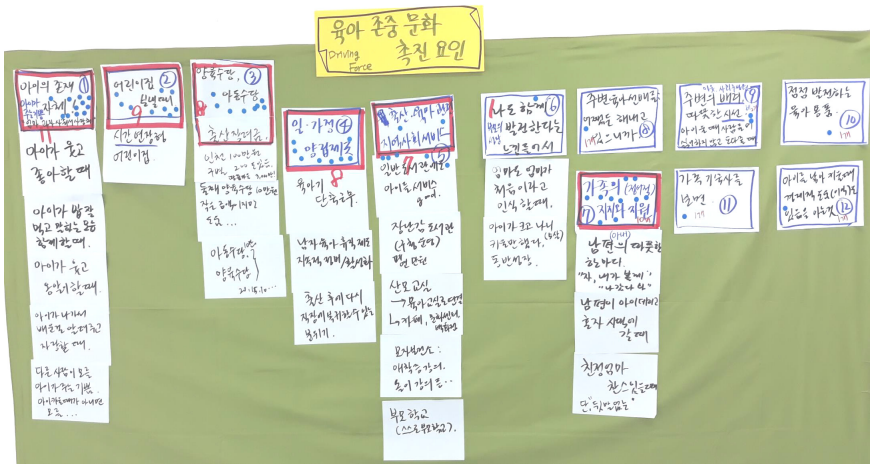
3) 육아 문제와 개선 가능성 타진 단계

“육아 그래도 할만하다.” 라는 질문에 긍정 또는 부정 답변을 중심으로 조를 재편성하여 육아를 지원하는, 육아존중문화 형성의 촉진요인과 방해하는 저항요인으로 구분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가) 육아존중문화 촉진요인

촉진요인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한 후 분류한 주요 내용에 대해 공감도 기준으로 2가지씩 투표하여 우선순위 요인(Top 5) 선정한 결과이다. 아이가 주는 기쁨, 아이의 존재 자체(11표), 가족(남편)의 정서적 지지와 지원(10표), 어린이집 보낼 때(9표),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8표), 일·가정 양립제도(8표), 출산, 육아 관련 지역사회서비스(7표)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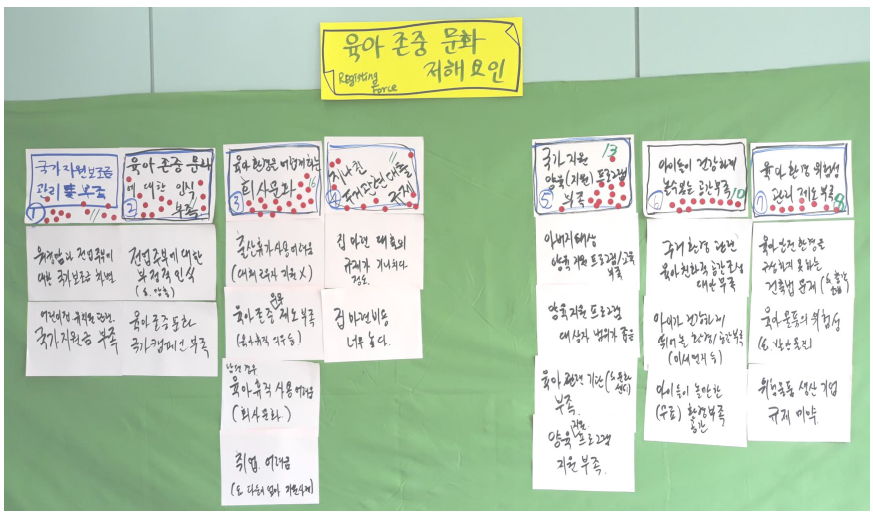
[그림 Ⅳ-1-3] 육아존중문화 촉진요인



나) 육아존중문화 저항요인

부모됨과 육아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한 후 분류한 주요 내용에 대해 공감도 기준으로 2가지씩 투표하여 우선순위 요인을 선정한 결과이다.

[그림 Ⅳ-1-4] 육아존중문화 저항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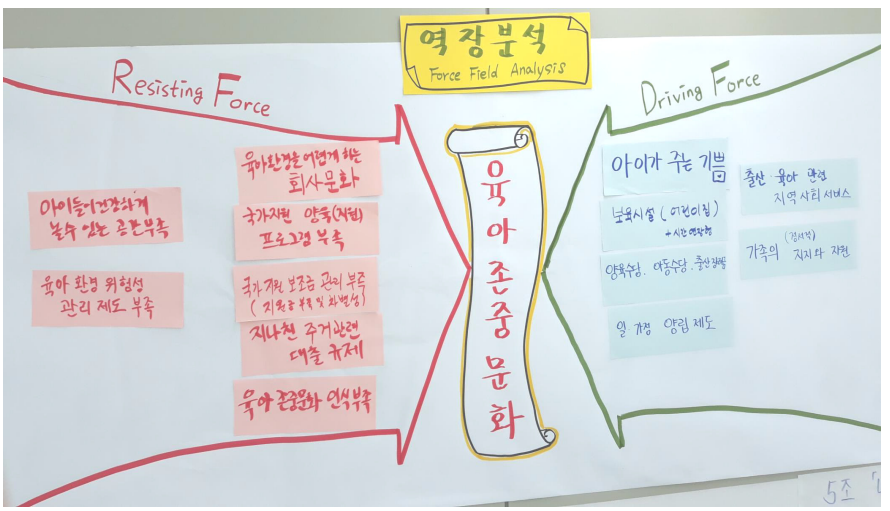


육아를 어렵게 하는 회사 문화(16표), 국가지원 양육 프로그램의 부족(13표), 국가지원보조금 부족(11표), 육아존중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11표), 주거관련 대출에 대한 지나친 규제(11표) 등이며 기타 의견으로 아이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 부족, 육아 환경 위험성 관리 제도의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다) 육아존중문화 촉진요인과 저항요인 역장분석 (Force Field Analysis)

육아존중문화 형성에 대한 촉진요인과 저항요인을 구분하여 논의하면서 서로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였다. 육아존중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저항요인을 줄여가는 노력과 촉진요인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함에 크리에이터즈들은 공감하였다.

[그림 Ⅳ-1-5] 육아존중문화 촉진요인과 저항요인 역장분석



라) 이상적인 육아 문화

역장 분석의 결과를 보면서 향후 크리에이터즈들이 희망하는 이상적인 육아환경, 육아문화는 어떤 모습일지 토의하였다. 〈표 Ⅳ-1-2〉의 조별토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몇 가지로 수렴된다. 무엇보다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배려, 존중을 바라고 있었다. 다음은 육아휴직,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이 안착된 양

육,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된 상황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 내에서의 지원, 남편의 참여, 가족이 함께하는 육아를 지향하고 있다.

〈표 Ⅳ-1-2〉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가 제시하는 이상적 육아문화

조	내용
1조	한 아이를 위해 지역, 국가가 함께 양육하는 사회
	인근 지역의 또래 어머니들 간의 커뮤니티를 통한 공동육아
	아버지가 함께 할 수 있는 육아환경을 만들기 위해 직장 및 국가의 복지가 마련되는 모습
	남성도 함께 육아하는 문화
2조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회
	긴급 상황 시 이용 가능한 육아서비스가 있는 환경
	언제든 나누어 쓸 수 있는 유급 육아휴직
	충분한 경제력
3조	아이를 위한 주거환경, 교육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사회
	아이가 원할 때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 모습
	부모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환경
	입시, 경쟁 문화가 개선되어 교육 부담이 사라질 수 있는 사회
	직업의 귀천이 사라지고 임금이 상승되어 직업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
4조	화창한 날, 평일이어도 아이와 함께 야외에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
	부모가 같이 저녁을 준비하고 저녁 시간을 누릴 수 있는 모습
	층간소음의 우려 없이 집에서도 뛰어 놀 수 있는 구조/ 충분한 실내 놀이 공간
	함께 놀 수 있는 이웃/육아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공감하며 나눌 수 있는 육아공동체
5조	4시에 퇴근하여 기관에서 아이를 함께 하원시키고 집에서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
	퇴근 후 아이와 아빠가 책을 읽는 모습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상황
	직장인 어머니여도 인근 주민 어머니들과 육아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모습

크리에이터들은 본 연구가 종료되는 3년 후 2021년 5월 25일, 이상적인 육아문화가 이뤄진 상황을 상상하고 표현하기로 하였다. 육아일기, 인터넷 기사, TV 뉴스보도, 역할극 등의 형태로 육아가 존중받는 사회의 모습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림 Ⅳ-1-6] 이상적인 육아 문화 실현 사회 표현

4) 마무리 단계

참여한 크리에이터즈들은 진행한 1차 워크숍의 내용을 재점검하고 소감을 나누었다. 비슷한 상황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육아와 관련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여서 좋았다는 의견, 막연하게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구체화 시켜보니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 의외로 촉진요인들이 많았다는 의견, 미혼으로 참여하였는데 자녀 양육을 보다 깊이 생각하는 계기였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2. 2차 참여워크숍을 통한 육아문화 진단

가. 2차 워크숍 목적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 2차 워크숍은 연구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대안으로의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1차 때 진단한 우리사회의 육아문화 양상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소셜 미디어 분석결과, 해외 육아문화 사례 등 주요 연구 결과를 크리에이터즈들에게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육아를 존중하는 사회로의 변화 모색 방안과 긍정적 육아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다.

나. 진행순서

2차 숙의토론 워크숍 진행순서는 〈표 Ⅳ-2-1〉과 같다. 워크숍은 30명의 크리에이터즈들이 5개조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각 조마다 숙의 토론 진행을 위한 전문가가 동석하였다.

〈표 Ⅳ-2-1〉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 2차 워크숍 진행순서

진행 단계	시간	내용
도입	10:30 ~ 10:45	- 1차 워크숍 회고 및 워밍업 대화 개회, 워크숍 취지 안내 2차 워크숍 목표 산출물, 진행 순서 안내 - Ground Rule & Parking Board 환기 - 참석자 아이스브레이킹 및 워밍업 상호 인사 및 지난 4개월 근황 Talk
	11:05 ~ 11:30	- 연구결과 공유 설문조사 결과 및 해외사례 공유 빅데이터를 통한 육아현상 분석 결과 제시
육아문화 방향성 제시 - 비전 슬로건, 캠페인 문구	11:30 ~ 12:50	-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육아문화 비전문 만들기 각자 문장 만든 후 2인 1조 토너먼트 방식으로 4개 작품 선정 후 multi-voting으로 Top 1 선정 - 육아문화 개선을 위한 구체적 아이디어 도출 생활 속에서 육아존중 문화를 일깨울 수 있는 캠페인 슬로건 아이디어 도출 - 조 별 브레인스토밍 결과 전시
	12:50 ~ 13:20	휴식
육아문화 개선방안 논의 - 실생활, 제도 및 정책	13:20 ~ 14:20	- (우리가 찾은)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을 위한 개선 과제 도출 1.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로서 생활 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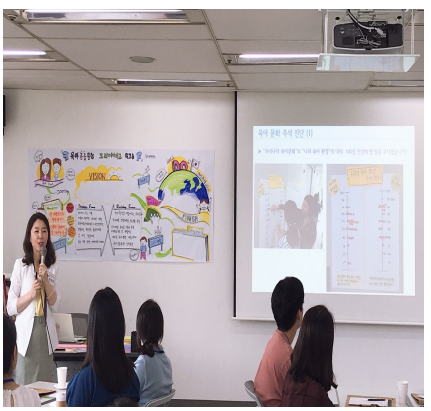
진행 단계	시간	내용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조 별 토의 2. 정책/제도적 제안 토의, 조 별 핵심 아이디어를 전체와 공유하고 투표를 통해 Top 5 제안 선정
마무리	14:20 ~ 14:40	- 내년 워크숍 기약하며 마무리 크리에이터즈의 비전 선포 & 기념촬영 워크숍 과정과 결과 요약 및 회고, 향후 연구 진행 계획 안내, 참석자 참여 소감 청취, 설문조사 후 1차 년도 워크숍 종료

다. 주요 논의 내용

1) 도입단계

1차 워크숍 이후 4개월 만에 모인 참가자들을 위해 1차 워크숍 때 나눴던 주요 내용(육아 촉진요인과 저해요인, 이상적인 육아환경과 육아문화 미래상)을 회고한 뒤 본 연구에서 진행된 연구결과들을 공유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국의 20-40대 남녀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알아본 육아문화 현황과 긍정적 문화로의 요구, 소셜 미디어 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온 육아현상, 그리고 해외 육아문화 사례들을 크리에이터즈에게 소개하였다.

[그림 Ⅳ-2-1]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 2차 워크숍 도입 단계



2) 육아문화 방향성 논의

가) 육아문화 비전 슬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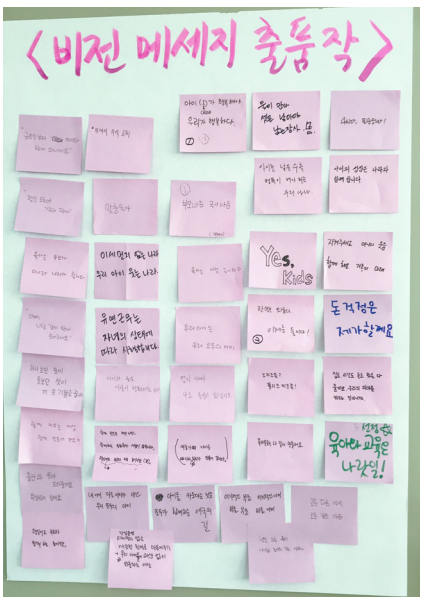
우리사회의 육아문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먼저 ‘내가 만약 국무총리라면?’ 이라는 가정 아래 육아문화에 대한 비전 메시지를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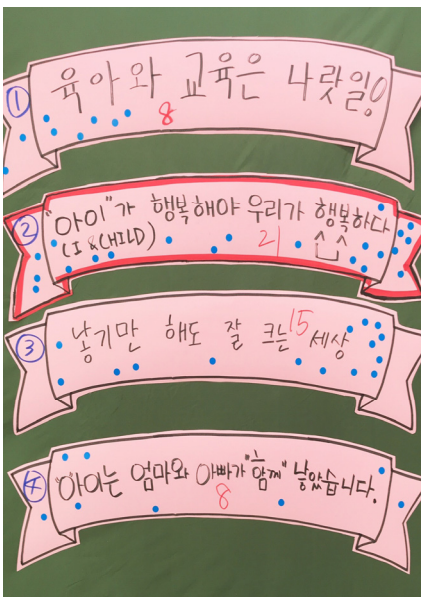
각 조에서 작성한 비전 메시지를 살펴보면, 1) 육아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독려하는 문구(‘우리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함께 키우는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모두 다른 아이 모두 같은 마음’, ‘지켜주세요 아이의 웃음, 함께해요 가족의 미래’), 2) 육아에서 국가 역할 강조하는 문구(‘아이의 성장은 나라와 함께 합니다’, ‘부모마음, 국가마음’, ‘육아와 교육은 나랏일!’, ‘출산과 육아 도와줄게요, 욕심부려보세요’), 3) 일·가정 양립과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문구(‘평일에도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시간’, ‘아빠, 나랑 같이 놀아주세요’, ‘4시다, 퇴근하자!’, ‘유연근무는 아이 상태에 따라 시행합니다’), 4) 다자녀 독려 문구(‘한명은 외롭다, 이제는 둘이다!’, ‘하나보단 둘이, 둘보단 셋이 더 큰 기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비전 메시지를 조별로 재구성하여 토너먼트를 진행한 결과, ‘아이(I+Child:나와 아이)가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하다(21표)’, ‘낳기만 해도 잘 크는 세상(15표)’, ‘육아와 교육은 나랏일!(8표)’, ‘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낳았습니다(8표)’라는 슬로건 네 개가 선정되었으며 그 중 부모와 아이 모두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아이(I+Child:나와 아이)가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하다’가 가장 많은 득표수

를 얻어 최종 비전 슬로건으로 선정되었다.

[그림 Ⅳ-2-2] ‘내가 만약 국무총리라면?’ 비전 슬로건





나) 육아존중문화 위한 캠페인 문구

우는 아이와 부모에게 ‘울어도 괜찮아’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보여줌으로서 육아하는 가정을 배려하도록 한 일본의 사례에 영감을 받아, 육아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캠페인 문구를 논의하였다.

논의된 캠페인 문구에는 아이를 존중하자는 메시지(‘아이니까 괜찮아요’, ‘Yes, Kids’, ‘아이가 참 이뻐요’)나 임산부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응원하는 메시지(‘임신 and 육아 FREE PASS’, ‘엄마아빠도 잘 챙겨먹어요’, ‘나도 언젠가는 부모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저도 아이가 좋아요’)가 담긴 것들이 많았다. ‘응愛응愛’와 같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함축적인 표어와 직접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메시지(‘괜찮아요, 아이 먼저’, ‘유모차 먼저’, ‘천천히 하세요’)도 찾아볼 수 있었다.

숙의토론 후 연구진 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 캠페인 문구는 티코스터(컵받침), 에코백 등으로 제작하여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이들을 통해 육아존중문화 캠페인의 확산의 효과를 기대한다.

[그림 Ⅳ-2-3] 육아존중문화를 위한 캠페인 문구

- I'm your supporter!
- No 독박육아
- Yes Kids
- 너라서 고마워
- 유모차 먼저
- 아이가 참 예뻐요!
- 엄마도, 아빠도 잘 챙겨먹어요.
- 너라는 우주
- 괜찮아요 ☺
- 아이와 눈이 마주치면, 웃긴 표정을 지어주세요
- 응愛응愛
- 아이와 함께한 당신, 마음다해 존중합니다.
- 사랑을 담은 미소를 보내주세요. 아이에게 미소를
- 결초보은 : 나중에 커서 아기를 배려하는 어른이 되자
- 당신하고 먹고 사는게 참 재밌어요.
- I ♡CHILD "아이 행복해"
- 천천히 하세요
- 아이니까 괜찮아요.
- 나도 언젠가는 "부모" 입니다.
- 사랑해 너의 생각, 괜찮아 너의 세상
- 괜찮아요. 아이먼저
-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 임신 and 육아 FREE PASS
- 나는 임산부다
- 전 괜찮아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 도움이 필요해요? 저도 아이가 좋아요!
- 아이랑 함께해요

3) 육아문화 개선방안

가) 생활 속 실천방안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로서 생활 속에서 육아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 후 '어떻게 해야 상상한대로 육아하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까요?'에 대해 〈표 Ⅳ-2-2〉의 내용과 같이 조별 발표를 진행하였다.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가운데 전반적으로 육아 관련된 정책과 제도, 시설, 지원프로그램 등에 개인이 관심을 가지며 지역사회나 관련 기관에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표 Ⅳ-2-2〉 육아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개선방안

조	내용
1조	아이와 가족에게 자리·순서 양보
	아이 반겨주는 어른
	지역 및 동네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육아모임 활성화
	주민센터 보육반장을 통한 정보공유
2조	유모차 우선하는 엘리베이터 탑승 문화
	놀이방 보유 식당 확대, 주차장 키즈존 시설 의무법제화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육아 관련 의견 개진, 정보공유하기
	휴일에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늘리기
3조	지역별로 육아문화 크리에이터 모집하여 육아 관련 의견 개진 활성화
	예비부모교육 강좌, 육아 멘토링 프로그램 개설
	육아 관련 건의사항 직접 유관부서 전달
4조	유모차 이용 도와주기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으로 육아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지자체, 동사무소 아동복지 및 여성복지 제도 등에 관심가지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
	내아이, 남의 아이 구분 없이 같이 돌보는 품앗이 육아
5조	어린이집 운영위원 되기
	맘까페에 남성 접근 허용
	공공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선한 영향 끼치기, 긍정적 영향 전염시키기

나) 정책, 제도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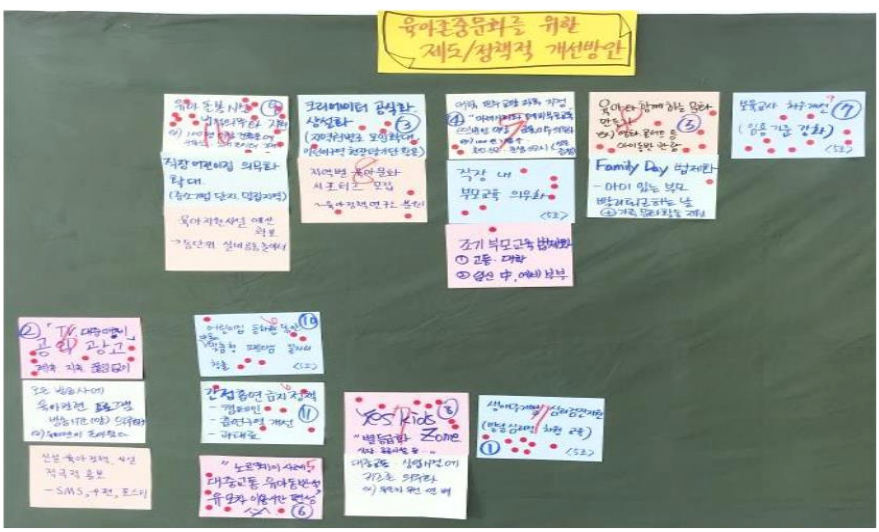
육아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육아존중문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표 Ⅳ-2-3〉과 같이 수렴하였다.

〈표 Ⅳ-2-3〉 육아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 제안

조	내용
1조	실내놀이터, 유아지원시설 의무화
	신설 육아정책, 시설의 홍보
	육아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기획
2조	유아돌봄 시설의 의무 법제화 및 예산 지원
	미래사회와 예비부모교육 대학교 교양필수과목 지정
	대중교통에 키즈존(유모차칸) 의무화
3조	직장어린이집 지역기준으로 의무화
	각 지역마다 육아문화 크리에이터 모집 및 운영
	Family Day 법제화
4조	육아 관련 공익광고의 지속적인 방영
	지역별 육아 커뮤니티 활동비 지원, 동단위 육아 공청회 개최
	부모교육 필수화
	Yes, Kids Zone 설치
5조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과 자격 관리
	육아하는 부모를 위한 다양한 시간제 일자리
	생애주기별 심리 검진 지원
	대중교통내 유모차 배려석 설치

여러 가지 개선책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후 조별로 세 가지 주요 내용을 선정하여 전체 토론자들에게 공유하였으며 이를 다시 주제별로 묶어서 가장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항목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림 Ⅳ-2-4] 육아존중문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적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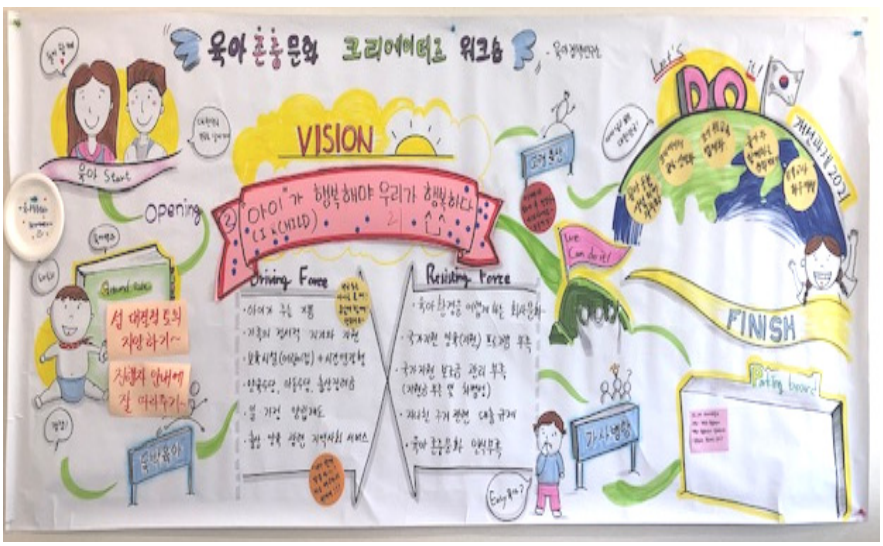
투표결과, 유아 돌봄 시설 법적 의무화 지원(16표)이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었으며 예비부모교육의 대학 필수교양과목으로 지정(9표),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임용기준 강화(9표),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의 확대(8표), 육아와 함께하는 문화 만들기(8표), Kids Zone 확대 및 의무화(7표), 생애주기별 유아심리 검진 지원(7표), TV 대중매체 공익광고(6표), 육아하는 부모를 위한 다양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6표), 대중교통 유아 동반석, 유모차 이용시간 편성(5표)이 그 뒤를 이었다.

4) 마무리단계

활동을 마친 후 2회의 워크숍 참석을 마무리하며 소감을 나누었다. 참가자들은 육아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이웃의 문제임을 공감하며 워크숍을 통해 함께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가보는 시간이 좋았다는 의견을 주었고 이러한 모임이 지속됨으로써 아이 기르기 좋은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내년도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 활동은 본 연구의 2차년도 연구계획에 맞춰 직장에서의 육아문화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을 크리에이터들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그림 Ⅳ-2-5]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 워크숍 결과물



3. 소결

30명 정도의 집단토의 과정에 나타난 결과로 일반화하여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육아', '육아문화'라는 주제에 심층논의를 통해 20대~40대의 다각적 견해를 듣고 수렴할 수 있는 기회였다.

1차 워크숍 결과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육아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시각 차이가 여전히 있음을 확인하였다. 남성들이 양육의 주 담당자인 여성보다 육아환경에 대해 우리사회 육아문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남성이 양육에 동등하게 참여하기보다는 돕는 역할로 참여하기에 체감되는 결과로 보인다. 육아에 대한 인식, 육아문화의 변화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문화의 변화는 느리기지만 긴 호흡으로 꾸준하게 추진해야 변화가 가능한 부분이다.

둘째, 결혼과 육아에 대해 미혼 집단에서 나타난 부정적 인식은 우리 사회 결혼과 출산이 왜 저조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일이지만 자녀를 기르는 친구나 선배들이 힘들어 보이고, 어려운 상황들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혼 집단의 부정적 인식은 기혼집단에서 문제로 여겨지는 부분들이 해결되어 가고, 자녀를 기르는 일에 사회가 가치를 부여하고 아이 기르는 가족이 행복하게 보이는 문화가 조성될 때 기대할 수 있는 변화일 것이다.

셋째, 자녀가 주는 기쁨이 가장 많은 육아문화 조성의 촉진요인임은 그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양육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설명해준다. 또한 제도적 개선보다도 가족(남편)과 주위의 인정과 지지를 강조함은 현재 양육자에 대한 지지와 인정이 부족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왜 사회가 육아존중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지를 설명해준다.

넷째, 육아존중문화의 저해요인들이 주로 육아지원 제도의 개선으로 수렴된 결과는 제도 개선을 통해 육아환경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가정이 있는 제도를 쓸 수 있는 직장에서의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아이 기르는 가정을 배려하고 사회가 함께 지지하며, 사회에서 육아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문화의 형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들을 통한 양육시간

의 확보, 남편의 육아참여 등 크리에이터즈들이 희망하는 육아문화의 모습은 본 연구가 설정한 향후 2차년도와 3차년도의 추진 내용이 적절함을 지지한다. 본 연구는 2020년 2차년도에는 직장에서의 육아문화를 중심으로 진단과 개선방안을 찾고자하며, 3차년도에는 가정에서와 지역사회 내에서의 육아존중문화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우리사회의 육아문화 방향성을 제시하고 육아존중문화로의 변화를 위한 사회구성원의 노력, 제도 및 정책적 노력에 대해 논의한 2차 워크숍을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문화는 육아의 대상인 아동은 물론, 아이를 기르는 부모와 가족의 행복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크리에이터들이 작성한 비전 슬로건과 캠페인 메시지들을 살펴보면, 아이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이 육아를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육아를 하는 부모와 가족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아이가 배려 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부모세대와 달리 자신의 생활이나 커리어의 희생을 요구하는 육아에 대한 부담감과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부모세대들을 위해서는 아이와 부모자신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육아환경과 문화를 조성해야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육아존중사회로의 변화 모색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인식 전환과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육아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인식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예비 부모교육의 활성화, 공익광고 방영,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아이와 육아가정에게 호의적인 문화 조성 노력, 아동과 그 가족에게 양보할 수 있는 시민의식 고양의 필요성 등이 언급되었다. 동시에, 육아를 존중하는 문화가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육아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도록 육아 관련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대중교통 내 유모차 배려석 설치, 지역 내 유아 돌봄시설이나 예스 키즈존(Yes Kids Zone)의 확대 및 의무화 요구에서 읽을 수 있다.

셋째, 육아가 남녀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과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이 참가자 대부분에게 공유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 논의나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 논의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관심과 대안 부족, 다른 문제들의 개선 시급성,

제한적인 토론시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회의 숙의토론으로 관련된 논의가 다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감안할 때, 2차년과 3차년도 크리에이터 활동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를 더 활발하게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넷째, 육아 관련 소통의 장이 필요하며 육아 당사자들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육아문화 개선에 필요한 부분임을 확인하였다. 육아존중문화 확산을 위해서 사회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이러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지속적인 모임, 모아진 의견을 정부나 지자체와 소통 할 수 있는 공청회와 같은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 활동은 이러한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V

육아문화 진단(Ⅲ) 설문조사

01 육아 관련 문화에 대한 인식

02 가정 내 육아문화에 대한 인식

03 직장 내 육아환경 및 문화에 대한 인식

04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요건

05 소결

Ⅴ. 육아문화 진단(Ⅲ) 설문조사

본 장에서는 육아관련 문화 현상들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전환을 위한 요구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연령대별(20대, 30대, 40대), 성별, 결혼여부,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등에 따른 차이도 분석하였다. 그 내용을 육아 관련 문화 현상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가정에서의 육아 관련 문화, 직장에서의 육아 관련 문화로 구분하여 우리 사회 육아 관련 문화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개선을 위한 요구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1. 육아 관련 문화에 대한 인식

가. 육아문화에의 영향요인

육아문화는 아이를 기르는 행위와 과정에 대한 것으로 이를 위한 물리적 환경, 정책과 제도, 사회적 규범과 관습, 가치관, 언어 등의 육아와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 20~40대 남녀를 대상으로 평소 생활에서 경험하는 육아와 관련된 문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육아와 관련된 문화 중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0.1%가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시간제보육 등과 같은 '정책과 제도'라고 답하였다. 다음은 가정양육 중시, 부모역할기대, 교육관 등의 '사회적 규범, 관습, 가치관'이라고 40.4%가 응답하였다. 수유실, 놀이터, 유모차 접근가능 시설 등의 물리적 환경은 6.3%, 육아관련 언어라는 경우는 2.9%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여 맞벌이 가구에서는 '정책과 제도'를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꼽은 반면,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는 '사회적 규범, 관습, 가치관'에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또한 자녀연령에 따른 차이도 보여 자녀 연령이 많은 집단으로 갈수록 '사회적 규범, 관습, 가치관'에의 응답비율이 높았고, 어린 집단에서는 '정책과 제도'를 영향요인으로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으로 높은 집단에서 비교적 '정책과 제도'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육아문화에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규범과 관습보다도, 물리적 환경이나 언어보다도 '정책과 제도'를 가장 중요하게 선택하였다.

이는 정책과 제도의 변화로 육아문화의 개선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Ⅴ-1-1〉 육아 문화 중 아이 기르는 가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

단위: %(명)

구분	정책과 제도	사회적 규범, 관습, 가치관	물리적 환경	언어	기타	계(수)	
전체	50.1	40.4	6.3	2.9	0.3	100.0	(1,000)
연령대							
20대	50.3	39.8	5.9	3.3	0.7	100.0	(304)
30대	53.1	36.9	7.8	2.2	0.0	100.0	(320)
40대	47.3	43.9	5.3	3.2	0.3	100.0	(376)
$x^2(df)$			8.207(8)				
성별							
여성	49.1	42.9	4.5	3.3	0.2	100.0	(485)
남성	51.1	38.1	8.0	2.5	0.4	100.0	(515)
$x^2(df)$			7.084(4)				
지역규모							
대도시	49.0	38.3	9.3	3.0	0.5	100.0	(439)
중소도시	51.7	41.6	3.9	2.5	0.2	100.0	(406)
읍면지역	49.0	43.2	3.9	3.9	0.0	100.0	(155)
$x^2(df)$			14.421(8)				
결혼 여부							
기혼	51.1	39.4	7.1	2.4	0.0	100.0	(634)
미혼	48.4	42.1	4.9	3.8	0.8	100.0	(366)
$x^2(df)$			9.401(4)				
맞벌이 가정	55.2	35.7	6.0	3.1	0.0	100.0	(417)
맞벌이 아님	43.3	46.5	9.2	0.9	0.0	100.0	(217)
$x^2(df)$			13.141(3)**				
자녀연령							
영아	59.6	27.7	12.8	0.0	0.0	100.0	(141)
유아	52.1	37.0	8.4	2.5	0.0	100.0	(119)
초등학생	53.0	38.7	4.8	3.6	0.0	100.0	(168)
중학생 이상	42.0	52.9	3.2	1.9	0.0	100.0	(157)
$x^2(df)$			33.339(9)***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4.3	41.6	7.8	5.0	1.4	100.0	(219)
300~499만원	48.7	42.5	6.0	2.8	0.0	100.0	(386)
500~699만원	57.6	37.6	3.9	0.9	0.0	100.0	(229)
700만원 이상	50.6	38.0	8.4	3.0	0.0	100.0	(166)
$x^2(df)$			26.838(12)**				

** $p < .01$, *** $p < .001$

나. 육아문화에의 긍정성 진단

우리사회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정을 배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긍정적 육아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긍정성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부여한 결과, 〈표 Ⅴ-1-2〉에서와 같이 60점 이상 80점 미만 36.6%, 40점 이상 60점 미만 34.6%, 20점 이상 40점 미만 13.2%, 80점 이상 11.2%, 20점 미만 4.4% 등으로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53.6점으로 나타났다.

〈표 Ⅴ-1-2〉 우리 사회의 긍정적 육아문화 점수(100점 만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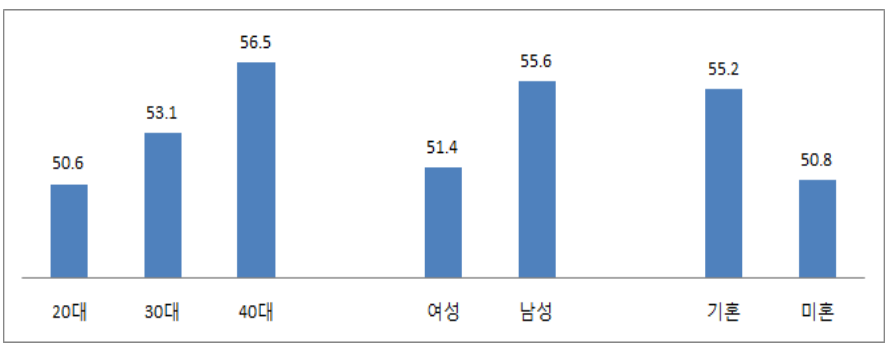
구분	20점 미만	20점 이상 40점 미만	40점 이상 60점 미만	60점 이상 80점 미만	80점 이상	계(수)		평균(표준편차)	
전체	4.4	13.2	34.6	36.6	11.2	100.0	(1,000)	53.6	(19.0)
연령대									
20대	5.6	17.8	35.9	31.6	9.2	100.0	(304)	50.6	(20.0)
30대	5.9	12.8	33.1	36.6	11.6	100.0	(320)	53.1	(19.8)
40대	2.1	9.8	34.8	40.7	12.5	100.0	(376)	56.5	(17.1)
F								8.2***(a)	
성별									
여성	4.3	16.3	38.1	32.4	8.9	100.0	(485)	51.4	(18.8)
남성	4.5	10.3	31.3	40.6	13.4	100.0	(515)	55.6	(19.0)
t								-3.5***	
지역규모									
대도시	4.6	15.3	35.3	33.3	11.6	100.0	(439)	52.9	(19.4)
중소도시	3.7	11.1	35.2	38.9	11.1	100.0	(406)	54.5	(18.5)
읍면지역	5.8	12.9	31.0	40.0	10.3	100.0	(155)	53.1	(19.2)
F								0.8	
결혼 여부									
기혼	3.3	11.4	34.2	38.6	12.5	100.0	(634)	55.2	(18.1)
미혼	6.3	16.4	35.2	33.1	9.0	100.0	(366)	50.8	(20.1)
t								3.6***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3.4	12.2	33.6	37.9	12.9	100.0	(417)	55.2	(18.6)
맞벌이 아님	3.2	9.7	35.5	40.1	11.5	100.0	(217)	55.3	(17.3)
t								-0.1	
자녀연령									
영아	4.3	17.7	33.3	36.2	8.5	100.0	(141)	51.9	(19.2)
유아	3.4	8.4	31.1	40.3	16.8	100.0	(119)	57.8	(18.1)
초등학생	3.6	12.5	32.1	38.1	13.7	100.0	(168)	54.9	(18.7)
중학생 이상	1.9	5.7	35.7	44.6	12.1	100.0	(157)	57.9	(15.5)
F								3.6*	

구분	20점 미만	20점 이상 40점 미만	40점 이상 60점 미만	60점 이상 80점 미만	80점 이상	계(수)		평균(표준편차)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6.8	10.0	38.4	36.5	8.2	100.0	(219)	51.8	(19.0)
300~499만원	4.1	13.5	32.4	38.9	11.1	100.0	(386)	54.2	(18.5)
500~699만원	3.5	13.1	34.9	34.9	13.5	100.0	(229)	54.3	(19.6)
700만원 이상	3.0	16.9	34.3	33.7	12.0	100.0	(166)	53.7	(19.3)
F								0.9	

* $p < .05$, *** $p < .001$

평균을 중심으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을 살펴보면, 20대에는 50.6점, 30대에는 53.1점, 40대에는 56.5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긍정적 평가가 높아졌다. 또한 여성은 51.4점, 남성은 55.6점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긍정적 평가 점수가 높았다. 미혼 집단(50.8점) 보다는 기혼 집단(55.2점)에서 우리사회 육아문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 수준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그림 V-1-1] 우리 사회의 긍정적 육아문화 점수의 집단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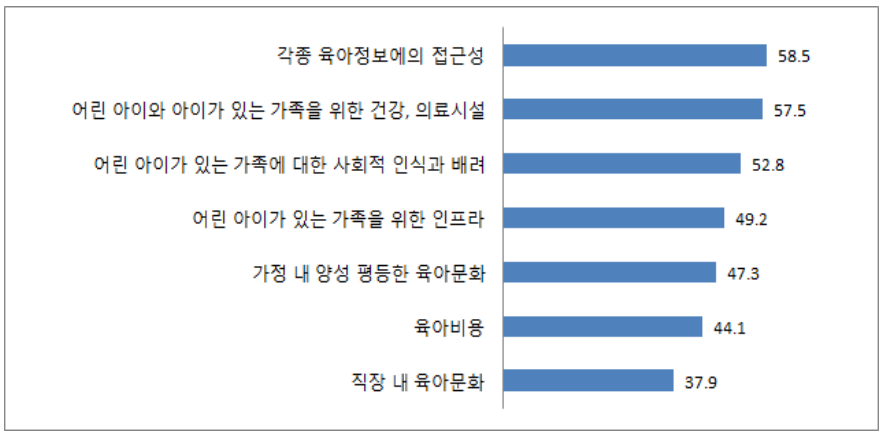


다. 육아 관련 요소별 평가

우리사회의 육아문화와 관련된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한 결과가 〈표 V-1-3〉이다. 전체 응답자 평균을 중심으로 보면, 각종 육아정보에의 접근성(58.5점), 병원이나 보건소 등 어린 아이와 아이가 있는 가족을 위한 건강 및 의료시설(57.5점), 어린 아이와 아이가 있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배려(52.8점) 등에 대해 50점 이상의 점수를 주었다.

이에 비해 육아휴직 사용이나 육아기 직원에 대한 배려 등 직장 내 육아문화에 대해서는 37.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고, 육아비용 44.1점, 가정 내 양성 평등한 육아문화도 47.3점으로 그리 높지 않았다.

[그림 Ⅴ-1-2] 우리 사회의 육아 관련 요소별 평가



이에 대해 응답자 연령대별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살펴보면, 현재 영유아 자녀를 기르고 있다고 유추되는 30대에서 육아문화 여러 부분에서 긍정적 점수 부여가 낮은 것에 비해, 20대와 40대에서는 다소 긍정적 평가가 30대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성별을 중심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우리사회에서 육아문화 관련 부분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영유아의 육아에 보다 직접 참여하는 집단에서 육아문화를 덜 긍정적으로 체감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자녀연령을 중심으로 보면 중학생 이상 자녀를 둔 경우에 많은 항목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대체로 긍정적 평가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부부 공동의 육아참여가 이루어지는 가정 내 양성 평등한 육아문화에 대해서는 영아와 유아 자녀를 둔 경우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하는 최근 추세를 보여준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육아비용에 대해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 집단에서 그 평가가 낮았고,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을 상회하는 집단에서는 어린 아이와 아이가 있는 가족을 위한 인프라에 대한 평가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Ⅴ-1-3〉 우리 사회의 육아 관련 요소별 평가

단위: 점(명)

구분	각종 육아정보에의 접근성	어린 아이와 아이가 있는 가족을 위한 건강, 의료시설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배려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을 위한 인프라	가정 내 양성 평등한 육아 문화	육아 비용	직장 내 육아 문화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8.5 (26.0)	57.5 (24.7)	52.8 (23.6)	49.2 (23.8)	47.3 (24.6)	44.1 (24.1)	37.9 (23.9)	(1,000)
연령대								
20대	59.3 (26.5)	59.7 (24.7)	53.5 (23.9)	48.9 (24.9)	46.1 (25.9)	41.0 (23.3)	35.9 (23.9)	(304)
30대	55.4 (26.6)	53.4 (26.3)	49.2 (24.8)	47.2 (24.5)	47.8 (25.8)	42.5 (25.0)	37.2 (25.1)	(320)
40대	60.6 (25.0)	59.1 (22.9)	55.4 (21.8)	51.1 (22.3)	47.8 (22.4)	47.9 (23.5)	40.3 (22.7)	(376)
F	3.6*	6.4**(a)	6.1**(a)	2.3(a)	0.5(a)	8.0***(a)	3.1*(a)	
성별								
여성	58.5 (26.9)	56.2 (24.9)	48.9 (23.8)	47.5 (24.0)	39.3 (24.0)	44.4 (23.7)	34.5 (23.5)	(485)
남성	58.5 (25.2)	58.6 (24.5)	56.5 (22.7)	50.7 (23.6)	54.8 (22.7)	43.8 (24.5)	41.2 (23.8)	(515)
t	0.0	-1.5	-5.1***	-2.2*	-10.5***	0.4	-4.5***	
지역규모								
대도시	58.7 (27.1)	57.0 (25.6)	51.5 (24.6)	47.3 (24.3)	46.1 (25.4)	42.9 (23.7)	36.7 (24.6)	(439)
중소도시	59.0 (25.2)	58.5 (24.1)	52.7 (23.0)	50.9 (23.3)	46.9 (23.6)	45.8 (24.0)	39.4 (23.5)	(406)
읍면지역	57.0 (25.1)	56.0 (23.7)	57.0 (21.4)	50.0 (23.5)	51.6 (24.6)	43.1 (25.2)	37.7 (22.7)	(155)
F	0.3	0.7	3.2*(a)	2.6	3.0	1.7	1.3	
결혼 여부								
기혼	58.3 (25.9)	56.0 (24.5)	52.5 (23.4)	49.2 (23.4)	48.3 (24.2)	45.5 (24.3)	38.6 (24.2)	(634)
미혼	58.9 (26.2)	60.0 (24.8)	53.4 (23.9)	49.2 (24.6)	45.6 (25.3)	41.6 (23.6)	36.8 (23.3)	(366)
t	-0.4	-2.5*	-0.6	0.0	1.6	2.5*	1.1	

구분	각종 육아정보에의 접근성	어린 아이와 아이가 있는 가족을 위한 건강, 의료시설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배려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을 위한 인프라	가정 내 양성 평등한 육아 문화	육아 비용	직장 내 육아 문화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57.2 (26.6)	55.8 (25.5)	51.3 (24.4)	49.0 (23.6)	47.9 (24.8)	46.0 (24.6)	39.5 (24.9)	(417)
맞벌이 아님	60.4 (24.6)	56.4 (22.6)	54.7 (21.1)	49.5 (23.0)	48.9 (22.9)	44.6 (23.7)	36.8 (22.9)	(217)
t	−1.5	−0.3	−1.8	−0.2	−0.5	0.7	1.3	
자녀 유무								
자녀 있음	58.9 (25.6)	56.3 (24.3)	52.7 (23.1)	49.7 (23.1)	48.2 (24.1)	46.0 (24.0)	38.9 (24.1)	(585)
자녀 없음	51.7 (29.3)	52.0 (26.6)	49.4 (26.3)	42.7 (25.3)	49.0 (25.7)	39.8 (27.2)	34.2 (25.2)	(49)
t	1.6	1.2	1.0	2.0*	−0.2	1.7	1.3	
자녀연령								
영아	57.1 (25.6)	52.5 (24.7)	48.8 (22.3)	45.9 (23.5)	48.8 (24.1)	43.0 (23.7)	38.0 (24.8)	(141)
유아	60.4 (25.1)	58.2 (24.0)	56.2 (25.1)	51.7 (24.6)	54.9 (26.4)	47.4 (25.0)	39.7 (25.4)	(119)
초등학생	57.1 (26.4)	53.7 (25.5)	51.3 (23.6)	48.4 (23.0)	43.8 (23.0)	43.4 (24.3)	35.3 (23.1)	(168)
중학생 이상	61.1 (24.9)	61.1 (22.2)	55.1 (21.2)	53.0 (21.3)	47.2 (22.3)	50.6 (22.4)	43.1(23.0)	(157)
F	1.1	4.2**	3.0*	2.8*	5.2**	3.5*	3.0*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4.5 (27.4)	57.0 (26.9)	52.5 (25.2)	46.1 (25.5)	45.9 (25.9)	39.2 (24.9)	35.9 (23.6)	(219)
300~499만원	57.9 (24.7)	55.6 (23.9)	52.9 (22.6)	48.2 (22.8)	46.7 (22.9)	43.8 (23.2)	36.6 (23.0)	(386)
500~699만원	62.3 (24.2)	59.1 (23.5)	53.2 (23.1)	51.9 (23.2)	48.5 (25.2)	47.3 (23.5)	40.0 (24.8)	(229)
700만원 이상	60.3 (28.9)	60.1 (24.9)	52.7 (24.2)	51.8 (24.3)	48.8 (25.7)	47.0 (24.9)	40.9 (24.7)	(166)
F	3.7*(a)	1.7(a)	0.0	3.1*(a)	0.7(a)	5.2**	2.4	

* $p < .05$, ** $p < .01$, *** $p < .001$

라. 자녀 양육환경으로의 사회 평가 및 이유

현재 우리사회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4점 척도로 답한 결과가 〈표 Ⅴ-1-4〉이다. 대체로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응답이 53.9%로 가장 많았다. 좋은 환경(매우 좋음+비교적 좋음)으로 평가한 경우는 34.6%에 그친 반면 좋지 못한 환경(전혀 좋지 않음+대체로 좋지 않음)으로 평가한 경우는 65.4%로 높았다. 4점 기준 평균은 2.2점으로 대체로 좋지 않은 환경이다(2점)에 수렴하였다.

응답자의 연령을 중심으로 보면 40대에서 2.4점으로 20대 2.1점이나 30대의 2.2.점보다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자녀연령이 중학생인 집단에서 다른 집단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Ⅴ-1-4〉 현재 우리사회 양육 환경에 대한 평가(4점 척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좋지 않은 환경이다	대체로 좋지 않은 환경이다	①+②	비교적 좋은 환경이다	매우 좋은 환경이다	③+④	계(수)		평균(표준편차)	
전체	11.5	53.9	65.4	33.9	0.7	34.6	100.0	(1,000)	2.2	(0.7)
연령대										
20대	13.8	59.2	73.0	26.3	0.7	27.0	100.0	(304)	2.1	(0.6)
30대	13.8	54.1	67.8	32.2	0.0	32.2	100.0	(320)	2.2	(0.7)
40대	7.7	49.5	57.2	41.5	1.3	42.8	100.0	(376)	2.4	(0.6)
F									11.9***(a)	
성별										
여성	12.6	54.8	67.4	32.2	0.4	32.6	100.0	(485)	2.2	(0.7)
남성	10.5	53.0	63.5	35.5	1.0	36.5	100.0	(515)	2.3	(0.7)
t									-1.6	
지역규모										
대도시	13.2	56.5	69.7	29.4	0.9	30.3	100.0	(439)	2.2	(0.7)
중소도시	9.9	52.7	62.6	37.2	0.2	37.4	100.0	(406)	2.3	(0.6)
읍면지역	11.0	49.7	60.6	38.1	1.3	39.4	100.0	(155)	2.3	(0.7)
F									3.2*	
결혼 여부										
기혼	10.4	52.1	62.5	36.9	0.6	37.5	100.0	(634)	2.3	(0.6)
미혼	13.4	57.1	70.5	28.7	0.8	29.5	100.0	(366)	2.2	(0.7)
t									2.5*	

구분	전혀 좋지 않은 환경이다	대체로 좋지 않은 환경이다	①+②	비교적 좋은 환경이다	매우 좋은 환경이다	③+④	계(수)		평균(표준편차)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10.8	51.8	62.6	36.5	1.0	37.4	100.0	(417)	2.3	(0.7)
맞벌이 아님	9.7	52.5	62.2	37.8	0.0	37.8	100.0	(217)	2.3	(0.6)
t									-0.1	
자녀연령										
영아	12.1	61.0	73.0	27.0	0.0	27.0	100.0	(141)	2.1	(0.6)
유아	11.8	45.4	57.1	42.0	0.8	42.9	100.0	(119)	2.3	(0.7)
초등학생	10.7	57.1	67.9	31.5	0.6	32.1	100.0	(168)	2.2	(0.6)
중학생 이상	4.5	44.6	49.0	50.3	0.6	51.0	100.0	(157)	2.5	(0.6)
F									7.5***(a)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2.8	53.4	66.2	32.4	1.4	33.8	100.0	(219)	2.2	(0.7)
300~499만원	10.4	54.4	64.8	35.0	0.3	35.2	100.0	(386)	2.3	(0.6)
500~699만원	14.0	52.8	66.8	32.8	0.4	33.2	100.0	(229)	2.2	(0.7)
700만원 이상	9.0	54.8	63.9	34.9	1.2	36.1	100.0	(166)	2.3	(0.6)
F									0.7	

주: 4점 척도임.
* $p < .05$, *** $p < .001$

현재 우리사회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매우 좋음+비교적 좋음)으로 평가한 응답자 346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세 가지 우선순위로 답한 결과가 〈표 V-1-5〉이다. 1순위 응답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비교적 안전한 사회(44.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이용 시의 국가 지원(19.9%)'이라는 응답이 주류를 이루었다. 3순위까지의 결과를 종합한 경우에도 '비교적 안전한 사회(58.4%)',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이용 시의 국가 지원(52.6%)', '이용이 편리한 병원 및 의료시설(51.7%)'이 그 주요 이유로 수렴되었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사회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지 못한 환경(전혀 좋지 않음+대체로 좋지 않음)으로 평가한 응답자 654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세 가지 우선순위로 답한 결과가 〈표 V-1-6〉이다. 1순위 응답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과도한 양육비용(32.3%)', 다음은 '직장의 육아에 대한 배려 부족과 제도 이용의

어려움(29.7%)', '안전하지 않은 사회(18.5%)'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3순위까지의 결과를 종합한 경우를 살펴보면, '과도한 양육비용(77.1%)', '직장의 육아에 대한 배려 부족과 제도 이용의 어려움(73.9%)'이라는 두 가지 이유가 응답자의 70%를 상회하였고 그 다음은 '안전하지 않은 사회(40.7%)'라고 답하였다.

〈표 V-1-5〉 우리 사회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인 이유(1순위/ 1+2+3순위)

단위: %(명)

구분	비교적 안전한 사회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이용 시의 국가 지원	이용이 편리한 병원 및 의료시설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대한 사회의 지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용이	직장에서의 육아에 대한 배려 및 제도 마련	가정의 부부간 협력하여 육아 가능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좋은 자연 환경	계(수)
전체	44.2	19.9	8.1	7.5	6.9	5.2	3.8	3.5	0.9	100.0 (346)
연령대										
20대	56.1	13.4	6.1	3.7	6.1	7.3	2.4	2.4	2.4	100.0 (82)
30대	39.8	17.5	5.8	10.7	4.9	10.7	5.8	3.9	1.0	100.0 (103)
40대	41.0	24.8	10.6	7.5	8.7	0.6	3.1	3.7	0.0	100.0 (161)
$x^2(df)$					33.117(16)**					
성별										
여성	35.4	21.5	9.5	12.7	7.6	3.2	2.5	6.3	1.3	100.0 (158)
남성	51.6	18.6	6.9	3.2	6.4	6.9	4.8	1.1	0.5	100.0 (188)
$x^2(df)$					27.433(8)***					
지역규모										
대도시	48.1	15.8	11.3	7.5	5.3	8.3	1.5	2.3	0.0	100.0 (133)
중소도시	42.1	21.7	6.6	7.9	9.9	3.3	3.3	3.9	1.3	100.0 (152)
읍면지역	41.0	24.6	4.9	6.6	3.3	3.3	9.8	4.9	1.6	100.0 (61)
$x^2(df)$					24.119(16)					
결혼 여부										
기혼	40.8	21.4	8.4	8.8	7.6	5.0	3.8	3.8	0.4	100.0 (238)
미혼	51.9	16.7	7.4	4.6	5.6	5.6	3.7	2.8	1.9	100.0 (108)
$x^2(df)$					7.185(8)					

구분	비교적 안전한 사회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이용 시의 국가 지원	이용이 편리한 병원 및 의료시설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대한 사회의 지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용이	직장에서의 육아에 대한 배려 및 제도 마련	가정의 부부간 협력하여 육아 가능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좋은 자연 환경	계(수)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39.7	23.1	8.3	9.6	5.8	4.5	3.8	4.5	0.6	100.0 (156)
맞벌이 아님	42.7	18.3	8.5	7.3	11.0	6.1	3.7	2.4	0.0	100.0 (82)
$x^2(df)$					4.342(8)					
자녀연령										
영아	34.2	28.9	7.9	5.3	5.3	10.5	5.3	2.6	0.0	100.0 (38)
유아	49.0	11.8	3.9	15.7	3.9	5.9	5.9	3.9	0.0	100.0 (51)
초등학생	42.6	24.1	5.6	3.7	11.1	3.7	5.6	1.9	1.9	100.0 (54)
중학생 이상	40.0	23.8	13.8	8.8	8.8	0.0	1.3	3.8	0.0	100.0 (80)
$x^2(df)$					30.037(24)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3.2	17.6	10.8	8.1	8.1	5.4	5.4	0.0	1.4	100.0 (74)
300~499만원	44.1	19.1	8.1	7.4	6.6	5.1	2.9	5.1	1.5	100.0 (136)
500~699만원	46.1	19.7	5.3	9.2	7.9	3.9	3.9	3.9	0.0	100.0 (76)
700만원 이상	43.3	25.0	8.3	5.0	5.0	6.7	3.3	3.3	0.0	100.0 (60)
$x^2(df)$					10.942(24)					
1+2+3순위	58.4	52.6	51.7	41.3	25.1	23.7	22.0	17.1	7.5	

** $p < .01$, *** $p < .001$

〈표 Ⅴ-1-6〉 우리 사회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인 이유(1순위/ 1+2+3순위)

단위: %(명)

구분	과도한 양육비용	직장의 육아에 대한 배려 부족과 제도 이용의 어려움	안전하지 않은 사회	아이를 기르는 일에 대한 가치 절하	가정의 부부간 협력적 육아 부재	좋지 못한 자연환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의 어려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간부족	병원 및 의료시설의 부족	기타	계(수)
전체	32.3	29.7	18.5	6.7	6.1	3.1	2.9	0.3	0.2	0.3	100.0 (654)
연령대											
20대	32.9	28.4	18.5	8.1	8.1	2.3	1.8	0.0	0.0	0.0	100.0 (222)
30대	25.3	38.7	15.7	6.9	4.6	3.2	3.7	0.5	0.5	0.9	100.0 (217)
40대	38.6	21.9	21.4	5.1	5.6	3.7	3.3	0.5	0.0	0.0	100.0 (215)
$x^2(df)$					31.527(18)*						
성별											
여성	26.0	31.5	19.3	8.0	10.1	3.4	1.8	0.0	0.0	0.0	100.0 (327)
남성	38.5	27.8	17.7	5.5	2.1	2.8	4.0	0.6	0.3	0.6	100.0 (327)
$x^2(df)$					35.049(9)***						
지역규모											
대도시	31.4	29.4	18.0	6.2	7.2	3.3	3.6	0.3	0.0	0.7	100.0 (306)
중소도시	32.3	31.5	17.7	8.3	5.9	1.6	2.8	0.0	0.0	0.0	100.0 (254)
읍면지역	35.1	25.5	22.3	4.3	3.2	6.4	1.1	1.1	1.1	0.0	100.0 (94)
$x^2(df)$					23.473(18)						
결혼 여부											
기혼	30.8	33.3	18.4	5.6	3.8	3.3	3.8	0.5	0.3	0.3	100.0 (396)
미혼	34.5	24.0	18.6	8.5	9.7	2.7	1.6	0.0	0.0	0.4	100.0 (258)
$x^2(df)$					21.072(9)*						

구분	과도한 양육비용	직장의 육아에 대한 배려 부족과 제도 이용의 어려움	안전하지 않은 사회	아이를 기르는 일에 대한 가치 절하	가정의 부부간 협력적 육아 부재	좋지 못한 자연환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의 어려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간부족	병원 및 의료시설의 부족	기타	계(수)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31.0	37.2	14.2	5.0	4.2	3.1	4.2	0.8	0.4	0.0	100.0 (261)
맞벌이 아님	30.4	25.9	26.7	6.7	3.0	3.7	3.0	0.0	0.0	0.7	100.0 (135)
$x^2(df)$					15.701(9)						
자녀연령											
영아	30.1	34.0	12.6	4.9	1.0	4.9	10.7	1.0	0.0	1.0	100.0 (103)
유아	20.6	48.5	13.2	5.9	1.5	5.9	1.5	1.5	1.5	0.0	100.0 (68)
초등학생	33.3	28.9	22.8	7.0	6.1	0.9	0.9	0.0	0.0	0.0	100.0 (114)
중학생 이상	41.6	20.8	24.7	5.2	5.2	1.3	1.3	0.0	0.0	0.0	100.0 (77)
$x^2(df)$					57.995(27)***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5.9	22.1	22.1	6.9	6.2	3.4	2.1	0.0	0.0	1.4	100.0 (145)
300~499만원	31.2	29.6	20.8	5.6	5.2	2.8	3.6	0.8	0.4	0.0	100.0 (250)
500~699만원	30.1	37.9	11.8	8.5	7.8	3.3	0.7	0.0	0.0	0.0	100.0 (153)
700만원 이상	33.0	28.3	17.9	6.6	5.7	2.8	5.7	0.0	0.0	0.0	100.0 (106)
$x^2(df)$					33.353(27)						
1+2+3 순위	77.1	73.9	40.7	27.5	25.7	20.9	19.7	9.9	3.4	1.2	(654)

* $p < .05$, *** $p < .001$

마. 육아 관련 문화 양상과 진단

육아문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최근 우리사회의 문화 양상들을 아버지 육아참여, 조부모의 도움, 산후조리원 이용, 육아정보의 홍수, 온라인 정보공유, 과도한 육아관련 소비, 남성의 육아휴직 증가, 영유아 사교육 증가, 주 52시간 도입의 효과, 육아지원 정책의 증가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런 양상이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확산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585명을 대상으로는 그러한 문화 양상과 관련한 본인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에 답한 결과이다.

1) 아버지 육아참여[27)]

〈표 V-1-7〉에서와 같이 우리 사회의 육아 관련 양상 중 하나로 '최근 아버지의 적극적 양육 참여가 증가하는 경향'에 대해 평균 3.1점으로 그런 편(3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30대 집단에서 3.2점으로 다른 연령대 보다 높았다. 기혼집단에서 미혼집단보다 이에 대한 동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한 30대가 현재 영유아를 양육하는 연령층임을 고려할 때 아버지의 육아참여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아버지의 육아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에 대한 동의가 높았다.

양육자 개인의 수준에서 '나는(남성응답자)/내 배우자는(여성응답자)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8점으로 '그런 편(3점)이다'에 가까우나, 사회 전체의 평균 3.1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40대에서 2.6점으로 20대나 30대 연령층 보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저조하였다. 성별을 기준으로 보면 남성 스스로는 그런 편이라고 생각하는 3점이지만 여성의 응답은 2.6점으로 남편의 참여에 대한 체감이 적음을 보여준다. 자녀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영유아 가구에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응답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를 둔 경우 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10년 사이 육아를 부부 공동의 일로 인식하고,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27) 조선일보(2019.8.22.). 직장인 아빠 2명 중 1명은 "승진보다 육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2/2019082200348.html
(2019.10.10. 인출)

〈표 Ⅴ-1-7〉 육아 관련 문화 양상- 아버지 육아참여

단위: 점(명)

구분	우리사회의 육아문화 최근 아버지의 적극적 양육 참여가 증가하는 경향이다 평균(표준편차)	수	나의 육아문화 (남성응답자) 나는 / (여성응답자) 내 배우자는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평균(표준편차)	수
전체	3.1 (0.6)	(1,000)	2.8 (0.8)	(585)
연령대				
20대	3.0 (0.6)	(304)	3.0 (0.8)	(23)
30대	3.2 (0.6)	(320)	3.0 (0.7)	(237)
40대	3.1 (0.5)	(376)	2.6 (0.8)	(325)
F	5.5**(a)		12.9***(a)	
성별				
여성	3.0 (0.6)	(485)	2.6 (0.9)	(295)
남성	3.2 (0.6)	(515)	3.0 (0.6)	(290)
t	-5.4***		-5.8***	
지역규모				
대도시	3.1 (0.6)	(439)	2.9 (0.8)	(248)
중소도시	3.1 (0.6)	(406)	2.6 (0.8)	(247)
읍면지역	3.1 (0.6)	(155)	2.8 (0.8)	(90)
F	0.3		5.5**(a)	
결혼 여부				
기혼	3.2 (0.6)	(634)		
미혼	3.0 (0.6)	(366)		
t	4.6***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3.2 (0.6)	(417)	2.8 (0.8)	(379)
맞벌이 아님	3.2 (0.6)	(217)	2.7 (0.8)	(206)
t	0.3		0.9	
자녀연령				
영아	3.2 (0.6)	(141)	3.0 (0.7)	(141)
유아	3.2 (0.6)	(119)	3.0 (0.7)	(119)
초등학생	3.2 (0.6)	(168)	2.6 (0.7)	(168)
중학생 이상	3.1 (0.5)	(157)	2.5 (0.9)	(157)
F	1.9(a)		18.4***(a)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0 (0.6)	(219)	2.8 (0.9)	(66)
300~499만원	3.1 (0.6)	(386)	2.7 (0.7)	(254)
500~699만원	3.1 (0.6)	(229)	2.9 (0.8)	(159)
700만원 이상	3.1 (0.6)	(166)	2.9 (0.8)	(106)
F	1.4		2.2	

** $p < .01$, *** $p < .001$

2) 조부모의 도움[28)]

우리 사회의 육아 관련 양상 중 하나로 '아이를 기르는데 조부모(친가, 외가)의 도움(돌봄 지원, 경제적 지원)은 필요하다'에 대해 4점 척도로 답한 결과가 〈표 Ⅴ-1-8〉이다. 전체 평균은 3.2점으로 '그런 편(3점)이다'에 수렴하였다. 30대 집단에서 3.3점으로 다른 연령대 보다 높게 답하였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아이를 기르면서 조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양육자 개인의 수준에서 아이를 기르는데 조부모(친가, 외가)의 도움(돌봄 지원, 경제적 지원)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2.3점으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에 가까워 사회 전체의 평균 3.2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경향은 양육을 위한 조부모의 도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인지하지만 양육 중인 부모들은 실제로 조부모의 도움을 그렇게 받지 않고 있다고 체감함을 보여준다.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2.5점으로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이 2.2점인 것에 비해 높아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향을 보였다. 맞벌이 가구(2.5점)에서 아닌 경우(1.9점)보다 조부모의 도움을 더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여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조부모의 도움을 더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 평균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 집단(2.9점)에서 다른 경우 보다 유의하게 높음은 맞벌이 가구일 경우에 자녀양육 과정에서 조부모의 도움이 많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Ⅴ-1-8〉 육아 관련 문화 양상- 조부모의 도움

단위: 점(명)

구분	우리사회의 육아문화 아이를 기르는데 조부모(친가, 외가)의 도움(돌봄 지원, 경제적 지원)은 필요하다 평균(표준편차)	수	나의 육아문화 아이를 기르는데 조부모(친가, 외가)의 도움(돌봄 지원,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 평균(표준편차)	수
전체	3.2 (0.7)	(1,000)	2.3 (1.0)	(585)
연령대				
20대	3.1 (0.7)	(304)	2.7 (1.0)	(23)
30대	3.3 (0.7)	(320)	2.5 (1.1)	(237)

28) 세계일보(2019.3.30.). 황혼육아 떠밀리는 '할마할빠' 고충 누가 알아줄까? http://www.segye.com/newsView/20190329502210?OutUrl=naver (2019.10.10. 인출)

구분	우리사회의 육아문화 아이를 기르는데 조부모(친가, 외가)의 도움(돌봄 지원, 경제적 지원)은 필요하다 평균(표준편차)	수	나의 육아문화 아이를 기르는데 조부모(친가, 외가)의 도움(돌봄 지원,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 평균(표준편차)	수
40대	3.2 (0.6)	(376)	2.1 (1.0)	(325)
F	6.1**(a)		11.0***	
성별				
여성	3.2 (0.7)	(485)	2.3 (1.1)	(295)
남성	3.1 (0.6)	(515)	2.3 (1.0)	(290)
t	2.6*		0.7	
지역규모				
대도시	3.2 (0.7)	(439)	2.5 (1.0)	(248)
중소도시	3.2 (0.6)	(406)	2.2 (1.0)	(247)
읍면지역	3.1 (0.7)	(155)	2.2 (1.1)	(90)
F	0.8		7.6***	
결혼 여부				
기혼	3.2 (0.6)	(634)		
미혼	3.1 (0.7)	(366)		
t	3.5***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3.3 (0.6)	(417)	2.5 (1.0)	(379)
맞벌이 아님	3.2 (0.7)	(217)	1.9 (0.9)	(206)
t	2.4*		7.5***	
자녀연령				
영아	3.4 (0.7)	(141)	2.6 (1.1)	(141)
유아	3.2 (0.6)	(119)	2.4 (1.0)	(119)
초등학생	3.2 (0.6)	(168)	2.3 (1.0)	(168)
중학생 이상	3.2 (0.6)	(157)	2.1 (1.0)	(157)
F	2.3		6.6***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1 (0.7)	(219)	2.2 (1.1)	(66)
300~499만원	3.2 (0.6)	(386)	2.1 (1.0)	(254)
500~699만원	3.2 (0.7)	(229)	2.3 (1.1)	(159)
700만원 이상	3.2 (0.6)	(166)	2.9 (1.0)	(106)
F	0.8		14.5***	

* $p < .05$, ** $p < .01$, *** $p < .001$

3) 산후조리원 이용[29)]

우리 사회의 육아 관련 양상으로 '자녀 출산 시에는 산후조리원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지 4점 척도로 답한 결과가 〈표 Ⅴ-1-9〉이다. 전체 평균은 3.4점으로 다른 문항보다 높게 나타나 이를 보편적 양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30대 집단에서 3.6점으로 다른 연령대 보다 높게 답하였고, 기혼집단(3.5점)에서 미혼집단(3.3점)보다 높았다. 자녀연령을 기준으로 이에 차이를 보여 영아 자녀를 둔 집단(3.6점)이 가장 높았고, 중학생자녀를 둔 집단(3.2점)에서 가장 낮았다.

양육자 개인의 수준에서 자녀 출산 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의 71.5%가 이용하였다고 답하여 열 명 중 일곱 명 이상이 이용하는 보편적 육아문화 양상 중 하나 임을 보여준다. 30대에서는 85.7%가, 40대에서 61.2%가 이용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다는 응답비율이 유의하게 높아 최근에 산후조리원의 이용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자녀 출산 시 산후조리원을 이용이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보편화된 문화양상 중 하나임을 시사한다.

〈표 Ⅴ-1-9〉 육아 관련 문화 양상- 산후조리원 이용

단위: 점, %(명)

구분	우리사회의 육아문화	수	나의 육아문화		수
	자녀 출산 시에는 산후조리원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자녀 출산 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다		
	평균(표준편차)		예	아니오	
전체	3.4 (0.6)	(1,000)	71.5	28.5	(585)
연령대					
20대	3.2 (0.7)	(304)	69.6	30.4	(23)
30대	3.6 (0.5)	(320)	85.7	14.3	(237)
40대	3.4 (0.6)	(376)	61.2	38.8	(325)
F	21.7***		40.121(2)***		
성별					
여성	3.4 (0.6)	(485)	66.1	33.9	(295)
남성	3.4 (0.6)	(515)	76.9	23.1	(290)
t	0.6		8.354(1)**		

29) 연합뉴스(2019.1.17.). 산모 4명중 3명 산후조리원 이용…평균 2주간 221만원 지출 https://www.yna.co.kr/view/AKR20190116160100017?input=1195m (2019.10.10. 인출)

구분	우리사회의 육아문화	수	나의 육아문화		수
	자녀 출산 시에는 산후조리원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자녀 출산 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다		
	평균(표준편차)		예	아니오	
지역규모					
대도시	3.4 (0.7)	(439)	74.6	25.4	(248)
중소도시	3.4 (0.6)	(406)	68.4	31.6	(247)
읍면지역	3.4 (0.6)	(155)	71.1	28.9	(90)
F	0.7		2.320(2)		
결혼 여부					
기혼	3.5 (0.6)	(634)			
미혼	3.3 (0.6)	(366)			
t	4.0***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3.5 (0.6)	(417)	71.8	28.2	(379)
맞벌이 아님	3.4 (0.7)	(217)	70.9	29.1	(206)
t	0.6		0.052(1)		
자녀연령					
영아	3.6 (0.5)	(141)	90.1	9.9	(141)
유아	3.5 (0.6)	(119)	85.7	14.3	(119)
초등학생	3.5 (0.6)	(168)	68.5	31.5	(168)
중학생 이상	3.2 (0.7)	(157)	47.1	52.9	(157)
F	12.1***		82.089(3)***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3 (0.7)	(219)	66.7	33.3	(66)
300~499만원	3.4 (0.6)	(386)	71.3	28.7	(254)
500~699만원	3.5 (0.6)	(229)	73.6	26.4	(159)
700만원 이상	3.4 (0.6)	(166)	71.7	28.3	(106)
F	1.7		1.103(3)		

** $p < .01$, *** $p < .001$

4) 육아정보 신뢰성[30)]

우리 사회에서 '육아 정보의 홍수 속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4점 척도로 답한 결과가 〈표 V-1-10〉이다. 전체 평균은 2.9점으로 '그런 편이다(3.0)'에 가깝게 나타났다. 30대 집단에서 3점으로 다른 연령대(2.8점)보다 높게 답하였다. 양육자 개인의 수준에서 '나는 육아 정보의 홍수 속에

30) 국민일보(2018.11.7.). 맘카페 등 공동구매품 불법유통·허위광고 적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30450&code=11131100&cp=nv (2019.10.10. 인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해 평균 2.6점으로 그 동의 정도가 높지 않았다.

〈표 Ⅴ-1-10〉 육아 관련 문화 양상- 육아정보 신뢰성

단위: 점(명)

구분	우리사회의 육아문화 육아 정보의 홍수 속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 평균(표준편차)	수	나의 육아문화 육아 정보의 홍수 속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 평균(표준편차)	수
전체	2.9 (0.7)	(1,000)	2.6 (0.7)	(585)
연령대				
20대	2.8 (0.8)	(304)	2.7 (0.8)	(23)
30대	3.0 (0.6)	(320)	2.6 (0.7)	(237)
40대	2.8 (0.7)	(376)	2.6 (0.7)	(325)
F	7.1***(a)		0.2	
성별				
여성	2.9 (0.7)	(485)	2.6 (0.7)	(295)
남성	2.8 (0.7)	(515)	2.6 (0.7)	(290)
t	0.9		-0.1	
지역규모				
대도시	2.9 (0.7)	(439)	2.6 (0.7)	(248)
중소도시	2.8 (0.7)	(406)	2.6 (0.7)	(247)
읍면지역	3.0 (0.7)	(155)	2.6 (0.6)	(90)
F	2.3(a)		0.2	
결혼 여부				
기혼	2.9 (0.7)	(634)		
미혼	2.9 (0.7)	(366)		
t	0.2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2.9 (0.7)	(417)	2.6 (0.6)	(379)
맞벌이 아님	2.8 (0.7)	(217)	2.6 (0.7)	(206)
t	1.3		0.7	
자녀연령				
영아	2.9 (0.7)	(141)	2.6 (0.7)	(141)
유아	2.9 (0.7)	(119)	2.7 (0.7)	(119)
초등학생	2.9 (0.7)	(168)	2.7 (0.7)	(168)
중학생 이상	2.7 (0.7)	(157)	2.5 (0.6)	(157)
F	3.2		2.5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9 (0.8)	(219)	2.7 (0.8)	(66)
300~499만원	2.9 (0.7)	(386)	2.6 (0.6)	(254)
500~699만원	2.8 (0.7)	(229)	2.6 (0.7)	(159)
700만원 이상	2.8 (0.7)	(166)	2.7 (0.6)	(106)
F	0.9		0.5	

*** $p < .001$

5)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유[31)]

우리 사회의 육아 관련 양상으로 '온라인, 인터넷(지역맘 카페)을 통한 육아관련 정보공유가 활발하다'라는 점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지 4점 척도로 답한 결과가 〈표 Ⅴ-1-11〉이다. 전체 평균은 3.4점으로 다른 문항보다 높게 나타나 이를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집단의 평균차이를 살펴보면 40대 집단에서 3.3점으로 다른 연령대(3.4점)보다 다소 낮았고, 여성(3.4점)이 남성(3.3점)보다 이에 대한 동의정도가 다소 높았다. 자녀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자녀의 연령이 어린 집단일수록 이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양육자 개인의 수준에서 '나는 온라인, 인터넷(지역맘 카페)을 통한 육아관련 정보를 얻는지'에 대해 2.7점으로 사회양상으로 인식하는 것(3.4점)보다 낮았다. 20대에서는 3.3점으로 높으나 30대(2.7점)와 40대(2.6점)에서는 그리 높지 않아 차이를 보였고,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도 자녀의 연령이 어린집단일수록 평균이 높아 육아관련 온라인 공유가 육아관련 문화 양상으로 점점 보편화되는 양상임을 시사한다. 여성(2.8점)이 남성(2.6점)보다 높음은 육아에 어머니의 참여가 더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Ⅴ-1-11〉 육아 관련 문화 양상- 온라인 정보공유

단위: 점(명)

구분	우리사회의 육아문화 온라인, 인터넷(지역맘 카페)을 통한 육아관련 정보공유가 활발하다 평균(표준편차)	수	나의 육아문화 온라인, 인터넷(지역맘 카페)을 통한 육아관련 정보를 얻는다 평균(표준편차)	수
전체	3.4 (0.6)	(1,000)	2.7 (0.8)	(585)
연령대				
20대	3.4 (0.6)	(304)	3.3 (0.8)	(23)
30대	3.4 (0.5)	(320)	2.7 (0.7)	(237)
40대	3.3 (0.6)	(376)	2.6 (0.8)	(325)
F	3.0*		8.3***	
성별				
여성	3.4 (0.6)	(485)	2.8 (0.8)	(295)
남성	3.3 (0.6)	(515)	2.6 (0.8)	(290)
t	2.2*		2.7**	

31) 한국일보(2019.4.18) "신생아 젖병 세제였는데…" 에티튜드 유해성분에 불안한 엄마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81148767685?did=NA&dtype=&dtypecode=&prnewsid= (2019.10.10. 인출)

구분	우리사회의 육아문화 온라인, 인터넷(지역맘 카페)을 통한 육아관련 정보공유가 활발하다 평균(표준편차)	수	나의 육아문화 온라인, 인터넷(지역맘 카페)을 통한 육아관련 정보를 얻는다 평균(표준편차)	수
지역규모				
대도시	3.4 (0.6)	(439)	2.7 (0.8)	(248)
중소도시	3.4 (0.6)	(406)	2.7 (0.7)	(247)
읍면지역	3.3 (0.5)	(155)	2.7 (0.7)	(90)
F	0.5		0.2	
결혼 여부				
기혼	3.4 (0.6)	(634)		
미혼	3.3 (0.6)	(366)		
t	0.7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3.4 (0.5)	(417)	2.7 (0.8)	(379)
맞벌이 아님	3.4 (0.6)	(217)	2.7 (0.7)	(206)
t	0.0		0.4	
자녀연령				
영아	3.5 (0.5)	(141)	2.9 (0.7)	(141)
유아	3.4 (0.6)	(119)	2.7 (0.8)	(119)
초등학생	3.3 (0.5)	(168)	2.6 (0.7)	(168)
중학생 이상	3.3 (0.6)	(157)	2.5 (0.8)	(157)
F	4.6**		6.4***(a)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4 (0.6)	(219)	2.6 (0.8)	(66)
300~499만원	3.4 (0.6)	(386)	2.7 (0.8)	(254)
500~699만원	3.4 (0.6)	(229)	2.7 (0.7)	(159)
700만원 이상	3.4 (0.5)	(166)	2.7 (0.7)	(106)
F	0.3(a)		0.1	

* $p < .05$, ** $p < .01$, *** $p < .001$

6) 육아관련 소비[32)]

우리 사회의 육아 관련 양상 중 하나로 '우리 사회의 육아관련 소비는 다분히 과소비적 측면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지 4점 척도로 답한 결과가 〈표 Ⅴ-1-12〉이다. 전체 평균은 3.4점으로 다른 문항보다 높게 나타나 이를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20대 집단에서 3.3점으로 다른 연령대(3.4점)보다 다소 낮았다. 기혼인 경우(3.4점)에 미혼인 경우(3.3점)보다 이에 대한 동의정도

32) 조선비즈(2017.5.4.). 불황 모르는 아동제품...'골드키즈' 덕분에 백화점 웃는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04/2017050401029.html(2019.10.10. 인출)

가 다소 높았다.

양육자 개인의 수준에서 '나는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과소비하는 경향이 있다'에 대해 2.5점으로 사회양상으로 인식하는 것(3.4점)보다 월등히 낮았다. 이는 우리사회에서는 육아관련 과소비가 보편적인 양상으로 인식하지만 양육자 본인의 소비는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대에서는 2.8점으로 높았고, 30대(2.5점)와 40대(2.4점)에서는 높지 않아 차이를 보였고, 유아 자녀를 둔 집단에서 그 평균이 2.6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 Ⅴ-1-12〉 육아 관련 문화 양상- 육아관련 소비

단위: 점(명)

구분	우리사회의 육아문화 우리 사회의 육아관련 소비는 다분히 과소비적 측면이 있다 평균(표준편차)	수	나의 육아문화 육아 시 과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평균(표준편차)	수
전체	3.4 (0.6)	(1,000)	2.5 (0.8)	(585)
연령대				
20대	3.3 (0.7)	(304)	2.8 (0.9)	(23)
30대	3.4 (0.6)	(320)	2.5 (0.7)	(237)
40대	3.4 (0.6)	(376)	2.4 (0.7)	(325)
F	7.2***		4.0*	
성별				
여성	3.4 (0.6)	(485)	2.5 (0.8)	(295)
남성	3.4 (0.6)	(515)	2.5 (0.7)	(290)
t	0.8		-0.8	
지역규모				
대도시	3.4 (0.6)	(439)	2.5 (0.8)	(248)
중소도시	3.4 (0.6)	(406)	2.5 (0.7)	(247)
읍면지역	3.4 (0.6)	(155)	2.4 (0.8)	(90)
F	0.2		0.1	
결혼 여부				
기혼	3.4 (0.6)	(634)		
미혼	3.3 (0.7)	(366)		
t	4.1***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3.4 (0.6)	(417)	2.5 (0.7)	(379)
맞벌이 아님	3.4 (0.6)	(217)	2.4 (0.8)	(206)
t	0.4		1.4	
자녀연령				
영아	3.4 (0.6)	(141)	2.5 (0.8)	(141)
유아	3.4 (0.6)	(119)	2.6 (0.7)	(119)
초등학생	3.4 (0.6)	(168)	2.5 (0.7)	(168)
중학생 이상	3.5 (0.6)	(157)	2.3 (0.8)	(157)
F	0.6		4.3**	

구분	우리사회의 육아문화 우리 사회의 육아관련 소비는 다분히 과소비적 측면이 있다 평균(표준편차)	수	나의 육아문화 육아 시 과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평균(표준편차)	수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3 (0.7)	(219)	2.5 (0.9)	(66)
300~499만원	3.4 (0.6)	(386)	2.5 (0.7)	(254)
500~699만원	3.4 (0.6)	(229)	2.5 (0.7)	(159)
700만원 이상	3.4 (0.6)	(166)	2.5 (0.7)	(106)
F	1.2		0.1(a)	

* $p < .05$, ** $p < .01$, *** $p < .001$

7) 남성의 육아휴직[33)]

최근 남성의 육아휴직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4점 척도로 답한 결과가 〈표 Ⅴ-1-13〉이다. 전체 평균은 2.7점으로 낮았다. 40대 집단에서 2.8점으로 다소 높게 인지하였고, 남성의 경우(2.8점)가 여성(2.6점) 보다 이에 대한 동의가 다소 높았다. 자녀연령의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낮은 집단보다 이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았다.

양육자 개인의 수준에서 '나(또는 배우자)는 아버지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할 예정이다'에 대해 18.6%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이에 대해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여 20대에서는 30.4%, 30대에서는 23.6%, 40대에서는 14.2%로 응답하였고,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볼 때도 자녀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유의하게 응답비율이 높아 최근에 남성의 육아 휴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증가할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남성의 경우(22.8%)가 여성의 경우(14.6%) 보다 그 응답비율이 높았고, 대도시 지역(23.8%), 중소도시(16.6%), 읍면지역(10%)로 차이를 보여 지역규모가 큰 곳에서 남성육아휴직에의 사용이나 사용의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 맞벌이 가구에서 21.9%로 아닌 경우(12.6%)보다 월등히 높은 응답을 보였다.

33) 한겨레(2019.7.28.).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자 첫 20% 돌파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3619.html#csidx36204366cb6d9208013f943f1b676c1 (2019.10.10. 인출)

〈표 Ⅴ-1-13〉 육아 관련 문화 양상- 남성 육아휴직

단위: 점, %(명)

구분	우리사회의 육아문화	수	나의 육아문화		수
	남성의 육아휴직이 증가하고 있다		부성육아휴직을 (배우자가) 사용했거나 사용할 예정이다		
	평균(표준편차)		예	아니오	
전체	2.7 (0.7)	(1,000)	18.6	81.4	(585)
연령대					
20대	2.7 (0.7)	(304)	30.4	69.6	(23)
30대	2.6 (0.8)	(320)	23.6	76.4	(237)
40대	2.8 (0.6)	(376)	14.2	85.8	(325)
F	7.0***(a)		10.315(2)**		
성별					
여성	2.6 (0.7)	(485)	14.6	85.4	(295)
남성	2.8 (0.7)	(515)	22.8	77.2	(290)
t	-2.4*		6.458(1)*		
지역규모					
대도시	2.7 (0.7)	(439)	23.8	76.2	(248)
중소도시	2.7 (0.7)	(406)	16.6	83.4	(247)
읍면지역	2.7 (0.7)	(155)	10.0	90.0	(90)
F	0.1		9.449(2)**		
결혼 여부					
기혼	2.7 (0.7)	(634)			
미혼	2.7 (0.7)	(366)			
t	1.1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2.7 (0.7)	(417)	21.9	78.1	(379)
맞벌이 아님	2.7 (0.7)	(217)	12.6	87.4	(206)
t	1.2		7.578(1)**		
자녀연령					
영아	2.6 (0.8)	(141)	24.8	75.2	(141)
유아	2.7 (0.8)	(119)	26.1	73.9	(119)
초등학생	2.7 (0.7)	(168)	15.5	84.5	(168)
중학생 이상	2.8 (0.6)	(157)	10.8	89.2	(157)
F	2.8*(a)		15.294(3)**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7 (0.7)	(219)	18.2	81.8	(66)
300~499만원	2.7 (0.7)	(386)	19.3	80.7	(254)
500~699만원	2.7 (0.7)	(229)	17.6	82.4	(159)
700만원 이상	2.8 (0.7)	(166)	18.9	81.1	(106)
F	0.6		0.195(3)		

* $p < .05$, ** $p < .01$, *** $p < .001$

8) 영유아 사교육[34)]

우리 사회의 육아 관련 양상 중 하나로 '영유아 대상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4점 척도로 답한 결과가 〈표 Ⅴ-1-14〉이다. 전체 평균은 3.4점으로 다른 문항보다 높게 나타나 이를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에 대한 응답자의 연령이나 성별, 가구소득 등 변인에 따른 집단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양육자 개인의 수준에서 '나는 영유아 대상 사교육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다'에 대해 46.5%가 그렇다고 답하여 거의 반 정도에 달하였다. 자녀 연령이 유아(58.8%)와 초등학생인 집단(56.5%)에서 그 응답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의 육아문화 양상 중 하나로 영유아의 사교육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Ⅴ-1-14〉 육아 관련 문화 양상- 영유아 사교육

단위: 점, %(명)

구분	우리사회의 육아문화	수	나의 육아문화		수
	영유아 대상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다		영유아 대상 사교육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다		
	평균(표준편차)		예	아니오	
전체	3.4 (0.6)	(1,000)	46.5	53.5	(585)
연령대					
20대	3.4 (0.6)	(304)	43.5	56.5	(23)
30대	3.3 (0.6)	(320)	48.1	51.9	(237)
40대	3.4 (0.6)	(376)	45.5	54.5	(325)
F	2.9		0.449(2)		
성별					
여성	3.4 (0.6)	(485)	47.5	52.5	(295)
남성	3.4 (0.6)	(515)	45.5	54.5	(290)
t	0.0		0.221(1)		
지역규모					
대도시	3.4 (0.6)	(439)	48.4	51.6	(248)
중소도시	3.4 (0.6)	(406)	44.5	55.5	(247)
읍면지역	3.4 (0.6)	(155)	46.7	53.3	(90)
F	2.9		0.740(2)		
결혼 여부					
기혼	3.4 (0.6)	(634)			
미혼	3.4 (0.6)	(366)			
t	0.3				

34) 서울신문(2019.3.22.). "영유아 사교육비, 2015년 이후 5년만에 50% 상승"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22500098&wlog_tag3=naver#csidx03463b61cf7046e884760282ac006f8 (2019.10.10. 인출)

구분	우리사회의 육아문화	수	나의 육아문화		수
	영유아 대상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다		영유아 대상 사교육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다		
	평균(표준편차)		예	아니오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3.4 (0.6)	(417)	48.0	52.0	(379)
맞벌이 아님	3.4 (0.6)	(217)	43.7	56.3	(206)
t	-1.3		1.007(1)		
자녀연령					
영아	3.3 (0.6)	(141)	36.2	63.8	(141)
유아	3.3 (0.5)	(119)	58.8	41.2	(119)
초등학생	3.5 (0.6)	(168)	56.5	43.5	(168)
중학생 이상	3.4 (0.5)	(157)	35.7	64.3	(157)
F	2.9		27.534(3)***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4 (0.6)	(219)	43.9	56.1	(66)
300~499만원	3.4 (0.6)	(386)	42.9	57.1	(254)
500~699만원	3.4 (0.6)	(229)	48.4	51.6	(159)
700만원 이상	3.4 (0.5)	(166)	53.8	46.2	(106)
F	0.3		3.979(3)		

*** $p < .001$

9) 주 52시간 도입의 영향[35)]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고 있고 이 부분이 양육하는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 사회의 육아 관련 양상 중 하나로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다'라는 점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지 4점 척도로 답한 결과가 〈표 V-1-15〉이다. 전체 평균은 2.7점으로 다른 문항보다 낮았다. 40대 집단에서 2.8점으로 다른 연령대(2.7점)보다 다소 높았다. 여성의 경우(2.6점) 보다 남성의 경우(2.8점)에 이에 대한 동의가 높았다.

양육자 개인의 수준에서 '나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2.7점으로 사회양상으로 인식하는 것(2.7점) 수준과 동일하였다. 여성의 경우(2.6점) 보다 남성의 경우(2.9점)에 이에 대한 동의가 높았고, 또한 현재 맞벌이 가구(2.8점)에서 아닌 경우(2.7점)보다 다소 높은 응답을 보였다.

35) 문화일보(2018.7.5.). 출산율 제고보다 '워라밸 개선' 초점… 정책 '패러다임 전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70501070303016001 (2019.10.10. 인출)

〈표 Ⅴ-1-15〉 육아 관련 문화 양상- 주 52시간 도입의 영향

단위: 점(명)

구분	우리사회의 육아문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평균(표준편차)	수	나의 육아문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평균(표준편차)	수
전체	2.7 (0.7)	(1,000)	2.7 (0.8)	(585)
연령대				
20대	2.7 (0.8)	(304)	2.7 (0.9)	(23)
30대	2.7 (0.8)	(320)	2.8 (0.8)	(237)
40대	2.8 (0.7)	(376)	2.7 (0.8)	(325)
F	4.1*(a)		0.0	
성별				
여성	2.6 (0.7)	(485)	2.6 (0.8)	(295)
남성	2.8 (0.7)	(515)	2.9 (0.8)	(290)
t	-3.5***		-3.8***	
지역규모				
대도시	2.7 (0.8)	(439)	2.8 (0.8)	(248)
중소도시	2.7 (0.7)	(406)	2.8 (0.8)	(247)
읍면지역	2.7 (0.7)	(155)	2.6 (0.8)	(90)
F	0.2		1.8	
결혼 여부				
기혼	2.7 (0.8)	(634)		
미혼	2.7 (0.7)	(366)		
t	0.6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2.8 (0.8)	(417)	2.8 (0.8)	(379)
맞벌이 아님	2.7 (0.7)	(217)	2.7 (0.9)	(206)
t	1.8		2.0*	
자녀연령				
영아	2.7 (0.8)	(141)	2.8 (0.8)	(141)
유아	2.7 (0.8)	(119)	2.8 (0.8)	(119)
초등학생	2.7 (0.7)	(168)	2.6 (0.8)	(168)
중학생 이상	2.8 (0.7)	(157)	2.8 (0.7)	(157)
F	0.9(a)		1.5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6 (0.8)	(219)	2.6 (0.9)	(66)
300~499만원	2.7 (0.7)	(386)	2.7 (0.8)	(254)
500~699만원	2.8 (0.7)	(229)	2.8 (0.8)	(159)
700만원 이상	2.9 (0.7)	(166)	2.8 (0.7)	(106)
F	3.0*(a)		1.2(a)	

* $p < .05$, *** $p < .001$

10) 육아지원정책 증가[36]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체감을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의 육아 관련 양상 중 하나로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은 양적으로 많다'라는 점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지 4점 척도로 답한 결과가 〈표 Ⅴ-1-16〉이다. 전체 평균은 2.4점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매우 낮았다. 40대 집단에서 2.5점으로 20대(2.4점), 30대(2.3점)보다 다소 높았고, 자녀가 중학생인 경우 2.5점임에 비해 영아자녀를 둔 집단에서는 2.2점으로 차이를 보였다. 기혼의 경우(2.4점)가 미혼(2.5점) 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집단에서 이에 대한 체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된다.

양육자 개인의 수준에서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은 다양하지만 나에게 맞는 것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지에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전체 평균 3.1점으로 그런 편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의 경우(3.1점)에 남성(3점)보다 이에 대한 동의가 높았다.

〈표 Ⅴ-1-16〉 육아 관련 문화 양상- 육아지원정책

단위: 점(명)

구분	우리사회의 육아문화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은 양적으로 많다 평균(표준편차)	수	나의 육아문화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은 다양하지만 나에게 맞는 것을 찾기가 어렵다 평균(표준편차)	수
전체	2.4 (0.8)	(1,000)	3.1 (0.7)	(585)
연령대				
20대	2.4 (0.8)	(304)	3.3 (0.8)	(23)
30대	2.3 (0.8)	(320)	3.1 (0.7)	(237)
40대	2.5 (0.7)	(376)	3.0 (0.6)	(325)
F	6.5**(a)		1.6(a)	
성별				
여성	2.4 (0.8)	(485)	3.1 (0.7)	(295)
남성	2.4 (0.8)	(515)	3.0 (0.7)	(290)
t	-1.0		2.3*	
지역규모				
대도시	2.4 (0.8)	(439)	3.1 (0.6)	(248)
중소도시	2.4 (0.8)	(406)	3.1 (0.7)	(247)

36) 국민일보(2019.9.24.). 아동수당 만 7세로 확대…500세대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747839&code=61121111&cp=nv (2019.10.10. 인출)

구분	우리사회의 육아문화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은 양적으로 많다 평균(표준편차)	수	나의 육아문화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은 다양하지만 나에게 맞는 것을 찾기가 어렵다 평균(표준편차)	수
읍면지역	2.4 (0.7)	(155)	3.0 (0.7)	(90)
F	0.2		0.4	
결혼 여부				
기혼	2.4 (0.8)	(634)		
미혼	2.5 (0.8)	(366)		
t	-2.0*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2.4 (0.8)	(417)	3.0 (0.7)	(379)
맞벌이 아님	2.3 (0.8)	(217)	3.1 (0.6)	(206)
t	0.9		-1.7	
자녀연령				
영아	2.2 (0.8)	(141)	3.1 (0.7)	(141)
유아	2.3 (0.8)	(119)	3.1 (0.7)	(119)
초등학생	2.4 (0.8)	(168)	3.1 (0.7)	(168)
중학생 이상	2.5 (0.7)	(157)	3.0 (0.7)	(157)
F	4.0**		0.6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3 (0.8)	(219)	3.1 (0.8)	(66)
300~499만원	2.4 (0.8)	(386)	3.1 (0.6)	(254)
500~699만원	2.4 (0.7)	(229)	3.0 (0.7)	(159)
700만원 이상	2.4 (0.8)	(166)	3.1 (0.7)	(106)
F	0.4		0.5(a)	

* $p < .05$, ** $p < .01$

11) 육아문화 양상의 긍정성 진단

본 설문을 통해 살펴본 우리 사회 육아문화 관련 양상들이 긍정적 측면인지 부정적 측면인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표 V-1-17〉과 [그림 V-1-3]과 같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최근 아버지의 적극적 양육 참여가 증가하는 경향이다'가 93.6%, '남성의 육아휴직이 증가하고 있다' 80.6%, '온라인, 인터넷(지역맘 카페)을 통한 육아관련 정보공유가 활발하다' 78.4%, '자녀 출산 시에는 산후조리원의 이용이 보편화 되고 있다' 78%,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77.5% 등으로 구체화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 아버지의 육아 관련한 부분이 긍정적 변화임에 대한 동의를 보이며 이는 추후 그러한 방향으로의 육아문화 변화를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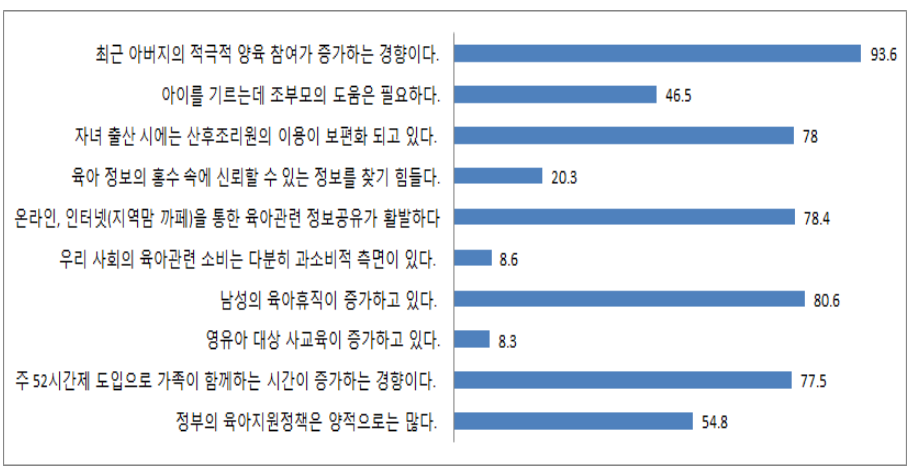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영유아 대상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다' 91.7%, '우리 사회의 육아관련 소비는 다분히 과소비적 측면이 있다' 91.4% 등으로 대표되었다.

〈표 Ⅴ-1-17〉 육아 관련 문화 양상에의 평가

단위: %

구분	긍정적 측면 이다	부정적 측면 이다
1) 최근 아버지의 적극적 양육 참여가 증가하는 경향이다.	93.6	6.4
2) 아이를 기르는데 조부모(친가, 외가 포함)의 도움(돌봄 지원 또는 경제적 지원 포함)은 필요하다.	46.5	53.5
3) 자녀 출산 시에는 산후조리원의 이용이 보편화 되고 있다.	78.0	22.0
4) 육아 정보의 홍수 속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힘들다.	20.3	79.7
5) 온라인, 인터넷(지역맘 까페)을 통한 육아관련 정보공유가 활발하다	78.4	21.6
6) 우리 사회의 육아관련 소비는 다분히 과소비적 측면이 있다.	8.6	91.4
7) 남성의 육아휴직이 증가하고 있다.	80.6	19.4
8) 영유아 대상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다.	8.3	91.7
9)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77.5	22.5
10)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은 양적으로는 많다.	54.8	45.2

[그림 Ⅴ-1-3] 육아 관련 문화 양상에의 긍정성 평가(긍정 기준)



바. 육아 관련 의견에의 평가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와의 면담과정에서 나타난 육아과정에 경험하는 일화 들을 중심으로 진술하고 4첨 척도로 그에 대한 동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노키즈 존(No-Kids Zone) 필요성, 대중교통의 이용, 공공장소에서의 반응 등등 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부터 '매우 동의한다(4점)'으로 확인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에 대한 동의가 높음이다.

'노키즈존 (No-Kids Zone)은 필요하다' 에 대해 2.9점으로 '대체로 동의한다' 에 가까운 응답을 보였다. 20대(3.1점)에서 다른 연령(2.8점)에, 미혼집단(3.1점)에서 기혼집단(2.8점)에 비해, 자녀가 있는 집단(3.1점)에서 없는 집단(2.7점)에 비해, 중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집단(2.9점)에서 이에 대한 동의가 높았다. 즉 현재 영유아 자녀를 기르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한 동의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 가능한 상황인데도 두 돌이 되지 않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2.8점으로 대체로 동의한다' 에 가까운 응답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2.7점)에서, 여성(2.7점)보다는 남성(3점)에서, 기혼 집단(2.8점)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집단(2.7점)에서 이에 대한 동의가 유의하게 낮았다. 즉 현재 주된 양육 담당자들의 동의가 낮음이다.

'예전에 비해 요즘 엄마들은 아이를 키울 때 희생을 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2.6점으로 '대체로 동의한다(3점)'과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2점)' 중간의 의견으로 수렴되었다. 이에 대해 40대(2.8점)에서, 남성(2.8점)의 경우, 기혼집단(2.7점), 중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집단(3.0점)에서 다른 경우에 비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카페에 모인 엄마들은 양육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에 대해 전체 평균 2.4점으로 '대체로 동의한다(3점)'과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2점)' 중간의 의견으로 수렴되었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40대(2.5점)에서, 여성(2.1점)보다는 남성(2.7점)이, 중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집단(2.6점)에서 다른 경우에 비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중교통 이용 시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대해 전체 평균 2.2점으로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2점)'에 가

까운 의견으로 수렴되었다. 남성의 경우(2.2점)에 여성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공공장소, 음식점 등에서 아이가 울거나 뛰는 것은 당연하므로 어른들이 참아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전체 평균 1.8점으로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2점)’ 에 가깝게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혼 집단에서 어른이 참아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Ⅴ-1-18〉 아동과 육아에 대한 우리사회의 일부 의견에 대한 평가(4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노키즈존 (No-Kids Zone)은 필요하다	양육가능상황에도 두 돌이 되지 않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전에 비해 요즘 엄마들은 아이를 키울 때 희생을 하지 않으려 한다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카페에 모인 엄마들은 양육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	대중교통 이용 시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공장소, 음식점 등에서 아이가 울거나 뛰는 것은 당연하므로 어른들이 참아야 한다	수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전체	2.9 (0.8)	2.8 (0.9)	2.6 (0.8)	2.4 (0.9)	2.2 (0.8)	1.8 (0.8)	(1,000)
연령대							
20대	3.1 (0.7)	2.9 (0.9)	2.4 (0.9)	2.3 (1.0)	2.1 (0.8)	1.7 (0.8)	(304)
30대	2.8 (0.8)	2.7 (0.9)	2.5 (0.8)	2.3 (0.9)	2.1 (0.8)	1.8 (0.7)	(320)
40대	2.8 (0.8)	2.9 (0.9)	2.8 (0.8)	2.5 (0.8)	2.2 (0.8)	1.9 (0.8)	(376)
F	13.2***(a)	7.4***	19.6***(a)	9.5***(a)	1.6	3.8*(a)	
성별							
여성	2.8 (0.7)	2.7 (0.9)	2.4 (0.9)	2.1 (0.8)	2.1 (0.8)	1.8 (0.8)	(485)
남성	2.9 (0.8)	3.0 (0.9)	2.8 (0.8)	2.7 (0.9)	2.2 (0.8)	1.8 (0.8)	(515)
t	-1.8	-4.3***	-6.7***	-11.5***	-3.0**	-0.5	
결혼 여부							
기혼	2.8 (0.8)	2.8 (0.9)	2.7 (0.8)	2.4 (0.9)	2.1 (0.8)	1.9 (0.8)	(634)
미혼	3.1 (0.7)	2.9 (0.9)	2.5 (0.9)	2.4 (1.0)	2.2 (0.8)	1.7 (0.8)	(366)
t	-6.9***	-2.4*	3.4***	0.5	-0.5	3.1**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2.8 (0.8)	2.8 (0.9)	2.7 (0.8)	2.4 (0.8)	2.2 (0.8)	1.9 (0.8)	(417)
맞벌이 아님	2.7 (0.8)	2.8 (0.9)	2.7 (0.8)	2.4 (0.9)	2.1 (0.8)	1.8 (0.7)	(217)
t	1.1	-0.2	-0.8	0.0	0.4	2.2*	

구분	노키즈존 (No-Kids Zone)은 필요하다	양육가능상황에도 두 돌이 되지 않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전에 비해 요즘 엄마들은 아이를 키울 때 희생을 하지 않으려 한다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카페에 모인 엄마들은 양육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	대중교통 이용 시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공장소, 음식점 등에서 아이가 울거나 뛰는 것은 당연하므로 어른들이 참아야 한다	수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7 (0.8)	2.8 (0.9)	2.6 (0.8)	2.4 (0.8)	2.1 (0.8)	1.9 (0.7)	(585)
자녀 없음	3.1 (0.8)	2.6 (1.0)	3.0 (0.7)	2.5 (0.9)	2.3 (0.9)	1.7 (0.8)	(49)
t	−3.1**	1.2	−2.9**	−0.8	−1.4	1.9	
자녀연령							
영아	2.7 (0.8)	2.7 (0.8)	2.5 (0.8)	2.2 (0.8)	2.1 (0.8)	1.9 (0.7)	(141)
유아	2.6 (0.8)	2.7 (0.8)	2.6 (0.9)	2.3 (0.9)	2.2 (0.8)	2.0 (0.7)	(119)
초등학생	2.7 (0.8)	2.8 (0.9)	2.6 (0.8)	2.3 (0.8)	2.1 (0.9)	1.9 (0.8)	(168)
중학생 이상	2.9 (0.7)	3.0 (0.9)	3.0 (0.7)	2.6 (0.8)	2.2 (0.8)	1.9 (0.7)	(157)
F	3.9**(a)	2.8*	10.3***(a)	9.1***	0.2	0.4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0 (0.8)	2.9 (0.9)	2.6 (0.9)	2.4 (1.0)	2.2 (0.9)	1.7 (0.8)	(219)
300~499만원	2.8 (0.8)	2.9 (0.9)	2.6 (0.8)	2.3 (0.9)	2.2 (0.8)	1.8 (0.8)	(386)
500~699만원	2.8 (0.8)	2.7 (0.9)	2.5 (0.9)	2.3 (0.9)	2.1 (0.8)	1.9 (0.8)	(229)
700만원 이상	2.9 (0.7)	2.9 (0.9)	2.6 (0.9)	2.4 (0.9)	2.1 (0.8)	1.8 (0.8)	(166)
F	4.9**	3.5*	0.9	0.9(a)	0.5	1.6	

주: 4점 척도임.
*p 〈 .05, **p 〈 .01, ***p 〈 .001

사. 온라인 소통 관련

최근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활발하고, 육아 관련 정보의 공유도 온라인을 통해 활성화됨을 고려하여 응답자들의 평소 온라인 정보이용 통로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자주 사용하는 SNS

평소 가장 자주 사용하는 SNS(Social Network Services)에 대한 응답 결과가 〈표 Ⅴ-1-19〉이다. 카카오톡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2.9%에 달해 단연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인스타그램 16.3%, 인터넷카페 12.5%, 블로그 7.9%, 페이스북 7.9% 등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은 20대, 30대, 40대 모든 연령에서 가장 사용하는 SNS이며, 20대와 30대에서는 인스타그램의 사용이 높은 것에 비해 40대에서는 인터넷카페가 차 순위를 차지하였다. 남성의 경우에는 카카오톡이 58.6%가 사용하는 주요 SNS이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카카오톡 46.8%, 인스타그램 23.1%, 인터넷카페 16.5%로 SNS의 사용이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카카오톡의 사용이 높지만 차순위로 미혼의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의 사용 비율이, 기혼의 경우에는 인터넷카페의 사용비율이 높았다. 자녀연령이 어린 집단에서 인스타그램의 사용 비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표 Ⅴ-1-19〉 평소 가장 자주 사용하는 SNS

단위: %(명)

구분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까페	블로그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기타	계(수)	
전체	52.9	16.3	12.5	7.9	7.9	1.1	1.4	100.0	(1,000)
연령대									
20대	49.7	23.0	7.6	7.9	9.2	0.0	2.6	100.0	(304)
30대	47.5	21.6	15.9	8.4	5.6	0.3	0.6	100.0	(320)
40대	60.1	6.4	13.6	7.4	8.8	2.7	1.1	100.0	(376)
$x^2(df)$	73.672(12)***								
성별									
여성	46.8	23.1	16.5	8.0	3.1	0.8	1.6	100.0	(485)
남성	58.6	9.9	8.7	7.8	12.4	1.4	1.2	100.0	(515)
$x^2(df)$	73.937(6)***								
지역규모									
대도시	52.8	18.0	9.3	8.7	8.7	1.1	1.4	100.0	(439)

구분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까페	블로그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기타	계(수)	
중소도시	53.0	14.8	15.3	7.1	6.7	1.2	2.0	100.0	(406)
읍면지역	52.9	15.5	14.2	7.7	9.0	0.6	0.0	100.0	(155)
$x^2(df)$	13.240(12)								
결혼 여부									
기혼	52.5	13.9	15.9	8.2	7.4	1.7	0.3	100.0	(634)
미혼	53.6	20.5	6.6	7.4	8.7	0.0	3.3	100.0	(366)
$x^2(df)$	44.202(6)***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56.6	12.7	13.7	8.4	6.5	1.9	0.2	100.0	(417)
맞벌이 아님	44.7	16.1	20.3	7.8	9.2	1.4	0.5	100.0	(217)
$x^2(df)$	10.917(6)								
자녀 유무									
자녀 있음	53.3	13.2	16.6	7.9	6.8	1.9	0.3	100.0	(585)
자녀 없음	42.9	22.4	8.2	12.2	14.3	0.0	0.0	100.0	(49)
$x^2(df)$	11.296(6)								
자녀연령									
영아	46.1	24.8	14.9	7.8	5.7	0.7	0.0	100.0	(141)
유아	44.5	18.5	19.3	8.4	8.4	0.0	0.8	100.0	(119)
초등학생	54.2	8.3	21.4	6.5	7.1	2.4	0.0	100.0	(168)
중학생 이상	65.6	3.8	10.8	8.9	6.4	3.8	0.6	100.0	(157)
$x^2(df)$	54.748(18)***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2.5	24.2	10.5	9.1	8.2	1.4	4.1	100.0	(219)
300~499만원	54.4	13.5	12.7	8.3	9.1	1.3	0.8	100.0	(386)
500~699만원	58.5	14.8	12.2	6.6	6.1	0.9	0.9	100.0	(229)
700만원 이상	55.4	14.5	15.1	7.2	7.2	0.6	0.0	100.0	(166)
$x^2(df)$	37.679(18)**								

** $p < .01$, *** $p < .001$

2) 육아 관련 자주 이용하는 SNS

〈표 V-1-20〉과 같이 육아 관련하여 평소 가장 자주 이용하는 SNS는 인터넷 카페라는 응답이 전체의 4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블로그 24.1%, 카카오톡 12.5%, 인스타그램 6.2%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모든 연령대에서 인터넷 카페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차순위에서는 연령별 차이가 분명하여 20대에서는 인스타그램(13%)을, 30대와 40대에서는 블로그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남성의 경우에는 육아 관련하여 블로그(29.3%)와 카카오톡(15.2%)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녀연령이 어린 집단일수록 인터넷카페의 사용비율이 높았고, 중학생 이상의

경우 블로그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Ⅴ-1-20〉 육아 관련하여 가장 자주 사용하는 SNS

단위: %(명)

구분	까페	블로그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기타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계(수)	
전체	47.5	24.1	12.5	6.2	4.3	3.2	2.2	100.0	(585)
연령대									
20대	65.2	8.7	8.7	13.0	0.0	4.3	0.0	100.0	(23)
30대	51.9	24.1	8.4	9.3	4.2	1.7	0.4	100.0	(237)
40대	43.1	25.2	15.7	3.4	4.6	4.3	3.7	100.0	(325)
$x2$(df)	33.094(12)***								
성별									
여성	58.3	19.0	9.8	6.4	4.4	1.4	0.7	100.0	(295)
남성	36.6	29.3	15.2	5.9	4.1	5.2	3.8	100.0	(290)
$x2$(df)	37.426(6)***								
지역규모									
대도시	43.5	23.4	15.3	6.9	4.4	3.2	3.2	100.0	(248)
중소도시	52.2	25.1	8.5	4.9	4.9	3.2	1.2	100.0	(247)
읍면지역	45.6	23.3	15.6	7.8	2.2	3.3	2.2	100.0	(90)
$x2$(df)	12.256(12)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45.9	25.1	13.2	6.9	3.7	2.9	2.4	100.0	(379)
맞벌이 아님	50.5	22.3	11.2	4.9	5.3	3.9	1.9	100.0	(206)
$x2$(df)	3.669(6)								
자녀연령									
영아	55.3	22.7	6.4	9.9	2.1	2.8	0.7	100.0	(141)
유아	48.7	19.3	11.8	10.9	3.4	4.2	1.7	100.0	(119)
초등학생	49.4	22.6	13.1	2.4	7.1	3.0	2.4	100.0	(168)
중학생 이상	37.6	30.6	17.8	3.2	3.8	3.2	3.8	100.0	(157)
$x2$(df)	40.008(18)**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7.6	16.7	9.1	4.5	4.5	6.1	1.5	100.0	(66)
300~499만원	47.6	22.8	13.0	4.7	5.1	3.5	3.1	100.0	(254)
500~699만원	42.8	26.4	13.8	8.8	3.1	2.5	2.5	100.0	(159)
700만원 이상	48.1	28.3	11.3	6.6	3.8	1.9	0.0	100.0	(106)
$x2$(df)	16.025(18)								

** $p < .01$, *** $p < .001$

3) 자주 사용하는 검색채널

평소 가장 자주 이용하는 검색채널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Ⅴ-1-21〉과 같다. 네이버(Naver)라는 응답이 전체의 80.8%로 열 명 중 여덟 명은 네이버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다음(Daum) 13%, 구글(Google) 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모든 연령대에서 네이버(Naver)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차 순위에서는 연령별 차이가 보여 20대에서는 구글(Google), 30대와 40대에서는 다음(Daum)이라고 답하였다. 기혼 집단에서는 다음(Daum)이, 미혼 집단에서는 구글(Google)이 네이버(Naver) 다음으로의 검색채널이라고 답하였다. 자녀의 연령이 높은 집단으로 갈수록 다음(Daum)의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Ⅴ-1-21〉 평소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검색채널

단위: %(명)

구분	네이버 (Naver)	다음 (Daum)	구글 (Google)	기타	계(수)	
전체	80.8	13.0	6.1	0.1	100.0	(1,000)
연령대						
20대	83.6	4.6	11.8	0.0	100.0	(304)
30대	87.5	9.7	2.8	0.0	100.0	(320)
40대	72.9	22.6	4.3	0.3	100.0	(376)
$x^2(df)$	76.717(6)***					
성별						
여성	84.9	11.8	3.1	0.2	100.0	(485)
남성	76.9	14.2	8.9	0.0	100.0	(515)
$x^2(df)$	18.157(3)***					
지역규모						
대도시	79.3	12.5	8.2	0.0	100.0	(439)
중소도시	82.8	13.1	4.2	0.0	100.0	(406)
읍면지역	80.0	14.2	5.2	0.6	100.0	(155)
$x^2(df)$	11.864(6)					
결혼 여부						
기혼	81.1	15.6	3.3	0.0	100.0	(634)
미혼	80.3	8.5	10.9	0.3	100.0	(366)
$x^2(df)$	32.929(3)***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79.9	16.8	3.4	0.0	100.0	(417)
맞벌이 아님	83.4	13.4	3.2	0.0	100.0	(217)
$x^2(df)$	1.300(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80.7	15.7	3.6	0.0	100.0	(585)
자녀 없음	85.7	14.3	0.0	0.0	100.0	(49)
$x^2(df)$	1.960(2)					
자녀연령						
영아	90.1	6.4	3.5	0.0	100.0	(141)

구분	네이버 (Naver)	다음 (Daum)	구글 (Google)	기타	계(수)	
유아	84.0	10.9	5.0	0.0	100.0	(119)
초등학생	78.6	18.5	3.0	0.0	100.0	(168)
중학생 이상	72.0	24.8	3.2	0.0	100.0	(157)
$x^2(df)$	22.881(6)***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79.9	10.5	9.6	0.0	100.0	(219)
300~499만원	80.6	14.2	5.2	0.0	100.0	(386)
500~699만원	85.2	9.6	5.2	0.0	100.0	(229)
700만원 이상	76.5	18.1	4.8	0.6	100.0	(166)
$x^2(df)$	18.420(9)*					

* $p < .05$, *** $p < .001$

4) 자주 시청하는 영상미디어

평소 가장 자주 시청하는 영상미디어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V-1-22〉와 같다. KBS, SBS, MBC 등 공중파 방송이라는 응답이 34.6%, 유투브(YouTube) 33%, 케이블 방송 29.9%, 기타 2.5%의 순서로 나타났다. 과거 공중파 위주의 시청에서 유투브, 케이블 방송 등 다양한 영상미디어로 확대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연령대별 선호가 분명하여 20대에서는 유투브(YouTube)가 5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케이블 방송(21.2%), 공중파 방송(18.8%)의 순서이나, 30대와 40대에서는 공중파, 케이블 방송, 유투브(YouTube)의 순서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여성들은 케이블 방송을 남성들은 유투브(YouTube)를 가장 자주 시청하였고, 미혼 집단에서는 유투브(YouTube)의 이용이 51.9%인 반면 기혼 집단에서는 공중파 방송이 43.5%로 주요 시청 미디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유투브(YouTube)의 시청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표 V-1-22〉 평소 가장 자주 시청하는 영상미디어

단위: %(명)

구분	공중파 방송 (KBS, SBS, MBC 등)	케이블 방송	유투브 (YouTube)	기타	계(수)	
전체	34.6	29.9	33.0	2.5	100.0	(1,000)
연령대						
20대	18.8	21.1	56.6	3.6	100.0	(304)
30대	37.5	35.6	24.4	2.5	100.0	(320)

구분	공중파 방송 (KBS, SBS, MBC 등)	케이블 방송	유투브 (YouTube)	기타	계(수)	
40대	44.9	32.2	21.3	1.6	100.0	(376)
x^2(df)		123.656(8)***				
성별						
여성	34.6	36.1	26.6	2.7	100.0	(485)
남성	34.6	24.1	39.0	2.4	100.0	(515)
x^2(df)		32.405(4)***				
지역규모						
대도시	33.7	29.6	34.6	2.1	100.0	(439)
중소도시	35.5	29.3	32.8	2.4	100.0	(406)
읍면지역	34.8	32.3	29.0	3.8	100.0	(155)
x^2(df)		3.640(8)				
결혼 여부						
기혼	43.5	32.6	22.1	1.8	100.0	(634)
미혼	19.1	25.1	51.9	3.9	100.0	(366)
x^2(df)		113.501(4)***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43.6	32.9	21.6	1.9	100.0	(417)
맞벌이 아님	43.3	32.3	23.0	1.4	100.0	(217)
x^2(df)		0.756(4)				
자녀 유무						
자녀 있음	43.2	32.8	22.1	1.9	100.0	(585)
자녀 없음	46.9	30.6	22.4	0.0	100.0	(49)
x^2(df)		1.134(4)				
자녀연령						
영아	41.1	36.9	19.1	2.8	100.0	(141)
유아	40.3	30.3	29.4	0.0	100.0	(119)
초등학생	44.6	33.9	18.5	3.0	100.0	(168)
중학생 이상	45.9	29.9	22.9	1.3	100.0	(157)
x^2(df)		13.693(12)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3.3	25.6	46.6	4.5	100.0	(219)
300~499만원	38.6	31.6	28.8	1.1	100.0	(386)
500~699만원	36.7	31.4	29.7	2.1	100.0	(229)
700만원 이상	37.3	29.5	29.5	3.6	100.0	(166)
x^2(df)		41.485(12)***				

*** $p < .001$

2. 가정 내 육아문화에 대한 인식

가. 부부의 평등한 육아 참여

1) 부부의 평등한 육아참여 평가

가정에서 부부의 평등한 육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게 한 결과, 응답자 전체 평균점수는 65.2점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80점 이상은 3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60점 미만이 30.1%로 나타나, 응답자 10명 중 3명은 가정 내 평등한 육아가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성별, 자녀연령별, 응답자 연령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성은 남성(69.1점)에 비하여 가정 내 평등한 육아에 대하여 61.5점으로 훨씬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가정 내 평등한 육아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녀연령이 높아질수록, 특히 중학생 이상인 경우가 가장 낮은 59.3점을 보여, 영유아기보다 학령기에 가정 내 평등한 육아가 이루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Ⅴ-2-1〉 부부의 평등한 육아참여 평가(100점 만점)

단위: %(명), 점

구분	20점 미만	20점 이상 40점 미만	40점 이상 60점 미만	60점 이상 80점 미만	80점 이상	계(수)		평균(표준편차)	
전체	3.8	8.9	17.4	32.1	37.8	100.0	(585)	65.2	(23.5)
연령대									
20대	4.3	4.3	17.4	30.4	43.5	100.0	(23)	69.8	(24.2)
30대	3.0	9.7	9.7	32.1	45.6	100.0	(237)	68.9	(23.3)
40대	4.3	8.6	23.1	32.3	31.7	100.0	(325)	62.3	(23.2)
F								6.0**	
성별									
여성	5.4	13.2	19.0	29.8	32.5	100.0	(295)	61.5	(25.7)
남성	2.1	4.5	15.9	34.5	43.1	100.0	(290)	69.1	(20.3)
t								-4.0***	
지역규모									
대도시	3.2	6.9	17.7	32.3	39.9	100.0	(248)	66.8	(23.2)
중소도시	4.5	11.7	17.8	32.4	33.6	100.0	(247)	62.8	(24.1)

구분	20점 미만	20점 이상 40점 미만	40점 이상 60점 미만	60점 이상 80점 미만	80점 이상	계(수)	평균(표준편차)
읍면지역	3.3	6.7	15.6	31.1	43.3	100.0 (90)	67.8 (22.4)
F							2.5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4.2	8.7	14.8	33.5	38.8	100.0 (379)	65.9 (23.5)
맞벌이 아님	2.9	9.2	22.3	29.6	35.9	100.0 (206)	64.0 (23.4)
t							0.9
자녀연령							
영아	1.4	7.1	11.3	31.9	48.2	100.0 (141)	71.2 (21.3)
유아	4.2	5.9	10.9	28.6	50.4	100.0 (119)	70.6 (24.2)
초등학생	2.4	10.7	23.8	35.1	28.0	100.0 (168)	62.0 (21.7)
중학생 이상	7.0	10.8	21.0	31.8	29.3	100.0 (157)	59.3 (24.6)
F							9.9***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6.1	12.1	21.2	24.2	36.4	100.0 (66)	62.1 (25.9)
300~499만원	2.8	9.1	21.3	36.2	30.7	100.0 (254)	63.8 (21.8)
500~699만원	4.4	8.8	12.6	29.6	44.7	100.0 (159)	67.5 (24.7)
700만원 이상	3.8	6.6	13.2	31.1	45.3	100.0 (106)	67.3 (23.9)
F							1.4

** $p < .01$, *** $p < .001$

2) 부부의 육아참여 정도

기혼자를 대상으로 부부의 육아참여 정도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한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 참여비율이 68.4:31.6 으로 나타났다. 앞서 가정 내 평등한 육아참여에 대한 평가와 유사하게 성별, 자녀연령대, 응답자 연령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성의 경우 부부의 육아참여에 있어 어머니의 비중을, 남성은 아버지의 육아참여 비중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응답하였다. 즉, 육아참여 정도에 있어서 남성은 여성이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스스로가 더 많이 참여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녀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버지의 육아참여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이는 자녀가 성장하여 물리적인 돌봄이 덜 필요하게 됨에 따라 아버지의 육아참여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맞벌이 가정 여부에 따른 부부의 육아참여 정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Ⅴ-2-2〉 부부의 육아참여 정도

단위: %(명)

구분	어머니의 육아참여 평균(표준편차)	아버지의 육아참여 평균(표준편차)	수
전체	68.4 (15.6)	31.6 (15.6)	(585)
연령대			
20대	65.4 (18.3)	34.6 (18.3)	(23)
30대	66.2 (15.4)	33.8 (15.4)	(237)
40대	70.3 (15.3)	29.7 (15.3)	(325)
F	5.2**	5.2**	
성별			
여성	72.0 (16.0)	28.0 (16.0)	(295)
남성	64.8 (14.3)	35.2 (14.3)	(290)
t	5.8***	-5.8***	
지역규모			
대도시	66.9 (15.5)	33.1 (15.5)	(248)
중소도시	69.9 (16.3)	30.1 (16.3)	(247)
읍면지역	68.5 (13.4)	31.5 (13.4)	(90)
F	2.3	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67.8 (14.6)	32.2 (14.6)	(379)
맞벌이 아님	69.7 (17.1)	30.3 (17.1)	(206)
t	-1.4	1.4	
자녀연령			
영아	64.9 (16.8)	35.1 (16.8)	(141)
유아	66.2 (13.3)	33.8 (13.3)	(119)
초등학생	70.3 (16.0)	29.8 (16.0)	(168)
중학생 이상	71.4 (14.7)	28.6 (14.7)	(157)
F	6.0***	6.0***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69.3 (17.9)	30.7 (17.9)	(66)
300~499만원	69.4 (15.0)	30.6 (15.0)	(254)
500~699만원	67.4 (15.0)	32.6 (15.0)	(159)
700만원 이상	67.2 (16.3)	32.8 (16.3)	(106)
F	0.8	0.8	

** $p < .01$, *** $p < .001$

3) 이상적인 부부의 육아참여 비중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부부의 이상적인 육아참여 비중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전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상적인 육아참여 비중을 각각 56.3%와 43.7%, 약 6:4 정도의 비중으로 응답하였다. 여성의 경우 이상적인 비중을 55:45로 응답한 반면, 남성은 57.5:42.5로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경

우(44.4%)가 아닌 경우(42.2%)보다 아버지의 참여 비중을 더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7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육아 참여 비중을 높게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Ⅴ-2-3〉 이상적인 부부의 육아참여 정도

단위: %(명)

구분	어머니의 육아참여 평균(표준편차)	아버지의 육아참여 평균(표준편차)	수
전체	56.3 (9.4)	43.7 (9.4)	(1,000)
연령대			
20대	55.5 (10.9)	44.5 (10.9)	(304)
30대	56.6 (8.8)	43.4 (8.8)	(320)
40대	56.6 (8.5)	43.4 (8.5)	(376)
F	1.6(a)	1.6(a)	
성별			
여성	55.0 (8.8)	45.0 (8.8)	(485)
남성	57.5 (9.8)	42.5 (9.8)	(515)
t	-4.2***	4.2***	
지역규모			
대도시	56.1 (8.9)	43.9 (8.9)	(439)
중소도시	56.4 (9.9)	43.6 (9.9)	(406)
읍면지역	56.3 (9.4)	43.7 (9.4)	(155)
F	0.1	0.1	
결혼 여부			
기혼	56.4 (8.4)	43.6 (8.4)	(634)
미혼	56.2 (10.9)	43.8 (10.9)	(366)
t	0.3	-0.3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55.6 (7.9)	44.4 (7.9)	(417)
맞벌이 아님	57.8 (9.2)	42.2 (9.2)	(217)
t	-3.1**	3.1**	
자녀연령			
영아	56.6 (9.2)	43.4 (9.2)	(141)
유아	55.8 (6.9)	44.2 (6.9)	(119)
초등학생	56.4 (9.0)	43.6 (9.0)	(168)
중학생 이상	56.4 (8.0)	43.6 (8.0)	(157)
F	0.2	0.2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7.1 (11.0)	42.9 (11.0)	(219)
300~499만원	56.7 (9.1)	43.3 (9.1)	(386)
500~699만원	54.9 (8.5)	45.1 (8.5)	(229)
700만원 이상	56.1 (9.0)	43.9 (9.0)	(166)
F	2.6*(a)	2.6*(a)	

* $p < .05$, ** $p < .01$, *** $p < .001$

나. 육아에 대한 시각

자녀가 있는 기혼가정(535명)을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육아를 바라보는 긍정적, 부정적인 시각에 대하여 4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1) 육아에 대한 긍정적 시각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다음의 4가지 항목을 포함하였다: ① 아이를 키우는 것이 행복하다(육아행복), ②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치있다 (육아가치), ③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자신있다(육아에 대한 자신감), ④ 아이를 키우며 아이 자체가 주는 기쁨이 크다(육아를 통한 기쁨).

'아이를 키우며 아이 자체가 주는 기쁨이 크다'와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치있다'가 각각 3.5점(4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행복하다'가 3.3점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자신있다'는 유일하게 3점 미만(2.6점)으로 낮게 나타나, 육아에 대한 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이 모든 항목에 있어서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평정하여, 육아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육아에 대한 자신감에 있어서 2.4점(남성은 2.8점)으로 낮게 평정하여,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차이가 큰 편이다. 한편,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아이를 키우며 아이 자체가 주는 기쁨이 크다'는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영아 3.6점〉유아 3.5점〉초등 및 중학생 이상 3.4점).

〈표 Ⅴ-2-4〉 육아에 대한 긍정적 시각에 기혼-유자녀 부모의 동의 정도(4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긍정적 시각				수
	아이를 키우는 것이 행복하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치 있다	아이를 키우는 것에 자신이 있다	아이를 키우며 아이 자체가 주는 기쁨이 크다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전체	3.3 (0.6)	3.5 (0.6)	2.6 (0.7)	3.5 (0.6)	(585)
연령대					
20대	3.3 (0.6)	3.4 (0.6)	2.5 (0.9)	3.4 (0.6)	(23)
30대	3.3 (0.7)	3.5 (0.6)	2.6 (0.8)	3.5 (0.6)	(237)
40대	3.3 (0.6)	3.5 (0.5)	2.6 (0.7)	3.4 (0.6)	(325)
F	0.3	0.8	0.1(a)	0.5	

구분	긍정적 시각				수
	아이를 키우는 것이 행복하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치 있다	아이를 키우는 것에 자신이 있다	아이를 키우며 아이 자체가 주는 기쁨이 크다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성별					
여성	3.2 (0.6)	3.5 (0.6)	2.4 (0.7)	3.4 (0.6)	(295)
남성	3.4 (0.6)	3.6 (0.6)	2.8 (0.7)	3.5 (0.6)	(290)
t	-4.2***	-2.8**	-6.5***	-3.3***	
지역규모					
대도시	3.3 (0.6)	3.5 (0.6)	2.5 (0.7)	3.4 (0.6)	(248)
중소도시	3.3 (0.6)	3.6 (0.6)	2.6 (0.7)	3.5 (0.6)	(247)
읍면지역	3.4 (0.6)	3.5 (0.5)	2.6 (0.8)	3.5 (0.5)	(90)
F	0.9	0.3	2.0	0.3	
결혼 여부					
기혼	3.3 (0.6)	3.5 (0.6)	2.6 (0.7)	3.5 (0.6)	(585)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3.3 (0.6)	3.5 (0.6)	2.6 (0.7)	3.5 (0.6)	(379)
맞벌이 아님	3.3 (0.6)	3.6 (0.6)	2.6 (0.8)	3.5 (0.6)	(206)
t	-1.0	-1.2	-0.7	0.3	
자녀연령					
영아	3.4 (0.6)	3.6 (0.5)	2.6 (0.8)	3.6 (0.5)	(141)
유아	3.4 (0.6)	3.6 (0.6)	2.6 (0.7)	3.5 (0.6)	(119)
초등학생	3.3 (0.6)	3.5 (0.6)	2.5 (0.6)	3.4 (0.6)	(168)
중학생 이상	3.2 (0.6)	3.6 (0.5)	2.6 (0.7)	3.4 (0.6)	(157)
F	3.7*	1.5(a)	0.4	5.3**(a)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3 (0.7)	3.5 (0.5)	2.6 (0.9)	3.4 (0.6)	(66)
300~499만원	3.3 (0.6)	3.5 (0.6)	2.6 (0.7)	3.4 (0.6)	(254)
500~699만원	3.3 (0.6)	3.5 (0.6)	2.6 (0.7)	3.5 (0.6)	(159)
700만원 이상	3.4 (0.6)	3.6 (0.5)	2.6 (0.7)	3.5 (0.6)	(106)
F	0.8	0.5	0.1	0.4	

주: 4점 척도임.
* $p < .05$, ** $p < .01$, *** $p < .001$

2) 육아에 대한 부정적 시각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는 다음의 4가지 항목을 포함하였다: 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다(육아의 육체적 노동), ② 아이를 키우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스럽다(육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③ 아이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④ 부모로서 양육책임을 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양육책임에 대한 부담감).

육아에 대한 육체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부담감에 대한 동의정도가 각각 3.2점과 3.1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육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2.8점, 양육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2.4점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육아에 대한 육체적인 어려움은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3점), 이는 30대가 영유아기 자녀를 두고 있는 비중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자녀연령이 낮을수록 육아에 대한 육체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응답되었다(영아 3.4점>유아 3.3.점>초등 3.1점>중학생 이상 3.0점).

앞서의 육아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달리,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모든 항목에 있어서 동의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보다 육아에 대하여 더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양육책임에 대한 부담감 및 심리적 부담감에 있어서 남성과의 차이가 큰 편이었다.

한편, 맞벌이 가정의 경우, 양육책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자녀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사교육비 등의 교육비 증대에 따라 부모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일 것이다.

<표 Ⅴ-2-5> 육아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기혼-유자녀 부모의 동의 정도(4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부정적 시각				수
	아이를 키우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스럽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	부모로서의 양육책임을 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2 (0.7)	2.8 (0.8)	3.1 (0.8)	2.4 (0.9)	(585)
연령대					
20대	3.2 (0.7)	3.1 (0.8)	3.2 (0.8)	2.8 (0.9)	(23)
30대	3.3 (0.7)	2.7 (0.9)	3.0 (0.8)	2.3 (1.0)	(237)
40대	3.1 (0.7)	2.8 (0.8)	3.1 (0.7)	2.4 (0.9)	(325)
F	9.0***(a)	1.9(a)	2.9	3.8*(a)	
성별					
여성	3.3 (0.7)	2.9 (0.8)	3.1 (0.8)	2.6 (0.9)	(295)
남성	3.1 (0.7)	2.6 (0.8)	3.0 (0.8)	2.2 (0.9)	(290)
t	3.1**	5.5***	2.2*	4.5***	
지역규모					
대도시	3.2 (0.7)	2.8 (0.8)	3.1 (0.8)	2.5 (0.9)	(248)

구분	부정적 시각				수
	아이를 키우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스럽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	부모로서의 양육책임을 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중소도시	3.2 (0.7)	2.7 (0.8)	3.1 (0.8)	2.3 (0.9)	(247)
읍면지역	3.1 (0.7)	2.7 (0.8)	3.1 (0.8)	2.3 (0.9)	(90)
F	0.9	1.1	0.1	2.6	
결혼 여부					
기혼	3.2 (0.7)	2.8 (0.8)	3.1 (0.8)	2.4 (0.9)	(585)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3.2 (0.7)	2.8 (0.8)	3.0 (0.7)	2.5 (0.9)	(379)
맞벌이 아님	3.2 (0.7)	2.7 (0.8)	3.2 (0.8)	2.3 (1.0)	(206)
t	-0.1	1.1	-1.6	2.7**	
자녀연령					
영아	3.4 (0.6)	2.7 (0.9)	2.9 (0.8)	2.3 (1.0)	(141)
유아	3.3 (0.7)	2.8 (0.8)	3.1 (0.8)	2.5 (1.0)	(119)
초등학생	3.1 (0.7)	2.8 (0.8)	3.1 (0.8)	2.4 (0.9)	(168)
중학생 이상	3.0 (0.7)	2.7 (0.8)	3.2 (0.7)	2.5 (0.8)	(157)
F	9.7***	0.6	3.7*	1.6(a)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3 (0.7)	3.0 (0.8)	3.3 (0.7)	2.5 (1.0)	(66)
300~499만원	3.1 (0.7)	2.8 (0.8)	3.1 (0.7)	2.4 (0.9)	(254)
500~699만원	3.3 (0.7)	2.8 (0.8)	3.1 (0.8)	2.4 (1.0)	(159)
700만원 이상	3.1 (0.7)	2.6 (0.8)	2.8 (0.8)	2.2 (1.0)	(106)
F	3.2*(a)	2.5	8.7***	1.6	

주: 4점 척도임
* $p < .05$, ** $p < .01$, *** $p < .001$

다. 가정 내 긍정적 육아문화를 위한 우선사항

가정 내 육아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응답자의 거의 절반(44.6%)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사용의 보편화'를 가장 높게 지적하였다. '가정 내 평등한 육아참여 실현'(19.4%), '남녀 부모역할 기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18.1%), '부모의 양육관 및 교육관의 다양성 인정'(13.0%)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에 대한 과소비문화 지양'도 4.7%로 응답되었다.

모든 연령층이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사용의 보편화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과반이 넘게(53.8%) 우선과제로 응답하였다. 20대

는 부모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40대는 가정 내 평등한 육아참여 실현이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하여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사용의 보편화를 현저히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남성 48%, 여성 41%),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가정 내 평등한 육아참여를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여성 23.7%, 남성 15.3%).

기혼 응답자(47.2%)가 미혼보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경우(유아 60.5%, 영아 53.2%)가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보다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사용의 보편화를 유의하게 높게 응답하였다.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가정 내 평등한 육아참여 실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상대적으로 높게 지적하였다.

〈표 Ⅴ-2-6〉 가정 내 육아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노력해야 할 부분

단위: %(명)

구분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사용 보편화	가족 내 공평한 육아 참여 실현	남녀 부모 역할기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부모의 양육관 및 교육관에대한 다양성 인정	육아에 대한 과소비 문화 지양	기타	계(수)	
전체	44.6	19.4	18.1	13.0	4.7	0.2	100.0	(1,000)
연령대								
20대	42.8	20.1	24.7	7.6	4.9	0.0	100.0	(304)
30대	53.8	16.6	15.0	10.0	4.4	0.3	100.0	(320)
40대	38.3	21.3	15.4	19.9	4.8	0.3	100.0	(376)
$x^2(df)$			46.187(10)***					
성별								
여성	41.0	23.7	23.1	10.5	1.6	0.0	100.0	(485)
남성	48.0	15.3	13.4	15.3	7.6	0.4	100.0	(515)
$x^2(df)$			49.684(5)***					
지역규모								
대도시	44.0	21.0	18.5	10.9	5.5	0.2	100.0	(439)
중소도시	45.6	17.7	19.2	13.8	3.4	0.2	100.0	(406)
읍면지역	43.9	19.4	14.2	16.8	5.8	0.0	100.0	(155)
$x^2(df)$			8.900(10)					
결혼 여부								
기혼	47.2	17.5	15.3	14.8	5.0	0.2	100.0	(634)
미혼	40.2	22.7	23.0	9.8	4.1	0.3	100.0	(366)
$x^2(df)$			18.293(5)**					

구분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사용 보편화	가족 내 공평한 육아 참여 실현	남녀 부모 역할기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부모의 양육관 및 교육관에대한 다양성 인정	육아에 대한 과소비 문화 지양	기타	계(수)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48.4	19.4	15.8	12.5	3.8	0.0	100.0	(417)
맞벌이 아님	44.7	13.8	14.3	19.4	7.4	0.5	100.0	(217)
$x^2(df)$	13.222(5)*							
자녀연령								
영아	53.2	13.5	12.8	12.1	8.5	0.0	100.0	(141)
유아	60.5	15.1	11.8	10.1	2.5	0.0	100.0	(119)
초등학생	42.3	17.3	19.0	14.9	6.5	0.0	100.0	(168)
중학생 이상	35.0	23.6	14.0	23.6	3.2	0.6	100.0	(157)
$x^2(df)$	38.599(15)***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1.1	19.2	22.4	13.2	3.7	0.5	100.0	(219)
300~499만원	43.0	19.4	17.1	15.0	5.2	0.3	100.0	(386)
500~699만원	50.2	20.5	14.8	8.7	5.7	0.0	100.0	(229)
700만원 이상	45.2	18.1	19.3	13.9	3.6	0.0	100.0	(166)
$x^2(df)$	14.341(15)							

* $p < .05$, ** $p < .01$, *** $p < .001$

3. 직장 내 육아환경 및 문화에 대한 인식

가. 직장 육아환경 및 문화에 대한 평가

경제활동을 하는 응답자(815명)를 대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 육아환경 및 문화가 어느 정도 육아친화적인가에 대하여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평가 및 세부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1) 직장 육아환경 및 문화에 대한 전반적 평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 육아환경 및 문화에 대한 평가는 평균 54.6점으로 60점 미만의 매우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가정 내 평등한 육아참여 (65.2점/100점 만점)에 비하여도 평균 10점 이상 낮아, 우리나라 직장 육아환경 및 문화가 육아친화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은 불과 23.7%에 불

과하며, 60점 미만이 46%를 차지하였다. 맞벌이 가정이 아닌 응답자의 경우 20점 미만이 19.0%로, 맞벌이 가정(8.7%)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80점 이상은 19.5%에 불과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전업주부인 경우 배우자의 직장문화가 육아친화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거나, 배우자 자신이 직장문화가 육아친화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응답자의 연령대별, 성별, 결혼여부, 자녀연령,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Ⅴ-3-1〉 본인/배우자 직장 육아환경 및 문화에 대한 전반적 평가(100점 만점)

단위: %(명), 점

구분	20점 미만	20점 이상 40점 미만	40점 이상 60점 미만	60점 이상 80점 미만	80점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9	11.9	22.2	30.3	23.7	100.0	(815)	54.6	(26.4)
연령대									
20대	12.6	11.4	18.6	29.9	27.5	100.0	(167)	55.8	(27.4)
30대	11.6	13.0	23.9	27.9	23.6	100.0	(301)	54.2	(27.0)
40대	11.8	11.2	22.5	32.6	21.9	100.0	(347)	54.5	(25.4)
F								0.2	
성별									
여성	12.6	11.4	20.7	30.1	25.2	100.0	(405)	55.2	(27.2)
남성	11.2	12.4	23.7	30.5	22.2	100.0	(410)	54.1	(25.6)
t								0.6	
지역규모									
대도시	12.5	11.9	21.3	32.1	22.2	100.0	(352)	54.2	(26.5)
중소도시	10.4	11.0	23.4	29.7	25.5	100.0	(337)	56.0	(25.7)
읍면지역	14.3	14.3	21.4	27.0	23.0	100.0	(126)	52.3	(28.0)
F								1.0	
결혼 여부									
기혼	12.2	11.7	22.6	30.9	22.6	100.0	(606)	54.2	(26.2)
미혼	11.0	12.4	21.1	28.7	26.8	100.0	(209)	56.0	(27.0)
t								-0.9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8.7	12.0	21.4	33.7	24.2	100.0	(401)	57.0	(25.0)
맞벌이 아님	19.0	11.2	24.9	25.4	19.5	100.0	(205)	48.5	(27.5)
t								3.8***	
자녀연령									
영아	12.4	11.7	17.5	34.3	24.1	100.0	(137)	54.8	(27.1)
유아	10.4	17.4	27.8	23.5	20.9	100.0	(115)	51.0	(25.9)
초등학생	13.8	10.0	21.9	31.3	23.1	100.0	(160)	54.4	(26.5)
중학생 이상	10.9	10.9	21.8	31.3	25.2	100.0	(147)	56.3	(25.6)
F								0.9	

구분	20점 미만	20점 이상 40점 미만	40점 이상 60점 미만	60점 이상 80점 미만	80점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5.6	11.0	26.0	26.6	20.8	100.0	(154)	51.2	(27.2)
300~499만원	12.1	13.6	23.3	29.3	21.8	100.0	(331)	53.0	(25.9)
500~699만원	10.1	9.5	21.7	34.9	23.8	100.0	(189)	57.2	(25.5)
700만원 이상	9.9	12.1	16.3	30.5	31.2	100.0	(141)	58.9	(27.1)
F								3.1*	

* $p < .05$, *** $p < .001$

2) 직장 육아환경 및 문화에 대한 세부 평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육아환경 및 문화에 대하여 〈표 Ⅴ-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9개 세부항목별로 평가하게 하였다.

‘육아기 직원에 대한 직장동료의 인식’과 ‘육아하는 직원에 대한 상사의 배려’가 각각 56.8점, 50.8점으로, 5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나머지 7개 항목은 모두 5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으며, 평균 30점에서 40점대에 있는 3개 항목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가능한 직장 내 분위기’(46.9점), ‘유연근무제 사용’(41.6점),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가족 사랑의 날’ 정시 퇴근(33.9점)이다. 특히, 나머지 4개 항목인 유실, 기저귀 갈이대 등의 직장 내 육아 편의시설(17.2점), 직장 내 보육시설(18.3점), 육아비용 지원(21.4점), 육아기 직원과 가족을 위한 문화행사(21.9점)은 20점 내외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영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비용지원에 대한 평가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한편, 맞벌이 가정이 아닌 가정에 비하여,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에 대한 평가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V-3-2〉 직장 내 육아환경 및 문화 평가 (100점 만점)

단위: 점(명)

구분	육아기 직원에 대한 직장 동료의 인식	육아하는 직원에 대한 상사의 인식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유연근무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가족 사랑의 날' 정시 퇴근 실천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직원과 가족을 위한 문화 행사	육아비용 지원	직장 내 보육시설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을 위한 편의 시설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6.8 (27.4)	50.8 (28.5)	46.9 (32.0)	41.6 (32.0)	33.9 (36.2)	21.9 (27.9)	21.4 (27.2)	18.3 (27.7)	17.2 (26.1)	(815)
연령대										
20대	59.6 (27.4)	51.7 (29.6)	45.9 (31.8)	41.2 (30.0)	32.6 (35.7)	24.6 (29.0)	25.3 (28.1)	20.6 (27.1)	20.1 (27.7)	(167)
30대	56.2 (29.0)	50.2 (30.2)	44.9 (33.3)	38.8 (33.9)	31.3 (36.9)	18.1 (26.8)	18.8 (27.1)	17.0 (28.5)	14.1 (25.2)	(301)
40대	56.0 (25.8)	51.0 (26.4)	49.0 (30.9)	44.2 (31.1)	36.9 (35.7)	24.0 (28.1)	21.7 (26.6)	18.4 (27.3)	18.5 (26.0)	(347)
F	1.1	0.2(a)	1.4	2.2(a)	2.1	4.5*(a)	3.1*	0.9	3.6*(a)	
성별										
여성	55.2 (28.8)	50.8 (29.3)	47.3 (33.3)	39.5 (32.7)	31.8 (37.1)	19.1 (26.4)	18.7 (26.1)	15.9 (26.3)	14.8 (24.6)	(405)
남성	58.5 (25.8)	50.9 (27.7)	46.4 (30.6)	43.7 (31.2)	36.0 (35.3)	24.8 (29.2)	24.1 (27.9)	20.7 (28.8)	19.6 (27.4)	(410)
t	-1.7	-0.1	0.4	-1.9	-1.6	-2.9**	-2.9**	-2.5*	-2.7**	
지역규모										
대도시	55.9 (27.8)	49.9 (28.5)	47.2 (32.6)	41.2 (32.5)	33.0 (35.7)	22.8 (28.3)	21.6 (26.7)	19.4 (27.7)	18.1 (26.4)	(352)
중소도시	57.3 (27.4)	51.0 (28.2)	47.0 (31.3)	42.1 (31.6)	34.3 (36.3)	20.9 (27.3)	20.7 (27.2)	17.2 (27.4)	16.5 (25.8)	(337)
읍면지역	58.1 (26.1)	52.9 (29.0)	45.6 (32.1)	41.3 (31.8)	35.5 (37.7)	22.2 (28.8)	22.5 28.7	18.4 (28.3)	16.7 (26.5)	(126)
F	0.4	0.5	0.1	0.1	0.2	0.4	0.2	0.5	0.3	
결혼 여부										
기혼	56.0 (27.3)	50.5 (28.0)	46.1 (31.9)	40.8 (32.3)	33.0 (36.2)	20.6 (27.5)	20.2 (26.8)	17.1 (27.3)	15.9 (25.2)	(606)
미혼	59.1 (27.5)	51.9 (29.7)	49.0 (32.2)	44.0 (31.0)	36.6 (36.1)	25.7 (29.0)	25.0 (28.1)	22.0 (28.5)	21.2 (28.5)	(209)
t	-1.4	-0.6	-1.1	-1.3	-1.3	-2.3*	-2.2*	-2.2*	-2.4*	

구분	육아기 직원에 대한 직장 동료의 인식	육아하는 직원에 대한 상사의 인식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유연근무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가족 사랑의 날' 정시 퇴근 실천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직원과 가족을 위한 문화 행사	육아비용 지원	직장 내 보육시설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을 위한 편의 시설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57.0 (27.0)	52.3 (27.9)	49.1 (32.0)	42.9 (32.5)	34.5 (36.5)	20.5 (27.1)	20.1 (26.7)	18.3 (28.2)	17.0 (25.9)	(401)
맞벌이 아님	54.2 (27.7)	46.9 (28.0)	40.2 (31.0)	36.5 (31.5)	30.0 (35.7)	20.9 (28.2)	20.3 (27.0)	14.7 (25.3)	13.7 (23.5)	(205)
t	1.2	2.2*	3.3**	2.3*	1.4	-0.1	-0.1	1.6	1.6	
자녀연령										
영아	59.2 (28.3)	53.9 (29.5)	46.1 (33.8)	40.1 (33.1)	29.7 (36.0)	16.7 (26.0)	14.8 (22.7)	14.7 (24.9)	11.8 (21.8)	(137)
유아	55.1 (26.8)	48.9 (27.2)	41.7 (32.4)	37.0 (31.8)	30.8 (37.4)	17.9 (27.9)	23.2 (30.5)	17.1 (29.7)	16.1 (26.3)	(115)
초등학생	52.9 (28.6)	48.7 (28.8)	46.8 (31.1)	41.1 (32.8)	32.6 (35.7)	22.0 (27.6)	19.4 (27.0)	16.0 (26.8)	15.0 (25.2)	(160)
중학생 이상	57.8 (24.9)	52.5 (25.9)	50.1 (31.4)	44.1 (31.3)	37.2 (35.7)	23.3 (26.8)	22.3 (25.9)	18.6 (27.1)	18.8 (25.2)	(147)
F	1.5	1.2	1.5	1.1	1.2	1.9	2.7*(a)	0.5	1.9(a)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3.5 (28.4)	46.2 (29.3)	42.1 (31.5)	38.6 (29.7)	34.1 (35.7)	21.3 (27.1)	20.7 (26.0)	18.6 (26.3)	17.3 (25.3)	(154)
300~499만원	56.0 (26.5)	50.2 (28.1)	44.6 (31.3)	38.9 (31.3)	31.2 (35.4)	21.1 (27.9)	21.0 (26.7)	17.7 (26.3)	18.0 (26.7)	(331)
500~699만원	58.8 (26.5)	53.5 (27.9)	50.2 (31.3)	44.1 (32.4)	33.8 (37.2)	21.4 (27.7)	18.3 (26.4)	15.3 (27.1)	14.4 (24.4)	(189)
700만원 이상	59.6 (29.1)	53.9 (28.8)	52.9 (33.9)	47.9 (34.3)	40.3 (36.8)	25.2 (29.5)	27.2 (30.0)	23.7 (32.3)	19.0 (27.9)	(141)
F	1.7	2.5	4.1**	3.5*	2.1	0.8	3.0*(a)	2.6(a)	1.1	

* $p < .05$, ** $p < .01$

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직장동료의 인식

육아기 자녀를 둔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직장동료의 인식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은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며 쓸 수 만 있다면 써야한다고 생각한다'가 거의 70%에 육박한다(69.6%). 반면, '육아휴직은 전체 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써야한다고 생각한다'는 25.9%이며,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나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가능하면 쓰지 않았으면 생각한다'는 4.2%로 파악되었다.

응답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대도시 지역이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보다, 미혼이 기혼보다, 맞벌이 가정이 아닌 가정보다 유의한 차이로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의 당위성에 대한 직장 내 인식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3-3〉 직장 동료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육아휴직은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며 쓸 수 만 있다면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육아휴직은 전체 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나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가능하면 쓰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한다.	기타	계(수)	
전체	69.6	25.9	4.2	0.4	100.0	(815)
연령대						
20대	76.0	21.6	2.4	0.0	100.0	(167)
30대	72.8	21.9	5.0	0.3	100.0	(301)
40대	63.7	31.4	4.3	0.6	100.0	(347)
$x^2(df)$		13.088(6)*				
성별						
여성	75.3	21.2	3.2	0.2	100.0	(405)
남성	63.9	30.5	5.1	0.5	100.0	(410)
$x^2(df)$		12.655(3)**				
지역규모						
대도시	73.6	24.1	2.3	0.0	100.0	(352)
중소도시	66.2	28.2	5.3	0.3	100.0	(337)
읍면지역	67.5	24.6	6.3	1.6	100.0	(126)
$x^2(df)$		14.645(6)*				
결혼 여부						
기혼	68.5	26.7	4.3	0.5	100.0	(606)
미혼	72.7	23.4	3.8	0.0	100.0	(209)
$x^2(df)$		2.166(3)				

구분	육아휴직은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며 쓸 수 만 있다면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육아휴직은 전체 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나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가능하면 쓰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한다.	기타	계(수)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72.3	23.4	3.7	0.5	100.0	(401)
맞벌이 아님	61.0	33.2	5.4	0.5	100.0	(205)
$x^2(df)$	8.188(3)*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68.8	27.3	3.9	0.0	100.0	(154)
300~499만원	69.8	24.5	5.1	0.6	100.0	(331)
500~699만원	69.3	26.5	4.2	0.0	100.0	(189)
700만원 이상	70.2	27.0	2.1	0.7	100.0	(141)
$x^2(df)$	4.869(9)					

* $p < .05$, ** $p < .01$

다.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지와 실제 이용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총 1,000명의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제 활용 수준은 기혼 및 유자녀 가정 5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 출산전후 휴가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

전체 응답자(총 1,000명)의 47.4%만이 출산전후 휴가제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7.8%로 나타났다. 한편, 기혼 및 유자녀 가정(총 559명)을 대상으로 실제로 출산전후 휴가제도의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35.4% 만이 사용한 적이 있거나 사용하고 있으며, 25.9%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해당 없음' 38.6%).

여성(53.0%)보다 남성(42.1%)이, 기혼이(58.4%)이 미혼(28.4%)보다,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전후 휴가제도에 대하여 유의한 수준에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맞벌이 가정의 경우, 실제 출산전후 휴가를 이용한 비중은 44.1%이나, 미이용 가정도 26.8%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Ⅴ-3-4〉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인지정도 및 기혼-유자녀 가정의 활용여부_출산 전후 휴가제도

단위: %(명)

구분	인지정도			수	활용여부			수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전혀 알지 못한다		이용	미이용	해당 없음	
전체	47.4	44.8	7.8	(1,000)	35.4	25.9	38.6	(559)
연령대								
20대	31.3	57.6	11.2	(304)	27.3	31.8	40.9	(22)
30대	61.6	32.8	5.6	(320)	46.8	20.8	32.5	(231)
40대	48.4	44.7	6.9	(376)	27.5	29.4	43.1	(306)
$x^2(df)$	58.455(4)***				22.271(4)***			
성별								
여성	53.0	41.4	5.6	(485)	39.7	24.8	35.5	(282)
남성	42.1	48.0	9.9	(515)	31.0	27.1	41.9	(277)
$x^2(df)$	14.596(2)***				4.727(2)			
지역규모								
대도시	46.7	46.5	6.8	(439)	39.2	26.3	34.6	(240)
중소도시	49.8	41.1	9.1	(406)	33.0	24.5	42.5	(233)
읍면지역	43.2	49.7	7.1	(155)	31.4	29.1	39.5	(86)
$x^2(df)$	4.926(4)				4.178(4)			
결혼 여부								
기혼	58.4	36.6	5.0	(634)				(559)
미혼	28.4	59.0	12.6	(366)				
$x^2(df)$	86.766(2)***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61.4	33.6	5.0	(417)	44.1	26.8	29.0	(365)
맞벌이 아님	52.5	42.4	5.1	(217)	19.1	24.2	56.7	(194)
$x^2(df)$	4.955(2)				47.835(2)***			
자녀연령								
영아	72.3	24.8	2.8	(141)	47.4	17.5	35.0	(137)
유아	65.5	29.4	5.0	(119)	36.5	33.0	30.4	(115)
초등학생	56.0	40.5	3.6	(168)	40.0	23.1	36.9	(160)
중학생 이상	48.4	43.9	7.6	(157)	18.4	31.3	50.3	(147)
$x^2(df)$	22.646(6)***				34.545(6)***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2.0	54.3	13.7	(219)	23.4	23.4	53.1	(64)
300~499만원	48.7	45.6	5.7	(386)	28.2	29.5	42.3	(241)
500~699만원	53.7	38.9	7.4	(229)	38.3	24.7	37.0	(154)
700만원 이상	56.0	38.6	5.4	(166)	56.0	21.0	23.0	(100)
$x^2(df)$	36.623(6)***				31.546(6)***			

*** $p < .001$

2)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

전체 응답자(총 1,000명)의 47.8%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11.6%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44.4%는 사용한 적이 있었으며, 32.7%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해당 없음' 22.9%).

30대가 40대와 20대보다, 기혼이 미혼보다,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이 학령기 자녀 가정보다, 월등하게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Ⅴ-3-5〉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인지정도 및 기혼-유자녀 가정의 활용여부_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단위: %(명)

구분	인지정도			수	활용여부			수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전혀 알지 못한다		이용	미이용	해당 없음	
전체	47.8	40.6	11.6	(1,000)	44.4	32.7	22.9	(559)
연령대								
20대	29.3	49.7	21.1	(304)	45.5	40.9	13.6	(22)
30대	65.0	28.4	6.6	(320)	61.0	26.0	13.0	(231)
40대	48.1	43.6	8.2	(376)	31.7	37.3	31.0	(306)
$x^2(df)$	94.366(4)***				50.736(4)***			
성별								
여성	49.1	41.4	9.5	(485)	38.3	35.1	26.6	(282)
남성	46.6	39.8	13.6	(515)	50.5	30.3	19.1	(277)
$x^2(df)$	4.117(2)				9.096(2)*			
지역규모								
대도시	46.9	41.2	11.8	(439)	45.0	32.1	22.9	(240)
중소도시	49.5	38.7	11.8	(406)	42.5	34.3	23.2	(233)
읍면지역	45.8	43.9	10.3	(155)	47.7	30.2	22.1	(86)
$x^2(df)$	1.529(4)				0.829(4)			
결혼 여부								
기혼	60.7	34.1	5.2	(634)	44.4	32.7	22.9	(559)
미혼	25.4	51.9	22.7	(366)				
$x^2(df)$	139.811(2)***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59.7	34.8	5.5	(417)	42.7	35.9	21.4	(365)
맞벌이 아님	62.7	32.7	4.6	(217)	47.4	26.8	25.8	(194)
$x^2(df)$	0.608(2)				4.893(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1	33.5	4.4	(585)	44.4	32.7	22.9	(559)
자녀 없음	44.9	40.8	14.3	(49)				
$x^2(df)$	11.313(2)**							

구분	인지정도			수	활용여부			수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전혀 알지 못한다		이용	미이용	해당 없음	
자녀연령								
영아	75.2	23.4	1.4	(141)	60.6	28.5	10.9	(137)
유아	76.5	21.0	2.5	(119)	60.0	27.8	12.2	(115)
초등학생	58.9	39.3	1.8	(168)	46.9	31.9	21.3	(160)
중학생 이상	42.7	45.9	11.5	(157)	14.3	41.5	44.2	(147)
$x^2(df)$	60.313(6)***				93.446(6)***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2.9	45.7	21.5	(219)	50.0	25.0	25.0	(64)
300~499만원	50.8	40.7	8.5	(386)	41.9	35.3	22.8	(241)
500~699만원	53.3	37.1	9.6	(229)	46.8	28.6	24.7	(154)
700만원 이상	53.0	38.6	8.4	(166)	43.0	38.0	19.0	(100)
$x^2(df)$	39.211(6)***				5.331(6)			

* $p < .05$, ** $p < .01$, *** $p < .001$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

출산휴가제도에 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비중은 31.7%로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전혀 알지 못한다'는 비중이 28.5%로 응답자의 1/3에 육박한다.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응답자는 8.8%이며, 54.7%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해당 없음' 36.5%). 30대가 40대와 20대보다, 기혼이 미혼보다,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이 영유아기 자녀 가정보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맞벌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비중이 11.5%에 불과하며 과반이 넘는 56.7%는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Ⅴ-3-6〉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인지정도 및 기혼-유자녀 가정의 활용여부_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단위: %(명)

구분	인지정도			수	활용여부			수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전혀 알지 못한다		이용	미이용	해당 없음	
전체	31.7	39.8	28.5	(1,000)	8.8	54.7	36.5	(559)
연령대								
20대	17.1	34.9	48.0	(304)	9.1	68.2	22.7	(22)
30대	44.7	35.0	20.3	(320)	13.9	57.6	28.6	(231)

구분	인지정도			수	활용여부			수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전혀 알지 못한다		이용	미이용	해당 없음	
40대	32.4	47.9	19.7	(376)	4.9	51.6	43.5	(306)
$x^2(df)$	105.844(4)***				22.828(4)***			
성별								
여성	35.7	41.0	23.3	(485)	8.9	52.5	38.7	(282)
남성	28.0	38.6	33.4	(515)	8.7	57.0	34.3	(277)
$x^2(df)$	13.980(2)***				1.263(2)			
지역규모								
대도시	31.7	42.8	25.5	(439)	9.6	55.8	34.6	(240)
중소도시	33.7	35.5	30.8	(406)	7.3	54.5	38.2	(233)
읍면지역	26.5	42.6	31.0	(155)	10.5	52.3	37.2	(86)
$x^2(df)$	7.558(4)				1.624(4)			
결혼 여부								
기혼	41.0	40.4	18.6	(634)	8.8	54.7	36.5	(559)
미혼	15.6	38.8	45.6	(366)				
$x^2(df)$	106.931(2)***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43.4	41.0	15.6	(417)	11.5	56.7	31.8	(365)
맞벌이 아님	36.4	39.2	24.4	(217)	3.6	51.0	45.4	(194)
$x^2(df)$	7.812(2)*				16.164(2)***			
자녀연령								
영아	54.6	28.4	17.0	(141)	12.4	58.4	29.2	(137)
유아	47.1	37.0	16.0	(119)	11.3	64.3	24.3	(115)
초등학생	38.7	44.0	17.3	(168)	10.6	51.3	38.1	(160)
중학생 이상	29.3	48.4	22.3	(157)	1.4	47.6	51.0	(147)
$x^2(df)$	23.058(6)***				32.002(6)***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1.9	37.9	40.2	(219)	10.9	43.8	45.3	(64)
300~499만원	32.1	39.4	28.5	(386)	6.2	56.4	37.3	(241)
500~699만원	37.1	36.7	26.2	(229)	8.4	54.5	37.0	(154)
700만원 이상	36.1	47.6	16.3	(166)	14.0	58.0	28.0	(100)
$x^2(df)$	32.726(6)***				10.398(6)			

* $p < .05$, *** $p < .001$

4)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비중이 40.2%,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19.9%로 조사되었다. 한편,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16.5%에 불과하며, 53.0%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없음' 30.6%).

〈표 Ⅴ-3-7〉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인지정도 및 기혼-유자녀 가정의 활용여부_육아휴직제도

단위: %(명)

구분	인지정도			수	활용여부			수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전혀 알지 못한다		이용	미이용	해당 없음	
전체	40.2	39.9	19.9	(1,000)	16.5	53.0	30.6	(559)
연령대								
20대	30.3	46.1	23.7	(304)	22.7	50.0	27.3	(22)
30대	52.2	33.1	14.7	(320)	22.9	56.3	20.8	(231)
40대	38.0	40.7	21.3	(376)	11.1	50.7	38.2	(306)
$x^2(df)$	32.885(4)***				25.763(4)***			
성별								
여성	45.4	37.1	17.5	(485)	18.4	47.9	33.7	(282)
남성	35.3	42.5	22.1	(515)	14.4	58.1	27.4	(277)
$x^2(df)$	10.740(2)**				5.916(2)			
지역규모								
대도시	43.1	40.3	16.6	(439)	19.6	53.3	27.1	(240)
중소도시	38.4	37.9	23.6	(406)	15.0	51.9	33.0	(233)
읍면지역	36.8	43.9	19.4	(155)	11.6	54.7	33.7	(86)
$x^2(df)$	7.932(4)				4.735(4)			
결혼 여부								
기혼	47.8	35.2	17.0	(634)	16.5	53.0	30.6	(559)
미혼	27.0	48.1	24.9	(366)				
$x^2(df)$	41.681(2)***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50.4	34.8	14.9	(417)	20.3	52.1	27.7	(365)
맞벌이 아님	42.9	35.9	21.2	(217)	9.3	54.6	36.1	(194)
$x^2(df)$	5.094(2)				12.395(2)**			
자녀연령								
영아	60.3	29.8	9.9	(141)	24.1	56.2	19.7	(137)
유아	59.7	26.1	14.3	(119)	20.0	60.9	19.1	(115)
초등학생	46.4	35.1	18.5	(168)	17.5	51.9	30.6	(160)
중학생 이상	31.2	42.7	26.1	(157)	5.4	44.9	49.7	(147)
$x^2(df)$	35.432(6)***				47.853(6)***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6.5	45.2	28.3	(219)	9.4	45.3	45.3	(64)
300~499만원	42.5	37.0	20.5	(386)	14.9	53.5	31.5	(241)
500~699만원	44.5	39.7	15.7	(229)	18.2	51.3	30.5	(154)
700만원 이상	47.0	39.8	13.3	(166)	22.0	59.0	19.0	(100)
$x^2(df)$	29.605(6)***				14.921(6)*			

* $p < .05$, ** $p < .01$, *** $p < .001$

5) 시간제 근로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

시간제 근로제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비중이 26.5%,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25.9%로 나타났다. 한편, 시간제 근로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불과 5.2%에 불과하며 56.5%가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없음' 38.3%).

앞서 결과와 유사하게 여성(30.5%)이 남성(22.7%)보다, 기혼이 미혼보다, 맞벌이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시간제 근무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실제 제도 이용은 초등학생을 둔 부모가 다른 연령층 자녀를 둔 부모에 비하여 가장 이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표 Ⅴ-3-8〉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인지정도 및 기혼-유자녀 가정의 활용여부_시간제 근로제도

단위: %(명)

구분	인지정도			수	활용여부			수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전혀 알지 못한다		이용	미이용	해당 없음	
전체	26.5	47.6	25.9	(1,000)	5.2	56.5	38.3	(559)
연령대								
20대	15.5	44.7	39.8	(304)	9.1	72.7	18.2	(22)
30대	35.9	44.7	19.4	(320)	7.8	61.0	31.2	(231)
40대	27.4	52.4	20.2	(376)	2.9	52.0	45.1	(306)
$x^2(df)$	60.400(4)***				18.714(4)***			
성별								
여성	30.5	48.0	21.4	(485)	6.0	51.4	42.6	(282)
남성	22.7	47.2	30.1	(515)	4.3	61.7	33.9	(277)
$x^2(df)$	12.991(2)**				6.116(2)*			
지역규모								
대도시	26.7	47.2	26.2	(439)	5.0	56.7	38.3	(240)
중소도시	27.1	47.5	25.4	(406)	5.6	55.8	38.6	(233)
읍면지역	24.5	49.0	26.5	(155)	4.7	58.1	37.2	(86)
$x^2(df)$	0.451(4)				0.229(4)			
결혼 여부								
기혼	33.4	49.1	17.5	(634)	5.2	56.5	38.3	(559)
미혼	14.5	45.1	40.4	(366)				
$x^2(df)$	79.342(2)***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35.5	48.7	15.8	(417)	6.8	58.9	34.2	(365)
맞벌이 아님	29.5	49.8	20.7	(217)	2.1	52.1	45.9	(194)
$x^2(df)$	3.536(2)				11.121(2)**			

구분	인지정도			수	활용여부			수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전혀 알지 못한다		이용	미이용	해당 없음	
자녀 유무								
자녀 있음	34.5	49.1	16.4	(585)	5.2	56.5	38.3	(559)
자녀 없음	20.4	49.0	30.6	(49)				
$x^2(df)$	7.905(2)*							
자녀연령								
영아	41.8	48.9	9.2	(141)	5.8	62.0	32.1	(137)
유아	37.0	47.9	15.1	(119)	5.2	67.8	27.0	(115)
초등학생	32.7	51.2	16.1	(168)	7.5	51.3	41.3	(160)
중학생 이상	28.0	47.8	24.2	(157)	2.0	48.3	49.7	(147)
$x^2(df)$	15.097(6)*				21.003(6)**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0.5	42.9	36.5	(219)	1.6	46.9	51.6	(64)
300~499만원	26.2	48.4	25.4	(386)	5.8	55.6	38.6	(241)
500~699만원	31.9	46.3	21.8	(229)	5.8	58.4	35.7	(154)
700만원 이상	27.7	53.6	18.7	(166)	5.0	62.0	33.0	(100)
$x^2(df)$	22.345(6)**				7.605(6)			

* $p < .05$, ** $p < .01$, *** $p < .001$

6) 시차출근제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

응답자의 27.1%는 시차출근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26.4%로 나타났다. 시차출근제를 이용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8.4%이며, 54.4%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없음' 37.2%). 시차출근제는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실제 이용수준도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기 가정의 미이용 수준이 상당히 높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유아 65.2%〉영아 57.7%).

〈표 Ⅴ-3-9〉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인지정도 및 기혼-유자녀 가정의 활용여부_시차출근제

단위: %(명)

구분	인지정도			수	활용여부			수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전혀 알지 못한다		이용	미이용	해당 없음	
전체	27.1	46.5	26.4	(1,000)	8.4	54.4	37.2	(559)
연령대								
20대	15.8	46.1	38.2	(304)	9.1	72.7	18.2	(22)

구분	인지정도			수	활용여부			수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전혀 알지 못한다		이용	미이용	해당 없음	
30대	36.3	43.4	20.3	(320)	10.8	58.4	30.7	(231)
40대	28.5	49.5	22.1	(376)	6.5	50.0	43.5	(306)
$x^2(df)$	48.939(4)***				13.991(4)**			
성별								
여성	29.7	45.4	24.9	(485)	8.5	49.3	42.2	(282)
남성	24.7	47.6	27.8	(515)	8.3	59.6	32.1	(277)
$x^2(df)$	3.347(2)				6.528(2)*			
지역규모								
대도시	28.5	47.6	23.9	(439)	11.3	51.7	37.1	(240)
중소도시	26.8	43.8	29.3	(406)	6.0	55.8	38.2	(233)
읍면지역	23.9	50.3	25.8	(155)	7.0	58.1	34.9	(86)
$x^2(df)$	4.479(4)				4.932(4)			
결혼 여부								
기혼	34.5	46.5	18.9	(634)	8.4	54.4	37.2	(559)
미혼	14.2	46.4	39.3	(366)				
$x^2(df)$	72.046(2)***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36.0	46.0	18.0	(417)	10.1	56.2	33.7	(365)
맞벌이 아님	31.8	47.5	20.7	(217)	5.2	51.0	43.8	(194)
$x^2(df)$	1.353(2)				7.837(2)*			
자녀연령								
영아	44.0	44.7	11.3	(141)	10.9	57.7	31.4	(137)
유아	38.7	45.4	16.0	(119)	11.3	65.2	23.5	(115)
초등학생	34.5	50.6	14.9	(168)	8.1	51.9	40.0	(160)
중학생 이상	26.1	43.3	30.6	(157)	4.1	45.6	50.3	(147)
$x^2(df)$	26.129(6)***				24.743(6)***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6.9	44.7	38.4	(219)	6.3	43.8	50.0	(64)
300~499만원	28.8	45.6	25.6	(386)	6.2	56.8	36.9	(241)
500~699만원	28.8	51.1	20.1	(229)	6.5	57.1	36.4	(154)
700만원 이상	34.3	44.6	21.1	(166)	18.0	51.0	31.0	(100)
$x^2(df)$	30.822(6)***				19.246(6)**			

* $p < .05$, ** $p < .01$, *** $p < .001$

7)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

탄력적 근로시간에 대하여 응답자의 34.4%가 잘 알고 있으며,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15.0%로 나타났다. 실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7.9%이며, 53.0%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없음'

39.2%).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실제 이용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Ⅴ-3-10〉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인지정도 및 기혼-유자녀 가정의 활용여부_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명)

구분	인지정도			수	활용여부			수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전혀 알지 못한다		이용	미이용	해당 없음	
전체	34.4	50.6	15.0	(1,000)	7.9	53.0	39.2	(559)
연령대								
20대	30.9	50.0	19.1	(304)	13.6	68.2	18.2	(22)
30대	41.3	45.6	13.1	(320)	11.3	54.5	34.2	(231)
40대	31.4	55.3	13.3	(376)	4.9	50.7	44.4	(306)
$x^2(df)$	14.519(4)**				15.201(4)**			
성별								
여성	36.3	49.1	14.6	(485)	6.4	48.9	44.7	(282)
남성	32.6	52.0	15.3	(515)	9.4	57.0	33.6	(277)
$x^2(df)$	1.493(2)				7.734(2)*			
지역규모								
대도시	35.1	50.8	14.1	(439)	9.2	51.3	39.6	(240)
중소도시	34.7	48.8	16.5	(406)	7.7	53.6	38.6	(233)
읍면지역	31.6	54.8	13.5	(155)	4.7	55.8	39.5	(86)
$x^2(df)$	2.298(4)				1.967(4)			
결혼 여부								
기혼	38.2	49.1	12.8	(634)	7.9	53.0	39.2	(559)
미혼	27.9	53.3	18.9	(366)				
$x^2(df)$	13.689(2)**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39.3	48.4	12.2	(417)	8.8	54.0	37.3	(365)
맞벌이 아님	35.9	50.2	13.8	(217)	6.2	51.0	42.8	(194)
$x^2(df)$	0.805(2)				2.266(2)			
자녀연령								
영아	44.0	46.8	9.2	(141)	8.0	56.2	35.8	(137)
유아	45.4	42.9	11.8	(119)	11.3	62.6	26.1	(115)
초등학생	36.9	51.2	11.9	(168)	8.1	50.0	41.9	(160)
중학생 이상	29.9	53.5	16.6	(157)	4.8	45.6	49.7	(147)
$x^2(df)$	10.921(6)				17.474(6)**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7.4	49.8	22.8	(219)	6.3	43.8	50.0	(64)
300~499만원	35.5	50.8	13.7	(386)	6.2	55.2	38.6	(241)
500~699만원	37.1	49.8	13.1	(229)	9.7	53.9	36.4	(154)
700만원 이상	37.3	52.4	10.2	(166)	10.0	52.0	38.0	(100)
$x^2(df)$	16.763(6)*				5.879(6)			

* $p < .05$, ** $p < .01$

8) 재택근무제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

응답자의 27.6%는 재택근무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24.6%로 나타났다. 재택근무제를 이용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3.2%에 불과하며, 52.6%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없음' 44.2%)

〈표 Ⅴ-3-11〉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인지정도 및 기혼-유자녀 가정의 활용여부_재택근무제

단위: %(명)

구분	인지정도			수	활용여부			수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전혀 알지 못한다		이용	미이용	해당 없음	
전체	27.6	47.8	24.6	(1,000)	3.2	52.6	44.2	(559)
연령대								
20대	25.0	46.4	28.6	(304)	13.6	63.6	22.7	(22)
30대	34.1	40.3	25.6	(320)	3.9	57.6	38.5	(231)
40대	24.2	55.3	20.5	(376)	2.0	48.0	50.0	(306)
$x^2(df)$	20.216(4)***				18.362(4)**			
성별								
여성	30.5	44.9	24.5	(485)	3.5	48.2	48.2	(282)
남성	24.9	50.5	24.7	(515)	2.9	57.0	40.1	(277)
$x^2(df)$	4.504(2)				4.354(2)			
지역규모								
대도시	29.2	47.6	23.2	(439)	4.6	52.5	42.9	(240)
중소도시	26.8	48.0	25.1	(406)	1.7	52.4	45.9	(233)
읍면지역	25.2	47.7	27.1	(155)	3.5	53.5	43.0	(86)
$x^2(df)$	1.582(4)				3.329(4)			
결혼 여부								
기혼	31.4	47.5	21.1	(634)	3.2	52.6	44.2	(559)
미혼	21.0	48.4	30.6	(366)				
$x^2(df)$	17.495(2)***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33.3	46.0	20.6	(417)	3.8	54.8	41.4	(365)
맞벌이 아님	27.6	50.2	22.1	(217)	2.1	48.5	49.5	(194)
$x^2(df)$	2.147(2)				4.094(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32.6	48.2	19.1	(585)	3.2	52.6	44.2	(559)
자녀 없음	16.3	38.8	44.9	(49)				
$x^2(df)$	18.872(2)***							
자녀연령								
영아	40.4	39.0	20.6	(141)	3.6	56.2	40.1	(137)
유아	36.1	44.5	19.3	(119)	5.2	61.7	33.0	(115)
초등학생	28.0	56.5	15.5	(168)	3.8	48.8	47.5	(160)

구분	인지정도			수	활용여부			수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전혀 알지 못한다		이용	미이용	해당 없음	
중학생 이상	28.0	50.3	21.7	(157)	0.7	46.3	53.1	(147)
$x^2(df)$	12.433(6)				15.083(6)*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5.1	47.0	27.9	(219)	6.3	42.2	51.6	(64)
300~499만원	28.0	47.4	24.6	(386)	4.1	52.3	43.6	(241)
500~699만원	29.3	49.3	21.4	(229)	1.9	55.2	42.9	(154)
700만원 이상	27.7	47.6	24.7	(166)	1.0	56.0	43.0	(100)
$x^2(df)$	2.792(6)				7.419(6)			

* $p < .05$, ** $p < .01$, *** $p < .001$

다. 긍정적 직장육아문화를 위한 우선 노력사항

직장 내 육아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사용 의무화'가 44.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회사경영진의 인식 개선(34.0%)으로, 이 두 가지가 78.6%를 차지하였다. 이외에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언론 홍보(9.4%), 동료 간의 육아친화적 분위기 조성(6.9%). 남녀임금 격차해소(4.1%)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여성 48%, 남성 41.4%),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사용 의무화'를 유의하게 높게 응답하였다.

〈표 Ⅴ-3-12〉 긍정적 직장육아문화로의 변화를 위해 중요하게 노력해야 할 부분

단위: %(명)

구분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 의무화	회사 경영진 인식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언론 홍보	동료 간 육아 친화 분위기 조성	남녀 임금 격차 해소	기타	계(수)	
전체	44.6	34.0	9.4	6.9	4.1	1.0	100.0	(1,000)
연령대								
20대	41.1	32.2	11.2	8.9	5.6	1.0	100.0	(304)
30대	48.1	35.9	6.6	4.4	3.8	1.3	100.0	(320)
40대	44.4	33.8	10.4	7.4	3.2	0.8	100.0	(376)
$x^2(df)$	14.213(10)							
성별								
여성	48.0	30.9	8.9	5.6	6.4	0.2	100.0	(485)

구분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 의무화	회사 경영진 인식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언론 홍보	동료 간 육아 친화 분위기 조성	남녀 임금 격차 해소	기타	계(수)	
남성	41.4	36.9	9.9	8.2	1.9	1.7	100.0	(515)
$x^2(df)$			25.824(5)***					
지역규모								
대도시	43.3	34.2	9.3	6.6	5.7	0.9	100.0	(439)
중소도시	46.8	33.5	8.9	7.4	2.7	0.7	100.0	(406)
읍면지역	42.6	34.8	11.0	6.5	3.2	1.9	100.0	(155)
$x^2(df)$			8.184(10)					
결혼 여부								
기혼	46.8	34.1	8.5	6.0	3.6	0.9	100.0	(634)
미혼	40.7	33.9	10.9	8.5	4.9	1.1	100.0	(366)
$x^2(df)$			6.451(5)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48.2	33.8	8.2	5.0	4.1	0.7	100.0	(417)
맞벌이 아님	44.2	34.6	9.2	7.8	2.8	1.4	100.0	(217)
$x^2(df)$			3.896(5)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0.6	33.3	12.8	7.3	5.0	0.9	100.0	(219)
300~499만원	43.8	37.8	9.1	5.2	3.1	1.0	100.0	(386)
500~699만원	45.4	33.6	4.4	10.0	5.2	1.3	100.0	(229)
700만원 이상	50.6	26.5	12.7	6.0	3.6	0.6	100.0	(166)
$x^2(df)$			25.271(15)*					

*** $p < .001$

4.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요건

사회의 육아문화에는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이 공존한다. 육아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정적 요소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육아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 요소와 힘나게 하는 긍정적 요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가. 육아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 요소

1차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워크숍과 심층면담 등을 통해 구체화된 육아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 요인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5점 척도로 그 동의 정도를 살펴 본 결과가 〈표 V-4-1〉이다. 전체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정적 요소 중 ‘아이를

키우는 구성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직장 문화'에 대한 동의가 4.2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부족'이 4.1점, '아이 기르는 일' 에 대한 가치 저평가 4점, 영유아 대상 사교육 증가 4점, 육아환경의 위험성 증가(미세먼지, 수질오염 등) 3.9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문항별로 집단 차이를 살펴보면 '아이를 키우는 구성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직장 문화는 육아를 어렵게 한다.'에 대해 20대에서 이에 대한 동의가 4.3점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4.3점)이 남성(4.1점)보다 높은 동의를 보였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부족은 육아를 어렵게 한다.' 에 대해서는 영유아 자녀를 둔 것으로 보이는 30대(4.2점)에서 이에 대한 동의가 높았고, 여성(4.2점)이 남성(4점)보다, 기혼 집단(4.2점)에서 미혼 집단(4점)보다, 영아자녀를 둔 집단(4.4점)과 유아자녀를 둔 집단(4.2점)에서 이를 부정적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아이 기르는 일에 대한 가치 저평가가 육아를 어렵게 한다.'에 대해서는 여성(4.2점)이 남성(3.9점)보다, 기혼 집단(4.1점)에서 미혼 집단(3.9점)보다 이에 대한 동의가 높아 대체로 현재 육아 담당자의 부정적 요소 체감이 높음을 보여준다. '영유아 대상 사교육 증가는 육아를 어렵게 한다.'에 대해서는 거의 집단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미혼집단(4.1점)에서 기혼집단(3.9점) 보다 다소 이에 대한 동의가 높았다.

'육아환경의 위험성 증가(미세먼지, 수질오염 등)는 육아를 어렵게 한다.'에 대해서는 그 동의 정도가 30대에서 4.1점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4점)이 남성(3.8점)보다, 기혼 집단(4.1점)에서 미혼 집단(3.7점)보다, 영아자녀를 둔 집단(4.4점)과 유아자녀를 둔 집단(4.2점)에서 이를 부정적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에 비해 소득 300만원 이하 집단에서 이에 대한 체감이 낮았다.

'아이에 대한 배려 부족은 육아를 어렵게 한다.'에 대해서도 그 동의 정도가 30대에서 4.0점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3.9점)이 남성(3.8점)보다, 기혼 집단(3.9점)에서 미혼 집단(3.7점)보다, 영아자녀를 둔 집단(4.1점)과 유아자녀를 둔 집단(4점)에서 이를 더 부정적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양성 불평등한 사회분위기는 육아를 어렵게 한다.'에 대해서는 여성(4.2점)이 남성(3.5점)보다, 기혼 집단(3.9점)에서 미혼 집단(3.7점)보다 이를 부정적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육아용품에 대한 과소비는 육아를 어렵게 한다.'에 대해서는 집단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비용지원 부족

은 육아를 어렵게 한다.'에 대해서는 40대에서 그 동의정도가 3.6점으로 다른 연령대(3.8점)에 비해 낮았고, 영아자녀를 둔 집단에서는 그 동의정도가 4점으로 이를 부정적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월평균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는 이에 대한 동의가 3.5점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시설 및 공간 부족은 육아를 어렵게 한다.'에 대해서는 30대(3.8점)에서 가장 그 동의정도가 높았고, 기혼 집단(3.8점)에서 미혼 집단(3.5점)보다, 영유아 자녀를 둔 경우(4점) 이를 부정적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영유아자녀를 양육하는 30대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미혼보다는 기혼집단에서 육아를 어렵게 하는 부정적 요소에 대한 체감이 높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 V-4-1〉 육아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 요소에 대한 동의 정도(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아이를 키우는 구성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직장 문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부족	'아이 기르는 일'에 대한 가치 저평가	영유아 대상 사교육 증가	육아환경의 위험성 증가(미세먼지, 수질오염 등)	'아이'에 대한 배려 부족	양성 불평등한 사회분위기	육아용품에 대한 과소비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비용지원 부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시설 및 공간 부족	수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전체	4.2 (0.7)	4.1 (0.8)	4.0 (0.8)	4.0 (0.9)	3.9 (0.9)	3.8 (0.8)	3.8 (1.0)	3.8 (0.9)	3.7 (1.0)	3.7 (0.8)	(1,000)
연령대											
20대	4.3 (0.8)	4.1 (0.9)	4.0 (0.9)	4.1 (0.9)	3.8 (1.0)	3.8 (0.8)	3.7 (1.2)	3.8 (1.0)	3.8 (1.0)	3.6 (0.9)	(304)
30대	4.2 (0.7)	4.2 (0.8)	4.1 (0.8)	3.9 (0.9)	4.1 (0.9)	4.0 (0.7)	3.9 (0.9)	3.8 (0.9)	3.8 (0.9)	3.8 (0.8)	(320)
40대	4.1 (0.7)	4.1 (0.8)	4.0 (0.8)	4.0 (0.9)	3.9 (0.9)	3.8 (0.8)	3.9 (0.9)	3.8 (0.9)	3.6 (1.0)	3.7 (0.8)	(376)
F	4.5*(a)	3.2*(a)	1.8	2.6	9.0***(a)	4.7**(a)	1.9(a)	0.2	4.6*	9.6***(a)	
성별											
여성	4.3 (0.7)	4.2 (0.8)	4.2 (0.7)	4.0 (0.9)	4.0 (0.9)	3.9 (0.7)	4.2 (0.8)	3.7 (0.9)	3.7 (0.9)	3.7 (0.8)	(485)
남성	4.1 (0.8)	4.0 (0.9)	3.9 (0.9)	4.0 (0.9)	3.8 (0.9)	3.8 (0.8)	3.5 (1.1)	3.8 (0.9)	3.7 (1.0)	3.7 (0.9)	(515)
t	4.0***	3.3**	5.6***	-1.2	4.1***	3.0**	12.6***	-1.5	0.4	0.4	
결혼 여부											
기혼	4.2 (0.7)	4.2 (0.8)	4.1 (0.8)	3.9 (0.9)	4.1 (0.8)	3.9 (0.8)	3.9 (0.9)	3.8 (0.9)	3.7 (1.0)	3.8 (0.8)	(634)
미혼	4.2 (0.8)	4.0 (0.9)	3.9 (0.9)	4.1 (0.9)	3.7 (1.0)	3.7 (0.8)	3.7 (1.2)	3.8 (0.9)	3.7 (1.0)	3.5 (0.8)	(366)
t	0.5	3.7***	3.6***	-2.3*	5.7***	4.6***	3.7***	-0.9	0.4	5.4***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4.2 (0.7)	4.2 (0.8)	4.1 (0.8)	3.9 (0.9)	4.1 (0.9)	3.9 (0.8)	3.9 (0.9)	3.7 (0.9)	3.7 (1.0)	3.8 (0.8)	(417)
맞벌이 아님	4.2 (0.7)	4.2 (0.8)	4.2 (0.7)	4.0 (0.9)	4.0 (0.8)	3.9 (0.8)	3.9 (0.9)	3.8 (0.9)	3.7 (1.0)	3.8 (0.8)	(217)
t	0.1	0.8	-1.7	-0.3	0.2	0.1	0.3	-1.3	-0.3	0.0	

구분	아이를 키우는 구성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직장 문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부족	'아이 기르는 일'에 대한 가치 저평가	영유아 대상 사교육 증가	육아환경의 위험성 증가 (미세먼지, 수질오염 등)	'아이'에 대한 배려 부족	양성 불평등한 사회분위기	육아용품에 대한 과소비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비용지원 부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시설 및 공간 부족	수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자녀연령											
영아	4.3 (0.7)	4.4 (0.7)	4.3 (0.8)	3.9 (0.9)	4.4 (0.7)	4.1 (0.7)	4.0 (0.8)	3.7 (0.9)	4.0 (0.9)	4.0 (0.8)	(141)
유아	4.2 (0.7)	4.2 (0.7)	4.0 (0.8)	4.0 (0.9)	4.2 (0.8)	4.0 (0.7)	3.8 (0.9)	3.7 (0.9)	3.8 (1.0)	4.0 (0.8)	(119)
초등학생	4.2 (0.7)	4.1 (0.8)	4.1 (0.7)	3.9 (0.9)	3.9 (0.8)	3.9 (0.8)	3.9 (0.8)	3.7 (0.9)	3.6 (1.0)	3.7 (0.8)	(168)
중학생 이상	4.1 (0.7)	4.0 (0.8)	4.0 (0.8)	4.0 (0.9)	3.8 (0.9)	3.8 (0.8)	3.9 (0.9)	3.8 (1.0)	3.6 (1.0)	3.6 (0.8)	(157)
F	3.0*	7.1***	3.5*	0.5	17.2***	3.8*(a)	0.9	0.3	6.2***(a)	8.1***(a)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2 (0.8)	4.0 (0.9)	4.0 (0.9)	4.0 (1.0)	3.7 (1.0)	3.9 (0.9)	3.7 (1.1)	3.8 (1.0)	3.7 (1.0)	3.6 (0.9)	(219)
300~499만원	4.2 (0.7)	4.1 (0.8)	4.0 (0.8)	4.1 (0.8)	4.0 (0.8)	3.8 (0.8)	3.8 (1.0)	3.8 (0.9)	3.9 (0.9)	3.8 (0.8)	(386)
500~699만원	4.2 (0.8)	4.1 (0.9)	4.0 (0.9)	4.0 (0.9)	4.0 (0.9)	3.9 (0.8)	3.9 (1.0)	3.8 (0.9)	3.7 (1.0)	3.7 (0.9)	(229)
700만원 이상	4.2 (0.7)	4.3 (0.7)	4.0 (0.8)	3.8 (1.0)	4.0 (0.9)	3.8 (0.8)	3.8 (1.1)	3.6 (1.0)	3.5 (1.0)	3.6 (0.9)	(166)
F	0.5	2.6	0.4	2.6*(a)	5.4**(a)	0.8(a)	1.1(a)	1.6	5.3**(a)	1.9(a)	

* $p < .05$, ** $p < .01$, *** $p < .001$

나. 육아를 힘나게 하는 긍정적 요소

1차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워크숍과 심층면담 등을 통해 구체화된 육아를 즐겁게 하는 긍정적 요인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5점 척도로 그 동의 정도를 살펴 본 결과가 〈표 Ⅴ-4-2〉이다.

전체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긍정적 요소 중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육아를 힘나게 한다'에 대한 동의가 4.2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아이가 주는 기쁨, 아이 존재 자체'에 대한 동의가 4.1점, '가족의 양육지원' 4.1점,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 4.1점, '일가정 양립제도' 4.1점, '육아비용의 지원' 4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문항별로 집단 차이를 살펴보면 '가족의 정서적 지지는 육아를 힘나게 한다.'에 대해 30대에서 이에 대한 동의가 4.3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혼 집단(4.3점)에서 미혼 집단(4.1점)보다 높은 동의를 보였고, 자녀가 있는 경우(4.3점)가 없는 경우(4.0점)보다 높은 동의를 보였다.

'아이가 주는 기쁨, 아이 존재 자체는 육아를 힘나게 한다.'에 대해서는 30대와 40대에서 4.2점으로 이에 대한 동의가 높았고, 남성(4.2점)이 여성(4.1점)보다, 기혼 집단(4.2점)에서 미혼 집단(3.9점)보다, 자녀가 있는 경우(4.3점)에 없는 경우(3.9점)에, 영유아 자녀를 둔 집단(4.4점)으로 긍정적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가족의 양육지원은 육아를 힘나게 한다.'에 대해서는 여성(4.2점)이 남성(4점)보다, 기혼 집단(4.2점)에서 미혼 집단(4점)보다 높게 인식하였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육아를 힘나게 한다.'에 대해서는 30대에서 4.2점으로 이에 대한 동의가 높았고, 여성(4.2점)이 남성(4점) 보다, 기혼 집단(4.1점)에서 미혼 집단(3.9점)보다 긍정적 요소로 인식하였다.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등)는 육아를 힘나게 한다.'에 대해서는 그 동의 정도가 20대에서 4.2점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4.2점)이 남성(4점)보다, 맞벌이 가정(4.1점)에서 아닌 경우(3.9점)보다 이를 육아를 힘나게 하는 긍정적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출산, 육아 관련 지역사회 서비스(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등)는 육아를 힘나

게 한다.'에는 중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집단(4.1점)에서 이를 더 긍정적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자체의 육아 지원 관심 증가가 육아를 힘나게 한다.' 에는 거의 집단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육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캠페인 등)은 육아를 힘나게 한다.' 에는 여성(3.9점)이 남성(3.7점)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OO맘 과 같은 온·오프라인 소통 공간 증가가 육아를 힘나게 한다.'에는 전반적인 동의정도(3.1점)가 낮은 가운데, 여성(3.3점)이 남성(3.0점)보다, 기혼 집단(3.2점)에서 미혼 집단(3점)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V-4-2〉 육아를 힘나게 하는 긍정적 요인에 대한 동의 정도(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가족의 정서적 지지	아이가 주는 기쁨, 아이 존재 자체	가족의 양육지원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	일가정 양립제도	육아 비용 지원	출산, 육아 관련 지역사회 서비스	지자체의 육아 지원 관심 증가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온오프라인 소통 공간 증가	수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전체	4.2 (0.8)	4.1 (0.8)	4.1 (0.8)	4.1 (0.8)	4.1 (0.9)	4.0 (0.9)	3.9 (0.9)	3.8 (0.9)	3.8 (0.9)	3.1 (1.0)	(1000)
연령대											
20대	4.1 (0.8)	3.9 (0.9)	4.0 (0.8)	4.0 (0.8)	4.2 (0.9)	4.0 (0.9)	3.9 (0.8)	3.9 (0.8)	3.8 (0.9)	3.1 (1.0)	(304)
30대	4.3 (0.8)	4.2 (0.8)	4.1 (0.9)	4.2 (0.8)	4.0 (1.0)	4.0 (0.9)	3.8 (0.9)	3.8 (0.9)	3.8 (0.9)	3.1 (1.1)	(320)
40대	4.2 (0.7)	4.2 (0.8)	4.2 (0.8)	4.1 (0.8)	4.0 (0.9)	3.9 (0.9)	3.9 (0.9)	3.8 (0.8)	3.8 (0.8)	3.1 (1.0)	(376)
F	4.5*	13.3***	2.9(a)	4.6*	4.0*	0.9	0.6(a)	0.8(a)	0.1	0.7	
성별											
여성	4.2 (0.8)	4.1 (0.8)	4.2 (0.8)	4.2 (0.7)	4.2 (0.9)	4.0 (0.9)	3.9 (0.8)	3.9 (0.8)	3.9 (0.8)	3.3 (1.0)	(485)
남성	4.2 (0.8)	4.2 (0.8)	4.0 (0.8)	4.0 (0.9)	4.0 (0.9)	3.9 (1.0)	3.8 (0.9)	3.8 (0.9)	3.7 (0.9)	3.0 (1.0)	(515)
t	-0.3	-2.0*	2.9**	3.8***	2.6**	1.4	1.6	1.2	4.1***	4.3***	
결혼 여부											
기혼	4.3 (0.7)	4.2 (0.8)	4.2 (0.8)	4.1 (0.8)	4.0 (0.9)	4.0 (0.9)	3.9 (0.9)	3.8 (0.9)	3.8 (0.9)	3.2 (1.0)	(634)
미혼	4.1 (0.8)	3.9 (0.9)	4.0 (0.8)	3.9 (0.8)	4.2 (0.8)	4.0 (0.9)	3.8 (0.8)	3.8 (0.8)	3.7 (0.9)	3.0 (1.0)	(366)
t	3.5***	6.5***	3.6***	3.5***	-2.2*	0.0	0.8	0.1	1.3	2.7**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4.3 (0.7)	4.2 (0.8)	4.2 (0.7)	4.2 (0.8)	4.1 (0.9)	4.0 (0.9)	3.9 (0.9)	3.9 (0.8)	3.9 (0.8)	3.2 (1.0)	(417)
맞벌이 아님	4.3 (0.8)	4.3 (0.8)	4.1 (0.9)	4.0 (0.9)	3.9 (1.0)	4.0 (1.0)	3.8 (0.9)	3.8 (0.9)	3.8 (0.9)	3.1 (1.0)	(217)
t	-0.6	-0.3	1.5	1.8	2.3*	0.2	1.7	1.1	1.3	1.7	

구분	가족의 정서적 지지	아이가 주는 기쁨, 아이 존재 자체	가족의 양육지원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	일가정 양립제도	육아 비용 지원	출산, 육아 관련 지역사회 서비스	지자체의 육아 지원 관심 증가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온오프라인 소통 공간 증가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녀 유무											
자녀 있음	4.3 (0.7)	4.3 (0.8)	4.2 (0.8)	4.1 (0.8)	4.0 (1.0)	4.0 (1.0)	3.9 (0.9)	3.8 (0.9)	3.8 (0.9)	3.2 (1.0)	(585)
자녀 없음	4.0 (0.8)	3.9 (0.9)	4.2 (0.8)	4.0 (0.7)	4.2 (0.8)	4.0 (0.9)	4.0 (0.8)	3.7 (0.8)	3.7 (0.9)	3.2 (1.0)	(49)
t	2.4*	3.4***	0.1	0.8	-1.4	-0.1	-0.6	1.0	0.9	0.1	
자녀연령											
영아	4.4 (0.8)	4.4 (0.8)	4.3 (0.9)	4.2 (0.9)	4.2 (1.0)	4.1 (1.0)	3.9 (1.0)	3.9 (0.9)	3.9 (1.0)	3.3 (1.0)	(141)
유아	4.3 (0.8)	4.4 (0.8)	4.2 (0.8)	4.2 (0.8)	4.0 (1.0)	4.0 (1.0)	3.9 (0.9)	3.9 (1.0)	3.8 (1.0)	3.2 (1.1)	(119)
초등학생	4.1 (0.8)	4.1 (0.8)	4.0 (0.9)	4.1 (0.9)	3.9 (1.0)	3.8 (1.0)	3.6 (0.9)	3.7 (0.8)	3.8 (0.8)	3.0 (1.0)	(168)
중학생 이상	4.3 (0.7)	4.2 (0.7)	4.2 (0.7)	4.1 (0.7)	4.1 (0.8)	4.0 (0.8)	4.1 (0.7)	3.9 (0.8)	3.9 (0.7)	3.3 (0.9)	(157)
F	3.3*	4.5**	3.1*	1.5	2.8*(a)	3.9**(a)	7.1***(a)	3.6*(a)	1.3(a)	3.5*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1 (0.8)	3.9 (0.9)	4.0 (0.8)	3.9 (0.9)	4.1 (1.0)	4.0 (0.9)	3.8 (0.9)	3.8 (0.9)	3.8 (0.9)	3.0 (1.0)	(219)
300~499만원	4.2 (0.8)	4.2 (0.8)	4.1 (0.8)	4.1 (0.8)	4.0 (0.9)	4.0 (0.9)	3.9 (0.9)	3.9 (0.9)	3.8 (0.9)	3.2 (1.0)	(386)
500~699만원	4.3 (0.8)	4.1 (0.8)	4.2 (0.8)	4.1 (0.8)	4.2 (0.9)	4.0 (0.9)	3.9 (0.8)	3.9 (0.8)	3.8 (0.9)	3.2 (1.0)	(229)
700만원 이상	4.2 (0.7)	4.2 (0.8)	4.1 (0.8)	4.1 (0.8)	4.1 (0.8)	3.8 (0.9)	3.8 (0.8)	3.8 (0.8)	3.8 (0.8)	3.1 (1.0)	(166)
F	2.0	4.5**	0.7	1.7	1.2	4.1**	1.1	0.7	0.3	1.3	

* $p < .05$, ** $p < .01$, *** $p < .001$

다.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필요한 것

우리사회 육아문화가 지닌 부정적 요소를 줄이고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로 답한 결과가 〈표 Ⅴ-4-3〉이다.

1순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육아휴직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등의 육아 관련 제도 안착을 37.2%가 1순위로 꼽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답하였다. 다음은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배려, 존중 20.8%, 가정 내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 16.7%,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의 확보 12.9%, 가족이 함께하는 육아 실현 9.4%, 지역사회 내 지원적 양육 환경 2.7%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여 보아도 육아휴직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등의 육아 관련 제도 안착이 가장 많았고,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배려, 존중, 가정 내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의 확보, 가족이 함께하는 육아 실현 등으로 그 순서는 1순위 결과와 변동이 없었다.

1순위를 기준으로 집단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의 응답 중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육아휴직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등의 육아 관련 제도 안착을 가장 많이 답하였지만 여성의 경우 가족이 함께하는 육아 실현이라는 측면을, 남성의 경우에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의 확보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혼여부를 중심으로 보면 기혼집단에서는 가정 내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미혼집단에서는 가족이 함께하는 육아 실현을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자녀연령에 따라 영유아 자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까지는 육아 관련 제도 안착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강조하였지만 중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배려, 존중을 중요한 내용이라고 답하였다.

〈표 Ⅴ-4-3〉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1순위/ 1+2순위)

단위: %(명)

구분	육아휴직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등 의 육아 관련 제도 안착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배려, 존중	가정 내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의 확보	가족이 함께하는 육아 실현	지역사회 내 지원적 양육 환경	기타	계(수)	
전체(1순위)	37.2	20.8	16.7	12.9	9.4	2.7	0.3	100.0	(1,000)
연령대									
20대	40.8	20.7	13.5	13.2	9.9	2.0	0.0	100.0	(304)
30대	40.3	18.4	18.1	12.8	6.9	2.8	0.6	100.0	(320)
40대	31.6	22.9	18.1	12.8	11.2	3.2	0.3	100.0	(376)
$x^2(df)$				15.853(12)					
성별									
여성	39.0	22.3	14.0	9.5	13.2	2.1	0.0	100.0	(485)
남성	35.5	19.4	19.2	16.1	5.8	3.3	0.6	100.0	(515)
$x^2(df)$				33.014(6)***					
지역규모									
대도시	35.3	21.2	17.5	14.1	9.6	1.8	0.5	100.0	(439)
중소도시	38.7	20.9	16.3	11.6	9.1	3.2	0.2	100.0	(406)
읍면지역	38.7	19.4	15.5	12.9	9.7	3.9	0.0	100.0	(155)
$x^2(df)$				5.713(12)					
결혼 여부									
기혼	36.6	20.0	18.9	12.8	7.9	3.6	0.2	100.0	(634)
미혼	38.3	22.1	12.8	13.1	12.0	1.1	0.5	100.0	(366)
$x^2(df)$				16.743(6)*					

구분	육아휴직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등 의 육아 관련 제도 안착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배려, 존중	가정 내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의 확보	가족이 함께하는 육아 실현	지역사회 내 지원적 양육 환경	기타	계(수)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39.3	20.4	17.0	12.0	7.0	4.1	0.2	100.0	(417)
맞벌이 아님	31.3	19.4	22.6	14.3	9.7	2.8	0.0	100.0	(217)
$x^2(df)$				8.021(6)					
자녀연령									
영아	47.5	13.5	17.0	8.5	7.8	5.7	0.0	100.0	(141)
유아	31.1	18.5	25.2	18.5	3.4	3.4	0.0	100.0	(119)
초등학생	35.1	17.9	16.7	13.7	13.7	3.0	0.0	100.0	(168)
중학생 이상	29.3	30.6	19.1	12.1	6.4	1.9	0.6	100.0	(157)
$x^2(df)$				44.557(18)***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4.7	20.1	15.5	15.5	11.0	2.3	0.9	100.0	(219)
300~499만원	33.9	21.8	21.0	12.7	8.3	2.3	0.0	100.0	(386)
500~699만원	42.4	19.7	16.2	10.0	7.4	3.9	0.4	100.0	(229)
700만원 이상	41.0	21.1	9.0	13.9	12.7	2.4	0.0	100.0	(166)
$x^2(df)$				27.272(18)					
1+2순위	61.0	38.7	35.9	31.2	23.2	9.6	0.4		(1,000)

* $p < .05$, *** $p < .001$

라. 사회적 합의, 정책적 노력을 통한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변화

1) 변화 가능성

우리사회 육아문화가 지닌 부정적 요소를 줄이고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사회적 합의, 정책적 노력으로 변화 가능할 지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한 결과가 〈표 Ⅴ-4-4〉이다.

응답자의 90% 열 명 중 아홉 명은 사회적 합의, 정책적 노력으로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집단 차이도 보이지 않아 이는 연령이나 성별, 결혼여부, 맞벌이 여부, 가구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비슷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화의 변화가 많은 시간을 요한다고 하지만 사회적 합의, 정책적 노력으로 변화 가능하다는 생각이 보편적이라는 결과 자체가 그 변화를 기대하게 하는 것이다.

〈표 Ⅴ-4-4〉 사회적 합의, 정책적 노력을 통한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변화 가능성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90.0	10.0	100.0	(1,000)
연령대				
20대	90.8	9.2	100.0	(304)
30대	88.1	11.9	100.0	(320)
40대	91.0	9.0	100.0	(376)
$x^2(df)$	1.844(2)			
성별				
여성	88.7	11.3	100.0	(485)
남성	91.3	8.7	100.0	(515)
$x^2(df)$	1.879(1)			
결혼 여부				
기혼	90.9	9.1	100.0	(634)
미혼	88.5	11.5	100.0	(366)
$x^2(df)$	1.396(1)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91.6	8.4	100.0	(417)
맞벌이 아님	89.4	10.6	100.0	(217)
$x^2(df)$	0.836(1)			
자녀연령				
영아	90.8	9.2	100.0	(141)
유아	89.9	10.1	100.0	(119)
초등학생	88.7	11.3	100.0	(168)
중학생 이상	93.6	6.4	100.0	(157)
$x^2(df)$	2.504(3)			

구분	예	아니오	계(수)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87.2	12.8	100.0	(219)
300~499만원	89.4	10.6	100.0	(386)
500~699만원	93.4	6.6	100.0	(229)
700만원 이상	90.4	9.6	100.0	(166)
$\chi^2(df)$	5.106(3)			

2) 변화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

우리사회 육아문화가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적 노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로 답한 결과가 〈표 Ⅴ-4-5〉이다. 1순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 추진을 30.8%가 1순위로 꼽아 가장 중요한 노력이라고 답하였다. 다음은 직장 내 육아친화적 문화 조성 노력 21.5%,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육아친화적 환경 개선 노력 14.2%,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언론을 통한 캠페인 확대 12.3%, 육아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수요자들의 의견 수렴 7.9%, 지자체 중심의 육아친화적 요소 발굴, 정책에의 반영 노력 7%, 자녀 양육과 관련한 역량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5.3%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여 보아도 그 순서는 1순위 결과와 변동이 없었다.

1순위를 기준으로 집단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보여 모든 집단에서 중앙정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 추진을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지만 20대와 30대에서는 직장 내 육아친화적 문화 조성 노력을 40대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육아친화적 환경 개선 노력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혼여부를 중심으로 보면 기혼집단에서는 중앙정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 추진을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지만, 미혼집단에서는 직장 내 육아친화적 문화 조성 노력을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맞벌이 여부를 중심으로 보면 두 집단에서 모두에서 중앙정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 추진을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지만, 맞벌이 가정은 직장 내 육아친화적 문화 조성 노력을, 맞벌이가 아닌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육아친화적 환경 개선 노력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Ⅴ-4-5〉 긍정적 육아문화로 변화하기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적 노력(1순위/ 1+2순위)

단위: %(명)

구분	중앙정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 추진	직장내 육아친화적 문화 조성 노력	중앙정부, 지자체 중심의 육아친화적 환경 개선 노력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언론을 통한 캠페인 확대	육아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수요자들의 의견 수렴	지자체 중심의 육아친화적 요소 발굴, 정책에의 반영 노력	자녀 양육과 관련한 역량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기타	계(수)
전체(1순위)	30.8	21.5	14.2	12.3	7.9	7.0	5.3	1.0	100.0 (1,000)
연령대									
20대	31.3	27.6	10.9	11.8	8.6	4.3	4.3	1.3	100.0 (304)
30대	31.9	23.4	11.9	11.3	7.5	8.1	4.4	1.6	100.0 (320)
40대	29.5	14.9	18.9	13.6	7.7	8.2	6.9	0.3	100.0 (376)
x^2(df)	35.281(14)**								
성별									
여성	28.0	22.1	12.4	14.0	8.7	7.8	6.4	0.6	100.0 (485)
남성	33.4	21.0	15.9	10.7	7.2	6.2	4.3	1.4	100.0 (515)
x^2(df)	12.065(7)								
지역규모									
대도시	31.2	21.2	13.7	13.2	7.7	7.3	4.8	0.9	100.0 (439)
중소도시	30.3	22.7	15.8	11.1	7.9	7.4	4.2	0.7	100.0 (406)
읍면지역	31.0	19.4	11.6	12.9	8.4	5.2	9.7	1.9	100.0 (155)
x^2(df)	12.403(14)								
결혼 여부									
기혼	32.5	16.7	16.4	11.8	8.0	8.8	4.9	0.8	100.0 (634)
미혼	27.9	29.8	10.4	13.1	7.7	3.8	6.0	1.4	100.0 (366)
x^2(df)	35.944(7)***								

구분	중앙정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 추진	직장내 육아친화적 문화 조성 노력	중앙정부, 지자체 중심의 육아친화적 환경 개선 노력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언론을 통한 캠페인 확대	육아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수요자들의 의견 수렴	지자체 중심의 육아친화적 요소 발굴, 정책에의 반영 노력	자녀 양육과 관련한 역량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기타	계(수)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31.9	19.2	13.2	13.2	7.9	9.4	4.3	1.0	100.0 (417)
맞벌이 아님	33.6	12.0	22.6	9.2	8.3	7.8	6.0	0.5	100.0 (217)
x^2(df)	15.807(7)*								
자녀연령									
영아	41.1	17.7	14.9	7.1	9.2	7.1	2.1	0.7	100.0 (141)
유아	33.6	19.3	15.1	10.1	4.2	10.9	5.9	0.8	100.0 (119)
초등학생	26.2	15.5	19.6	13.7	10.1	10.7	3.6	0.6	100.0 (168)
중학생 이상	31.2	11.5	18.5	14.6	8.9	6.4	7.6	1.3	100.0 (157)
x^2(df)	26.775(21)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0.1	25.1	12.8	12.3	6.8	4.6	6.4	1.8	100.0 (219)
300~499만원	31.6	18.1	15.5	10.6	9.1	8.5	5.7	0.8	100.0 (386)
500~699만원	31.4	22.7	14.0	12.2	7.9	7.0	4.4	0.4	100.0 (229)
700만원 이상	28.9	22.9	13.3	16.3	6.6	6.6	4.2	1.2	100.0 (166)
x^2(df)	16.283(21)								
1+2순위	48.2	41.1	34.5	20.9	20.4	19.6	14.2	1.1	(1,000)

* $p < .05$, ** $p < .01$, *** $p < .001$

5. 소결

우리사회의 현재 육아문화를 구체화하기 어렵기에 육아를 중심으로 한 문화의 구성원인 20대, 30대, 40대의 관련 인식을 파악하고,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변화를 위한 개선 요구들에 대한 생각을 수렴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육아문화에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규범과 관습보다도, 물리적 환경이나 언어보다도 '정책과 제도'를 선택하였다.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노력을 통해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변화가 가능함에 동의하였다. 이는 문화의 변화가 쉽지 않지만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으로 육아문화의 개선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중추수적인 정책이 아닌 정책으로 긍정적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안을 찾아야 한다.

둘째, 우리사회 육아문화 관련 현상들에 대한 평가에서 각종 육아정보에의 접근성이 높음이 가장 긍정적 점수를 받은 반면, 부부 공동의 육아참여가 이루어지는 가정 내 양성 평등한 육아문화, 육아휴직 사용, 육아기 직원에 대한 배려 등의 직장 내 육아문화에 대해서는 그 점수가 낮았다. 이는 3개년으로 추진하는 본 연구에서 2차년도에 직장의 육아문화 개선, 3차년도에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육아문화 개선을 계획하였는데 그 방향이 적절함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셋째, 우리사회의 육아문화 관련 여러 현상들에 대한 평가나 긍정적 부정적 요소에 대한 평가 등에서는 현재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육아 참여자인 30대와 여성 집단에서, 기혼집단에서 그 점수가 대체로 낮았고, 40대인 경우 현재 육아문화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육아에 직접 참여하는 집단에서 그 평가의 부정성이 강함은 육아과정이 쉽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넷째, 우리사회가 자녀를 기르기에 적절한 환경인지에 대해 좋은 이유로는 안전한 사회이기 때문에, 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국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반면 과도한 양육비용, 직장에서 육아에 대한 배려 부족은 좋지 못한 양육 환경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육아비용에 대한 부분이 양육환경 체감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며, 긍정적 육아문화의 조성을 위해 좋은 양육 환경 요소를 유지하고, 부정적 요소들을 줄여가는 노력을 구체화할 때 어느 부분에 주목할 지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섯째, 연령을 중심으로 30대가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일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할 때 30대가 20대와 40대와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현재 영유아를 양육하는 시기의 특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30대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고, 조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산후조리원의 이용이 보편적이고, 육아휴직 사용 의사가 높고,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이 많지 않다고 여기는 점 등이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 의사가 40대보다 높음은 향후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할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여섯째, 우리사회 육아관련 문화 양상에 대한 긍정성 진단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남성의 육아휴직 등 아버지의 육아 관련한 부분이 긍정적 변화임에 대한 비교적 높은 동의를 보였다. 이는 추후 그러한 방향으로의 육아문화 변화를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다.

일곱째, 온라인 SNS 소통 통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카카오톡이 단연 1위를 차지하였고, 20대와 30대, 여성, 미혼집단에서 인스타그램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육아와 관련 많이 사용하는 SNS로는 인터넷카페, 블로그, 카카오톡의 순서로 조사되었고, 자주 사용하는 검색채널은 열 명 중 여덟 명이 네이버라고 답하였다. 자주 시청하는 영상미디어는 40대에서는 공중파, 30대에서는 케이블 방송, 20대에서는 유투브(YouTube)를 들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향후 육아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시 활용 할 채널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여덟째, 가정 내 부부의 평등한 육아참여는 평균점수는 65.2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평등한 육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 부부의 육아참여 정도는 어머니는 68.4점, 아버지는 31.6점, 즉 약 7:3의 비중을 보였다. 특히, 자녀연령이 높아질수록, 즉 영유아기보다 학령기에 가정 내 평등한 육아가 이루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상적인 육아참여 비중은 각각 56.3점과 43.7점, 약 6:4 정도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육아에 대한 긍정적 시각으로 '아이를 키우며 아이 자체가 주는 기쁨이 크다'와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치있다'가 각각 3.5점(4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육아에 대한 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2.6점). 육아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육체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전반적으로, 남성이 육아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여성은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열째, 가정 내 육아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사용의 보편화'(44.6%)를 가장 높게 지적하였다. 또한 '가정 내 평등한 육아참여 실현'(19.4%), '남녀 부모역할 기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18.1%)도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 응답자가 미혼보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경우가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보다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사용의 보편화를 유의하게 높게 응답하였다.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가정 내 평등한 육아참여 실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였다.

열한번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 육아환경 및 문화가 어느 정도 육아친화적인가에 대하여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평가를 한 결과, 평균 54.6점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아닌 경우, 직장 육아문화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았다.

열두번째, 직장 육아환경 및 문화에 대한 9개 세부항목별로 평가한 결과, '육아기 직원에 대한 직장동료의 인식'과 '육아하는 직원에 대한 상사의 배려'가 50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 수유실, 기저귀 갈이대 등의 직장 내 육아 편의시설, 직장 내 보육시설, 육아비용 지원, 육아기 직원과 가족을 위한 문화행사의 4개 항목은 20점 내외로 가장 낮게 평가되어 보완이 필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열세번째, 응답자 전체의 약 70%가 육아휴직은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며 쓸 수만 있다면 써야한다고 생각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나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가능하면 쓰지 않았으면 생각한다'는 4.2%에 불과하였다. 육아휴직 사용의 당위성에 대한 직장 내 인식은 일정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열네번째, 직장 내 육아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일·가정양립 지원 세부제도인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시간단축근로제, 시간선택제, 시간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에 대한 인지도는 50% 전후로 낮은 편이며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도 10-30% 수준을 선회하였다. 실제 이용실태는 10-20% 내외로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열다섯번째, 육아를 힘들게 하는 요소와 힘나게 하는 요소를 조사한 결과 힘들게 하는 요소로는 육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직장문화, 신뢰할 수 있는 교육 보육기관의 부족, 육아에 대한 가치 저평가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전환을 위해 2차년도 본 과제의 주제를 직장에서의 육아문화 개선으로 계획함이 적절함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힘나게 하는 요소들은 가족의 정서적 지지, 아이가 주는 기쁨과 아이의 존재 자체, 가족의 양육지원, 신뢰로운 교육보육기관, 일·가정 양립제도 등이다. 이렇듯 구체화된 육아를 힘들게 하고, 힘나게 하는 요소들은 육아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회 전반적인 합의와 노력을 통해 문화로 접근 가능한 부분들임을 확인하게 한다.

열여섯번째,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부정적 요소를 줄이고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 응답자들은 육아휴직제 같은 일·가정 양립제도의 안착이라는 의견에 가장 많이 동의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는 중앙정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과 직장 내에서 육아친화적인 문화 조성에 대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 설문결과는 우리사회의 육아문화의 구성자들은 정책적 노력으로 문화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여기며 이를 위해 지속적이고 꾸준한 정책의 추진 필요성에 동의함을 보여주고 이는 그런 노력의 실행으로 조성되어갈 육아문화를 기대하게 한다.

VI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01 육아문화의 진단과 분석 결과

02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패러다임(paradigm) 전환

03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에 대한 정책적 접근

04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제언

05 향후 추진계획

Ⅵ.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본 연구는 현재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해야 할 부정적 요소들을 구체화하고, 긍정적 변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기초연구에서 비롯하여, 직장을 중심으로, 가정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그 범위를 넓혀 순차적인 실천적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3개년 협동연구로 기획되었다. 2019년 1차년도에는 문헌검토, 국외 출장, 관련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 정책수요자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워크숍 추진,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육아문화를 진단하고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개선을 모색하였다. 1차년도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분석과 진단에 초점을 두었다. 본 장에서는 그 분석과 진단에 기초하여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현을 위한 큰 틀의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육아의 주요 현장인 직장과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실행 방안은 2차년도와 3차년도에 구체화하고자 한다.

1. 육아문화의 진단과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의 문화가 아이, 아이 기르는 일(育兒)과 그 가족 등에 대해 지지하고 지원적이기 보다는 부정적 측면들이 강하여 저출산 기조를 유지하는데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가. 연구 가정(假定) 진단 결과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우리사회 육아문화에 대한 다음의 세 가지 가정(假定)을 세우고 연구를 통해 이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첫째, 우리사회가 체감하는 육아문화는 긍정적 측면 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둘째, 우리의 일터에서 육아하는 가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제도는 있으나 실제 사용은 쉽지 않다. 셋째,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 마을 안에서 '아이를 기르는 일', '육아(育兒)'에 대해 성평등하지 못한 부분, 격차가 존재한다. 이상의 세 가지 가정(假定)은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그러한 경향을 보임이 확인되었다.

1) 우리 사회 육아문화는 긍정적 측면 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 문화 안에 육아와 관련하여 소통되는 글들에서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우세하다는 것이 소셜 빅데이터에서도 확인되었다. 감성어(긍정어, 부정어) 분석대상 문서에서 10만 회 이상 언급된 감성어 중 부정어가 긍정어보다 많았다, 부정적 내용은 부재, 문제, 불가능, 어려움 '걱정', '어렵', '안되', '싫다', '고민', '포기' 등이 있었다. 특히 이러한 양상이 2016년에 비해 2017년과 2018년에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의도적인 전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이 부정적으로 언급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육아에 드는 경제적 비용과 육아를 한 명이 전담하는 상황(대체로 어머니)의 두 가지가 우세하였다. 경제적 비용의 경우, '양육비', '소득'등의 빈도가 높았다. 혼자 육아를 전담하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 언급은 육아 관련 소셜 미디어에서 주요 논제이기도 하다.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워크숍에서도 미혼 집단에서 기혼집단에 비해 결혼과 육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일이지만 자녀를 기르는 친구나 선배들이 힘들어 보이고, 어려운 상황들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혼 집단의 결과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지니는 육아문화에 대한 부정적 경향성을 보여준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우리사회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정을 배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긍정적 육아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100점으로 점수를 부여한 결과 평균은 53.6점으로 평가하였고, 연령별로는 20대, 미혼집단에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육아문화가 긍정적 측면 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는 연구의 첫 번째 가정이 적절함을 지지한다.

2) 우리 일터에서 육아하는 가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은 제도는 있으나 실제 사용은 쉽지 않다.

육아휴직이라는 단어는 긍정문서보다 부정문서에서 더 빈번하게 출현하였다. 부정어의 내용이 주로 부재, 문제, 불가능, 어려움 등임을 감안하면, 부정문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수 언급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긍정문서에서보다 부정문서에서 출현빈도가 높아서, 부정적 경험과 관련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소셜 미디어에서는 주로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이 논의되고 있었고, 전체 분석대상 문서에서 '육아휴직'은 11번째로 자주 등장한 단어로, 12위인 '아빠'보다도 자주 등장했다.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워크숍에서도 육아를 어렵게 하는 저해요인으로 '육아를 어렵게 하는 회사 문화'가 가장 많은 동의를 보였고,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전환을 위해 육아지원 제도의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육아기 가정이 있는 제도를 쓸 수 있는 직장에서의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우리사회 육아문화 관련 현상들에 대한 평가에서 각종 육아정보에의 접근성이 높음이 가장 긍정적 점수를 받은 반면, 육아휴직 사용, 육아기 직원에 대한 배려 등의 직장 내 육아문화에 대해서는 그 점수가 낮았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 육아환경 및 문화가 어느 정도 육아친화적 인가에 대하여 평가를 한 결과, 평균 54.6점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 일터에서 육아하는 가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사용이 쉽지 않은 분위기라는 연구의 두 번째 가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지지한다.

3)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 마을 안에서 '아이를 기르는 일', '육아(育兒)'에 대해 성평등하지 못한 부분, 격차가 존재한다.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젠더는 가장 두드러지는 주제였다. 젠더 불평등에 대한 세 번째 가정이 육아친화성이 부족한 현실을 이해하는 데 핵심임을 알 수 있었다. 전체 분석에서 육아, 아동, 부모를 일컫는 단어 이외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단어가 '여자'(3위)와 '남자'(6위)였고, 주제어 사전의 단어 출현빈도도 육아, 영유아,

부모를 제외하면 '젠더 관련 이슈'에 속하는 단어들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또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신조어인 '독박육아'의 출현빈도가 매우 높았는데, 이것이 육아를 혼자 담당하는 여성들이 현실을 부정적으로 일컬음을 감안하면, '독박육아'가 부각되고 있음은 육아에서의 젠더 불평등이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뜻한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어 네트워크에서도 '육아휴직'은 '남성', '아빠' 보다 '여성', '엄마'와 굵게 연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임과 동시에, 육아의 일차적인 책임을 여성에게 부여함으로써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들이 '독박육아' 등 부정적 경험을 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도 있다.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워크숍에서도 현재 체감하는 육아환경에 대해 부부가 아버지는 90점을, 어머니는 40점으로 서로 다른 점수를 부여하여 육아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시각 차이가 여전히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었다. 남성들이 양육의 주담당자인 여성보다 육아환경에 대해 우리사회 육아문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은 남성이 양육에 동등하게 참여하기보다는 돕는 역할로 참여하기에 체감되는 결과로 보인다.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는 가정에서 부부의 평등한 육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점수를 부여하게 한 결과, 응답자 전체 평균점수는 65.2점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고, 부부의 육아 참여 정도에 대하여도 어머니는 68.4점, 아버지는 31.6점으로 부부간 평등한 육아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에 대한 기대와 부담이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일-육아 양립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성평등한 육아문화의 형성은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가정과 지역사회, 마을 안에서 '아이를 기르는 일', '육아(育兒)'에 대해 성평등하지 못한 부분, 격차가 있다는 연구의 세 번째 가정을 지지한다.

나.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우리사회 육아문화 안에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 아동과 육아하는 가족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의 조성을 위해서는 긍정적 부분은 증진하고 부정적 요소를 줄이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연구를 통해 우리사회 육아문화 안에 공존하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1) 긍정적 요소, 육아를 힘나게 하는 부분

워크숍을 통해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들은 육아문화를 구성하는 긍정적 촉진요인으로 '아이가 주는 기쁨, 아이의 존재 자체', '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지원',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 '일·가정 양립제도의 활용', '출산, 육아 관련 지역사회서비스 확대' 등의 순서로 선정하였다. 자녀가 주는 기쁨이 가장 많은 육아문화 조성의 촉진요인임은 그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양육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설명해 준다.

응답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긍정적 요소를 찾아보면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육아를 힘나게 한다'에 대한 동의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아이가 주는 기쁨, 아이 존재 자체', '가족의 양육지원',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 '일가정 양립제도', '육아비용의 지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제도적 개선보다도 가족과 주위의 인정과 지지를 강조함은 현재 양육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지와 인정이 부족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왜 사회가 육아존중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지를 보여준다. 또한 우리사회 육아관련 문화 양상에 대한 긍정성 진단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남성의 육아휴직 등 아버지의 육아 관련한 부분이 긍정적 변화임에 대한 비교적 높은 동의를 보였다. 이는 추후 그러한 방향으로의 육아문화 변화를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다. 현재 우리사회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대체로 좋지 않은 환경이다'에 수렴하는 결과이지만 그 강점으로는 '안전한 사회'이기 때문에, '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국가 지원'등을 꼽았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긍정적 요소들은 가족의 정서적 지지, 아이가 주는 기쁨과 아이의 존재 자체, 가족의 양육지원, 신뢰로운 교육보육기관, 일·가정 양립제도, 비교적 안전한 사회, 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국가 지원 등으로 구체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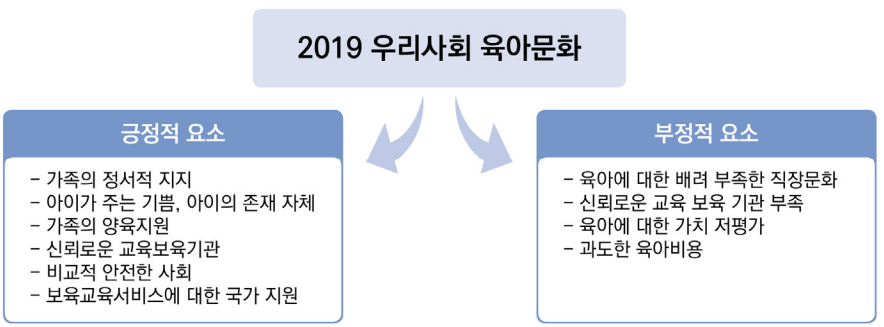
2) 부정적 요소, 육아를 어렵게 하는 부분

워크숍을 통해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들은 육아문화를 구성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육아를 어렵게 하는 회사 문화', '국가지원 양육 프로그램의 부족', '국가지원보

조금 부족', '육아존중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 '주거관련 대출에 대한 지나친 규제' 등의 순서로 정하였다. 육아문화의 저해요인들이 주로 육아지원 제도의 개선으로 수렴된 결과는 제도 개선을 통해 육아환경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부정적 요소를 살펴보면 '아이를 키우는 구성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직장 문화'에 대한 동의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부족', '아이 기르는 일(育兒)에 대한 가치 저평가', '영유아 대상 사교육 증가', '육아환경의 위험성 증가(미세먼지, 수질오염 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문화 관련 요소의 평가 부분에서도 '육아휴직 사용이나 육아기 직원에 대한 배려 등 직장 내 육아문화'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그 다음은 '과도한 육아비용', '가정 내 양성 평등한 육아문화' 등이 낮은 점수를 보여 부정적 요소임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부정적 요소들은 육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직장문화, 신뢰할 수 있는 교육 보육기관의 부족, 육아에 대한 가치 저평가, 과도한 육아비용 등으로 요약된다.

[그림 Ⅵ-1-1]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이렇듯 구체화된 육아를 힘들게 하고, 힘나게 하는 요소들은 육아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회 전반적인 합의와 노력을 통해 문화로 접근 가능한 부분임을 확인하게 한다.

2.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패러다임(paradigm) 전환

육아존중문화에서 존중의 의미는 '육아'하는 행위에 대한 가치의 인정과 육아하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배려, 배려를 넘어서는 존중이라는 방향성을 의미한다.

우리사회 육아와 관련 소통되는 단어에 대한 최근 3년 동안의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2017년과 2018년에 부정적 경향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육아문화에 대한 의도적인 전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육아 관련 문서에 등장한 감성단어 중 긍정어와 부정어를 각각 연도별 상위 50개씩 선정하여 출현빈도의 합을 산출하면, 2016년에는 긍정어가 부정어보다 많았으나, 2017년부터 부정어가 긍정어보다 많아지고 그 차이가 2018년에는 더욱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육아의 부정적 측면이 강조됨에는 다음과 같은 한국사회의 배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인의 낮은 행복지수, 높은 자살률 등 행복하지 않은 지표들이 보고되고 있다. 고용불안정, 경기침체 등 시장 요인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입시지옥, 사교육, 스카이캐슬, 학벌사회 등 교육과 관련된 사회인식도 경쟁적이고 차별적으로 체감된다. '국민**'(예: 국민모빌, 국민유모차)처럼 다양성보다는 유사성을 추구하는 문화, 남과 비교하는 문화. 실적, 경제적 이익 등을 강조하는 문화도 있다. 이러한 우리사회 전반의 부정적 사회인식이 육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육아존중문화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함이다. 다음세대 육성의 중요성, 양육의 행복과 가치가 인정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사회적 가치 부여가 필요하다. 이는 인식, 문화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본 연구에서 설문에 참여한 육아문화의 구성자들은 육아문화에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규범과 관습보다도, 물리적 환경이나 언어보다도 '정책과 제도'를 선택하였다.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노력을 통해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변화가 가능할 지에 대해서도 열 명 중 아홉 명이 그렇다고 동의하였다. 이는 문화의 변화가 쉽지 않지만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으로 육아문화의 개선이 가능할 수 있음을 기대하게 한다. 또한,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부정적 요소를 줄이고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가장 필요한 내용은 육아휴직제 같은 일·가정 양립제도의 안착으로 수렴하였고, 그 정책적 노력으로는 중앙정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과 직장 내에서 육아친화적인 문화 조성에 대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가정 내 육아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사용의 보편화'를 가장 높게 지적하였고 '가정 내 평등한 육아참여 실현', '남녀 부모역할 기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듯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으로 가능한 부분이며 이 그 주요 접점은 직장에서의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과 분위기의 조성이며, 또 다른 하나는 성평등에 기초한 가정에서의 육아 환경 구축이다. 이는 1차년도는 육아문화 진단, 2차년도는 직장에서의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3차년도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성평등한 육아문화 조성을 계획 중인 3개년 연구의 방향이 적절하였음을 지지해 준다.

이에 1차년도에는 2019 우리사회 육아문화 진단을 통해 구체화된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육아문화 조성에 초점을 두어 그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직장에서의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성평등한 육아문화 조성 방안들은 2차년도와 3차년도 연구로 남겨두려 한다.

3.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에 대한 정책적 접근

육아문화가 정책적 접근으로 조성 가능한가? 육아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노력들이 경주되는 가운데 아동과 그 가족을 응원하는 문화 형성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보인다.

일본은 2010년 1월 29일 각의결정을 통해 "아이와 육아를 응원하는 사회" 구현[37]을 위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하며 문화를 통한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37)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자료
https://www8.cao.go.jp/shoushi/shoushika/family/vision/pdf/gaiyo.pdf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 해외육아정책동향에서 재인용. 2019년 10월 28일 검색.)
http://www.kicce.re.kr/kor/reference/01_02.jsp?mode=view&idx=27883&startPage=30&listNo=1084&code=trend02&search_item=&search_order=&order_list=10&list_scale=10&view_level=0

‘아이와 육아를 응원하는 사회 구현’[38]을 위한 기본 방침을 사회 전체의 육아 지원, 희망 성취로 제시하였다. 사회 전체의 육아 지원이란 아이를 소중히 하고, 라이프사이클(life cycle) 전체를 통해 사회적으로 지원하며, 지역사회 단위 서포트(support)를 지향하는 것이다. 희망 성취란 일, 생활, 육아를 종합적으로 지원, 격차와 빈곤을 해소, 지속 가능한 활력 있는 경제 사회 실현을 의미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 지향해야 할 4가지 사회 정책과 12가지 주요 시책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육아를 지원하고 청년층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로, 둘째, 임신, 출산, 육아의 희망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로, 셋째,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육아 경쟁력 있는 지역사회로, 넷째, 남녀 모두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룬 사회로(워라밸 실현) 등이 사회정책의 내용이다.

“아이와 육아를 응원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일본의 정책들은 육아를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노력을 제시하여 추후 정책 방안 마련에 참고할 만하다.

McDonald(2000:16)는 출산율에 영향 미치는 각국 정부의 주요한 정책수단(toolbox)을 재정적인 혜택(Financial incentives), 일과 가족을 연계하는 부모지원(Support for parents to combine work and family), 아동과 부모를 지원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Broad social change supportive of children and parents)의 3가지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광범위한 사회 적 변화 안에는 고용기회 확대(Employment initiatives), 아동친화적 환경의 조성(Child-friendly environments), 성평등 구현(Gender equity), 결혼에 대한 지원(Marriage and relationship supports), 아동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 사회분위기 조성(Development of positive social attitudes towards children and parenting) 등을 포괄하였다. 즉, ‘아동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 사회분위기 조성’, 긍정적 육아문화의 조성이 주요한 정책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음이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의 공통점 중 하나는 ‘아동과 육아에 대한 긍정성’이다. 최근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와의 면담에서 ‘환대(歡待)’라는 표현이 나왔다. ‘반겨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을 사회 전체가 반겨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문화의 조성이 그 지향점이다.

38)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 해외육아정책동향의 내용을 문장으로 정리함.
http://www.kicce.re.kr/kor/reference/01_02.jsp?mode=view&idx=27883&startPage=30&listNo=1084&code=trend02&search_item=&search_order=&order_list=10&list_scale=10&view_level=0

또 다른 공통점은 육아문화가 육아의 대상인 아동은 물론, 아이를 기르는 부모와 가족의 행복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함이다. 육아문화의 조성은 가족단위의 접근 또 그 가족이 생활하는 지역사회 단위의 접근이 중요함이다.

4.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제언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의 조성을 위해서 앞서 [그림 Ⅵ-1-1]에서 제시한 2019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긍정적 부분을 유지하고, 부정적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내용을 살펴보면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연결되어짐을 알 수 있다. 즉 동일한 부분의 정책 실행과 체감정도에 따라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인식되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9 우리사회 육아문화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들은 육아에 대한 가치, 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양육지원, 직장문화, 육아 관련 비용, 보육교육 서비스 등으로 수렴된다.

제언을 제시함에 기본이 되는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의 조성의 방향성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선하여 아동을 존중하는 사회로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의 권리 존중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돌봄에 대한 가치부여,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향성에 기초하여 정책 실행의 주체별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역할을 중심으로 그 조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

중앙정부는 관련 정책의 수립을 통해 정책수요자와 문화 구성원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의 중장기적 계획에 준한 꾸준한 추진이 필요하다.

문화의 변화는 구성원의 생활 안에 정책이 녹아들어 일상으로 체감 가능할 때 비로써 변화로 구현되는 것이다. 성평등 육아가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덴마크 고용노동부의 경우 현재까지도 육아휴직을 위한 캠페인 지속 중임을 알 수 있었다.

육아는 여자의 일이라는 전통적인 남녀 역할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존재하여 남자답게 떠나라('Leave-Take it like a man!')는 표현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을 독려하고 있었다.

정책수요자, 육아문화의 구성자들은 중앙정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 추진이 문화 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노력이라고 강조하였다.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육중장기 계획 시 육아문화 개선 명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육중장기 계획 등이 수립되고 추진되고 있지만 집권 정부의 정책 기조에 관계없이 꾸준히 지속해야하는 기본원칙 중 하나로 긍정적 육아문화의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본 연구결과에서 젠더 불평등, 그리고 일-가정 양립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비교적 비중 있게 드러난 바, 이와 관련된 정책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방안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의 주요 정책과제로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문화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적 접근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교육 기회의 확대와 캠페인 추진이 주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문화의 전환뿐 아니라 정책을 뒷받침할 국가 재정의 확보도 중요하다.

긍정적 육아문화 형성의 필요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

응답자 열 명 중 아홉 명은 사회적 합의, 정책적 노력으로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고, 이에 대한 집단 차이도 보이지 않아 이는 연령이나 성별, 결혼여부, 맞벌이 여부, 가구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이에 동의하였다. 문화의 변화가 많은 시간을 요한다고 하지만 사회적 합의, 정책적 노력으로 변화 가능하다는 생각이 보편적이라는 결과 자체가 그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1) 기업 등 사회적 파트너와의 협업추진

효과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와 협업 뿐 아니라 기

업 등의 사회적 파트너와 협업 추진 또한 필요하다. 특히 직장에서의 육아를 응원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러한 협업이 필수적이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 선정 등은 이러한 사례가 된다.

2) 육아친화적 지자체 선정 및 홍보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육아친화적 지자체를 선정하고 그 주요 정책이나 사업의 내용을 공유 홍보하여 확산한다.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단하여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을 선정하여 발표하는 것이다.

3) 대중교통에 육아하는 가정을 배려한 시설 설치와 스티커 부착

버스와 지하철에 임산부와 노인을 위한 지정석이 있지만 어린 자녀를 동반한 배려는 부족하다. 노인석에 영유아 자녀 동반가족이 함께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제도화와 더불어 안내 홍보와 자리에 스티커를 붙여 표시하는 배려도 요구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정이 생활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주체이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실천적이고 접근 가능한 정책의 지원과 실행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가족 지원정책은 관(官) 주도성을 특징으로 한다. 마을이나 지역사회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관 주도적 접근(Top down 방식)에 지나치게 익숙해 질 경우 부모, 이웃, 마을, 지역사회가 역량을 강화하기 어렵고 자칫 정책만능주의에 빠질 우려도 있다.

문화의 변화는 탑다운(Top down)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의 자발적 접근이 활성화된 바텀업(Bottom up) 방향의 변화가 가능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내 시설의 설치 시 아이와 육아하는 가정을 배려한 설계와 이용 기회를 확대한다.

육아문화가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족에게 잘 맞게 조성되었음을 일상 안에서 체

감되는 부분이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 느낄 수 있었던 우리와의 차이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이용, 유모차의 이동이 전혀 어렵지 않은 도로의 정비, 식당에 마련된 아이들을 위한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족에 대한 배려 등이며 이러한 부분이 사회 안에, 일상 안에 자연스레 녹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키즈존(No kids zone)같은 곳은 없었고, 지역사회 공공 공간에서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족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제공되고, 육아 시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모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있음이다. 이러한 일상적인 배려는 온 사회 구성원들이 육아하는 가족을 응원하고 있음이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족에게 체감되고 있었다.

1) 지자체 중심으로 육아하는 가정 참여 프로그램 운영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양육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 내 육아하는 가정을 위한 할인 요금 적용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상점이나 편의 시설 이용 시 육아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할인 기회를 주는 제도가 운영되기도 한다.

3) 노키즈존(No kids zone) 줄이기 캠페인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소를 줄이고 가능한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 이용가능한 장소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에스키즈 존(Yes kids zone)의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중요한 것은 모든 곳이 육아하는 가정이 접근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노키즈존(No kids zone) 줄이기 캠페인을 기획하고, 많은 시설의 참여를 독려한다.

육아하는 가정을 위한 네트워크의 형성을 지원한다.

육아하는 부모들은 지역 및 동네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육아모임이 있고 활성화되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덴마크의 아빠들의 놀이터(Fars Legestue)는 육아하는 아버지들을 위해 시에서 마련한 네트워크 형성의 장(場)이다. 일주일에 한번 씩 구마다 마을도서관, 체육관 등의 공공장소를 이용하여 촉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놀이터지기를 파견하여 3시

간 정도 운영되는 형태이다. 이 때 간호사가 함께 파견되어 1시간 동안의 양육 상담도 지원한다. 시에서 파견하는 놀이터지기는 공간의 조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곳에서 형성된 관계가 자녀양육이라는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하는 친구로 발전하여 서로의 육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이는 육아로 인한 고립감을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참여함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주민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또 다른 주도적 참여를 가져오는 바텀업(Bottom up) 방향의 변화 사례이다.

1) 육아정(育兒亭) 설치

빅데이터 분석에서 '독박육아', '혼자' 등의 주제어가 두드러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 및 동네를 기반으로 하는 육아공동체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그 대안으로 육아정(育兒亭)의 설치를 제언한다.

지자체 내의 공공장소(도서관, 체육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를 활용하여 육아하는 가정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아빠들의 놀이터를 그 예로 삼을 수 있다. 특정장소를 정례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이를 지역주민에게 안내하는 것이다.

2)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 운영

지자체를 중심으로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즈 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한다. 육아관련 소통의 장이 필요하며 육아 당사자들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육아문화 개선에 한 부분임을 확인하였다. 육아존중문화 확산을 위해서 사회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이러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지속적인 모임, 모아진 의견을 정부나 지자체와 소통 할 수 있는 공청회나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 활동은 이러한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다. 방송 등 미디어의 역할

방송 등 미디어는 여론의 형성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 효과적인 도구이다. TV, 대중매체 공익광고 등을 활용하여 분위기의 조성을 도모할 수 있다.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을 도모한다.

본 과제를 SBS와 협동으로 3년간 추진하고자 한다. 연구의 착수 단계부터 연구의 목적을 공유하고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의 조성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고 협업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국외 사례,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워크숍, 설문조사 결과 등 연구결과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논의하였다. 11월 22일 SBS 희망TV 155편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에 본 연구의 결과가 종합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림 Ⅵ-4-1] SBS 희망TV 방영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육아존중문화 가치의 확산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공중파 중심의 시청에서 다양한 영상미디어로 미디어 채널이 확대 변화되는 시점임을 알 수 있었다. 공중파 이외에 케이블 방송, 유튜브, SNS, 검색 채널 등까지 포함하여 시청자의 특성을 고려한 육아준중문화, 육아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 확산 및 홍보가 필요하다.

라. 기타

육아를 응원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일본에서 육아하는 부모를 응원하는 스티커를 제작 배포했다는 보도[39]를 접하

였다. 이 스티커를 포함한 육아 응원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운용한다는 보도이다. 스티커 오른편에는 웃는 아이 얼굴이 있고, 그 왼편으로는 “We♥, 울어도 괜찮아”라고 적혀 있다. 사람들은 이 스티커를 아기 부모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스마트폰 뒷면이나 노트북에 붙여두고 다닌다고 한다.

본 과제에서는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워크숍에서 도출된 응원의 메시지와 표어 등을 토대로 다섯 가지를 선정하여 티코스터(컵받침)와 에코가방을 제작 배포하기로 하였다. 다섯 가지 선정 문구는 ‘Yes, Kids’, ‘응애(愛) 응애(愛)’, ‘유아차 먼저’, ‘육아하는 당신을 응원 합니다’, ‘울어도 괜찮아요’ 등이다.

제작된 티코스터(컵받침)와 가방은 육아정책연구소 행사를 통해 안내하고 배포하고, 향후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들을 통해 2차년도와 3차년도 연구 추진과정에 지속적으로 배포하려한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소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개발된 다음의 디자인을 연구소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무료로 배포하며, 지자체나 기업 등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그림 Ⅵ-4-2] 육아 응원 캠페인 홍보물(에코가방, 티코스터(컵받침))

39) 국민일보(2017.9.9.) “노키즈존? 일본선 "아기 울어도 괜찮아" 스티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43407(2019. 8. 9. 인출)

5. 향후 추진계획

본 연구는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행복한 '육아' 인식과 부-모 공평공동 책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육아 문화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하여 긍정적 '육아' 인식을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총 3개년 협동연구이다. 3개년의 추진 계획은 1장에 제시한 [그림 Ⅰ-1-1], [그림 Ⅰ-3-1]과 같다.

2019년 1차년도에는 우리사회 육아문화를 진단하여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구체화하여 그 주요 접근점이 직장에서의 육아문화 개선과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육아문화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2020년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 추진한 육아문화 진단을 토대로 아동과 부모가 존중받는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전환을 직장을 중심으로 모색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직장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한 육아지원 제도 등을 조사한다. 휴가제도, 유연근로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환경조성 등 제도와 관련 법적 기초를 조사한다. 둘째, 직장 내 육아문화를 진단한다. 결혼과 출산, 육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직장 내 육아 문화인식을 파악하고, 또한 이러한 인식의 기초가 된 물질적, 비물질적, 제도적, 비제도적 영향 요인을 분석한다. 이는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의 참여토론과 심층면담, 설문조사 등을 병행하려 한다. 셋째, 국내외 기업 중 긍정적 육아문화가 구축된 사례를 수합하여 시사점을 찾는다. 이를 토대로 직장 내에서 결혼과 출산, 육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되는 부정적 요인들을 발굴하여 제시하고 이를 제거해나가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출된 개선방안을 롯데와 CJ 등의 기업체와 협력으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려한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자영업 환경에서 육아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도 검토하려 한다.

참고문헌

권미경·이정원·최효미·김혜진(2016). 육아문화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16-39.

권미경·최은영·김나영·김혜진·임준범(2016).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16-16-01.

김동훈·이재희·이혜민(2017).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Ⅰ).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7-33.

김미라(2014). TV 매체에 재현된 새로운 남성성(masculinity)과 그 한계: 주말 예능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 88-96.

김미선·이가영(2016). 미디어 재현에 나타난 남성성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정치학: 〈삼시세끼: 어촌편〉 서사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1(3), 97-137.

김은설·최혜선(2008).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센터 연구보고 2008-06.

노영주(1998). 초기 모성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류정아·김준호·김지은·김희정·정다애·정찬영(2018). 성평등 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시연구. 2018-07.

문무경·조숙인·김정민(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6-21.

박창현·김나영·이유진(2018). 4차 산업혁명 시대 육아정책의 이슈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8-20.

박언하(2017). 노르딕 4개국의 보육정책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6(6), 513-527.

서동희(2008). 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육아문화와 기업의 사회적 공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2), 173-181.

송태민·송주영·진달래(2014).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터넷 중독 위험예측 모형. 보건사회연구, 34(3), 106-134.

양미선(2017). 덴마크 보육·유아교육 정책 동향. 육아정책연구소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20.

오명옥·나은경(2018). 저출산 시대 육아 리얼리티 텔레비전이 결혼·출산 및 가정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중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한 중국 시청자의 인식과 변화. 글로벌문화콘텐츠, 34, 93-114.

우형진(2006). 문화계발이론의 '공명효과'(resonance effect)에 대한 재고찰: 위험인식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6), 254-276.

이숙현·권영인(2009). 기업의 가족 친화적 문화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일-가족 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1(1), 1-28.

이용규·정경일·이종수(2000). Geert Hofstede의 조직문화 비교방법의 비판적 고찰.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7-21.

이윤진·김아름·임준범(2016).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6-16.

이주림·구자훈(2013). 육아환경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의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3(3), 385-412.

이하정(2005). 조모세대와 모세대간 자녀양육문화 변화에 관한 질적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4(1), 141-167.

장교식(2010).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50, 273-293.

장령령·홍현진(2014). 학술지 중요도와 키워드 순서를 고려한 단어동시출현 분석을 이용한 독서분야의 지적구조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1), 295-318.

조화순·김정연(2012). 소셜미디어의 매체 특성과 참여의 커뮤니케이션: 반값등록금 관련 블로그와 트위터 내용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9(2), 95-130.

최은영·최효미·이혜민(2018).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Ⅱ).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8-24.

최효미·유해미·김지현·김태우(2016).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6-19.

한희정(2014).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수용과 부성경험: 〈아빠! 어디가?〉 (MBC)의 대학생 수용자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2(1), 145-170.

Bronfenbrenner, U.(1981).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Harvard University Press.

Fiske, A. P. (2002). Us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o compare cultures-A critique of the validity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s: Comment on Oyserman et al. (2002). Psychological Bulletin, 128(1), 78-88.

McDonald, P. (2000). The "toolbox" of public policies to impact on fertility–a global view. Annual Seminar 2000 of the European Observatory on Family Matters, Low Fertility, families and Public Policies, Sevilla (Spain), 15-16 September 2000.

Peterson, R. A.(1979) Revitalizing the culture concept. Annual Review of Sociology, 5, 137-166.

Tylor, E. B. (1924). Primitive Culture. Primitive culture (7th ed.). New York, NY: Brentano's.

【참고 사이트】

국민일보(2018.11.7.). 맘카페 등 공동구매품 불법유통·허위광고 적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30450&code=11131100&cp=nv (2019.10.10. 인출)

국민일보(2017.9.9.) "노키즈존? 일본선 "아기 울어도 괜찮아" 스티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43407 (2019.8.9. 인출)

국민일보(2019.9.24). 아동수당 만 7세로 확대…500세대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747839&code=61121111&cp=nv (2019.10.10. 인출)

뉴시스(2019.1.24). 세계 유일 '출산율 0명' 국가되나… 지난해 0.97명 잠정.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24_0000539616&cID=10899&pID=10800(2019.3.8. 인출)

문화일보(2018.7.5). 출산율 제고보다 '워라밸 개선' 초점… 정책 '패러다임 전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7050107030

3016001 (2019.10.10. 인출)

서울신문(2019.3.22). “영유아 사교육비, 2015년 이후 5년만에 50% 상승”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22500098&wlog_tag3=naver#csidx03463b61cf7046e884760282ac006f8 (2019.10.10. 인출)

세계일보(2019.3.30). 황혼육아 떠밀리는 ‘할미할빠’ 고충 누가 알아줄까? http://www.segye.com/newsView/20190329502210?OutUrl=naver (2019.10.10. 인출)

시사저널(2017. 4. 12). ‘욜로족’을 아시나요?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456 (2019.3.8. 인출)

연합뉴스(2019.1.17). 산모 4명중 3명 산후조리원 이용…평균 2주간 221만원 지출 https://www.yna.co.kr/view/AKR20190116160100017?input=1195m (2019.10.10. 인출)

육아정책연구소 해외육아정책동향(2019.5.14) http://www.kicce.re.kr/kor/reference/01_02.jsp?mode=view&idx=27883&startPage=30&listNo=1084&code=trend02&search_item=&search_order=&order_list=10&list_scale=10&view_level=0 (2019.10.28. 인출)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https://www8.cao.go.jp/shoushi/shoushika/family/vision/pdf/gaiyo.pdf (2019.10.28. 인출)

조선비즈(2017.5.4). 불황 모르는 아동제품...'골드키즈' 덕분에 백화점 웃는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04/2017050401029.html (2019.10.10. 인출)

조선일보(2019.8.22). 직장인 아빠 2명 중 1명은 "승진보다 육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2/2019082200348.html (2019.10.10. 인출)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tatId=1962001&themaId=A#SelectStatsBoxDiv

(경로: 통계청 KOSIS-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부분- 총조사인구-표본(20%) -여성,아동(20%표본) 사용) (2019.7.10. 인출)

한겨레(2019.7.28).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자 첫 20% 돌파.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3619.html#csidx36204366cb6d9208013f943f1b676c1 (2019.10.10. 인출)

한국일보(2019.4.18). "신생아 젖병 세제였는데…" 에티튜드 유해성분에 불안한 엄마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81148767685?did=NA&dtype=&dtypecode=&prnewsid= (2019.10.10. 인출)

OECD 홈페이지. https://data.oecd.org/earnwage/gender-wage-gap.htm (2019.7.20. 인출)

【참고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3조(정의) 1항.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4조(성년).

Abstract

A Study on a Paradigm Shift Towards a Culture that Respects Parenting and Raising Positive Awareness on Parenting Culture(I)

: Analysis and Issues of Parenting Culture

MeKyung Kwon, Mugyeong Moon, Youngmin Kim

As the negative perception of parenting is becoming prevalent and problematic, this study, three-year collaborative research, aims at laying the foundation for positive awareness on parenting by promoting a paradigm shift toward a culture that values child-rearing, requires equal parental responsibility for child care, and encourages parent's work-family balance.

In the first year of the study, the current parenting culture is examined and analyzed. Based on the analysis, researchers find room for improvement to create a culture that respects and values parenting.

This study premises that the current culture of parenting has three aspects. First, the negative part of the child care culture is greatly highlighted rather than the positive. Second, there is a lack of consideration for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in the workplace and despite the existing work-family balance policy that is designed to support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parents find it difficult to take advantage of it. Third, there is gender inequality in parenting within the family, community, and society.

To conduct extensive research, from defining the culture of parenting to providing an outline for a culture that respects parent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re employ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ncludes literature review, in-depth interviews with parents with young children, workshops with Parenting Culture Creators, a case study of Norway and Denmark parenting culture, and policy seminars with scholars and experts.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includes big data analysis in social media and a survey of 1,000 participants between the ages of 20 and 40.

The three assumptions —the negative side of parenting culture, lack of consideration for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in the workplace and society, and lack of gender equality in child care within family and community— stated in this study are identified by the findings of big data analysis in social media, the discussion brought up at the workshop, and survey results.

The negative aspects of parenting culture are attributed to workplace culture lacking consideration for child care, the shortage of reliable ECEC institutions, devalued parenting, and excessive cost in child care. On the other hand, the emotional support given by family members, the joy that children bring to parents, family's support in child care, reliable ECEC institutions, safe neighborhood, and government support in ECEC result in enhancing the positive aspects of parenting culture.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ongoing policy efforts will allow a paradigm shift to a positive parenting culture. This change can take place when policy and culture that support parenting are set up in the workplace and gender equality in child care is achieved at the family level.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we suggest to state improvement of parenting culture in government's mid- and long-term goals, establish a partnership with social partners such as companies, promote child and family-friendly local government, place facilities for the family with young children in public transportation.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expanding community facilities that are designed for families and children and the opportunity for use of facilities are recommended. Also, offering local government-based

programs that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families and their children, offering discounts for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within the community, campaigning for the reduction of no-kids-zone, opening a community center for parents with children, and running the Parent Culture Creators are suggested.

In the private sector, participating in TV program production can reach a social consensus for fostering a culture that respects parenting and promoting the positive side of parenting culture. To share the importance of culture that respects parenting, YouTube, social network services, and web searching channels, as well as broadcasting channels, can be adopted. In addition, distributing promotional items that contain a supportive message for parenting to child-care relevant institutions, parents, and the public can be effective in achieving positive awareness of parenting.

부록

부록 1. 육아문화 크리에이터 모집 공고 포스터

부록 2. 육아 관련 문서 내 소분류별 주제어 출현빈도(1,000회 이상 출현 주제어)

육아 관련 문서 내 소분류별 주제어 출현빈도(1,000회 이상 출현 주제어)

순위	육아		영유아				출생순위		연령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육아	1,286,887	아이	1,014,516	장애아동	7,111	둘째	76,018	생후	6,342
2	자녀양육	65,290	아기	331,434	형제	6,825	첫째	38,473	갓난쟁이	5,478
3	육아생활	7,997	자녀	135,438	누나	6,347	셋째	18,744	9개월	4,133
4	부모됨	1,083	아들	114,660	키즈	5,992	첫째아이	12,362	두돌	3,183
5			자식	78,186	남매	5,680	셋째아이	7,627	0세	2,519
6			아동	51,632	여아	5,156	장남	6,525	다섯살	1,869
7			영유아	33,895	공주	4,823	막내	5,890	젖먹이	1,708
8			신생아	31,235	자매	4,806	큰아이	3,820	세살	1,097
9			동생	26,650	손녀	4,025	둘째아이	3,713	이른둥이	1,095
10			언니	23,197	연년생	4,004	둘째아들	2,000		
11			어린이	21,635	세아이	3,901	첫째딸	1,937		
12			쌍둥이	20,185	다둥이	3,548	둘째딸	1,782		
13			유아	18,565	두아들	3,001	큰아들	1,433		
14			남아	14,496	형아	2,187	큰딸	1,370		
15			손주	12,895	꼬맹이	1,881	작은아이	1,292		
16			영아	11,221	왕자	1,875	첫째아들	1,147		
17			딸래미	11,099	아들딸	1,542	둘째자녀	1,100		
18			두아이	10,594	세자녀	1,362				
19			오빠	9,545	늦둥이	1,340				
20			조카	8,446	세쌍둥이	1,267				
21			손자	8,141	외동	1,224				

순위	신체운동		언어인지		사회정서		애착		특수아동발달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성장	40,376	언어	13,329	자존감	11,104	애착	10,290	장애	9,605
2	발달	23,937	인지	8,519	성향	10,274	애착형성	3,565	사시	3,750
3	체중	14,544	호기심	4,912	정서	9,962	분리불안	1,397	ADHD	2,124
4	울음	7,360	지능	3,257	기질	8,532			자폐	1,949
5	신체	6,975	언어발달	2,228	고집	6,812			발달장애	1,883
6	울음소리	5,705	두뇌	1,952	사회성	4,941				
7	걷기	2,890	옹알이	1,930	낯가림	1,792				
8	뒤집기	2,501	창의성	1,389	엄마껌딱지	1,459				
9	유치	2,248	기억력	1,116	껌딱지	1,396				
10	걸음마	1,973			정서발달	1,371				
11	신체발달	1,566			감정조절	1,353				
12	신장	1,553			사회성발달	1,123				
13	기기	1,329			자기주장	1,090				
14	소근육	1,164								

순위	부모		조부모		베이비시터		친인척		일상적 돌봄: 일반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엄마	409,315	부모님	48,546	베이비시터	17,698	이모	7,942	사진	92,400
2	남편	318,053	시댁	32,292	산후도우미	3,420	삼촌	5,116	육아일기	70,778
3	아빠	241,053	할머니	27,119			고모	1,892	대화	27,399
4	부모	208,282	친정	26,097			숙모	1,372	반응	26,688
5	아내	177,429	친정엄마	19,731					웃음	16,170
6	가정	97,162	시어머니	18,544					식사	16,029
7	가족	89,093	할아버지	15,420					목욕	11,360
8	부부	87,150	어머님	10,865					낮잠	11,102
9	미혼모	85,530	조부모	8,680					미소	8,124
10	맞벌이	42,494	장모님	5,830					상호작용	5,975
11	워킹맘	24,245	외할머니	5,170					대변	5,096
12	육아맘	12,335	시부모님	4,768					유기농	3,986
13	육아대디	11,553	시아버지	8,156					의사소통	3,841

14	주양육자	10,735	황혼육아	2,684					잠투정	3,287
15	애엄마	10,560	장인어른	2,248					샤워	3,103
16	한부모	9,847	시월드	1,829					밤잠	2,735
17	애아빠	8,012	양가부모님	1,309					먹거리	2,558
18	학부모	6,365	외할아버지	1,225					소변	3,695
19	외벌이	4,017							먹이기	2,433
20	직장맘	1,941							식습관	2,560
21									친환경	2,185
22									통잠	2,172
23									재우기	2,058
24									편식	2,029
25									토닥토닥	1,888
26									양치	1,497
27									자장가	1,164
순위	**일상적 돌봄: 영아**		**일상적 돌봄: 유아**		**건강위생**		**놀이 및 여가**		**학습**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모유수유	33,186	간식	10,112	건강	72,122	놀이	31,577	학습	121,072
2	분유	20,905	사탕	1,571	감기	11,314	여행	26,405	영어	9,779
3	이유식	20,853			건강검진	8,496	노래	17,065	음악	9,360
4	모유	11305			예방접종	8,089	만들기	15,505	독서	7,106
5	수면교육	3,854			아토피	5,080	해외여행	8,152	숫자	3,507
6	밤중수유	2,968			면역력	4,851	산책	6,325	사교육	3,291
7	직수	2,422			설사	3,112	나들이	5,180	한글	3,121
8	유축	2,231			콧물	2,943	물놀이	3,052	글자	3,100
9	완모	1,796			알레르기	2,798	소꿉놀이	1,728	책육아	2,718
10	수유텀	1,673			비타민	2,758	가족여행	1,503	미술	2,278
11	단유	1,507			유산균	2,625	캠핑	1,474	과학	2,198
12	배변훈련	1,370			변비	1,931			수학	1,991
13	등센서	1,114			항생제	1,881			학습지	1,563
14	베이비마사지	1,015			영양제	1,752				
15					독감	1,732				

16					태열	1,689				
17					중이염	1,573				
18					해열제	1,565				
19					땀띠	1,532				
20					영아산통	1,496				
21					수족구	1,420				
22					장염	1,290				
23					고열	1,243				
24					발진	1,217				
25					구토	1,126				
순위	생활지도 및 훈육		역기능적육아		의례		육아관련가사노동		육아용품: 일반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이해	58,289	차별	22,904	선물	32,082	집안일	166,976	비용	49,323
2	설명	31,529	학대	19,450	돌잔치	9,145	살림	24,912	장난감	26,891
3	칭찬	24,609	무시	17,262	생일	8,762	가사노동	19,428	육아용품	22,530
4	보호	19,654	안아키	14,897	출생신고	8,180	요리	19,096	제품	14,715
5	존중	14,098	아동학대	14,781	추석	6,054	정리	17,280	카시트	10,455
6	훈육	12,777	폭행	6,623	백일	4,804	청소	16,408	모자	10,242
7	격려	7,395	폭언	5,600	크리스마스	4,544	빨래	15,286	침대	9,527
8	설득	3,780	통제	5,426	한복	2,552	시장	13,558	물티슈	8,230
9	훈계	2,053	욕설	3,331	어린이날	2,541	설거지	7,033	인형	6,591
10	인내	1,991	체벌	2,699	생일파티	2,424	쇼핑	5,834	그림책	5,962
11	가정교육	1,494	무관심	2,573	케이크	1,755	소독	2,860	신발	5,875
12			유기	2,223	산타할아버지	1,517	집안살림	1,068	공구	4,451
13			과보호	1,448	성장앨범	1,146	장보기	1,042	로션	3,985
14			때리기	1,192	200일	1,084			양말	3,021
15					설날	1,051			크림	3,021
16									칫솔	2,746
17									비누	2,626
18									세제	2,601
19									바지	2,503

20									동화책	2,402
21									교구	2,224
22									숟가락	2,181
23									변기	1,785
24									마스크	1,718
25									CCTV	1,626
26									교재	1,617
27									치약	1,499
28									샴푸	1,490
29									공기청정기	1,427
30									놀잇감	1,351
순위	육아용품: 영아		육아용품: 유아		육아용품: 미디어기기		육아정보		육아에 따른 경험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기저귀	27,393	로봇	3,208	TV	25,790	정보	59,715	양육비	267,574
2	유모차	25,958	전집	1,971	스마트폰	8,623	경험	35,943	이혼	90,104
3	아기띠	8,888	레고	1,375	핸드폰	8,292	소통	18,612	노동	18,497
4	젖병	8,807	웨건	1,368	컴퓨터	5,794	육아법	16,163	산후우울증	11,784
5	바운서	3,377	블루래빗	1,040	라디오	2,997	조언	14,119	통증	10,056
6	모빌	2,678			노트북	1,064	상식	11,337	육아스트레스	9,085
7	쪽쪽이	2,574					수다	7,142	부부싸움	5,498
8	속싸개	2,382					노하우	7,059	수면장애	2,781
9	포대기	2,303					꿀팁	4,872	가출	2,360
10	힙시트	2,253					비법	2,670	후유증	2,202
11	보행기	2,121					육아팁	2,395	트라우마	1,668
12	유축기	1,816					경험담	2,204	육아우울증	1,358
13	천기저귀	1,583					동지	1,733	몸살	1,236
14	치발기	1,468					입소문	1,421	허리통증	1,205
15	빨대컵	1,404					육아고수	1,123		
16	젖병소독기	1,283					육아선배	1,041		
17	액상분유	1,178								
18	기저귀가방	1,133								
19	아기옷	1,128								

순위	이웃, 동네		보육교육기관		사교육기관		육아지원서비스기관:기관		육아지원서비스기관:서비스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친구	47,424	어린이집	127,377	학원	5,774	육아종합지원센터	9,896	상담	44,287
2	공동육아	20,668	유치원	34,084			공동육아나눔터	4,100	치료	27,520
3	동네	16,461	보육	17,930			육아정책연구소	2,137	부모교육	15,281
4	이웃	7,135	원장	14,888			건강가정지원센터	1,961	자녀교육	4,213
5	마을	6,859	적응	13,210			장난감도서관	1,803	임신육아교실	1,226
6	단지	6,739	보육교사	8,05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97	대화법	1,086
7	또래	6,257	국공립어린이집	7,980			아동보호전문기관	1,076	아빠학교	1,057
8	품앗이	2,049	보육시설	7,715					발달검사	1,017
9	또래아이	1,198	등원	6,450						
10	이웃집	1,188	하원	5,571						
11			직장어린이집	3,647						
12			국공립	3,479						
13			가정어린이집	2,970						
14			사립유치원	2,015						
15			등하원	1,581						
16			공동육아어린이집	1,240						
17			급식	1,096						
18			보육비	1,062						

순위	공원,녹지		문화		복합상업		보건의료		직장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놀이터	8,542	영화	28,486	마트	7,499	병원	37,442	경력	66,916
2	공원	3,714	키즈카페	9,471	호텔	6,634	산후조리원	26,283	직장	63,333
3	수영장	2,801	공연	9,120	백화점	5,492	보건소	6,576	회사	62,582
4	놀이동산	1,361	도서관	6,724	쇼핑몰	3,317	소아과	4,600	복직	44,648
5			문화센터	6,365	이마트	2,436	한의원	3,522	근로시간	32,088
6			뮤지컬	3,911	홈플러스	1,791	응급실	2,568	경력단절	31,601
7			박물관	2,149	롯데마트	1,632	치과	1,231	출근	18,565
8			영화관	2,039	대형마트	1,514			퇴근	18,264
9			장난감도서관	1,803	롯데백화점	1,475			휴직	18,147

10									야근	14,439
11									회식	8,778
12									단축근무	4,333
13									경단녀	3,078
14									워라밸	3,074
순위	육아방송		육아서적		온라인채널 및 관련 트렌드		보육교육정책		일가정양립지원정책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SBS	17,571	육아서	12,666	카페	56,390	정책	70,253	육아휴직	255,426
2	KBS	10,696	우리엄마	2,919	블로그	26,902	제도	35,677	출산휴가	36,234
3	MBC	8,751	똑게육아	1,830	인터넷	26,572	양육수당	28,647	육아휴직수당	12,492
4	육아예능	6,330	안아줘	1,219	네이버	25,009	아동수당	21,131	고용제도	12,208
5	송일국	5,931	코코	1,215	포스팅	20,729	아이돌봄서비스	12,704	남성육아휴직	8,897
6	기태영	5,147			트윗	18,782	맞춤반	9,507	유연근무제도	3,864
7	양동근	4,876			게시글	18,403	종일반	6,970	아빠의달	2,013
8	나은	4,851			육아블로그	12,438	누리과정	3,711		
9	로희	4,222			트위터	10,908	아이행복카드	3,434		
10	이휘재	3,999			SNS	10,879	복지로	3,100		
11	조이	3,952			맘카페	8,853	보육정책	2,096		
12	윌리엄	3,650			육아스타그램	6,810	무상보육	2,096		
13	뽀로로	3,414			유튜브	5,799				
14	슈퍼맨이 돌아왔다	3,408			맘스홀릭	1,817				
15	대박이	2,972			팟캐스트	1,547				
16	이동국	2,764			애스타그램	1,502				
17	유진	2,724			토크쇼	1,146				
18	승재	2,664								
19	고지용	2,473								
20	오은영	2,452								
21	스파이더맨	1,278								
22	레이	1,079								

순위	부모역할		육아가치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젠더관련이슈		나라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독박육아	133,839	능력	31,594	눈치	21,851	여자	578,512	우리나라	152,812
2	혼자	114,387	변호사	28,225	노키즈존	7,878	남자	323,524	나라	135,840
3	역할	33,698	공무원	23,750	가족친화	2,370	참여	88,018	사회	84,229
4	모성애	11,218	가치	22,237	아동복지	1,034	책임	87,399	정부	60,114
5	라테파파	8,754	의사	20,598			분담	30,206	미국	30,935
6	부성애	5,675	교사	18,349			남녀	22,258	프랑스	26,123
7	육아전쟁	3,916	박사	8,714			페미니즘	20,512	지역	21,165
8	좋은엄마	2,655	외모	8,099			한남	18,591	독일	20,123
9	좋은아빠	2,221	연예인	6,952			성평등	12,218	덴마크	14,179
10	육아퇴근	1,693	가수	6,703			전업주부	12,157	문재인	8,526
11			양육태도	6,481			모성	6,047	이민	2,646
12			근육	5,894			성역할	5,258	헬조선	2,263
13			날씬	5,362			딸바보	3,675		
14			부자	4,570			슈퍼맘	3,253		
15			재능	4,218			현모양처	2,625		
16			판사	2,602			전업맘	1,901		
17			신념	1,926			젠더	1,783		
18			장수	1,055			아들바보	1,264		
19							비출산	1,017		

순위	환경		시간		경제		임신출산		나이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환경	35,905	시간	120,319	소득	80,317	출산	273,226	나이	57,214
2	육아환경	4,973	시기	40,097	생활비	16,609	결혼	270,524	세대	14,679
3			주말	36,371	경제	12,568	임신	174,103	고령화	4,621
4			미래	21,490			저출산	65,341		
5							피임	21,362		
6							임신중절	20,621		
7							정관수술	1,847		

부록 3. 긍정적 육아문화 연구 설문조사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연구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소에서는「육아존중 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I)」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본 조사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귀하의 인식과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향후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작성 및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내용 관련:

Ⅰ. 우리사회 육아문화에 대한 인식

❊ 육아문화는 아이를 기르는 행위와 과정에 대한 것으로 이를 위한 물리적 환경, 정책과 제도, 사회적 규범과 관습, 가치관, 언어 등의 육아와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 평소 생활에서 경험하는 육아와 관련된 문화에 대한 귀하의 인식을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육아와 관련된 문화 중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물리적 환경(수유실, 놀이터, 유모차 접근가능 시설 등)
   - □ ② 정책과 제도(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시간제보육 등)
   - □ ③ 사회적 규범, 관습, 가치관(가정양육중시, 부모역할기대, 교육관 등)
   - □ ④ 언어(맘충, 독박육아, 슈퍼맘 등)
   - □ ⑤ 기타(　　)

2. 우리사회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정을 배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긍정적 육아문화에 대한 점수를 준다면, 귀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00점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 (　　점)/100점

   2-1. 우리사회의 육아문화와 관련된 각 항목에 대해 귀하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 ① 어린 아이와 아이가 있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배려 □(　점)/100점
   - □ ② 가정 내 양성 평등한 육아문화(부부 공동의 육아참여) □(　점)/100점
   - □ ③ 직장 내 육아문화(육아휴직 사용, 육아기 직원에 대한 배려 등) □(　점)/100점
   - □ ④ 각종 육아정보에의 접근성 □(　점)/100점
   - □ ⑤ 육아비용(보육 및 교육비, 의복비 등) □(　점)/100점
   - □ ⑥ 어린 아이와 아이가 있는 가족을 위한 인프라(수유실, 놀이터, 유모차 접근가능 시설 및 대중교통 등) □(　점)/100점
   - □ ⑦ 어린 아이와 아이가 있는 가족을 위한 건강 및 의료시설(병원, 보건소 등) □(　점)/100점

3. 귀하는 현재 우리사회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좋지 않은 환경이다(☞3-1)
□ ② 대체로 좋지 않은 환경이다(☞3-1)
□ ③ 비교적 좋은 환경이다(☞3-2)
□ ④ 매우 좋은 환경이다(☞3-2)

3-1.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현재 우리사회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① 안전하지 않은 사회
□ ② 아이를 기르는 일에 대한 가치 절하
□ ③ 직장의 육아에 대한 배려 부족과 제도 이용의 어려움
□ ④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의 어려움
□ ⑤ 과도한 양육비용 (사교육비 포함)
□ ⑥ 가정의 부부간 협력적 육아 부재
□ ⑦ 병원 및 의료시설의 부족
□ ⑧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간(놀이터, 공원 등) 부족
□ ⑨ 좋지 못한 자연환경(공기의 질, 수질 등)
□ ⑩ 기타( )

3-2.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현재 우리사회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 ① 비교적 안전한 사회
□ ②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대한 사회의 지지
□ ③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이용 시의 국가 지원
□ ④ 직장에서의 육아에 대한 배려 및 제도 마련
□ ⑤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용이
□ ⑥ 가정의 부부간 협력하여 육아 가능
□ ⑦ 이용이 편리한 병원 및 의료시설
□ ⑧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간(놀이터, 공원 등) 제공
□ ⑨ 좋은 자연환경(수질, 공기 등)
□ ⑩ 기타( )

4. 다음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우리사회의 육아관련 현상입니다. 귀하는 우리사회의 육아문화 일면인 다음의 각 현상이 어느 정도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주십시오. 또 관련 현상이 긍정적 측면인지 부정적 측면인지 해당하는 곳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각 현상에 대한 평가					육아문화로의 성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1. 최근 아버지의 적극적 양육 참여가 증가하는 경향이다.							
2. 아이를 기르는데 조부모(친가, 외가 포함)의 도움(돌봄 지원 또는 경제적 지원 포함)은 필요하다.							
3. 자녀 출산 시에는 산후조리원의 이용이 보편화 되고 있다.							
4. 육아 정보의 홍수 속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힘들다.							
5. 온라인, 인터넷(지역맘 까페)을 통한 육아관련 정보공유가 활발하다							
6. 우리 사회의 육아관련 소비는 다분히 과소비적 측면이 있다.							
7. 남성의 육아휴직이 증가하고 있다.							
8. 영유아 대상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다.							
9.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10.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은 양적으로 많다							

5. 다음은 '아동'와 '육아'에 관련된 우리사회의 일부 의견을 서술한 내용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각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응답해주십시오.

내용	매우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두 돌이 되지 않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아이들 입장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Kids Zone)은 필요하다				
3. 공공장소, 음식점 등에서 아이가 울거나 뛰는 것은 당연하므로 어른들이 참아야 한다				
4.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카페에 모인 엄마들을 보면 양육자의 역할을 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5. 대중교통 이용 시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6. 예전에 비해 요즘 엄마들은 아이를 키울 때 희생을 하지 않으려 한다				

II. 가정 내 육아문화에 대한 인식

❋ 가정 내 육아문화란 육아와 관련한 남편과 아내의 역할분담, 아이 기르는 것에 대한 부부의 생각이나 가치관 등에 대한 것입니다.

※ 가정 내 육아문화와 관련한 귀하의 경험을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해 평상 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시는 대로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귀하의 가정에는 부부의 평등한 육아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점수를 준다면 귀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00점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 (　　)점/100점

7. 부부의 육아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7-1. (비양육자 응답 제외) 현재 부부의 육아참여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전체 육아참여를 100이라고 할 때 실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육아참여비율을 각각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　　)%　+　아버지 (　　)% = 100%

7-2. 귀하는 이상적인 부부의 육아참여 비율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전체 육아참여를 100이라고 할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육아참여비율을 각각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　　)%　+　아버지 (　　)% = 100%

8. 다음은 귀하의 육아에 대한 생각을 묻는 내용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당하는 곳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비교적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1) 아이를 키우는 것이 행복하다.				
2)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치 있다.				
3) 아이를 키우는 것에 자신이 있다.				
4) 아이를 키우며 아이 자체가 주는 기쁨이 크다.				
5) 아이를 키우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다.				
6) 아이를 키우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스럽다.				
7) 아이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				
8) 부모로서의 양육책임을 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9. 다음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육아 관련 내용입니다.

9-1. 다음의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귀하의 육아 양상은 어떠한지 해당하는 곳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비교적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남성응답자)/ 내 배우자는(여성응답자)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한다.				
2) 아이를 기르는데 조부모(친가, 외가)의 도움(돌봄 지원 또는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				
3) 육아 정보의 홍수 속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				
4) 온라인, 인터넷(지역맘 까페)을 통한 육아관련 정보를 얻는다.				
5) 육아 시 과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6)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7)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은 다양하지만 나에게 맞는 것을 찾기가 어렵다.				

9-2. 다음의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귀하의 육아 양상은 어떠한지 해당하는 곳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예	아니오
1) 자녀 출산 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다.		
2) 부성육아휴직을 (배우자가) 사용했거나 사용할 예정이다.		
3) 영유아 대상 사교육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다.		

10. 귀하는 가정 내 육아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족 내 공평한 육아참여 실현
□ ② 남녀 부모 역할기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③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등) 사용 보편화
□ ④ 부모의 양육관 및 교육관에 대한 다양성 인정
□ ⑤ 육아에 대한 과소비적 문화 지양
□ ⑥ 기타 ( )

Ⅲ. 직장 내 육아환경 및 문화에 대한 인식

* '육아'와 관련된 직장 내 분위기와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외벌이인 경우에는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장을 기준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평상 시 생활에서 경험하시는 대로 솔직하게 답하여 주십시오.

11.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께서는 회사나 조직에서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계십니까?

□ 예 □ 아니오

12. 귀하의 직장은 육아에 가치를 두고 지지적인 육아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귀하의 직장에 대한 육아환경 및 문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00점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 ( )점/100점

12-1. 귀하의 직장 내 육아환경 및 문화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에 대해 귀하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① 육아기 직원에 대한 직장 동료의 인식 □(점)/100점
□ ② 육아하는 직원에 대한 상사의 인식 □(점)/100점
□ ③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점)/100점
□ ④ 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점)/100점
□ ⑤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점)/100점
□ ⑥ 육아비 지원 □(점)/100점
□ ⑦ 육아기 직원을 위한 편의 시설(수유실, 기저귀 갈이대 등) 설치 □(점)/100점
□ ⑧ 육아기 직원과 가족을 위한 문화 행사 제공 □(점)/100점
□ ⑨ '가족 사랑의날' (매주 수요일 여성가족부 지정)의 정시 퇴근 실천 □(점)/100점

12-2. 귀하의 직장 동료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육아휴직은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며 쓸 수 만 있다면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 ② 육아휴직은 전체 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 ③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나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가능하면 쓰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한다.
□ ④ 기타(　　)

13. 다음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입니다.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의 인지정도와 그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지의 활용여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인지정도			활용여부		
	전혀 알지 못한다	들어 본적은 있다	잘 알고 있다	해당 없음	이용	미이용
	1	2	3	1	2	3
1. 출산 전·후 휴가제도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인 경우 120일)의 휴가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						
2.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부인의 출산 시 5일의 범위에서 남성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처럼 완전히 쉬는 것은 아니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						
4. 육아휴직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부모 각각 1년씩 휴직할 수 있는 제도						
5. 시간제 근로제도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짧게 근로하는 제도						
6. 시차출근제(선택적 근로시간제 포함) 근로자가 출퇴근에 시차를 두거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7.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이 많은 주(일)에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에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법정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						
8. 재택근무제 1주일에 하루이상을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						

14. 귀하는 직장 내 육아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언론 홍보
□ ②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사용 의무화
□ ③ 회사 경영진의 인식 개선
□ ④ 동료 간 육아친화적 분위기 조성
□ ⑤ 남녀 임금격차 해소
□ ⑥ 기타 ( )

Ⅳ.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요건

※ 우리의 육아문화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이 공존합니다. 육아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정적 요소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육아문화 조성을 위해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들을 모집하였으며, 이들은 20대와 30대 약 30여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5월 이들과 함께 우리의 육아문화를 진단하는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터들은 우리의 육아문화에 대한 부정적·긍정적 요소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의 질문은 이들이 제시한 요소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다음은 우리사회에서 육아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 요소들입니다. 귀하는 제시된 부정적 요소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해당하는 칸에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5점이 가장 동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정적 요소	동의 정도				
	1점	2점	3점	4점	5점
1. ‘아이’에 대한 배려 부족은 육아를 어렵게 한다.					
2. ‘아이 기르는 일’에 대한 가치 저평가는 육아를 어렵게 한다.					
3. 양성 불평등한 사회분위기는 육아를 어렵게 한다.					
4. 아이를 키우는 구성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직장 문화는 육아를 어렵게 한다.					
5.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부족은 육아를 어렵게 한다.					
6.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비용지원 부족은 육아를 어렵게 한다.					

7.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시설 및 공간 부족은 육아를 어렵게 한다.					
8. 육아환경의 위험성 증가(미세먼지, 수질오염 등)는 육아를 어렵게 한다.					
9. 육아용품에 대한 과소비는 육아를 어렵게 한다.					
10. 영유아 대상 사교육 증가는 육아를 어렵게 한다.					

15-1. 이외에 귀하가 경험했거나 생각하시는 '현재 육아문화의 부정적 요소'가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16. 다음은 우리사회에서 육아를 즐겁게 하는 긍정적 요소들입니다. 귀하는 제시된 긍정적 요소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해당하는 칸에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5점이 가장 동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긍정적 요소	동의 정도				
	1점	2점	3점	4점	5점
1) '아이'가 주는 기쁨, 아이의 존재 자체가 육아를 힘나게 한다.					
2)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육아를 힘나게 한다.					
3) 가족의 양육 지원이 육아를 힘나게 한다.					
4)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육아를 힘나게 한다.					
5)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등과 같은 비용지원이 육아를 힘나게 한다.					
6)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등)이 육아를 힘나게 한다.					
7) 출산, 육아 관련 지역사회 내 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등)가 육아를 힘나게 한다.					
8) '00맘' 같은 온·오프라인 소통 공간 증가가 육아를 힘나게 한다.					
9) 육아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증가가 육아를 힘나게 한다.					
10) 육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캠페인 등)이 육아를 힘나게 한다.					

16-1. 이외에 귀하가 경험했거나 생각하시는 '현재 육아문화의 긍정적 요소'가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17. 다음은 부정적 육아문화에서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의 내용 중 귀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 ①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배려, 존중
□ ② 가정 내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
□ ③ 육아휴직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등의 육아 관련 제도의 안착
□ ④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의 확보
□ ⑤ 가족이 함께하는 육아 실현
□ ⑥ 지역사회 내 지원적 양육 환경(놀이터, 지원센터, 정보 제공 등) 구축
□ ⑦ 기타( )

18. 현재 우리사회에서 '아이'와 '아이 기르는 일'을 중심으로 형성된 육아문화는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귀하는 사회적 합의, 정책적 노력 등을 통해 긍정적 방향으로 육아문화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9. 귀하는 다음의 내용 중 우리사회가 긍정적 육아문화로 변화하기 위해서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적 노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언론을 통한 캠페인 확대
□ ② 중앙정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 추진
□ ③ 지자체 중심의 육아친화적 요소 발굴 및 정책에의 반영 노력
□ ④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육아친화적 환경 개선 노력
□ ⑤ 직장내 육아친화적 문화 조성 노력
□ ⑥ 육아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수요자(부모, 예비부모 등)들의 의견 수렴
□ ⑦ 부모의 자녀 양육과 관련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
□ ⑧ 기타 ( )

V. 응답자 특성

1. 귀하의 연령은 무엇입니까?
   □ ① 20대 □ ② 30대 □ ③ 40대

2. 귀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성 □ ② 남성

3.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① 대도시(특별시 및 광역시)
   □ ② 중소도시(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 시 소재)
   □ ③ 읍·면 지역

4. 귀하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 ① 예 □ 아니오

5. 귀하는 맞벌이 가정입니까?
   □ ① 예 □ 아니오

6.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 ① 예 (___명) (☞ 6-1) □ 아니오

   6-1. 자녀의 연령은 어떠합니까?(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 ① 영아(0세 ~ 만 2세) □ 유아(만3세 ~만 5세) □ ③ 초등학생

7. 귀댁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200만원 미만 □ ② 200만원 ~ 300만원 미만
   □ ③ 300만원 ~ 400만원 미만 □ ④ 400만원 ~ 500만원 미만
   □ ⑤ 500만원 ~ 600만원 미만 □ ⑥ 600만원 ~ 700만원 미만
   □ ⑦ 700만원 ~ 800만원 미만 □ ⑧ 800만원 ~ 900만원 미만
   □ ⑨ 900만원 ~ 1000만원 미만 □ ⑩ 1,000만원 이상

8. 귀하께서 평소 가장 자주 이용하시는 SNS는 무엇입니까?
□ ① 블로그(티스토리, 이글루스, 포스트 등)
□ ② 까페
□ ③ 카카오톡
□ ④ 인스타그램
□ ⑤ 페이스북
□ ⑥ 네이버밴드
□ ⑦ 기타(　　)

8-1. 귀하께서 **육아**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이용하시는 SNS는 무엇입니까?
□ ① 블로그(티스토리, 이글루스, 포스트 등)
□ ② 까페
□ ③ 카카오톡
□ ④ 인스타그램
□ ⑤ 페이스북
□ ⑥ 네이버밴드
□ ⑦ 기타(　　)

8-2. 귀하께서 평소 육아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자주 이용하시는 SNS는 _____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블로그 또는 까페의 구체적인 이름을 기입해주십시오.
(　　)

9.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검색채널은 무엇입니까?
□ ① 다음(Daum)
□ ② 네이버(Naver)
□ ③ 구글(Google)
□ ④ 기타(　　)

10. 귀하께서 평소에 가장 자주 시청하시는 영상미디어는 무엇입니까?
□ ① 공중파 방송 (KBS, SBS, MBC 등)
□ ② 케이블 방송
□ ③ 유투브
□ ④ 기타(　　)

◈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Ⅰ)
: 육아문화 분석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3590
9 791190 485265
ISBN 979-11-90485-26-5